황태연 <미래를 보는 주역(周易)강의>

목 차

제 1강 : 주역(周易)의 역사

◆ 1교시 : 주역(周易)에 관한 의견 p.6
▲ 주역에 대한 의견 대립
▲ 『주역』의 두 의견에 대한 공자의 입장
▲ 『주역』과 점
▲ 『주역』의 역할

◆ 2교시 : 주역의 사상(四象) p.10
▲ 주역의 역사적 전통
▲주역과 한국역사
▲음양(陰陽), 사상(四象)

◆ 3교시 : 주역의 팔괘(八卦) p.15
▲ 팔괘(八卦)
▲ 무의식과 주역
▲ 초월적 지식의 중요성

제 2강 : 주역(周易)의 방법

◆ 1교시 : 주역의 효(爻)와 뽑는 법 p.18
▲ 효(爻)
▲ 괘를 뽑는 방법

◆ 2교시 : 『주역』(周易) 뽑는 법 p.22
▲ 서법(筮法)
▲ 서(筮)의 11단계

◆3교시 : 『주역』(周易)의 동효(動爻)와 변효(變爻) p.25
▲ 동효(動爻) 변효(變爻)
▲ 동효(動爻)
▲ 괘를 다시 뽑을 수 있는 경우

제 3강 : 동양의 신탁, 주역(周易)

◆ 1교시 『주역』(周易)의 변괘와 서양사상의 흐름 p.29

▲ 변괘 2
▲ 서양사상의 흐름

◆ 2교시 : 서양과 동양의 신탁 ① p.35
▲ 칸트(Immanuel Kant)
▲ 서양의 신탁
▲ 동양의 신탁, 주역

◆ 3교시 : 서양과 동양의 신탁 ② p.40
▲ 동양의 신탁
▲ 서양의 신탁

제 4강 : 실증주역 머리말

◆ 1교시 : 실증주역 머리말 p.43
▲ 고증과 논증을 통한 주역의 해석

◆ 2교시 : 중수감(重水坎) ① p.46
▲ 중수감(重水坎) ①

◆ 3교시 : 중수감(重水坎) ② p.50
▲ 중수감(重水坎) ②

◆ 4교시 : 풍지관(風地觀) p.53
▲ 풍지관(風地觀)

제 5 강 : 화천대유火天大有

◆ 1교시 : 화천대유(火天大有)① p.59
▲ 중수감괘
▲ 화천대유(火天大有) 풀이

◆ 2교시 : 화천대유(火天大有) ② p.64
▲ 화천대유(火天大有) 풀이

제 6 강 : 중천건(重天乾)

◆ 1교시 : 중천건(重天乾) ① p.69
▲ 중천건(重天乾)

◆ 2교시 : 중천건(重天乾) ② p.77

▲ 중천건(重天乾) 해석

◆ 3교시 : 중천건(重天乾) ③ p.82
▲ 중천건(重天乾) 해석

제 7 강 : 중지곤(重地坤)

◆ 1교시 : 중지곤(重地坤) ① p.87
▲ 중천건의 변괘 택천쾌
▲ 중지곤(重地坤)

◆ 2교시: 중지곤(重地坤) ② p.90
▲ 중지곤(重地坤)

◆ 3교시 : 중지곤(重地坤) ③ p.94
▲ 중지곤(重地坤)

◆ 4교시 : 점을 치는 이유 p.98
▲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 5교시 : 중지곤(重地坤) ④ p.101
▲ 중지곤(重地坤)

제 8강 : 수화기제(水火既濟) 와 화수미제(火水未濟)

◆ 1교시 : 수화기제(水火既濟) ① p.103
▲ 수화기제(水火既濟)

◆ 2교시 : 수화기제(水火既濟) ② p.106
▲ 수화기제水火既濟 풀이

◆ 3교시 : 화수미제(火水未濟) ① p.109
▲ 화수미제(火水未濟) 풀이

◆ 4교시 : 화수미제(火水未濟) ② p.112
▲ 화수미제(火水未濟) 풀이

제 9강 : 천택리(天澤履) 와 풍뢰익(風雷益)

◆ 1교시 : 천택리(天澤履) ① p.116
▲ 천택리(天澤履) 풀이

◆ 2교시 : 천택리(天澤履) ② p.120
▲ 천택리(天澤履) 풀이

◆3교시 : 풍뢰익(風雷益) p.122
▲ 풍뢰익(風雷益) 풀이
▲ 택천쾌(澤天夬)

제 10강 중화리(重火離)와 수뢰준(水雷屯)

◆ 1교시 : 중화리(重火離) ① p.132
▲ 중화리(重火離) 풀이

◆ 2교시 : 중화리(重火離) ② p.136
▲중화리(重火離) 풀이

◆ 3교시 : 중화리(重火離) ③ p.140
▲ 중화리(重火離) 풀이
▲ 직접민주주의의 위험

◆ 4교시 : 수뢰준(水雷屯) ① p.145
▲수뢰준(水雷屯) 풀이
▲수뢰준(水雷屯) 서례 1
▲수뢰준(水雷屯) 서례 2

◆ 5교시 : 수뢰준(水雷屯) ② p.151
▲ 天風姤(천풍구)와 이순신
▲ 수뢰준괘 풀이

제 11강 : 산수몽(山水蒙)과 지수사(地水師)

◆ 1교시 : 산수몽(山水蒙) p.156
▲ 강의 계획
▲ 산수몽(山水蒙)

◆ 2교시 : 지수사(地水師) ① p.161
▲ 지수사(地水師)

◆ 3교시 : 지수사(地水師) ② p.166
▲ 지수사(地水師)

제 12 강 : 수지비(水地比)와 지풍승(地風升)

◆ 1교시 : 수지비(水地比) p.169
▲ 수지비(水地比)

◆ 2교시 : 지풍승(地風升) p.174
▲ 지풍승(地風升) 풀이

◆ 3교시 : 서양과 동양의 신에 대한 관점 p.178
▲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차이

제1강 : 주역(周易)의 역사

◆ 1교시 : 주역(周易)에 관한 의견

▲ 주역에 대한 의견 대립

『주역』은 동양의 지혜가 담겨진 보고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체가 철저하고 완벽한 체계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입문하기 힘들어요. 많은 책들이나 의견들이 너무 분분해서 초학자로서는 가닥을 잡기가 어렵고. 기원전 1800년 길게는 2000년 때에 처음 만들어져서, 따지면 4000년이 넘는 거죠, 4000년 동안 글 내용이 고정된 형식으로 전해진 유일한 신탁서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신탁서. 주역은 일단 상과 말 중에 말이 중요하고 상은 그 밑받침이 되겠다.

『주역』을 가지고 크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옛날에 주역 책이 점(占)을 치기 위해 발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점도 일상인들의 생활상의 점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정책을 결정하는데 쓰인 점(占)이에요. 국가의 중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점(占)이 쓰였는데 하나는 거북점, 다른 하나는 주역 점, 서(筮)점이라고도 합니다. 서(筮)자는 무당 무(巫)를 밑에 써서 주역으로 숫대의 점을 칠 서(筮)라고 합니다. 주역으로 점을 칠 때만 서(筮)를 써요. 거북으로 칠 때는 거북구(龜)자를 쓰고요. 보통 복(卜)자로. 점은 다른 것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복(卜)과 서(筮)로 나누어집니다. 거북으로 치는 것은 복(卜)이고 주역으로 점치는 것은 서(筮)다.

'『주역』은 점서 책이다' 라는 주장, 즉 『주역』은 점(占)책으로서의 관점과 철학책이라는 의리(義理)철학(哲學)책, 두 개의 관점이 대립한다. 물론 발생은 점 책으로 되었지만, 어떤 점(占)이든 미래에 대한 충고나 권고, 그 이유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무당이 치는 점도 '이번 달 술 먹지 마시오'라고 나오잖아요. 항상 행위와 관련된 실천철학적 권고를 담고 있어서 의리(義理)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이유를 말해줘야 하니까 그 안에 나름대로 이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이 주역 책을 해석하는데 오랜 세월 대립해왔어요.

거기에 가장 불타는 의문이 공자님의 『주역』인데, 『주역』이라는 것이 대학 노트 4페이지면 주역의 원문은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수만 권의 해석 서가 누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10개의 해석을 달았는데 십익(十翼)이라고 해요. 날개 익(翼)을 써서. 너무 작은 주역 원문이 너무 어렵고 무거워서 못나니까 날라고 날개를 열 개 달아줬는데 십익이라고 합니다. 십익 이래로 무수한 해석서가 쏟아졌어요. 아주 놀랄만한 일이죠. 사실 주역 원문은 얼마 되지 않아요. 16페이지 밖에 안 되는 그 문장에 수십만 권의 해석서가 나왔다는 건 기가 막힌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이 그만한 내용이나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고 논란도 많다는 뜻입니다.

공자 [孔子, BC 551~BC 479]

▲『주역』의 두 의견에 대한 공자의 입장

공자님은 '점 책이나 의리 책이냐'에 대해 어떻게 봤을까. 그런데 **공자님은 여러 접근을 해보면, 점 책이자 의리 철학책으로 본 거예요. '동시에 두 개의 기능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점만 계속 쳐도 공자님은 경계를 했어요. 또 의리 철학 쪽으로만 가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나중에 노자사상에 근접해 있었던 왕필이라는 사람이, 의리 철학인 현학의리(玄學義理)학파에 조종이 된 분인데, 모든 점 기능을 제거한 현학의리 철학으로써의 주역해석을 내놨습니다. 왕필주(王弼周)라는 주역 책인데, 정이천이 그 계통을 이어받아요. 그것에 대해 주희는 '의리 철학으로 주역을 해석하면 별도의 철학을 하지 주역과 관련시킬 필요가 있는가. 옳지 않은 것이다. 주역은 발생에서부터 점서 책이었고 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의리 철학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주역』의 모든 효사(爻辭)내용 괘사(卦辭)내용은 철학적인 내용을 앞에 쓰고, 다음에 점을 칠 때는 길흉을 말하죠. 뒤에 것(괘사 내용)은 점사(占辭)라고 하고 앞에 것(효사 내용)을 상사(象辭)라고 하죠. 상사는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길흉은 점의 내용이고. 두 개가 이미 효사내용에 두 개가 이미 다 들어 있으니 점과 의리 철학을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공자님은 점을 쳤는가. 이게 불타는 논쟁이 돼요. 2,700여 년 동안 유학자들 사이에서 점을 절대 안 쳤다는 얘기에서부터 점을 쳤다는 얘기까지. 그런데 실제로 1971년에 중국 장사의 마왕퇴라는 둔덕에서 한나라 때 귀부인의 묘가 발굴되었는데 74년에 나온 걸 보면 아주 희귀한 고문서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비단에 썼어요, 백서(帛書)라고 하는데. 백서도덕경도 나오고 백서 주역도 나오고 공자님이 제자들과 대화한 논어에 안 들어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자공과 공자와 입씨름하는 내용이 나와요. 서로 정곡을 찌르면서 붙는데, 거기서 자공이 "공자님 젊었을 때는, 지모(智謀)가 모자란 자 즉 머리가 모자란 자는 점을 많이 친다고 가르쳐서 그것이 올바른 입장인 줄 알고 지금까지 좌우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왜 나이 드시더니 맨날 점서 책『주역』만 쳐다보고, 앉아 있을 때는 탁자 앞에 그걸 두고, 나갈 때는 행낭에 가지고 다니시고 왜 그러십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변명을 합니다. "내가 국가의 사무라고 하는 국가 점쟁이들의 행위와 같을지 몰라도 내가 점을 쳐서 얻는 것은, 가는 길은, 끝까지 추적하는 도(道)는 다르니라." 자공이 가만히 보니 이 양반이 약간 궤변을 떠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물어봐요. "선생께서 그 점을 믿으십니까." 라고 정면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님이 "오백 점이 칠십 단, 내가 백번 치면 칠십 번이 맞더라. 그것을 따르는 경우도 많았느니라. 그게 길하면 따르고 길하지 않으면 그 길로 안가는 방식을 취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 대신 "군자는 덕행을 통해 구복을 하는 것이지 점을 통해서 구복하는 건 아니다. 덕행을 더 쌓는 게 좋다." 덕행을 많이 쌓으면 점치는 횟수는 줄어들 거라고 해요.

실제로 점을 많이 치면 점이 안 맞아요. 덕행을 쌓아 일단 진인사(盡人事)를 하고, 인간적 노력을 다하고 그 진인사의 차원에서 대천명(待天命)을 넘어 지천명(知天命)을 하려고 하면,

대천명은 자기일 해놓고 하늘의 판단을 맡기는 거지만 자기 일 해놓고 하늘의 뜻을 알면 대천명을 넘어서는 거죠. 지천명보다 한 차원 넘어가는 것은 순천명(順天命)이죠. 순천명은 천명에 순응하는 거죠. 공자님도 50이 지천명이라고 했죠. 60은 이순(耳順). 귀로 천명을 순응해서 들었노라. 70은 마음대로 해도 천명에 어긋나지 않더라고 자신이 70대에 회상한 거죠. 7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지천명의 나이를 50이라 보고. 논어의 마지막 요왈(堯曰)편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부지명(不知命)이면 무이군자야(無以爲子也)' 즉 '천명을 모르면 군자일 수 없다.'이런 말을 해요. 이전에는 맨날 점도 보지 말고 신(神)도, 괴력난신(怪力亂神), 즉 신에 대해 생각하기도 싫고 하늘에 대해서도 말하기 싫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논어에 많습니다. 이건 젊었을 때 얘기고 그러나 나이 들면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구분할 때도 군자는 '천명(天命)을 두려워하는 자이고 소인은 천명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다.'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천명으로 가르게 됩니다.

군자는 언제부터 천명을 알게 되었느냐. 그리고 왜 지천명이라고 했느냐. 조사를 해보면 45세부터 『주역』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어가면 얼마나 읽었는지, 옛날에는 책을 대나무죽간(竹簡)을 가죽으로 묶었어요, 가죽으로 묶은 것이 너무 열심히 봐서 세 번이 끊어져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 위편삼절(韋編三絶)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두질한 가죽이 세 번 끊어진다는 뜻. 그때쯤 자공과 논쟁이 붙은 것 같아요. 장사(長沙)의 마음과 백서(帛書)의 마음을 연결시키면 그게 요(要)편이라고 했어요. 그편 이름이 요(要)에요. 요편을 보면, 자공이 하도 이상하니 선생님이 변했으니까 문제를 거는 거죠. "왜 도대체 젊었을 때 나한테 가르친 것과 다르게 맨날 『주역』만 끼고 삽니까. 도대체 당신 말만 듣고 좌우명으로 살았는데 헛살았습니까." 하는 항변이에요.

자공이야 말로 공자 제자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고 외교가로서는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공자가 돌고 오면 흔적도 없는데 제자가 돌고 오면 왕이 바뀌고 재상이 바뀌고 회오리바람이 될 정도로 변설에 뛰어난 제자였어요. 돈도 잘 벌어서 천금을 벌어요. 안회처럼 가난한 제자만 둔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말년에 대단한 부자가 돼요. 학당의 교장, 학장을 임명했는데 옛날에는 쌀 몇 되로 고민한 상황에, 한 달 월급으로 학장 월급을 800석을 줍니다. "너무 많아서 안 받으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논어에. 제자 맹자는 더 성공을 해서 맹자의 재력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맹자는 4두 마차 30대를 움직여요. 거기에 300여 명의 추종세력들이 따라다니고. 단기 필마로 오는 거죠. 수십 명의 종자가, 노비들이 따라다닐 정도니까 대단히 출세한 학자가 되는데. 공자, 맹자가 실은 잘살았던 사람입니다. 안빈낙도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상이지, 본인이 다 쓰는 게 아니죠. 돈은 많은 게 좋은 거죠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인 거지. 자기는 학당의 이사장이 된 셈이고 학장에게 800석을 줄 정도면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

하여간 두 가지 해석방향에서 공자는 중요한 모델이 되는 양반인데 **점(占)과 의리(義理)를 적당히 통합해서 공자의 입장을 이덕희점(以德義占)**이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덕행으로서 점을 줄이는 과점이라고도 하는데. 그렇다고 점치는 것을 폐지하자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석화 시킨다는 뜻으로 희점(稀占)이라고 한 거죠. 주희가 정이천을 막 비판하면서, 점 책임과 동시에 의리 철학을 강조하기 위해 중용적인 것을 강조할 때 공자의 전통

을 다시 살려내려고 정이천에 맞서 싸운 거죠.

▲『주역』과 점

『주역』의 이 대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바로 이대목입니다. 우선 『주역』을 배워서 점을 칠 줄 모르고 점이 안 맞는다는 건 순 엉터리죠. '자기 미래도 모르고 산다.' 자기 운명을 모르면 군자도 아니라고 했죠. 군자는 운명이 흉하더라도 당당하게 그것을 아니까 호들갑 안 떨고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자는 자기 운명의 점을 쳤어요. 하루는 비괘(賁卦)가 나왔어요.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즉 실속이 없고 자기 내부에는 무궁무진한 꿈과 계획이 있지만 산 같은 장애물에 막혀서 실현시키지 못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초췌하게 앉아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궁금해졌는지 다시 점을 치는데 여괘(旅卦)가 나와요. 나그네 괘잖아요. 기대하고 쳤다가 나그네가 나오니까 무려 15년을 망명생활을 하죠. 주유천하(周遊天下)라고 미화를 하지만 고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탈출해요. 제자들을 이끌고, 다른 안전한 나라에서 출사를 모색 하는데, 노나라에서 재상 노릇을 할 때까지는 출세를 했는데 실세는 계 씨이고, 계 씨의 눈에 안 들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요. 허세라는 거죠.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정공이라는 임금을 모셨는데 그 사람도 허세야. 노나라의 실제적인 주인은 계손 씨였단 말이에요. 공자의 모국인 노나라는 주공이 세운 나라인데 환공이래로 삼씨에 의해 장악된 나라였어요.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삼씨는 숙손 씨, 맹손 씨, 계손 씨인데 계손 씨가 전통적으로 재상을 했어요. 계손 씨의 마음에 안 들어 쫓겨났을 때는 비괘였던 것 같아요 추정 상. 쫓겨난 뒤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해서 봤더니 나그네 괘가 나왔으니까. 나그네 생활을 14년 했지요.

공자가 뽑은 괘들이 책에 나오는데도, 공자는 점을 안 쳤다는 교설이 지배적일 때는 공자의 점괘가 나와 있는 책 자체의 정통성을 부인했어요. 그런 책들은 위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71년에 마왕퇴 백서가 나온 이래로 두 개 다 하셨구나. 주희의 이야기가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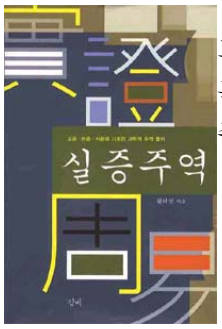
▲『주역』의 역할

첫째, 점을 칠 줄 알아야 된다. 점을 쳐서 맞아야 된다. 점을 쳐서 적중도가 없으면 『주역』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의리 철학은 분명하지만 꼭 주역만 가지고 해야 하나요. 다른 철학에서도 할 수 있어요. 둘을 결합시킨 것에 매력이 있는 것이지 '점을 빼고 의리 철학만 한다 또는 의리 철학을 빼고 점 책을 한다면 주역으로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고 아시면 주역에 입문하는데 어떤 자세로 주역을 해야 할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순서는 주역의 괘를 기초적으로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점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점치는 방법도 논쟁이 엄청 심해요. 주희의 방법이 있고 공자님 방법이 있고 『주역』 책에 원래 나와 있는 십익 방법이 있고 각자 개발한 것도 있고, 수천 개의 각 나라마다 점치는 방법이 다른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내용은 가장 전 세계적이고 독일 사람도 미국

사람도 조선· 중국 사람도 치는 보편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논쟁에 들어가면 머리아파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적중도 있는 방법이 옳은 거죠. 제가 해본 바로는 주희가 하는 방식으로는 적중도가 없어요. 하나도 맞질 않아요. 대단히 복잡하게 『역학괘몽』이라는 책을 썼어요. 번역되어 2권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 읽어보시고 그 방법대로 쳐보세요. 하나도 안 맞아요.



황태연,『실증주역』,
청계

교재로 쓸 것은 『실증주역』인데 책이 비싸서 싸게 살려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4000-5000천원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실증주역』으로 하겠습니다.

◆ 2교시 : 주역의 사상(四象)

▲ 주역의 역사적 전통

우선 주역 자체에 간략한 역사적 대목은 소위 문왕이나 주나라의 문왕(文王)이 주역을 64괘로, 8괘는 이전부터 전해오는 것인데, 8괘를 두 개로 중복으로 64괘로 만든 분으로 알려졌죠. 64괘에 딸려있는 풀이 글이 있는데 그것을 괘사라고 하는데 그 괘사까지 한 걸로. 그 다음 주공(主公)이라는 사람은 6개의 효(爻)가 있는데, 효사(爻辭)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 옳지 않다. 인용하는 사건들을 볼 때 주나라 성립 이전부터, 문왕은 제후국 주나라에 살던 분이고, 주공은 은나라를 타도하고 황제국가, 천자국가 주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이죠. 주공이 죽고 나서 상당한 시기 이후까지 사건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도 여러 학자들이 같이 만들었다고 해석합니다.

학술적 입장은, 문왕 주공도 영향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많은 다른 후학들이 같이 만들었다. 는 정도의 역사적 대목을 알아두시고, 편리하게 '64 괘를 만들고 괘사(卦辭)까지 만들고 효사(爻辭)를 지었다'고 알면 됩니다. 64괘를 괘만 보고 효사 없이도 그걸 맞추는 것은 적중도가 대단히 떨어졌어요. 길(吉)도 여러 가지가 있죠. 원길도 있고 정길도 있고, 바라야 길하다. 착해야 길하다. 대길, 무조건 길하다. 이렇게 길함도 여러 가지인데 뭐가 붙어 있으면 해석을 해주지만, 만약 정길(正吉)이야.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길하겠습니까? 흉하지. 효사가 붙으면서 적중도가 높아졌다. 공자님의 요(要)편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요.

문왕이 괘사를 지은 이래로 주역이 흥했느니라. 주역이 흥했다는 것은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적중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논의는, 거북점은 4백 년 5백 년 단위로 국가의 운명이나 전쟁 이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를 볼 때 썼어요. 그런데 '일 년 뒤에 수십 년 뒤에 내 아들이 커서 왕이 될까요?' 물어볼 때는 서점(筮占)을 썼어요. 춘추좌씨전에는 구장(龜長)서단(筮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북점은 길고 주역 점은 짧다.' 잘못 번역하면 거북점은 잘 맞고 주역 점은 잘 안 맞는다. 시중에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기를 보면, 거북점의 용도와 주역 점의 용도를 써놨어요. 주역 점은 단기간의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하고, 거북점은 멀리 3, 4백년 할 때 써요. 거꾸로 쓰면 잘 안 맞겠죠. 5백 년 뒤의 운명을 주역 점으로 보면 안 맞는다. 거북점을 쳐야 하는데 거북점을 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졌고 치는 방법도 정확히 쓰인 책이 없어요. 주례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알기 어렵고, 점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석에 능한 사람이 없다고 해야죠. 유일하게 주역만이 전해지는 과거의 국가 점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역과 한국역사

역사에 관련해서는, 삼국유사 가락국가에 김질(金叱) 이라는 왕이 있어요. 왕이 여자를 하나 얻었는데 용녀예요. 용녀가 전부 처갓집 식구들만 가락국의 관리를 맡기고 왕이 외척세력에 의해 포위되는 상황이 되니까 많은 현자들이 초야에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박원도라는 사람이 충신인데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하죠. '이 세상의 인재가 많은데 아무리 하찮은 풀이라도 고르고 고르면 좋은 풀을 고를 수 있는데, 인재를 버리고 국가를 운영하느냐' 하니 김질이 자포자기로 말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잖느냐.'

주역 점을 치는 사람인 사(史)가 점을 쳐주는데 뇌수해괘(雷水解卦) 사효(四爻)를 얻어요. 解而拇 朋至斯孚(해이무 붕지사부) 해부하다, 자르다, 풀 해(解), 너 이(而), 엄지발가락 무(拇), 너의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니, 朋至斯孚(붕지사부) 많은 동지들이 와서 따르는 무리들 목을 치더라. 도끼로 쳐내더라. 이런 구절이에요. 왕에게 주면서 해석을 해주며, '쓰시겠습니까.' 사가 말하니 '그렇게 하마' 하며 바로 용녀부터 시작해서 다 잘라요. 용녀는 귀양을 보내요. 2, 30년간 태평성대가 와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삼국유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최초로 나타나는 주역의 실제 점치는 기록이고 효사까지 나와 있는 거죠.

고려사에는 무수히 많아요. 윤관이 9성을 점령할 때 중요한 일들, '여진족하고 전쟁할까요. 평화를 할까요' 를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주역으로 점을 쳐요. '점괘가 나오면 이론이 없기다.' 왕이 선언하고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만든 후 점을 쳤어요. 개전(開戰)을 해도 된다고 나왔는데, 그때도 간신들이 많았는지 대단히 위험한 괘인데 방어를 할 때만 유리한 괘예요. 중수감(重水坎) 괘니까. 보시면 되지만, 나라를 지키는 싸움, 방어 전쟁에서는 유리한데 공격전에서 썼어요. 9성을 쌓았다가 15만 공수부대원을 잃어버려요. 윤관은 삭탈관직이 됩니다. 29번 서례(筮例)를 써놨는데. **첨을 친 사례를 서례라고 해요.**

서례(筮例)를 책 속에 많이 넣었고, 정치인들 점 봐서 써놨는데, 내 말만 들어서는 안 망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려사 안에는 주역에 관한 점괘풀이가 많이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역으로 쳤다는 소리는 나오지 뭘 얻었는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이죠. 충령대군이 주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주변 대신들이 해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영특하게 해석해요 주변 신하들보다. 왕자 시절에 주역을 잘해요. 여기 있던 분들보다는 잘했어요. 세종대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여진 북벌을 할 때 총 사령관한테 내린 교지가 왕조실록에 실려 있는데, 주역 점을 치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점을 안쳐도 안 되고 점을 백퍼센트 믿어서는 안 되지만 점을 반드시 참조해라.' 라고 군사작전할 때 명령해요.

선조대로 가면 진중일기, 난중일기도 있는데 진중일기가 맞는 얘기예요. 진중일기에는 많은 주역 점 사례가 많고 전체 스물 몇 번이 되요. 그냥 점을 치기도 하고 그중에는 원균이 죽는 날 원균이 이순신을 제치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잖아죠? 그 사람의 운명을 2개월 전에 봐요.

水雷屯(수뢰준)괘가 아주 많은 효가 동해서 天風姤(천풍구)괘로 변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자기와 적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놀러 온 신흥수보고 치라고 해서 나온 괘예요. 수레 준은 둔 자를 준으로 읽어요. 나가기 힘들다고 할 때는 준으로 발음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둔으로 발음 하는데 주역에서는 무조건 준으로 발음하는데, 원균은 왜군이 건들고 유인해도 군대를 주둔하고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조정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이순신도 부산포를 공격하지 않아서 적과 내통한 놈으로 되어 역적이 된 상황인데, 원균도 그럴 수 없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11척 남고 11척도 반파된 상황, 배 2척만 도망가고 원균은 작은 섬에 강제 상륙해서 총칼에 맞아 죽어요.

거기서 나온 괘를 보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용극체, 용이 체를 극했으니 너무 많이 동했다. '대흉 대흉'이라고 진중일기에 써놔요. 결과는 삼도의 모든 수군이 대패했고 총사령관도 죽어요. 온갖 많은 이야기들이 주역과 관련된 역사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삼국유사를 보든 뭐를 보든 번역자들이 주역을 아는 바가 없으니까. 북학 삼국유사도 엉터리로 번역해놓고 한국에 나와 있는 아홉 개정도 되는 삼국유사가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주역을 모를 때, 관련된 당시의 세계관과 소통할 수 없으니까 엉터리 번역이 될 수밖에 없죠. 북한은 국력을 기울여서 번역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순 엉터리예요. 나머지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대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고려사도 마찬가지고.

태극기조차도 주역괘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면 안 되겠죠. 정체성이 없는 시민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경에 해당되는 지식들은 쓸모가 있을 것이고.

▲음양(陰陽), 사상(四象)

주역은 수학으로 말하면 2진법으로 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보면 음양(陰陽)의 논리로 되어 있다. 태극(太極) 공자님이 썼다고 알려진 태극, 다른 예기에는 태일(太一)이라고도 써요. 큰 하나인 대일이라고도 쓰고. '우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전체가 몽땅 하나다'라는 월드개념 밖에는 없지요. 막연한 천체의 통째를 태극이라 불렀어요. 큰 하나라고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스인지 카오스인지 따질 것이 없어요. 양의(兩儀)인 음(陰) 양(陽)으로 갈라진다.

음양은 아무리 미시물리학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전자와 양자란 미시세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자와 양자 사이에 중성자와 음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음, 양 하나만 있으면 편파적인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중간자적인 것이 생겨날 때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연이든 어떻든 간에 초현대물리학의 가장 마지막 마이크로로직, 극소 논리와 공유하는 측면이 있어요. 크게도 음양이 있지만 작게도 음양이 있지요.

음양이 하나의 부호로, 한자로 다 쓰려면 복잡하잖아요. **음은 가운데가 떨어진 것으로 --⌣ 양은 긋는 걸로 –** 왜 이런 부호를 썼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런 부호를 써서 상징을 했다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진법에서 라이프니찌는 이걸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매혹되어 수(數)로만 풀이를 하는데 점치는데 도움이 안 되지만 라이프니찌는 수학자 고유한 취향으로 주역을 공부합니다. 참고로 헤겔이나 마르크스는 아주 싫어했어요. 이렇게 찍찍 그어서 어떻게 세상을 맞추느냐하는 무시하는 글들을 읽었는데, 내가 마르크스나 헤겔을 전공해서 알아요. 하지만 라이프니찌나 기타 많은 사람들은 동양의 논리에 심취한 사람이 많았어요.

두 개를 사용해서 몇 개의 콤비네이션을 즉 조립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양(陽)만 두 개만 가지고 쓸 수 있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 ═⌣⌣또 한다면 위가 양이고 아래가 음이고 ═⌣⌣⌣═⌣경우 수를 보면, 이렇게 네 개가 가능하죠.**

–	═⌣	태양(太陽) 너무 양이 많다. 늙은 양,	무례(無禮)
	═	소음(少陰), 젊을 소, 늙은 것의 반대로, 음이 적죠?	무인(無仁)
--	═	소양(少陽)	무지(無智)
	═	태음(太陰), 노음이라고도 합니다.	무의(無義)

부호로 한의학에서 이제마의 사상체질도 이것에 따라 많이 하고, 밑에 바닥이 더 중요합니다. 소음인은 겉은 부드러워요, 속은 대단히 강해요. 외유내강(外柔內剛)형이 소음인이에요. 태양은 외강내강, 다 강한 사람이에요. 둘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태양은 히틀러이고, 소음은 독일인예요. 태양인이 나타나면, 베토벤이나 히틀러가 나타나면 좋아해요. 푹 빠져요. 태양인은 대종교인 아니면 무당이나 정신병원에 많이 있거든요. 소양인은 겉으로는 강경하고 속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태양(太陽)인은 0.005% 한국에 살고, 인도에는 10% 살아요. 브라만은 그 자체가 높은 무당

과 다름없고요. 소음인은 35%-40%정도, 이것은 엽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엽기적인 영화를 누가 보나 하면 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외유내강이라 겉으로는 토끼처럼 얌전해요, 태양인은 오만불손하고 인사할지도 모르고 선배고 후배도. 선배 챙기지도 않고, 버릇이 하나도 없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소음(少陰)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무인(無仁), 절대로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베풀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소양은 반대예요. 자기가 쓰고 들어가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돈도 하나도 없어. 겉으로만 강하고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속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남편 얻으면 틀어잡아야지. 안 그러면 돈 다 써요.

태음(太陰)은 정의로움이 양해요 절대로 앞장서서 정의를 외치지 않아요. 점잖은 사람이에요. 젠틀맨, 숙녀, 영국 사람들은 태음인이 많아요. 소음인이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 일본하고 독일, 소양인은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태음인이 많은 나라는 영국, 영국은 소양인과 태음인이 대부분인데 소양인은 노동당, 태음인은 보수당에 집결해 있어요, 둘이 좋아하듯이 소양인과 태음인은 좋아해요, 보완관계로. 결혼을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남편이 태음인이든 소양인이듯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소양과 소음은 최악이다.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혼안한 경우를 못 봤는데, 싸우다 지쳐서 기질이 녹다운돼 이혼해요. 태양과 태음이 만나도 서로 소,닭 보듯 해요. 둘 다 스케일이 크고 동선이 큰 사람들입니다. 서로 잘 봐줘요. 태양인은 태음인을 씹어요. 태음인은 태양인을 본척만척해요.

조선 후기의 한의학자 (1838~1900). 자는 무평(務平). 호는 동무(東武). 의학을 임상학적인 방법으로 체계화하여 수세보원(壽世保元)의 학설을 창안하고 사상 의학의 시조가 되었다.

이게 이제마의 한의학인데 이 부호가 쓰인 용도가 황제내경에서 많이 썼는데, 이제마는 노양(老陽)이라는 말은 안 쓰고 태양, 태음으로만 썼어요. 나머지 부분은 부호로만 썼지만 서로 호오관계, 체질끼리 서로 맞는가 틀리는가의 관계를 판단할 때는 다시 주역의 논리인 부호와 상징을 잘 보면 왜 잘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인데 항상 아랫것은 내(內)이고 윗것은 외(外)인데 중요한 것은 내이니까 잘 맞아요. 실은 아주 잘 맞아요.

소음(少陰)과 태음(太陰)은 마음이 똑같애, 유순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요. 소양은 겉이 강하기 때문에 용감하죠. 이것은 의(義)가 많아서 의기가 없는 태음인을 보완해줘요. 이끌면 잘 따라가요. 실속이 없어서 노름판에서 날릴 것을 태음인이 보완해줘요.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태를 보고 움직이는 동선이 틀리니까. 소양인은 빠릿한 사람이고 목숨이 열 개라도 부지 못하는 사람이다. 불의한 일만 있으면 목숨을 거는 통에.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손해 보는 사람이 많죠. 의리가 넘치는 소양인한테 의기를 교육시키면 죽으란 줄 알고 몇 번 죽고,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화

시켜주는 수신을 해야 온전한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맹자님의 유학은 천편일률적이죠 이제마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른 교육을 시켜야 군자숙녀가 될 수 있다고 풀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상(四象)까지를 가장 잘 활용한 한의학은 이제마의 한의학이고 자신은 본래는 정치철학자지요. 더 많은 저작이 정치철학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가 주역에서는 도입부에만 쓰이는 겁니다.

◆ 3교시 : 주역의 팔괘(八卦)

▲팔괘(八卦)

여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 가면, 양효(陽爻)를 첨가하면 ☰ 이렇게 되겠죠. 건(乾)이라고 해요. 그런데 위에다가 음효(陰爻)를 첨가하면 ☱ 태(兌), 택(澤).
이동을 시켜서 ☲ 리(離), 자연 상징으로는 화(火)예요.
이제 음효를 넣으면, ☳ 진(震), 뢰(雷), 우레 진, 벼락 진 뜻이 여러 가지예요. ☴ 손(巽), 풍(風) 바람이란 뜻이에요. ☵은 감(坎) 수(水) ☶은 간(艮), 산(山)이고 ☷ 곤(坤), 토(土)예요.

입으로 외우세요. 안 외워지면 벽에 붙여서 저절로 익혀져야지. 돌아서면 잊어요. 자연스럽게 입으로 외워야 한다. 이것을 팔괘(八卦)라고 해요. 팔괘는 두 개씩 겹치면 경우의 수가 64개가 됩니다. 64개는 DNA 뉴런 구조와 일치한다고 해요.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엄청나게 새로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학적으로만 접근해서『주역』을 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점을 치면 맞을까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적중도에 대한 해석에 풀이를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연결되지 않는 한 대목이 있음에도, 사람은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은 진화기간이 긴 존재입니다. 그래서 DNA에 들어 있는 정보와 지식은 인간의 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가령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미물이 태어난 자리로 헤엄쳐서 돌아와요. 본능 차원에 들어 있는 것은 의식 구조로 생각하면 찬탄해 마지않을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지난번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죽었는데 쥐들과 두더지들은 3일 전에 보따리 싸서 도망갔어요. 사람만 30만 명이 피해를 봤지요.

그렇다면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안단 말이냐. 의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의식과 무의식의 부분이 있는데 무의식은 두 개로 다시 나누는데 습관, 습성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다른 하나는 유전자 DNA죠. 이 두 개로 나눠요. 의식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칸트와 헤겔 시대 그것을 붕괴시킨 것이 칼 맑스죠. 의식의 대부분은 이데올로기 의식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릇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식의 90퍼센트 이상을 무력화 시켰어요. 좀 있다가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훨씬 중요하고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죠. 오히려 무의식 입장해서 해독해야 된다고 하죠. 어디까지만 해석했느냐 습성부분의 무의식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어요. DNA는 생물학으로 넘어가는 부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언어, 한국문학 시간, 고등학교 때 문법 하나도 못 배운 일자무식 할머니할아버지들도 한국말 잘하죠. 언어는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그걸 의식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못 하죠 너무 느려서. 생각을 많이 하면 말을 더듬거리고 공자 말씀대로 군자는 말을 더듬는다 했는데. 말더듬이가 군자입니까. 그렇지만 말 더듬는다고 해서 다 군자는 아니죠. 아주 어리석은 문단이 논어에 있는데, 의식은 자동습관이라는 장치의 도움 없이는 군자도 덕행도 할 수 없어요. 중화라는 개념, 중용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때, 용(用)은 항상 쓰는 상용(常用)의 의미예요. 중화는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희노애락미발(喜怒哀樂之未發)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은 것이 위지중謂之中이니라.' 바랐는데 중절, 적절함을 적중시킨 것이 화이다. '중화자中和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요, 화야자和也者는 천하지달도天下之達道也니라.' 한 번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습성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중용이라고 했어요. 용이 상용한다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이 모든 것의 덕을 이루는 것인데 반복해서 습관화해야만 중도가 되어서 덕행이 된다고 했어요. 무의식적으로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중용을 이루는 사람이죠.

▲무의식과 주역

DNA에 더 많은 능력과 지식과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리스어로 로고스는 이성이라는 말도 되고 말(言)도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될 때, 우리나라는 '말씀이 있다'고 했고, 이성의 뜻으로 중국의 성경으로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중국어로 도(道)가 이성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말한다는 뜻이에요. 도가도비상도(道可道 非常道), 도를 말하는 순간 상도가 아니니라. 앞에 것은 도인데, 뒤에 것은 도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불변의 도가 아니다. 어차피 중국말은 로고스와 같이 '이성'과 '말한다'는 말이 들어 있어요. 우리는 말이 이성을 뜻하지는 않죠. 그러나 문장으로 쓸 때는 말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불합리한, 부조리한 인간이란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도 이성을 뜻한다.

언어가 놀랍게도 DNA 차원에 들어있다는 거죠.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DNA차원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DNA는 타고난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습성의 차원에 있어요. 언어를 말하는 능력은 DNA차원에 있는데. 뭘 보면 아느냐. 한국 어린아이 입양한 아이 영어 잘하죠. 우리나라로 입양하면 우리나라말 잘하죠. 그런데 강아지를 껴안고 밥도 먹어도 말 못해요. DNA가 없는 거예요.

인식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이라고 반드시 비이성이 아니다.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언어를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말 속에는 이성이 확실하게 들어있으니까. 로고스와 이성을 등치시킨 것처럼 실제로 언어능력 속에 무의식적, 이성적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많은 동물들이 말할 수 있는 DNA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나는 사람이 훨씬 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

등 미물도 초능력을 발휘하는데 인간이 의식을 많이 사용한 나머지 초능력은 한참 뒤로 후퇴했고 또라이한테만 의존해서 점치고, 무당은 태어날 때부터 막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니까 정상인에 비하면 또라이죠. 그런데 유용한 또라이어서 다른 존재처럼 되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90프로는 의식과 무의식의 애매한 상태에서 '경험지식'으로 쓰고 있다. 노하우know-how라고 하는 것. 의식적인 지식의 일부, 이 일부에 과학적 지식이 있는 거죠. 과학적 지식은 일부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5프로나 차지할까 의심스러운. 대부분은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의 모든 지혜와 정보와 지식은 뼈와 근육과 살 속에 저장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탄지 30년이 지난 뒤, 독일 유학 생활 중에 자전거를 탈줄 아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타봤어요. 만약 내가 머릿속에 외워서 가지고 있었으면 완전히 잊었을거예요. 그런데 근육과 뼛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즉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죠. 무의식화 되도록 끊임없이 도를 닦고 수행하는 이유가 체득, 몸으로 체화시키는 지식은 노하우다. 운전을 하는 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뭐뭐 할 줄 안다'는 것이죠. 과학적 지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한 번 배우면 손발이 마비되지 않는 한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다. **습관화, 습성화된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의식적 학술적 분석과 논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을 지식이라고 하면 과학적 지식은 미신이 되고 만다. 그 미신을 scientism 과학주의, 이데올로기죠. 과학적 지식만 유용하고 나머지는 틀린 걸로 보는.** 과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성적으로 잘 살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과학적 지식의 후예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이미 발견된 지식을 외우고 끝나기 때문에. 자기가 탐구하는 자세가 아니면 과학적 지식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이죠.

▲ 초월적 지식의 중요성

DNA 차원의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태어나서부터 습성화된 정보와 지식이 있을 것이고, **DNA에서는 수백만 년 진화된 생존 정보와 인지능력, 초월적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transcendental 초월적 지식, 의식을 초월했다, 경험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칸트는 선험적이라고도 하는데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순수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 배워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라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식 이전에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 이 지식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DNA를 받고 무의식적 습관화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방치된다면 손해죠. 처음부터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신들린 사람 외에는 정상인들은 할 수 없으니까.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선비들이 『주역』에 의존했어요. 주역은 직업을 바꾸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볼 수 있죠. 공부 열심히 하다가 과거에 될지 떨어질지 몇 년 뒤에나 되겠구나. 서두르지 말고 차분 차분하자. 이렇게 자기 인생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줬기 때문에 오랫동안 애호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가 물은 지식의 적중도를 획득하는가.', '적중도는 왜 생기는가.' 그것과 관련된 배경지식이에요. 인간이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이나 과학적 지식 외에도 본인이 무한대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순전히 한국어를 배운 것으로만 덕택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언어야말로 무의식의 대명사인데 그 무의식이 전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 그 자체라는 사실. 소위 칸트나 헤겔이 타고난 이성이라는 것이 언어능력이에요. 이 언어능력이 바로 『주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주역』은 어떤 것보다도 효사(爻辭)와 괘사(卦辭)인 말씀이 중요해요.**

제2강 : 주역(周易)의 방법

◆ 1교시 : 주역의 효(爻)와 뽑는 법

▲ 효(爻)

말씀을 위주로 상사와 점사가 구성되어 있어서 중요합니다. 곱하기를 하면 64 괘가 되죠. 64 괘는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책을 사서 보세요.

가령 地水師(지수사) 괘가 있다.

䷆ 地水師(지수사)

괘명은 사(師)인데, 옆에 지수(地水)를 붙여서 분명히 해줬죠. 곤괘에도 비슷한 괘가 있어서 앞에 붙여주는데 상효(上爻)가 곤(坤)이죠. 땅을 뜻하는 지(地)죠. 위부터 읽어서 위에 것을 상괘(上卦), 아랫것을 하괘(下卦) 또는 상괘는 외괘 아랫것은 내괘라고 합니다. 상괘의 자연상징의미를 먼저해줘요. 지(地), 아래 자연상징은 수(水)이기 때문에 지수사예요. 사괘는 지와 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부를 때도 같은 발음이 있으니까 불러서 주면 구별이 됩니다.

택수곤을 그냥 곤곤 그러면 발음이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됩니다. 중지곤, 택수곤으로 해야 된다. 이걸 꼭 외워야하는 이유는 책에 64 괘의 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외우고 있어야 무슨 괘를 뽑았는지 알게 됩니다.

음양음음음음을 한자로 쓰려면 어렵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선과 동양에서는 홀수는 남성예요, 양. 짝수는 음수예요. 홀수는 일, 삼, 오, 칠, 구를 나눠서, 구를 양(陽)이라고 생각해요. 하필 칠이 아니고 왜 구를 골랐는가. 밑에서는 고를 수 없죠. 일, 삼, 오는 오효가 있어서 오오를 써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구. 십 이내에 있는 수(數) 중에 제일 높은 양(陽)인 구(九)를 고른 거예요. 음효(陰爻)는 십에서 중간인 수가 이, 사, 육, 팔, 십해야 되는데, 육(六)이 중간이 되니까, 육을 음효(陰爻)로 표시해준다.

괘(卦)		
[redacted]	상효(上爻)	상육(上六)
	오효(五爻)	육오(六五)
	사효(四爻)	육사(六四)
	삼효(三爻)	육삼(六三)
	이효(二爻)	구이(九二)
	초효(初爻)	초육(初六)

두 개를 결합시키면 음효니까 초육이 되죠. 이것은 이효니까 구이, 약속이에요. 『주역』에 있어서 동양적 약속. 여기는 육삼, 육사, 여기는 육오, 여기는 상육, 몇 효냐? 물을 때, 지수사의 상육이 동했다라는 건 마지막 효가 동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화가 가능하죠.

初六, 師出以律 (초륙, 사출이율) 군대는 기율을 가지고 출동하는 것이다. 否臧凶 (부장흉)부장이면 흉하리다. 초육하면서 시작하면서 해석할 필요 없고 그다음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연습하죠.

[redacted] **건괘(乾卦)**, 천이 두 개로 겹쳐있어요. 중천건(重天乾) 이라고 읽어주죠. 또는 乾爲天(건위천) 천이 겹쳐있다는 뜻이 없어서 중천건이라고 하는 걸 권합니다. 여기는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가 되죠.

初九는 潛龍이니 勿用이니라.
九二는 見龍이 在田이니 利見大人이라.
九三은 君子終日乾乾하여 夕若하면 无하니 咎리라.
九四는 或躍在淵하면 無咎리라.
九五는 飛龍在天이니 利見大人이니라.
上九는 亢龍이니 有悔리라.

효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는 대충 아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가 초구가 동했다하면 괘를 뽑아서 초구가 동효(動爻)로 나오는 거요, 동(動)했다는 것은 양(陽)이 오버되어서 음(陰)으로 바뀌려는 거죠. 동하면 바꾸어서 [redacted] **天風姤(천풍구)**로 변했다고 해요. 하나만 바꾸면 천풍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동(動)하면 동그라미를 쳐줘요. 동했다. 하나만 동할 수도 있고, 2개 동할 수도 있고, 6개가 다 동할 수도 있고 난동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원균 운명을 봤을 때 5개가 난동했다 하는데, 한 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요? 안 동할 수도 있죠? 안 동하는 걸 포함해서 몇 개가 있을까요? 밑에만 동하면 천풍구로, 두 번째 동하면 천화동인(天火同人)괘로 동하고 천택리天澤履괘로 변하고 그런 식으로 변해가면 6개까지 동(動)해가면 몇 개가 나올까요? 힌트는 한 괘로부터는 64 괘의 경우의 수가 다 나옵니다.

어떤 괘를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64 괘가 나와요. 어떤 괘든지 동그라미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64 괘로부터는 운명의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올까요? 64*64하면 4,096개의 경우의 수로 운명을 보는데 운명이 왜 저것밖에 없느냐. 유형화시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4,096개의 경우의 수를 평생 뽑아 해석해서, 몇 번씩의 경험이 있는 자가 『주역』의 도사가 되는 거죠. 평생 뽑아서 한 번의 케이스로 해석의 정평 난 방법이다고 우길 수 없는 거죠. 서례(筮例)가 중요한데, 64*64하면 4096경우의 경우의 수가 있다.

▲ 괘를 뽑는 방법

동(動)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지로 알려면 괘를 뽑는 방법은 서죽(筮竹)으로 뽑는 방법이 있고 동전으로 뽑는 방법이 있다. 서죽으로 뽑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가르쳐드리고 동전으로 뽑는 것을 말씀드리죠. 서죽으로 뽑기 이전에는 시초(蓍草)라고 해서, 톱풀이라고 해서 곧은 입사귀가 나는 풀이 있는데, 풀을 뽑아서 채취하는 때부터 점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50개를 뽑아서 했어요. 너무 많이 뽑으면 사라지죠. 그래서 대나무를 잘라서 쓰는데 서죽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만들었냐면, 지금은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자한테 부탁해서 이걸 만든 건데.
50개의 대나무 가지예요. 산가치라고 하는데, 정서(正筮)법이예요. 바를 정 자, 제대로 뽑는 법이다. 20분이 걸립니다. 5번 뽑으면 녹초 됩니다.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맞아요. 정신을 통일해서 뽑으면 괘의 적중도가 높아요. 적중도를 높이려고 3개월씩 지리산 토굴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5백 년 갈지' 묻는 건 아니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것도 아니고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도를 묻는 거니까 그거야 경건하게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절차가 복잡하니까. 수치를 많이 외워야 돼요.

동전으로 하는 것은, 동전은 어느 나라 동전으로도 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 것으로 혹은 미국동전으로도 할 수 있어요. 책을 보면 제일 뒤에 서법과 점단법이 있어요. 동전으로 뽑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놨어요. 알면 간단하고 모르면 복잡해요. 백 원짜리 세 개만 주세요. 백 원짜리는 한쪽은 아라비아 숫자로 백이 쓰여 있고, 다른 쪽은 이순신이에요. 국민의 80퍼센트는 세종대왕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 알아보니까 이순신이래요. 무관이 아니고 문관처럼 보여요. 책에 쓰여 있는 세종대왕으로 한 것 고쳐 읽으세요.

아라비아숫자는 '아'라고 쓰겠습니다. 이순신 얼굴은 '얼'이라고 썼어요. 동전이 아라비아숫자만 나오면 태음(太陰), 이것은 음(陰)이 오버했죠. 동(動)한 거예요. 또는 변효(變爻), 또는 동효(動爻)예요. 양효(陽爻)로 바뀌려고 하는 순간에 있다. '아, 아, 얼' 아는 음으로 얼굴은 양으로 정했어요. 모든 나라 동전은 한쪽은 위대한 사람 얼굴이 나와 있고, 한쪽은 화폐가치가 나와 있죠. 동양은 외로운 하나를 중시합니다. 얼은 양이죠. '아, 아, 얼' 이쪽은 소양(少陽)이죠. 동하지 않았어요, 부동. 음양이 조화돼 있기 때문에 안정된 양효죠. '아, 얼, 얼' 동양은 외로운 하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소음(少陰)이죠. 동(動)하지 않았어요. '얼, 얼, 얼' 이것은 태양(太陽)으로 동(動)했어요. 양효(陽爻)가 동했어, 음효(陰爻)로 바뀌려는 순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효가 여섯 개니까 여섯 번 던집니다.

우리 이 클래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을 점쳐보겠습니다. 진지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집중하면 집중도가 높아져요. 한 사람이 딴 짓 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여기서 던져 보세요. 밑에서부터 그어가는 겁니다.

얼, 얼, 얼	태양	--양효가 동한 것
아, 아, 얼	소양	― 안정된 양효
얼, 얼, 아	소음	--
아, 얼, 얼	소음	--
얼, 얼, 얼	태양	― 양효가 동한 것
얼, 얼, 아	소음	--

중수감괘죠. 수(水)가 두 개죠. 겹친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괘입니다. 윤관이 받은 괘입니다. 변효(變爻)가 되어서 음효(陰爻)는 양효(陽爻)로 바꿔주고 이것은 도로 옮겨주고 변하지 않았으니까, 풍지관이라고 그래요. 감괘(坎卦)가 관괘(觀卦)로 변했어요. 이런 경우는

風地觀(풍지관) 표기할 때는 坎之觀(감지관), 감이 관으로 갔다는 것이죠. 뜻이 대단히

육중한데 초효는 위험에 처해있어요. 求小得(구소득) 구하면 조금 얻을 것이다. 거의 폐강 직전에 몰렸다가 求小得(구소득). 29번 괘를 보면 구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坎有險(감유험) 위험함이 있도다. 그러나 求小得 구하면 얻을 것이다. 아까 조금 들어왔어요. 상효가 감괘의 전체의미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감괘의 괘사는 有孚習坎(유부습감)익히고 거듭해서 익히라. 有孚維心(유부유심) 확실하게 한마음이면 亨 형통하리라 行 행하면 有尙(유상) 상을 받으리라. 8주 끝나면 상을 받을 겁니다.

상효(上爻)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係用徽于叢棘三歲不得 凶 (계용휘우총극삼세부득 흉) 이 괘는 두 가지 경우로 갈려요. 지금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이 괘를 받으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갇히거나 감옥에 투옥돼. 어려운 처지에서 시작하거나 처음이 어려웠던 사람은 석방되는 괘로 나와요. 해방되고 좋아져. 우리는 처지가 안 좋으니까 좋게 해석해야 한다.

觀(관)자는 볼 관자이기도 하고 점 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뜻. 큰 뜻은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내다보는『주역』강의를 마칠 것이다. 강의 이름이 뭐죠. '미래를 보는『주역』강의'죠. 관(觀)자는 미래를 본단 것이죠. 다 마치면 스스로 동네에서는 선생님 노릇을 하게 해주려고 해요. 동네의 길흉사를 봐주고 자기도 너무 덤성되지 않고 맞춰서 적절하게 중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괘는 이분이 던졌으니까 만들어낸 괘가 아니에요. 상상 못할 초월적 지식이 나왔는데 뜻은 대단히 좋아요. 왜 공부니까. 공부는 어려운 길을 가는 길이지 쉬운 길이 아니니까. 감괘(坎卦)는 열심히 공부한다는 괘고, 몽괘(蒙卦)는 교육시키는 괘예요. 이것은 스스로 공부해야죠. 나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이렇게 괘를 뽑는 것이다. 동전으로 하는 것은 쉽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 2교시 : 『주역』(周易) 뽑는 법

▲ 서법(筮法)

두 번째 강의인데요. 매번 팔괘(八卦)를 자연스럽게 외워야 하므로 써놓고 강의하면서 보도록 하죠.

☰	☱	☲	☳	☴	☵	☶	☷
건(乾)	태(兌)	리(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입으로 자연스럽게 외워서 팔괘를 숙지를 하는 게 64 괘로 입문하기 쉬워요. 괘도 외워야 하고 일단 괘를 뽑을 때 괘를 그려야 하고 위, 아래를 분리해서 읽으니까 괘를 먼저 알아야 하죠. 지난 시간 복습한 거예요.

8개 괘를 두 개씩 중첩을 시키면 8*8=64 괘가 나온다 그랬고, 사람의 유전자 DNA 뉴런구조의 64개 고리와 일치해요. 이진법으로 되어 있다. 이진법은 2가 안 나타나죠. 0과 1만 나타나고 10진법은 1하고 9까지만 나오고 9진법은 9는 안 나타나고 8까지만 나타나고 9가 8, 0인 경우가 많죠. 2진법이어서 두 개의 부호로 모든 걸 표현하는, 더 많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처럼 무한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만큼 용량이 엄청나야 되겠죠. 용량을 반도체가 감당을 한다. 반도체는 무한히 축적할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무관하게 수천 년 전부터 음양의 두 고리로 팔괘가 나왔고 8 괘는 64 괘로 가는 기반이 되었다. 8 괘까지는 신화적으로 복희 씨가 만들었다고 하고, 64 괘는 문왕이라고. 문왕 때부터는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라고 하죠. 수없이 많은 중국 혹은 인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동전으로 괘를 뽑는 것에 이어서 수업하고, 안 들으신 분들은 『실증주역』책 뒤에 설명해 놨어요.

서죽으로 뽑는 방법은 원래는 시초(蓍草) 시초 시인데 시초라는 풀이 있었어요. 톱풀과 비슷한데, 백 개의 줄기만 난다고 해요. 견고한 줄기 50개를 취해서 하는데. 지금은 풀이 없으니까 대나무로 깎은 걸 서죽이라 한다고 하죠.

조선 초기 태종 임금의 신하들과의 대화를 보면 그때도 시초는 구경도 못한 것 같아요. 서울을 서울로 정하는 걸로 격론을 벌이는데 개성에서 한양으로 태조 때 정했는데. 다 살지 않아요, 개성에서 살고 서울서 살지 않아서. 천도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국론이 분분하니까 점으로 단번에 결정하자고 했죠.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한 번에 하려고 하죠. 무엇으로 하느냐 『주역』으로 결정하자 정서법으로 결정하자니까 거부되는 이유가 시초도 없고, 두 번째는 해석상의 논란이 많다. 아예 간단히 만든 길흉으로 결정하자 해서, 물론 『주역』에 기반한 건데, 서울이 서울이 된 거예요. 태조 때 강행한 거예요. 천도를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주역』으로 이루어졌어요. 삼국부터 조선까지 『주역』으로 했죠. 태극기도 『주역』으로 만들었다. **정신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제일 뒤**에 서법과 점단법(占斷法)이 나오는 1007페이지를 보면 괘 뽑는 방법, 이른바 서법(筮法)이있다. 서법에는 50개의 시초(蓍草)나 서죽(筮竹)으로 하는 정서법(正筮法)과 세 개의 동전으로 하는 동전서법이 있다. 정서법은 원래 100줄기의 길고 가는 잎을 낸다는 시초(톱풀)포기에서 50개의 잎줄기를 베어 썼다고 한다. 시초의 잎줄기는 길고 곧으며 강하고 질기고 오랫동안 시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수작업으로 쉽게 시책(蓍策)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초가 이미 오래전 사라져 이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수백 년 전부터 시초 대신 서죽을 써왔다. 서죽은 대나무를 뜨개질 대바늘처럼(쇠젓가락 두께로)잘게 쪼개 다듬은 50개의 대쪽(숫대)이다. 글로 읽으면 쉽지만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잘 몰라요.

▲ 서(筮)의 11단계

서(筮)는 11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1단계, 궁금한 물음을 마음에 품고 손을 씻고(목욕재개하고) 깨끗한 담요를 깐다.
까는 문제, 시초가 튀어요. 흘러내리고 굴러 내리고, 군용담요가 좋아요
제2단계 묻는 글귀의 그날의 일시와 함께 종이에 써서 자기 앞의 담요 위에 놓는다.
이 글귀를 응시하며 그 뜻과 정황을 마음에 새긴다. 『주역』괘로는 진행 중인 일(국정, 정치, 사업)의 길흉(득실, 성패, 승패)과 형비(형통과 막힘), 임의의 계획(정책)의 길흉과 형비, 특정인(특정사물, 특정집단)의 시간적 운세 등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고 어떤 일의 처리 방도와 특정 조건에서의 처신 방도도 물을 수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를 물을 수 있고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도도 물을 수도 있어요. 물음 방식은? '그것은 무엇입니까'도 물을 수 있어요. 오늘 만나고 왔는데 겉으로는 모르지만 나중에 본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 물을 수 있어요. 다음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물을 수 있어요. 만나서 장가갈 배우자감이 어떤지 물을 수 있어요. 나와 어떻게 될지도 물을 수 있고. 내 경험은 사주나 점도 안 맞고 뻥도 많지만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적중도는 『주역』이 훨씬 뛰어납니다. 배우기 어려워서 그렇지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요.

물음 방식은 반드시 의문사 없는 길흉(득실, 성패, 승패)및 형비의 물음이거나 방도를 묻는 물음(-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이어야 한다. 길흉, 좋냐 나쁘냐를 묻든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물으면 안 돼요. 답을 할 수 없죠. 만약에 A 대학을 들어가야 하느냐 B 대학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A대학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길흉으로 한번 묻고 B대학을 들어가는 게 좋은지 한 번 더 물어서 두 번 뽑아야 합니다. 하나는 길하게, 또 하나는 흉하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등의 선택형 물음은 피한다.** 국제적으로 똑같아요. 독일어, 영어로 된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주희가 쓴 책도 그렇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선택의 경우에는 '이것이 좋습니까,'와 '저것이 좋습니까'로 물음을 두 개로 나누어 두 번 괘를 뽑아야 한다.

괘를 뽑지 않고『주역』을 배울 수는 없어요. 뽑지 않고 철학적으로 했다는 소리는 말도 안 돼요. 괘가 의미가 없는데. 반드시 뽑을 줄 알아야 하고 뽑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집에서 연습해보시고 중요한 물음들로 괘를 뽑아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뽑아보고 잘 숙달이 되었을 때 해독을 하게 되면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뭘 물을까요? 어떤 걸 물을까요? 클래스의 운명을 물었죠. 공적인 것, 개인의 운명을 물을 수는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묻는다고. 뭘 물을까요? 올해 남은 기간 내에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세를 물어보죠. 다 관심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대통령 정부의 금년 잔여 운세> 2008.10.7. 화요일 3시경
의문을 이렇게 잡았어요. 길흉을 묻는 거니까.

제3단계 물음 글귀를 놓은 자리보다 약간 더 멀리 대통(산통이나 붓통이 좋음)을 준비해 놓고 50개의 서죽에서 숫대 하나를 뽑아 대통에 놓는다. 이 의문을 묻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관심을 집중하니까 산만해도 괜찮을 듯해요. 설명을 하면서 시범을 보이죠. 이때의 마음자세는 천지신명께 물음을 고하고 이 물음에 대해 천명을 밝혀줄 것을 기원하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어느 책에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단계는 글귀를 응시하고 마음속에 그 글귀를 새기면서 남은 49개, 하나를 뽑아서 대통 속에 놓고, 남은 49개의 숫자를 자연스럽게 둘로 가른다. 이때 왼손에 든 숫대 뭉치는 하늘을 상징하는 천책(天策)이라고 하고, 오른쪽 손에 든 숫대 뭉치는 땅을 상징하는 지책(策)이라고 한다. 천책은 왼손에 그대로 들고 있고, 지책은 글귀를 쓴 종이가 놓인 자리와 서지자(筮之者) 자리 사이의 담요 바닥에 내려놓는다.

제5단계 바닥에 내려놓은 지책에서 숫대 하나를 뽑아 천책을 든 왼손의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글로 설명하면 복원을 못 해요. 태권도 동작 그려놓은 것 보면 어려운 것과 같죠. 하나를 끼워요. 이것은 천지인(天地人)삼재 중에 사람(人)을 뜻한다.

제6단계 춘하추동을 마음속으로 외우며 천책에서 4개씩(사시(四時)의 숫자) 덜어내 지책과 섞이지 않도록 적당한 곳에 내려놓는다. 마음속으로 춘하추동 세면서 4개씩 내려놓는다. 그러면 4개가 남았어요. 이때 왼손의 천책에는 1,2,3,4개의 숫대가 남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이 남은 숫대는 왼손의 가운ept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제7단계 지책을 들어 왼손에 잡고 다시 4개씩 덜어내 내려놓는다. 4개 남았죠. 마지막 천책의 남은 숫대와 지책의 남은 숫대를 다 합친다. 합쳐서 5 아니면 9예요. 다른 숫자가 나오면 잘못 한 거예요.

제8단계 별도로 섞이지 않게 놔야 합니다. 남은 43 혹은 40개의 숫대를 합쳐서 10개를 뺐으니 40개겠죠. 다시 둘로 가르고 앞서와 같은 손동작으로 이변(二變)을 이룬다. 하나 남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4 아니면 8이에요. 다른 숫자 나오면 틀린 겁니다.

제9단계 이 세 번의 변으로 하나의 효를 뽑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 번 끝났어요. 이 세 변의 숫대 수는 여섯 개의 효 중에 하나의 효를 뽑은 겁니다. 이 동작을 하다 보면 20분이 걸려요. 이 세 변의 숫대 수는 가령 9 8 8, 5 4 4 등으로 나타난다. 9 4 8이 나타났죠. 괘의 효마다 삼 변을 반복하여 이 삼 변을 여섯 번 시행한다. 여섯 효를 그리려면 18변을 반복해야 한다.

제10단계 삼 변시 숫대의 경우의 수는 5 4 4, 5 8 8, 5 8 4, 5 4 8, 9 8 8, 9 8 4, 9 4 8, 9 4 4 등 여덟 가지다. 5 4 4의 경우는 합산의 수가 13이므로 남은 숫대는 36개이다. 이 36개를 4개씩 덜어내며 묶음 수를 세면(즉 4로 나누면)하면 몫이 9이다. 5 8 8의 경우는 합산의 수가 21이므로 남은 숫대는 28이고, 이를 4로 나누면 몫은 7이다. 5 8 4의 경우는 합산의 수가 17이므로 남은 숫대는 32이고 이를 4로 나누면 몫은 8이다. 5 4 8의 경우도 몫이 8이다. 9 8 8의 경우는 합산의 수가 25이므로 남은 숫대는 24이고 이를 4로 나누면 몫은 6이다. 9 8 4의 경우는 합산의 수가 21이므로 남은 숫대는 28이고 이를 4로 나누면 몫은 7이다. 9 4 8의 경우도 몫이 7이다. 9 4 4의 경우는 합산의 수가 17이므로 남은 숫대는 32이고 이를 4로 나누면 몫은 8이다.

얻은 몫의 네 가지 수 6 7 8 9에서 홀 수 7 9는 양의 수, 짝수 6 8은 음의 수이다. 9는 노양(老陽)의 수, 이보다 작은 7은 소양(少陽)의 수이고, 8은 소음(少陰)의 수, 이보다 작은 6은 태음(太陰)의 수이다. 소음, 소양은 아직 젊어 자신의 바탕에서 더 클 수 있으므로 안정(安靜)된 수이다. 반면 노양, 노음의 수는 이미 늙어 노양은 음(陰)으로 노음은 양(陽)으로 뒤바뀌는 변화(變化)임계(臨界)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노양과 노음의 효를 동효(動爻), 변효(變爻)라고 한다.

◆3교시 : 『주역』(周易)의 동효(動爻)와 변효(變爻)

▲ 동효(動爻) 변효(變爻)

수학을 하고 있으면 복잡해요. 간단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무조건 경우의 수가 5 4 4가 나오면 노양(老陽)이예요. 양의 동효(動爻)죠. 5 8 4 든 5 4 8이든 9 8 4든 9 4 8이든 다 합치면 13이죠. 그다음 다 합치면 17인가요? 이건 음효(陰爻)예요. 이건 21이죠. 양효. 9 8 8은 음효의 동효(動爻)입니다. 다 합산한 걸로 하면 복잡하니까 경우의 수만 머리에 집어넣으면 바로 양효인지 음효인지 알 수 있어요.

9 4 4가 더해져야 되죠. 여기는 5 8 8 세 개씩 있어요. 이 경우의 수만 알면 이 복잡한 표를 알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5 4 4와 9 8 8이죠 동효가 나와서요. 9 4 8은 안정된 양효죠. '이 대통령 정부의 금년 잔여 운세' 같은 방법으로 합치는 거죠. 빠른 속도로 뽑겠습니다. 5 8 8은 양효지요. 연습해서 하다보면 계산할 필요도 없어서 5분에서 4분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한번 나왔을 때 운명이 결정 나는 거죠. 나머지는 계산을 위한 동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5 8 8 이걸 무심히 나누는 데서 나머지는 다 결정 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수리적인 거예요. 해보시면 알게 돼요. 9 4 4면 음효죠. 마지막 효 하나만 더 뽑으면 되죠. 9 8 4 두 개씩 끊

어서 읽으면 ☲ 리(離), 화(火) ☰ 건(乾) 천(天)이죠. 화(火)천(天)으로 순서로 되어 있는 게 뭔가 14번.

대유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64를 외고 있으면 바로 나오는데 외우지 마세요 머리 복잡하니까. 동효가 없어요. 대단히 밋밋한 운세를 가게 되는데 정부가. 위기도 없을 것 같은데. 대유는 크게 갖는 것, 요새 말로 하면, 대풍인데 동효가 없으니까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끝낼 가능성이 많아요. 양력으로 넣고 했어요 12월 31일 까지. 이걸로 보면 금융위기는 없다는 거죠. 춘추좌씨전은 대풍을 대유년, 조그만 풍년이면 유년 이렇게 썼어요. 풍족하다. 동효가 있으면 더 풍족한데 없으니까 현실화 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해다.

시연을 보여드렸지만 책에서는 1011페이지. 이와 같이 4로 나눈 몫까지 구해 이를 기준으로 음양의 동효와 음양의 안정된 효를 알아내는 방법이 본래적 서법(筮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셈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따라서 삼변시의 여덟 가지 경우의 수만 구하고 곧바로 여기로부터 음양의 동효와 음양의 안정된 효를 알아내는 간단한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삼변시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음양의 동효와 음양의 안정된 효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후자의 방법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암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삼변시 경우의 수	합산의 수	남은 숫대 수	4로 나눈 몫	몫의 분류
5・4・4	13 (5+4+4)	36 (49-13)	9 (36/4)	老陽(動爻)
5・8・8	21 (5+8+8)	28 (49-21)	7 (28/4)	少陽(安靜)
5・8・4	17 (5+8+4)	32 (49-17)	8 (32/4)	少陰(安靜)
5・4・8	17 (5+4+8)	32 (49-17)	8 (32/4)	少陰(安靜)
9・8・8	25 (9+8+8)	24 (49-25)	6 (24/4)	老陽(動爻)
9・8・4	21 (9+8+4)	28 (49-21)	7 (28/4)	少陽(安靜)
9・4・8	21 (9+4+8)	28 (49-21)	7 (28/4)	少陽(安靜)
9・4・4	17 (9+4+4)	32 (49-17)	8 (32/4)	少陰(安靜)

5 4 4 =13 동한 동효(動爻)
5 8 8, 9 8 4, 9 4 8 =21 동하지 않은 동효(動爻)
5 8 4, 5 4 8, 9 4 4 =17 동하지 않은 음효(陰爻)
9 8 8 =25 동한 음효(陰爻)

이 수치를 알 수 없어서 해놨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뽑을 때 적어놓고 하다 보면 바로 입력이 돼요. 다 어려운 게 아니고 4를 더해서 빼면 5 8 4가 되는 거죠. 같은 수의 움직임이죠. 뽑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 동효(動爻)

해석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동효(動爻)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학습에는 효과가 없게.

동효(動爻)가 안 나왔을 때는 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괘사(卦辭)중에 의미 있는 괘사가 있고 적중하지 않은 죽은 괘사가 있어요. 해봐야만 알고 점단법(占斷法)이라고 해요. 하나만 보겠다.

火天大有(화천대유)를 보죠. 초효(初爻)가 동했다하면 초효의 효사(爻辭)를 집중해서 보는거예요. 하나니까. 어디가 동하든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교유관계나 교제를 하면 좋아요. 하나만 동하면 하나만 해석한다. 효사를 어떻게 파고드느냐가 문제죠. 나중에 하고.

만약에 두 개가 동한 경우 두 개 다 효사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 다르죠. 집에 이사 가려는데 어떻습니까. 두 개가 동했을 때, 초효가 길이고 이효가 흉이면 첫 번째는 이사 가면 좋습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효는 이사 간 뒤의 가까운 장래를 보여주죠. 두 개가 동한 경우 중 상괘에 하나 동(動)하고 하괘에 동(動)한 경우에는 변괘까지 봐야한다. 변괘는 대유괘인데 아래효가 양효가 동해서 음으로 동하는 거죠. 바뀌고. 음효가 동하는 거니까 바뀌죠.

-> **天風姤(천풍구)**로 바뀐 거죠 대유지구(大有之姤), 대유괘가 구괘로 변했다.
비중, 두 개만 동한 경우, 대유괘의 괘의 의미와 효사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70-80프로 예요. 동하지 않았을 때는 괘의 의미, 이름의 의미로 한다고 했죠. 동효가 한 개일 때까지 하고. 동효가 두 개일 때는 두 동효의 효사를 같은 비중으로 풀이한다. 동효가 두 개일 때 변괘는 고려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하괘에서 두 개가 동하거나 상괘에서 두 개가 동하면 변괘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괘에서 하나, 상괘에서 하나가 동하면 변괘를 고려해야해요. 20프로 정도. 원래 괘는 80프로정도 비중이 있다. 터치만 하는 거죠. 기분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별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자기 인생운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20프로도 상당하죠. 한달운이 이렇게 변했다하면 끝에 가서 그것을 감지하는 순간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서나 국가정책에서는 아주 안 좋은 괘에요. 재수 없는 괘니까. 불길함을 만나는 괘니까.

세 개가 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개가 같은 상괘가 동하면 의미가 없어요. 대체로 세 개가 동하면 상괘 하괘에서 동하는 경우가 많죠. 확률상. 다시 옮기면 준풍손이 되었어요.

-> ☴☴

겸손하다 공손하다 들어간다 상징적인 뜻이 있는데 겸괘보다 나아요. 상황에 따라 자세를 낮춰야 하는데 이 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창피한 일은 있지만 억압되어 있는 상황은 아

닙니다. 대유, 크게 많이 가졌다가 교만 떨다가 겸손해야 하는 의미에요. 큰 의미는. 자잘한 의미는 다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개가 동했다 모든 효사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정도는 본괘는 60프로, 변괘는 30프로인데 네 개가 동하면 본괘는 55프로에서 동한 것에 40프로 의미가 있어요. 괘가 바뀌죠. [redacted] -> [redacted] **水風井(수풍정)** 우물로 바뀌었어요. 우물괘는 답답한 괘에요. 정통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효가 없는 경우는 답답해요. 이 비율은 이 정도 고려한다. 50프로든 45프로든 비슷해요. 비중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가 더 동했어요. 그러면 변괘의 의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본괘보다. 이순신 장군은 뒤집히는 경우 용극체라고 했죠. [redacted] -> [redacted] **坎爲水(감위수)** 많이 가지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으로 변하는 거다. 비중은 변괘가 60프로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운수다. 다 동할 수도 있죠. 괘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본괘는 20프로 고려하고 변괘는 80프로 고려해야죠.

[redacted] -> [redacted]水地比(수지비) 비는 뜻이 좋지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괘예요 대유지감과는 반대죠. 이렇게 변괘를 추출한다.

여기서 문제가 『주역』은 왕왕 특정한 물음을 물으면 질문한 물음은 도외시하고 서지자(筮之者)에게 임박한 문제를 먼저 답해주는 경우도 있다. 『주역』은 묻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적인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주역』이 우리로 하여금 임박해 있는 어려운 사태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um uns auf schwierige bevorstehende Ereignisse vorzubereiten) 서지자의 질문을 무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얻은괘와 동효의 효사가 묻고 있는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엉뚱한 것으로 느껴질 때는 대개 이런 경우이다. 이때는 이 서괘를 먼저 해석하여 임박한 사건의 예고와 해법을 먼저 알아두고 다시 원래의 물음을 묻는 서괘를 뽑아야 한다. 서괘는 원칙적으로 한 물음에 대해 한 번만 뽑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뽑을 수(소위 再筮·三筮할) 있다.

▲ 괘를 다시 뽑을 수 있는 경우

첫째, 위의 경우처럼 엉뚱한 서괘일 때, 임박한 국가상태 경제상황 그것이 먼저 무관한 거죠. 원래 물음을 다시 물어서 다시 뽑을 수 있다.
둘째, 주변의 방해나 심리적 자세가 흐트러져 괘를 뽑는 과정에서 감응(感應)이 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 때, 그런데 괘가 흉하게 나왔다고 의심하면 안 되고 원래부터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셋째, 서괘의 답이 문제와 관련하여 너무 난해하거나 애매모호할 때, 물음하고 연결이 안 되거나 이것도 저것도 가능한 식으로 해석하거나 할 때 다시 명쾌하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넷째, 서괘가 의심스럽거나 또는 괘를 받은 사람이 괘를 지극히 의심하여 서괘의 접수를 한사코 거부할 때, 그런 경우는 두 사람 사이의 논란 때문에 다시 뽑을 수 있다.
다섯째 재서(再筮)한 서괘가 원서(原筮)와 상반되어 삼서의 확인이 필요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너무 달라. 원서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재서에서도 보통 원서와 동일한 괘, 동일한 동효가 나오거나 다른 괘라도 동효의 효사의 의미와 거의 유사하다. 정확히 뽑힌 경우는 다른 괘가 뽑혀도 뜻이 비슷해. 그러나 원서가 의심한 대로 그릇된 경우는 재서에서는 다른 괘가 나온다. 삼서 했을 때 삼서의 괘가 재서의 서괘와 통하는 경우는 원서가 틀린 경우고 삼서가 원서와 부합되는 경우에는 원서가 맞고 재서가 틀린 것이다.

동효가 여섯 개 일 때는 본괘의 6개효의 효사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풀이하되, 변괘의 이름과 단사를 더욱 중시하여 80프로 정도 반영한다. 다만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서 여섯 효가 다 동한 경우에는 건괘는 용구(用九)의 효사를 고려하여 풀이하고 곤괘는 용육(用六)의 효사를 고려하여 풀이한다.

한편 이와 달리 주희는 2개 효가 동하면 두 동효를 고려하되 위 효를 주효(主爻)로 풀이하고 3개 효가 변하면 변괘의 단사로, 4 5개의 효가 변하면 변괘(지괘)의 변치않는 효로 6개 효가 동하면(건(乾)과 곤(坤)을 제외하고)변괘의 단사로 풀이한다고 주장한다.

또 호광등이 편찬한『주역』전의대전의 명서(明筮)에서는 3개 효가 동하면 본괘와 변괘로, 4 5개 효가 동하면 본괘의 동하지 않은 남은 효로 풀이한다고 주장한다. 또 후앙은 2개 음양효가 동하면 음효를, 두 동효가 모두 양효이거나 다 음효이면 아래효를 참조하고, 4개 효가 동하면 본괘의 변치않는 두 효 가운데 위 효만으로 풀이하고 5개 효가 동하면 본괘의 변치않는 나머지 효로 풀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적중하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는 여러 사서(史書)의 서괘 풀이와 필자 자신의 서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충된 주장들을 모두 물리친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실지로 수천 번을 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논증은, 변하지 않는 효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얘기죠. 6개를 동하더라고 곤괘와 건괘를 제외하고는 한 달 운세를 봤는데 그 운세는 복잡다단한 운세입니다. 4개만 동해도 대단히 복잡해요. 나쁜 효만 있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정신 시끄러운 해가 되기 쉬워요.

제3강 : 동양의 신탁, 주역(周易)

◆1교시 : 『주역』(周易)의 변괘와 서양사상의 흐름

▲ 변괘 2

두 번째 효는 대유괘를 뽑았고 첫 번째는 감지관을 뽑았어요.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뽑은 괘부터 하나씩 학습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괘(坎卦).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는 괘고 대단히 위험하게 시작해서 다섯 명도 안 되어서 폐강될 뻔했죠.『주역』~클래스의 운명을 봤

어요. 동전 점으로. 폐강될 위기에서 구제되어 이 클래스의 팔주의 운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멀리 보긴 본다. 점 본다. 강의 계획서에 8주 뒤에는 미래를 본다고 했는데 수업시간에 뽑은 괘지만 감응이 된 괘라고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점을 스스로 볼 줄 아는, 동네에서 선생 노릇할 수 있게 해준다. 괘를 완전히 이해하면 뜻을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지(之)는 갈 지예요.

감지관, 감이 관으로 되었다. [redacted] 두 개가 동한 거죠. 위험 속에서 坎有險(감유험) 물가에 위험이 있죠. 처음에 한 명 밖에 등록 안 해서 폐강인데 求小得(구소득)구하면 소득이 있다. 중수감괘입니다. 수(水)가 두 개 중복되면 중수감입니다.

두 개가 동했다. 그러면 [redacted] **風地觀(풍지관)** 변괘가 그렇다는 거죠. 변효 동효 의미 알겠죠. 뜻은 원괘에 80프로의 의미가 집중되어 있죠. 괘를 다 공부해야죠 다른 효사와 비교해서. 감괘는 대단히 위험한데 노력을 했더니 약간의 소득이 있어서 求小得 어려웠던 처지에 있던 사람이 잘되는 거예요. 관괘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처지에서 탈출하고 해방되는 괘예요. 그런데 결국 좋게 끝나는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감괘(坎卦), 관괘(觀卦). 대유(大有)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전으로 할 때는 속도가 빠른데 적중도가 낮다. 길이 막히는데 오른쪽 왼쪽을 서죽으로 하면 지나치잖아요. 속도가 필요할 때는 동전으로 보고 중요한 것은 서죽으로 보는 게 올바르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유학이든 도교든 간에 『주역』은 유교, 도교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서양의 기독교 신학을 하는 자가 신을 믿지 않으면 신학이 아니죠. 종교학자가 신을 안 믿고 종교학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학자가 신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안 된다. 기독의 신학은 있는데 동양의 신학 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미신이라는 것이죠.

▲ 서양사상의 흐름

과학적 방법의 한 예로 수천 년 인간의 누적된 합리적인 지식, 무의식에 들어 있다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의식 속에 있으면 합리적이 아니라 무의식에 들어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타고난 이성을 뜻하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혀 국문법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한국말을 잘한다. 그 문법은 체득하고 있고 언어를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은 개나 고양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이성적 동물이다는 말을 했을 때, 그 타고난다는 것이 천부적이다. 천부적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언어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언어능력은 합리적인 무의식적 DNA 의 대표적이고 그걸 부정하고는 현대학문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근대까지만 해도 인권이 왜 소중하고 인권이 불가해한 것이고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입증할 때 천부적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침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린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불구자도 만들고 뭣도 만들었는데 거꾸로 고치는 것은 의사가 고치지 인간이 고치지 하나님이 고치는 건 아니잖아라고 반박이 가능해서 현대사회는 엄청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것은 과학적인 설명 없이는 불가능한데 과학적인 설명으로 '천부적이다'라는 것을 사회과학전체를 걸쳐서 언어화용론 언어로 대치했어요. 그 과정은 1930년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이론이 나오면서 형이상학적 천부적이다 타고날 때부터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비과학적 믿음을 언어이론으로 대체합니다.

그 이후에 언어학적 전회(linguistic turn)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까지 연결돼요. 민주주의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기본적인 인권은 불가양이고 따라서 홉스가 통치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은 마지막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그 말을 과학적 기반 즌 형이상적인 것이라 해서 과학적 기반이 없는 걸로 보게 돼요. 칸트와 헤겔을 푸코가 붕괴시킬 때 주체 해체해 갈 때, 3대 비판서인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비판서 이전에 비판서는 과학적인데, 비판서가 기초하고 있는 방법의 근거는 비과학적인 인간학이다.

인간학은 왜 인간학이냐. 타고난 인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학은 과학이 아니라 나레이션이라고 해요. 이야기란 것. 시골 가면 해석되지 않은 바위가 파여 있는 경우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꾸며 생소함을 '위대한 장군이 와서 뛰어가다가 쉬어서 푹 꺼졌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생소함을 벗어나는 거죠. 낯선 부분을 친숙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칸트가 세 개의 비판서를 낳은 기초는 실지 비과학적이다. 그런 논리로 미쉘 푸코가 근대이론의 의식과 주체를 분리시켰어요. 푸코의 주체해체 작업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체해체를 할 필요도 없었죠 이미 1930년도 언어이론 프라그매틱(Pragmatics) 언어 화용론적 방향으로 탈출구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방향에서 전체적인 사회과학의 대변혁이 일어나요. 민주주의이론 법치국가 등 새로운 언어철학 언어화용론에 기초하게 된다.

인간이라는, 주권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칸트나 헤겔이 생각한 것처럼. 주체를 해체시키는 첫 번째 인물은 칼 맑스를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의식을 허위의식과 과학적 의식 두 개로 나눴죠. 허위의식은 이데올로기 과학의 반대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있어요. 허위의식에 그릇된 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의식철학, 주체철학인 주체의 의식이죠. 모든 인식이론이든 칸트가 확고부동하다는 느꼈던 의식적인 주체의 지위를 허위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무력화시켜요. 대중은 과학적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조작 대상일 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믿었던 주권적 주체가 대단히 무력한 거예요.

두 번째가 프로이드인데 허위의식이든 과학적 의식이든 중요하지 않고 무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무의식은 아침에 먹고 자고 일어나고 살아가며 습관적으로 하는 의식이, 행위하고 있

지 않지만 습득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의식을 차리고 살진 않지 않느냐. 주입된 것으로 살지, 생각하는 것으로 사냐. 생각하는 것,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많지 않아요. 나도 습관적으로 살죠.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 혁명의 의식화를 한다고 칼 맑스는 말했지만 의식화를 백날 해도 무의식 속에 반혁명적 요소가 더 많으면 혁명 안 일어나는 거죠. 주체의 지위를 두 번째 파멸적으로 붕괴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니체는 주체와 의식 속에 갇힌 주체의식을 감옥이라고 했어요. 주체와 의식이 똑바로 정신 차리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진리를 사람이 살기 위해서 꾸며낸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왜? 살려고. 진리든 허위의식이든 과학적의식이든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인 진리, 사회주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진리라는 자체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꾸며낸 것이다. 꾸며내고 관철하는 과정은 폭력과 습관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습관은 도덕으로 나타난다. 도덕의 계보를 폭력의 주입물이라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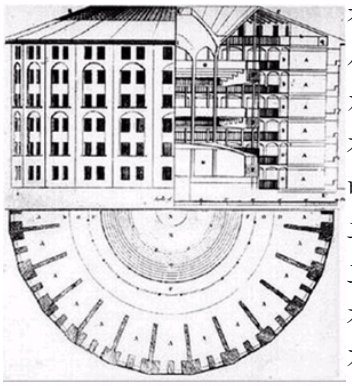
어린애들 키워보니, 도르래로 굴러오는 여닫이문이 있는데 딸이 손을 집어 넣었다가 다치니까 울어요. 두 번째 이틀 뒤에 또 다쳤어요. 세 번째는 굴러오니까 자기가 싹 빼요. 폭력적 고통을 통해서 도덕도 습득했다. 주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니 중심성이니 뭐니 무너졌죠. 이걸 받아서 니체적인 것으로 푸코나 프랑스해체주의자들이 주체를 해체했죠. 주체, 국민, 개념 국가도 해체 시켜요. 주체는 근대에 제조된 것이다. manufaturing of subject 이런 개념을 써요.

이것을 다 해체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근거 있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데리다에도 다 들어 있는데. 데리다를 가지고 장자의 무(無)사상을 연결시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비슷하긴 하죠.

푸코에게 성(性)도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책 『성의 역사』에서 1권 2권까지 제조된 성주체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3권에서는 그리스 시대를 빙자해서 방중술인데 섹스를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 새로운 섹스주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만들어진 자아가 아니라 자신이 구성하는 자아의 관점으로 가요. 주체를 완전히 깨부쉈다가, 칸트의 하나님이 준 주체를 부셔요. 주체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 감옥에다 공장에다 병영. 감옥 공장 학교 교실이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감옥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제레미 벤덤의 19세기 초에 나온 팬옵티콘(panopticon)이라는 책은 설계논문이에요. 팬(pan)은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고 완벽하게 감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죠. 왜 기획을 했느냐. 형인 사무엘 벤덤이 쓴 논문을 표절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학교를 짓는데 쓴 거예요. 용도를 고아원, 감호, 산업가옥 등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시설계다. 경영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근대에 있는 감금해 놓는 시설에 적용 가능해요.

감옥과 공장이 같다면, 공장과 교실이 같다면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하나의 원리예요. 보이지 않는 보는 원리예요. 선생님이 뒤에서 감독하면 무섭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알아서 기어야 해요. seeing without seen 최소감독으로 최대감독효과를 이루는 겁니다.



팬옵티콘 : 1791년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을 말한다.

감옥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창문을 만들고 안쪽에 감시탑을 세워요. 감시탑에는 베일을 씌우고 철장을 만들고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감시탑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자세가 틀렸는지를 금방 볼 수 있게. 빛이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베일을 씌워서 관찰을 못 하게 했어요. 저 원리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감시탑이 서 있기만 하면 감시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보이지 않고 보는 원리는 많은 감시자를 필요치 않는 최소감시자로 최대의 감시효과를 노리는 건데 사계를 완전히 청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모로도 만들 수 있고, 응용하는 방법을 많이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학교, 기숙학교 등. 옛날에는 런던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이 원리에 따라 가둬놓고 아주 처녀성을 고이 간직한 스쿨 걸들을 생산하면 런던 신사들이 모셔 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판옵티콘 스쿨 판옵티콘 하우스 온갖 것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원리에 따라 현대 건물들은 기둥하나 가려지지 않게 복도 끝에 사람만 나타나도 알 수 있게, 신발만 끌어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양탄자 절대 안 깔죠. 보이지 않고 보는 원리는 실지로 눈으로만 그런 뜻일 수도 있고 글로 밝혀지는 시선을 완전히 교차해서 볼 줄 알지 서치라이트 불빛 자체는 스스로 대단히 부끄러움을 수줍음을 타는 빛이에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도 남은 철저히 보려고 하는.

이력서 쓰는 것 옛날에는 받지도 않았는데 자신에 대해 고백하도록, 고백의 문화를 관철시켰다. 이걸로 모든 형태의 규율을 하는 거예요. 푸코의 책 제목이 『감시와 처벌』이에요. 논란을 일으킨 파격적인 내용의 작품이죠. 한 사람의 어린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가서 주체를 제조 당해요. 근대의 모든 사상가들은 교육론을 써요. 칸트, 루소 모조리 교육론을 써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학생이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똑같은 원리에 따라 교육을 받죠. 규율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교실의 장치에 들어가면 감시를 하든 안 하든 알아서 기는 거죠.

대학생들만 자기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지 모조리 정해있어요. 취직해도 자기자리가 정해진 거죠. 정해진 이유는 개인을 고정시키려는 거죠. 거기만 쳐다보면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 수 있죠. 개인에 대한 호적을 철저히 만드는, 모두 해방되었다고 자유롭다고 해놓고는 기본권을 보장해놓고는 신문도 해방시켰는데 1학년 6반 산수 몇 점 맞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신병동 이력이 다 있어요. 자기의 이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도록, 완전히 전과자로 만든 것이죠. 주체를 제조했다. 그 학생이 화가 나서 파업을 했어 감옥 가고 군대 가고 다 비슷하죠. 갔다 와서 취직하고 다니고, 같은 원리 속에서 뱅뱅 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주체는 해체되어야 하는 거죠. 칸트가 받들어 모셔야 할 주권적인 것이 아니죠. 철저히 분쇄시켜야할, 없는 것만 못하죠. 주체를 해체시킨 후 어떻게 하냐, 『성의 역사

3권』에 가면 자기를 자기가 구성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동양의 방중술로 넘어오다가 수신 이론으로 넘어와요. 수신은 주체를 만드는 이론이죠. 완전히 180도 푸코 생각이 바뀌는데 죽었어요. 책 한 권 못쓰고 죽었어요.

또 언어학적으로 사람들이 제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보면 이것은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이쪽은 보고 이쪽은 못 보니까 원칙은 특별한 것 아니고. 베버가 말한 관료주의 원칙은 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보고 정보가 모조리 올라가서 국가 중심에 집결돼요. 국가 전체를 감옥으로 보면 거대한 팬옵티콘이죠. 암담한 사회가 되는 건데, 푸코의 말만 그대로 들으면 살맛 안 나는 비관적인 정치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북한에 적용하면 맞을 거예요. 감시만 당하는 거니까. 그래도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판옵티콘도 적용하지만 동시에 위정자들을 거꾸로 감시하는 국민들의 시선도 작동하는 겁니다. 판옵티콘의 원리의 대척점에 있는 공론장의 원래 public sphere 이것은 정반대예요.

매스컴의 자유가 만개된 나라에서는 팬옵티콘만 단일하게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두 개는 상충을 일으키고 지금도 맨날 싸우죠. 매스컴을 장악하려는 사람과, 흩뜨려 놓으려는 사람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갈등과 모순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사회의 진면목이고 이것만 있다고 하면 북한이나 스탈린 사회를 주장하면 말이 되죠. 푸코는 살고 있는 사회를 편파적으로 파악했고 이런 자기 구성의 원리, 언어소통적 행위를 통해 자기를 구성하죠. 만들어지는 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 맑스는 노동주체를 중시했어요.

노동주체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푸코는 해체시킬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스스로 논쟁하면서 큰 주체, 언어를 기반으로 한 소통적 행위의 모델은 인의예지로 파악하는 도덕적인 인간이에요. 소통적 행위로서 자기만 주장하면 아무도 소통 안 하려고 하죠. 항상 쌍방 간의 문제고 소통적인 공론장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하도록 열려있어야 해요.

누구는 못 들어오는 차별적인 공론장은 공론장이 아니죠. 공(公)이란 개념의 반대죠. 언어는 말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언어자체의 사용은 소통적 사용만이 본래적 사용이에요. 다른 주체를 구성하는 원리가 있었다. 스스로 구성하는 원리가 있는데, 서양적인 새로운 전통하고 푸코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동양의 수신 원리로 갔는데 그것도 탈출구인데 에이즈 걸려서 죽었죠. 연구를 하나도 못했어요. 발견만 하고 3권은 미완으로 그쳤죠.

두 개를 합치면 철학적 탈출구를 알 수 있죠. 첫째 수신을 해야죠. 민주주의적 자유가 얼마가 중요한가 가치를 알 수 있고, 판옵티콘의 위험성도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돼. 푸코는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어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할 것을 예상했나요?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적이라 생각했죠. 투표를 했는데 90프로 이상 히틀러만 찍는데 어떡해요. 민주주의의 적은 민중 한 복판에서 나온다, 군부만 적이 아니고. 봉건세력만 적이 아니고 민중이 촛불 들고 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철학적 배경 하에서 공자님은 사람의 지식을 지인(知人)과 지천(知天) 두 개로 나눴죠. 지인은 논어에서 지언(知言)이라 했어요. 언어행위를 아는 것이다. 개념도 포함되고 사회적 언

어, 사회적 개념 말하는 예법도 포함될 것이고 이것을 알면 사람을 아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과 비슷하죠. 언(言)이 말 주변머리만 뜻하겠어요. 스피치 액트로 해석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지성주의적이고 한정적인 것이라고 30, 40대에 주장합니다. 30에 예로써 섰다. 삼십이립 40은 불혹(不惑)은 지인의 지(知)를 얻었다는 거죠. 지자로서 섰다. 50이 지천명이라고 하죠. 지천명이 나오지만 小人不知天命(소인부지천명) 而不畏(이부외)라 소인은 천명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不知命(부지명)이면. 無以君子也(무이군자야)천명을 모르면 군자일 수 없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군자가 삼외(三畏)세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삼외란 천명(天命)·대인(大人)·성인(聖人)의 말을 두려워해야 함을 말한다. 삼외 안에 천명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지천(知天)은 50이 되어야 했다. 지천은 많이 나와요. 50이 지천명이라고 표현했지만 논어 외에도 나오죠. 정현도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지(知), 만인에 대한 앎도 포함되지만 길흉을 포함시켰어요. 천명도 알아야 할 치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공자의 의미는 젊은 시절에는 지인에 그쳤지만 50에 넘어가서는 지천을 포함해서 통합적 지식, 지천부분은 신학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지식을 가지고 책의 머리말을 정리했는데 머리말을 차근차근 분석적으로 보겠습니다.

◆2교시 : 서양과 동양의 신탁 ①

▲ 칸트(Immanuel Kant)

칸트는 세 개의 비판서와 인간학적인 여러 논문을 썼는데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 비판이에요. 비판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크라이언에서 나왔는데 금을 그리는 것이다. 순수이성비판은 어디까지가 순수이성이 뛰어놀아도 되는 선인지 어디를 넘어오면 안 되는지를 금을 그리는 거죠. 순수이성이 해서는 안 되는, 가령 신이 존재하느냐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수이성이 오버하는 거라는 거죠. 순수이성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순수이성은 수리, 물리, 자연과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적어도 오성적인 지식인 단단하다 굳다 법칙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순수이성이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nous를 옮긴 것 같아요. 실천과 관계없다고 했거든요. 실천이성은 인간의 행위, 자유로운 행위만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실천이성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실천이성으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신이 있는 거죠. 신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수이성을 침범해서 있는 거라고 강요하게 되면 중세 때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지구가 안 돈다고 해도 지구는 돌죠. 실천이성자세에서 억압을 하고.

또 자유의 문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전제를 해야 죄와 벌을 논할 수 있으므로 자유의 문제가 중요한 실천이성의 문제고 자유가 있으면 규범적인 칭찬과 탓을 할 수 있으니까 도덕의 문제가 광범위한 문제가 들어 있다.

판단력 비판은 미학적인 것과 목적론적인 것을 집결시켰어요. 미학은 아름답고 밉고 등 순간적인 판단이죠. 책 제목을 원래 취향비판이라고 출판 직전까지 구상해서 책을 썼는데 내기 직전 판단력으로 고쳤어요. 판단력은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직관적인 것이다. 아름다운 그림, 조각, 이런 것을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분석하고 토론하지 않죠. 또 음식 먹어보고 맛있다 결판나는 것이지, 먹어보고 토론하는 건 아니니까, 종합 판단이 되는 거죠. 미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조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주가 미학의 원리로 조화로울 수 있느냐.

순수이성은 진리를, 실천이성은 선을 다루었고 판단력 비판은 미를 다룬 거죠. 진선미를 분리해서 다룬 게 중요해요. 통합해서 다루려는 것이 중세 때까지예요. 칸트는 분리시키고 분업화시켜서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조화를 미학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진선미를 미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관계에 놓이게 하려고 했어요. 진선미가 하나의 주체로 통합되어 있도록 하지 않았다. 푸코가 주체를 해체시키려 애를 쓰는데 처음부터도 근대이성은 분열되어 있었다 진선미로. 푸코비판은 과하고 빠진 것이 많은 비판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전제하에서 『주역』, 신학이라고 한다면 칸트가 그런 철학을 전개했기 때문에 신학이론은 실천이성에 속한다고 생각하겠죠. 큰 마찰이 없었어요. 물론 '인간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신의 개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칸트가 과학적인 것만 하지 않고 실천이성의 책을 별도로 써야 했는가.

칸트(Immanuel Kant)에 의하면 선험적(先驗的), 경험 이전의 논리로 정리되고 공감감력, 공리(公理)와 법칙으로 체계화된 경험 관찰지식, 그 범주로 정리하고 체계화해야 지식이 발전한다고 했어요. 칸트의 인식이론을 구성설, 경험론은 경험하면 받아들이면 지식이 발생한다고 했고 합리주의자들은 경험적인 것은 부정적이므로 논리로 하려 했죠. 두 개를 통합하려는 것이 있어요. 즉 선험적 종합판단의 지식만이 순수이성이 관할하는 합리적 지식이다. 이 합리적 지식은 일체의 무의식적 정서와 심리를 배제하고 의식의 대상만을 인식영역으로 삼는 한에서 본질적으로 지성주의적(intellectualistic)이다.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하면 지성주의는 세계의 사건과 관계들을 단순히 존재하고 발생하는 사실로 실천적 의미 영적(靈的)의미 전망적 의미가 전혀 없는 사실적 현상으로 해석함으로써 세계를 탈주술화(entzaubern)한다. 순수한 지성주의 속에서 인간의 삶과 세계는 죽도록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으로 현상한다. 지성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계의 사건들은 전망과 영적 의미를 잃어 한낱 존재하고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더 이상 의미를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성주의 차원의 합리적 지식에만 의거한다면 인간적 삶은 결코 영위될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육체적 생활을 넘어서 변화무쌍한 상징적 의미들의 오묘한 조화로 선과 악, 고귀함과 천박함, 거룩함과 속됨을 가르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창조하며 신구(新舊)를 차별하고, 새로운 것과 낡은 것도 순수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천태만상의 희로애락을 자아내는 상징적 의미생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합리적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과 지성주의

를 초월하는 이른바 초월적 지식에도 의거해야만 미래를 예견하고 실천적 비전을 기획하며 문화적, 도덕적, 영적, 종교적, 미래지향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선 과학적이려면 경험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8개의 범주를 정하든가 해야 하는데 미래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미래죠. 과학적인 인식이 발생할 수 없는 피안이죠. 미래는 모르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초월적 지식은 후천적으로 체득된 지식 정보체계(심리)와 선천적 유전인자의 무의식 차원에 축적된 -천부적 이성과 동의어인 -언어 DNA 인간의 장구한 진화과정에서 사람 몸의 DNA 층에 침전되어 유전자로 전해지는 천부적 생존 정보와 생존 논리,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의식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수백만전의 본능으로, 영적 인지능력과 선천적 판단능력, 직관적 가늠과 육감 등 의식 저편의 초지성주의 지식 정보를 말한다.

이런 까닭에 칸트는 경험지식도 아니고 합리적 지식도 아닌 이 초월적 지식에 기초한 이념과 도덕 자유와 예지, 자연과 섭리(천리), 자연이란 말을 많이 써요. 자신의 도덕적 판단은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평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전쟁판으로 돌아가요. 전쟁판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도덕적 요청사이의 갭을 어떻게 메우냐를 자연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결국 전쟁판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아 UN을 만들어 이성이 찾아질 것이다. 그것을 자연의 과정이라고 해요.

종교와 신앙, 영지와 신학 등 실천적 삶의 규범적 논리(당위) 의미 가치에 관한 지식 정보를 실천 이성의 영역에 귀속시키고 순수이성의 영역과 구별했던 것이다.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이 구별이 바로 칸트 비판철학의 핵심 요지이다. 옛날에는 뒤섞였는데 이것을 구분한 것이 그 사람의 핵심적인 작업이었고 업적이죠.

▲ 서양의 신탁

마찬가지로 『주역』은 유교 경전 중에서 사람의 삶에 대한 지식과 사람의 지모(智謀) 즉 지인(知人)과 인모(人謀)를 논하는 여타 지성주의적 경전들과 차원이 다른 초월적 지식 정보체계이다. 『주역』과 역학은 귀모 즉 귀신의 지모와 관련된 일종의 초월적 유교신학인 것이다. 서양은 신학이 있으면 되고 동양에서는 미신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역』은 문자로 전해진 세계 유일한 세계 최고의 신탁서이다. 그리스 신화에도 신탁이 있고 그런데 전해지는 건 없고 유일하게 몇 마디씩 무당한테 물어서 답을 한 것들이 전해지기는 하는데 남아있는 것 중에는 『주역』을 빼고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델피의 신전의 신탁이에요. 500개정도 남았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온갖 역사에 관련된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 신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에서는 델피 신전이 많이 물어보러 왔고 그래서 가장 옆에 있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집트까지도 델피 신전의 예지력을 칭송했고 찾았다고 해요. 오라

클 찾아보면 그대로 나와요. 500개 정도 되는 시대별로 정리해서요. 영어로 해야 돼요.

어떻게 보는가는 무당을 통해서 봤으니까 무당을 통해서보지 않고 주역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델피신전도 파괴되었고 신녀도 없어졌고 오라클은 기독교에서는 계시라는 것으로 대신해서, 기독교에서는 계시를 받아도 되고 동양에서는 받으면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느님이 알려주는 것과 같이 정신통일하면 주역도 알려줘요. 평생 기독교 믿어서 아느니 『주역』~8주 들어서 아는 것이 빨라요.

하나는 인모, 귀모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인간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천명을 기다리다. 앞에는 진인사하고 뒤에는 귀모의 작용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역은 대천명(待天命)차원이 아니라 지천명(知天命)을 하려는 것이고 공자님의 마지막 순천명(順天命),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죠. 운명을 알고 천명을 따르는 이순(耳順), 종심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을 완벽한 덕행이라고 했는데 덕행할 때는 수단이 필요하죠. 돈도 친구도 권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외부적 조건은 우연에 달려 있으니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도 덕행으로 정의된 행복과 덕행으로 구하는 것하고 운명적인 요소 가운에 고민해요. 고민하는 과정이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합니다. 행복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루는데 결국은 외부조건에 가장 적게 좌우되고 노출되는 관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끝나요. 관조적인 삶은 학자적인 이야기다. 학자가 되려면 한국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8년 살고 그동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것. 학자가 된 뒤에는 안빈낙도 가능하지만 학자가 되기까지 수없는 세월동안 누가 먹여줘야죠.

그것이나 공자의 덕행구복하고 인의를 행해서 길함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역을 봤어요. 이유는 덕행과 인의를 하려면 주변적 조건을 봐야하는데 그것들은 부귀, 높은 벼슬을 하려 했는데 못했지요. 부자 되는 것, 부귀는 재천이라 했어요. 자기가 구복하는 것이 반밖에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을 버릴 수가 없어요. 순자는 선역자는 점을 안본다고 부점론(不占論)을 폈어요. 부점론은 이덕대점(以德代占)론이야.

덕행을 해서 점을 대체시키는 거죠. 공자는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덕희점(以德羲占)이다라고 했어요. 덕행을 해서 점만 치는 것, 백번 치면 50번만 치겠다. 희소화시키겠다. 반절은 덕행을 해서 행복을 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리아모스의 비극을 말해요. 트로이의 인격적인 왕에 덕행을 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왕자가 50명이에요. 어느 날 아테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킬레스가 와서 50명을 다 죽여요. 헥토르라는 영웅적인 왕자가 있는데 트로이의 대칭송을 받는 헥토르까지 죽이니까 야밤에 가서 프리아모스 왕이 무릎을 꿇고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죠. 말년에 완전에 대망한 임금이죠.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아무리 덕행을 해도 이것은 운명 아니냐. 그런 행복과 행운의 관계. 행운이 행복이 아니에요. 지나친 행운은 복을 파괴하죠. 공자의 말대로 종일 사무가 임금이 등용한 점쟁이들, 무당이 한 달에 백번 치면 30,40치고 나머지는 덕행으로 채우겠다 해서 이덕희점에 나와요. 요(要)편에 나와요.

▲ 동양의 신탁, 주역

『주역』은 4000년 전 동양의 태 곳 때 창안되어 오늘날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전래된 초월적 지식와 영험한 지혜의 운영체계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인의 삶과 국가를 지배하는 근본정신은 태극음양과 건곤(乾坤)감리의 사괘가 그려진 태극기가 웅변하듯이 새롭고 바른 역동적 중도(中道)의 천리를 창제한『주역』의 영험한 역리(易理)에서 비롯되었고 또 이 역리 속에 응축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동아시아에서『주역』을 모르는 자는 진정한 동양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에 무지한 자를 진정한 서구인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치다. 서구사람이 전혀 모른다. 예수승천일, 뜻은 모르고 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몰라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과거에 유학자들은 나이가 들어 자기 자신과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수록『주역』을 천착했다. 공자님은 30 40대에『주역』을 안 읽었어요. 주역을 멀리했고, 천명이라는 말, 공자가 괴력난신(怪力亂神)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이익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 인명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달라요. 이익은 그 자체를 추구해서는 덕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인은 말로는 쉬운데 실행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일이라 안했어요. 행동으로 하려고, 교언영색(巧言令色)하는 중에서 인자가 없다고 했는데 말을 잘하는 자를 멀리했고 진정한 인자는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했지요. 천명은 경외감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르지만 젊었을 때는 그런 입장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식으로 오십이 지천명할 때는 다른 자세죠. 천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혈기왕성한 청년기를 넘으면 인모로 감당할 수 없는 숱한 일들을 겪고 귀모의 작용을 감지하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겸손하게 살고자 한다. 이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은 군자의 나이인 50세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간절해진다. 이때쯤 대천명을 넘어 지천명의 지식욕구도 같이 불타게 된다. 그래서 공자도 내게 수년이 더 있어 나이 오십에『주역』을 배운다면 가히 큰 과오가 없을 것이다(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라고 기원하고 마침내 나이 50이 되어 천명을 알았다(五十以知天命)고 말했던 것이다.

주희는 50이 지천명, 50은 빠지고 사마천의 사기에 가수년(假數年)의 가가 더할加가 아니고 빌릴 가(假)자로 되어서 가수년이면 학역을 해서 문질빈빈(文質彬彬)할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만년에 했다고 해요. 65세 넘어가면 50대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십의 五가 卒자가 해체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친구의 친구가 논어를 봤는데 오십이 아니고 졸로된 버전으로 봤다. 두 개를 합쳐서 오십을 졸로 고쳤어요. 주희의 해석은 틀렸다고 해요. 친구의 친구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겠고 가수년학역문질빈빈이라는 사마천의 이야기는 진짜 70대에 한 말이에요. 만년에 한 말이고. 이것은 40대 후반에 한 말이에요.

앞부분의 가는 사마천의 사기는 거짓 假(가)예요. 실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년을 더 살 수 없어요. 늙어서 한 거예요. 앞에 加는 논어에 말하는 것인데 나한테 여가가 수년만 짬을 낼 수 있으면 50살까지 공부해서 도통할 텐데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발음

은 같지만 뜻은 판이한 거예요. 앞은 실지로 여유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의 40대 후반에 한 것이고, 사마천의 빌릴 가는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을 때 쓴 거예요.

가정법의 가(假)를 쓴 거예요. 한문도 다르고 뜻을 억측해서 기존의 경전을 고치면 안 되죠. 전해지는 말들도 45세부터 『주역』을 읽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전해지고 그래요. 나이 50이 되어 천명을 알았다는 것하고 지천명하고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 (오십이학역, 가이무대과의)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주역』에서 볼 때 군자길 소인비, 나올 때는 군자인 사람은 50이상 된 사람이 길하고 소인은 50 미만인 사람이 받으면 막힌다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군자유종을 50 이상 된 사람이 받으면 유종의 미를 받아요. 그런데 군자유종을 20살짜리가 받으면 안 좋아요.

◆ 3교시 : 서양과 동양의 신탁 ②

▲ 동양의 신탁

괘와 효사를 하나씩 다루려고 하는데 64 괘에다가 64*6=**384효의 64 괘사가 있죠. 448개의 사(辭), 말씀이 있는데 주역을 둘러싼 논쟁에 70-80프로는 사(辭)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논쟁이 이루어지고 오랜 세월 분란이 많이 빚어졌죠.** 448개의 효사를 어떻게 외우냐? 외우지 말고 주역괘를 뽑아가면서 체험하면 저절로 습득돼요. 448개의 문장을 가지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글을 잘 썼어. 국어의 대부분 언어가 여기서 변했어요. 비룡도 그렇고요. 용비어천가도 이런 주역과 관련된 문장들이 많다. 글자, 단어들. 불쾌하다도 주역의 단어예요. 가장 뒤로 거슬러가면 고대 책자는 주역밖에 없다. 주역에 붙인 공자의 주석, 십익에 또 엄청 많은 말들에서 국어가 나왔지요. 국문학적으로 봐도 언어의 보고다. 좋은 말은 거기에 다 들어 있고요.

이인동심 기리단금 (二人同心 其利斷金),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으로 쇠도 자를 수 있다.' 동심지언 기취여란(同心之言 其臭如蘭). '한마음의 말은 향기가 난과 같다.' 십익(十翼)에 나오는 말이죠. 명귀는 주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64 괘를 다 할 수 없으니 의미 있게 순서를 짜겠습니다. 첫째, 클래스의 운명에 대해 감지관이 나왔어요. 감괘(坎卦)를 보고 관을 보고 주역을 본다면 대유(大有)괘를 보고 이명박 정부의 금년 10, 11, 12월 운세를 봤지요. 금융위기는 안 닥칠 것이다. 건괘, 곤괘는 첫 번째 있는 거니까 기제(既濟)괘, 미제(未濟)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일 끝 63, 64번 괘죠.

어떤 효사건 괘사건 간에 중요한 것은 뜻인데, 실지로 서점을 쳤을 때 적중해야 돼요. 그 뜻이 단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2, 3개로 해석되면 맞는 경우가 있다. 연구에 들어가는 방법론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증주역 첫 부분의 머리말 7페이지에, 나이 오십에 천명을 알았다. 지천명(知天命), 지난 시간에 지인(知人)이 합리적인 지식의 끝이라면 지천(知天)으로 넘어올 때 순천(順天)의 단계, 낙천(樂天)의 단계, 지천은 지식을 가지고 덕이라고 할 수 없죠. 동양에서는 인의예지라고 해서 덕이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만 덕이지 지성은

아니죠. 지적 탁월함이죠. 지천을 바탕으로 순천에 이르는 건 천명을 좋아하고 아는 정도를 넘어 승복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계, 운명을 사랑하는 단계. 낙천은 천명과 노는 단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자님의 지식과 관련해서 知之者不如好之者(지지자불여호지자), '뭔가를 아는 것은 뭔가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好之者不如樂之者호(지자불여락지자), '뭔가를 좋아하는 자는 뭔가를 즐기는 만 못하다.' 천명과 관련해서 지천, 순천, 낙천까지 이를 수 있다.

순천과 낙천의 단계는 천명이지만 인간의 행태가 들어가니까 덕의 수준이죠. 덕은 천명과 덕이 통합된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통합된 천일합일의 경지죠. 천명을 아는 것은, 천명을 좋아하는 만 못하다. 천명을 좋아하는 것은 천명을 즐기는 만 못하다. 50이 지천명의 단계, 60이 이순(耳順), 천명을 듣고 따르는 단계에 이르렀다. 누구를 따라다닐 때는 좋아서 따라다니죠. 70이 되었을 때는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늘의 준칙을 넘어서지 않았다.' 공자는 다른 경우, 벼슬을 해서 귀해지고 돈을 벌려고 해서 벌고 벼슬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 애를 써서 하고자 하면 귀해지고 하고자 하면 부해지면 마부라도 하겠다. 그것은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차피 그런 거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학문을 하고 제자를 길러 동양의 사상을 하겠다.

낙천의 단계는 천명이나 하늘을 탓하거나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즐거이 살아가는 단계죠. 순천과 낙천은 70대 나이의 낙천자라면 60은 순천자고 50은 지천자다. 지천도 많이 나와요. 중용 예기에도 나와요. 하늘을 아는 것. 두 개를 기계적으로 보지 말고 공자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보면 知之者 不如好之者(지지자 불여호지자) 好之者 不如樂之者(호지자 불여락지자)라는 공자의 구절과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했던 50, 60, 70대에 이야기와 연관된 이야기다.

초월적 지식이고 동아시아의 신학에 해당되는 것이라 봐야한다. 덕행구복, 덕행을 통해 행복을 구하는데, 덕행을 하려면 외적의 조건이 필요한데 귀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고 운명이 결정하는데 행복을 운명으로 정의할 수 없고 덕행을 통해 하되, 다른 한편으로 주역을 통해 자기 운명을 알고 순응하고 따르고 더불어 노닐면 하늘과 사람이 합쳐지면서 행복의 경지가 있을 수 있다.

▲서양의 신탁

서양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땠느냐. 행복은 덕행을 하는 것으로 추구하는데 덕행의 호조건이 만만치 않고 운명에 의해 좌우되니까 그것을 용인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했을까. 서양의 사학자, 철학자들의 중요한 글들을 보면 신탁, 주역도 신탁의 일종인데, 최고 경지의 신탁예요. 주역도 글자형태로 되어 있고 무녀의 말로 통하지 않으니 최고 단계인데, 구두 언어도 아니고. 새가 날아가는 모양이나 상징이라고 아는 것은 원시적인 형태의 신탁인데, 무당들이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오라클이 희랍시대에는 많이 번성을 했는데 특히 민주주의가 극성할수록 점이 극성해요. 가장 권위로운 게 델피신전의 신탁입니다. 헤로도투스건 소크라테스건 모조리 등장해요. 신에게 물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문제를 물은 거죠. 그것이 뭐가 있을까?

경험 자료가 없는 미래는 알 수 없죠. 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일 해가 뜰 것이다. 법칙적, 규칙적인 것 상식적인 건 알 수 있어요. 한강을 건너는데 수영의 베테랑을 건너게 하는 게 빠르다는 것을 신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묻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면 신을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런 건 답을 안 해주고 신녀가 받아들이지도 않죠.

알 수 없는 것은 많죠. 아테네에 지진이 언제 닥칠지. 이라크 전쟁은 어떻게 끝날지. 미국은 이길 것 같았는데 어디가 전선인지도 모르니까 빠져나올 수도 없고 처박혀 있기도 그런 전쟁의 결과. 아테네 헌법을 개헌을 하는데, 도입된 헌법이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또는 정의롭고 불평 없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반역자가 해외로 추방되었는데 그 재산을 누구한테 줘야 할 것인가를 델피신전의 신녀에게 물었다. 델피신전의 신녀를 피시아라고 했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주역에서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걸 물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델피신전의 세 가지 경구 중 하나예요. 이 뜻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어요. 우선 인간의 지적 오만을 신만이 알 수 있는데, 신도 필요 없고 자기들만 옳다고 우기는 경우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 그 내용도 틀리지 않는데,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될 때, 그 경계를 알게 될 때, 인간 스스로의 능력 한계를 알게 될 때 쓰는 말이다.

인간세계를 찾아보면 신분차별도 심하고,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하늘이 백성을 받들게 하려면 백성을 임금보다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경은 하늘은 백성의 귀로 듣고, 백성의 눈으로 본다. 가만히 보면 백성이 하늘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경민여천, 임금이 백성 보기를 하늘처럼 보는 것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백성이 임금보다 높다고 하면 그 해석의 권위가 없으니까. 하늘의 천명을 빌려서 백성의 지위를 높입니다.

민주주의가 높이 발전할수록 점이 극성해요. '고전 아테네와 델피 오라클' 델피신전의 신탁점과 민주주의를 다룬 거예요. 동양의 경우 천명이라는 걸 활용해서 백성의 지위를 높여서 백성을 받들기를 하늘처럼 하도록 만들어서 맹자는 백성은 귀한 것이고 임금은 가벼운 것이다. 임금이 잘못되면 역성혁명을 하고, 백성자체는 주체고 임금은 용(用)이라고 할 때 천명의 개념을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도 믿는 중심체가 있어야하는데 예전에는 신이 있었다. 오늘날처럼 민주주의를 가지려면 국민 자체가 신이 없이도 중요한 권위의 집적체가 된 시대가 민주주의인데 그 모습은 아니죠. 국민의 95프로가 히틀러를 뽑아서 천만을 죽였다면 그 백성의 정체를 해부해야 되고 경부고속도로 90프로가 반대했어요. 유신헌법은 90프로 찬성했어. 유신헌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의 모습도 신적인 모습이 아니야. 거기서 뽑은 국회의 모습, 선량들 국회의회의 모습 미국의 경우 국회가 아주 귀한 선량들을 뽑은 사람들이니까 국회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natural aristocracy 자연적 귀족들을 모았죠. 선량(選良)이라고 하죠. 뽑힌 좋은 사람들이

다.

지금 국회를 보세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회도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해. 그래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역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뒷바라지 할 수도 없고 델피신전의 오라클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정치철학적 중대 과제입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가.

오히려 안정된 나라들은 절대부동의 가치 중심과 권위중심이 있는 나라, 즉 군왕이 있는 나라에서의 내각 민주주의는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왕이 없는 곳에서 내각제 2공화국 경우는 대통령이 장난감 같아서 정정불안 때문에 못살아요. 그런데 태국의 경우는 자기들끼리 쿠데타해도 국왕이 부르면 기어서 가고 혼나고 기어서 나오죠. 정치에 개입은 안하지만 신적일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태국이 발전하는 거죠. 인도네시아처럼 왔다 갔다 서로 죽이는 경우는 곤란하죠. 태국은 복 받은 나라다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왕이 있으니까.

희랍의 민주주의와 델피신전의 신적인 권위는 중요한 내적인 관계에 있었다. 다시 철학자 얘기로 돌아가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나누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델피신전에 물으라고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인데, 플라톤은 이상적인 도시를 세우려고 했던 나라에서 반드시 오라클의 지위를 인정해요. 인간과 신이 같이 포함된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눈 거죠.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과 인간도 알 수 있는 영역,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 투키테데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영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투키테데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안에는 오라클에 대한 얘기가 소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신에 대한 공경함이 많은 것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델피신전의 경외나 권위는 인정했다. 조금 남겼다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별개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철학자가 되어야 하냐 말아야하냐를 델피에 물었다고 해요. 20년을 플라톤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물어볼 정도로 중요한 권위체가 있었다는 거죠.

제4강 : 실증주역 머리말

◆1교시 : 실증주역 머리말

▲고증과 논증을 통한 주역의 해석

공자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 전하듯이 '위편삼절韋編三絶'할 정도로 40대 중반부터 『주역』~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이 각고의 『주역』~공부를 통해 50살에야 천명을 깨달았다. 그는 이때서야 비로소 사람의 삶에 대한 지식(知人)을 넘어 천명에 대한 초월적 지식(知天命)의 새로운 지평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런 영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는 『논어』의 마지막 구절에서 "천명을 모르면 군자일 수 없다(不知命, 無以爲君子也)"고 단언했던 것이다.

이 깨달음이 있게 된 후부터 공자의 자세는 전환되죠. 자공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어록이 요편에 많다고 했죠. 공자는 순천, 낙천의 단계로 갔다. 진인사대천명이 수동적인 자세라면 지천을 바탕으로 순천, 낙천으로 가는 것은 액티브한 덕행이죠.

필자는 '지천명知天命'에 대한 궁금증에서 그리고 대학 강의를 위한 동양정치사상 연구의 일환으로 1994년 처음 『주역』~공부를 시작했다. 그 후 수많은 역학서들과 씨름했지만 역학의 영험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헤매기만 했다. 그러다가 2002년 세밑 어느 날 우연히 역학과 시서蓍筮에 밝은 원주原州의 한 젊은 역학자를 만나 시서 체험과 함께 『주역』~관련 설명을 귀동냥하면서 비로소 역학 입문의 길을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 길은 괘를 뽑으면서 원문에 접근한 거죠. 그 이전에는 공부만 해서는 알 수가 없는거예요. 괘를 뽑아서 적중하는 것을 체험할 때부터 알게 되었지요. 원주의 이 사람은 나보다 11살이 어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것만 공부했어요. 산속에서 지내는데 연락도 안돼요.

이때부터 필자는 매일 정열적으로 『주역』~연구에 매진하였다. 이 『실증주역』은 1994년부터 시작한 10여년 『주역』~연구의 '중간결산'인 셈이다. '실증주역實證周易'이라 이름붙인 것은 필자의 독특한 연구방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책에서 활용된 '실증주역 방법'은 크게 고증考證과 논증論證, 서증筮證의 세 가지 방법을 결합시킨 것이다.

첫째, '고증'의 방법은 고대의 한자에 대한 고고학적·고문헌학적 해자解字와 고대의 한문 용례, 풍속과 의례儀禮, 사건과 배경 등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최대한 과학적으로 괘사卦辭와 효사爻辭의 원의原義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의례나 주례, 역사책 국어, 춘추좌씨전, 공양전 등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한 단어의 의미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고증'의 방법은 갑골문과 고대 유물에 새겨진 고대 한자의 고고학적 해명과 『시경詩經』, 『서경書經』, 『설문해자說文解字』, 『이아爾雅』, 『주례周禮』, 『춘추좌전春秋左傳』~등 고대 문헌의 용례에 대한 문헌학적 탐구로 그치지 않는다. '고증'의 방법은 괘사와 효사에 고대적 역사 기록과 의례·풍속·세태의 기록을 대입代入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최대한 고대사적 스토리, 사건 추이, 시대 배경을 복원하여 『주역』~경문을 해명하는 발견적(heuristic) 역사 고증 작업도 병행한다.

공자님이 요(要)편에서 논쟁할 때 서경(書經)에는 빠지고 망실된 것이 있다. 주역에는 온전하다고 했어요. 공자는 주역을 역사책으로 본거죠. 역사적인 스토리로 복원되지 않고 달리 해석되면 엉뚱하게 된다. 한 효사와 괘사에 역사적 스토리를 붙여놨어요. 우리 나라사람들은 인과관계로 붙여놨어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 스토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한 적용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방법이 없어요. 『주역』~경문을 해명하는 발견적(heuristic) 역사 고증 작업도 병행한다.

『주역』~경문 곳곳에는 하夏, 은殷, 주周 삼대의 역사, 의례, 풍속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특히 건乾, 리履, 태泰, 동인同人, 명이明夷, 쾌夬, 귀매歸妹, 기제旣濟, 미제未濟괘의 괘·효사들은 삼대와 문왕, 무왕, 주왕紂王의 역사 및 고대사회의 의례, 풍속, 시대상에 대한 규명 없이 한

낱 고증학적 해자 및 상수象數와 의리義理 분석만으로는 결코 석명釋明할 수 없다. 필자는 이 책에서 고형高亨과 알프레드 후앙(Alfred Huang)이 개척한 이 연구 방법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킴으로써 동서고금의 거유巨儒와 석학들조차 오랜 세월 부질없이 논란만 벌이고 해명하지 못한 여러 괘·효사들을 명쾌하게 해명해낼 수 있었다. 후앙이나 고형으로부터 방법을 배웠지만 틀린 경우에는 논증적으로 왜 틀렸는지 써놨어요.

둘째, '논증'의 방법은 다른 견해들과의 소통과 논쟁을 통해 괘·효사에 대한 보다 나은 의미 해석을 '논증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적 원칙에 따라 필자는 이 책에서 이른바 공자의 십익十翼을 비롯하여 우리말, 한문, 중국어, 영어, 독일어로 쓰인 동서고금의 수많은 역학서易學書들을 국제적으로 참조하여 일일이 각주를 달았다. 근대 '과학'은 다른 견해들과의 소통과 논쟁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검증하고 도출하는 '논증(dicourse)'을 핵심 방법으로 삼는 까닭에 '과학적 학술 논문' 여부는 일단 형식적으로 각주의 유무有無로 판별된다. '각주'라는 이 작은 형식 속에는 표절혐의를 벗는 소극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합리적 논거論據 이외의 그 어떤 독선적 권위도 배제하고 다른 학자들과의 끊임없는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기 주장을 '논증적'으로 도출한다는 과학적 절차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책들 보면 주역 책은 각주가 안 달렸어요. 한마디로 학문이 아니다. 학문은 다른 사람과 소통이 없으면 학문이 아니니까.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은 이성적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억측의 대상도 안 된다.

셋째, '서증'의 방법은 서례筮例를 통한 실증을 말한다. '서례'란 역易으로 점친 서점筮占 사례이다. 이 '실증주역'은 사서史書 속의 서례들과 다른 역학자 및 필자 자신의 시서蓍書 경험을 통해 누적된 서례들을 괘·효사 해석의 최종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역사책 안에 춘추좌씨전, 국어에도 유명한 서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도 서례가 있어요. 가락국기의 김질의 용녀에 대한 서례, 우리나라에서는 문자로 된 서례 중에 가장 오래 된 거죠. 용녀를 내치고 화산도로 귀양 보내고 초야에 묻힌 선비가 도와줘서 태평성세를 받았다. 삼국유사에 나오죠. 최대로 동원해서 했는데 또 기타 서례집의 책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고대 희랍에도 델피 신전이나 기타 신전에서 신탁점을 봐서 중요한 전쟁이 일어나 결과가 맞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점을 본 자가 점을 어겨 비참한 최후를 맞은 서례들을 모아놨는데 500여개가 전해져요.

서례들이 어떤 것이 남아 있느냐. 역사적 대사건과 관련된 게 남아있어요. 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서정적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자기가 본 것, 남이 본 것들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3800개의 괘 효사의 하나가 해석된다고 해서 옳은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죠. 4, 5개 혹은 7, 8개는 유명한 게 있어야 하는데 평생 검증하려해도 서증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인생은 짧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논증적, 고증적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오히려 글자가 여러 뜻이 가능하기 때문에 7, 8개가 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두 개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나 고증학적으로는 뭐가 옳은지 판정할 수 없어요. 그 경우는 서증 외에는 방법이 없다.

고증과 논증을 통해 얻은 다양한 해석들은 그 자체가 서로 배치되는 수많은 버전을 낳는 통에 되레 종종 괘·효사의 의미를 더욱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준屯괘의 초구나 중부中孚괘 상효의 경우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필자는 고증과 논증으로 인해 오히려 해석들이 더욱 다양화되고 서로 갈리어 애매모호해질 때는 서례를 기준으로 그 뜻을 판단하고 누적적 시서를 통해 이를 거듭 실증적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했다. 나아가 괘 효사의 의미와 논리적 구조가 고증과 논증만으로도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서례로 실증되는 바를 적시하여 그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되살리고, 실제 점서占筮에서 전혀 적중성이 없는 무의미한 괘 효사를 찾아내 이를 밝혀 놓았다.

과령 관괘(觀卦)의 괘사는 적중도가 없어요. 또 화지진괘火地晋의 괘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아간다는 의미가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적중하는 괘사가 있기 때문에 서증으로 가려놔야 해요. 시초(蓍草)의 점대로 보는 것을 시서라고 합니다. 시초가 없어져서 서죽으로 한다고 했죠. 서죽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점을 못 봐요. 동전으로 밖에 못 봐요. 서죽이 있어야 연습할 수 있고, 이걸 쳐볼 때야 실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신성에 대한 경험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과거 수백만 동안 누적된 DNA구조 속에 침전된 지식을 동원해야하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의 공통점은 정성스러운 것, 깨끗한 것, 정신을 통일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만 DNA로부터 무한대의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적 형식을 취하든 안하든.

델피신전의 신탁은 엄청난 종교적 절차를 필요로 했어요. 물어볼 때도 긴 난관을 통과해서 엄숙하게 통과해서 신녀를 만날 때까지 오랜 시간 통과하고 미리 점을 봐서 점을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희생물을 올려 내장물의 모양을 보고 점을 봐줘도 된다고 나야하죠. 돈도 많이 들었고. 또 1년에 9번밖에 점을 못 봤대요. 겨울에는 아폴론이 다른 데로 나가는 관례가 있어서 겨울에는 안 봤어요. 봄이 와야 보고, 9일밖에 못 보는.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이길까 말까를 제사를 지내고 희생물의 내장 상태를 보고 이긴다는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제우스의 신탁에 가요. 다시 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에게 와서 봐요. 당신의 제우스가 이긴다고 했는데 맞냐? 아폴론은 이긴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전쟁을 중단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민회를 소집해놓고 아테네 사람들이 소집해놓고 델피신전의 신탁이 오기를 기다려요. 돌아온 뒤에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민회를 열죠. 그럴 정도로 경건한 과정을 거쳤다. 경건하게 해야 나온다. 주역을 하면 사람들이 급해지지 않고 성격이 온화해져요. 안 되는걸 되게 하지 않죠. 순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덕행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진다.

◆2교시 : ䷜ 중수감(重水坎) ①

▲중수감(重水坎) ①

순서를 감지관, 현재 클래스가 8주 후에 잘 운행되어서 어떻게 될지 물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잔여운을 봤는데 대유괘가 뽑혔어요. 이런 순서로 건(乾), 곤(坤), 미제, 기제를 보겠어요. 이 순서로 해나가겠다. 감괘가 29번이죠. 해석할 때 대단히 위험한데 거의 폐강될 정도로 위험한데 약간 구해서 나아간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아간다. 결국은 관이라는 것은 본다는

뜻인데 멀리본다. 점을 본다. 8주 후에는 점을 볼 수 있고, 동네 선생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점을 볼 수 있게 능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두 개가 동했는데 2효하고 상효가 동했어요. 상효도 해석하기 어려운데 제 말을 따르면 정확히 적중시킬 수 있어요.

☵☵ 중수감重水坎

習坎습감. 有孚維心유부유심 亨형. 行有尙행유상.

[坎: 깊은 구덩이(를 팔) 감(陷也), 심연 감. 習: 거듭 (익힐) 습, 가르칠 습. 尙: 功(賞) 상. 洊: (물이) 거듭(이를), 자주(닿을) 천]

거듭 습, 감은 물, 물은 위험하죠. 깊은 물에 빠져죽거나 큰 홍수에 떠내려가면 나라도 망하죠. 나라도 천자도 성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요. 그리고 소량인데 대단히 위험한 물이 술이에요. 화수미제, 수화기제 괘에는 술에 관련된 것, 물 중에 폭탄보다 무서운 게 술이고, 많으면 무서운 게 홍수고 괴어있어도 무섭죠. 음(陰)은 어둡잖아요. 물은 어둡죠. 깨끗한 물을 보면 가운데에 밝음이 있어요. 투명한 게 있어요. 가운데를 양(陽)으로 했어요. 그런데 불은 겉은 환한데 심지 근처는 까맣잖아요. 시커먼 물은 가운데는 파랗게 보이지면 빠지면 죽어요. 시퍼런 물이지만 투명하다. 어두운 물도 밝은 게 들어있고 불은 밝지만 어두움이 들어있다.

有孚維心유부유심, 유 가진다. have 의 뜻이 있고 어(於)나 우(于), 여기서는 가지고의 뜻,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유인데 믿음성을 가지고 오로지 마음을 다하니 형통하리라, 行有尙(행유상). 행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험한 곳, 위험한 곳, 물, 비 도 되고, 술, 심연. 감 괘를 받았다하면 위험 하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행유상, 결과는 좋아요.

고려사에 구성을 쌓는데 감 괘가 변해서 기제괘로 변하는 중수감 괘가 기제 괘로 변하는 걸 왕이 만조백관 앞에서 사관을 시켜서 괘를 뽑아서 구성을 쌓는 15만의 공수부대를 창설해요. 비참하게 끝나요. 원수는 삭탈관직하고 구성은 내줘요. 감이 기제 괘로 바뀐 것을 공격으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감 괘는 공격할 때는 위험에 빠지는데 요새를 설치해서 막아내는 데는 좋아요. 공격전에서는 불리하고 막아내는 데는 좋다. 공격전을 펴서 비참하게 끝나는데 감 괘의 뜻을 어겼다고 봅니다.

習坎. 有孚維心 亨. 行有尙.
거듭된 심연深淵의 상이로다. 오로지 믿음의 한 마음이니 형통하리라. 행하면 상賞이 있으리라.

두 음효 사이에 양효가 끼어 있는 '감坎'을 물로 보는 것은 물속이 투명한 것이 감 중에 양효가 있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水中虛明, 則坎中之陽也). 감 괘는 '감坎'이 중첩된 '거듭된 심연', '거듭된 위험'을 뜻한다(彖曰, 習坎, 重險也). 따라서 이 감 괘는 준屯, 건蹇, 곤困괘와 더불어 소위 사대난괘(四大難卦)에 속한다. '거듭된 심연'과 '거듭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곤

괘는 비곤한 괘인데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 사법시험, 고시, 일류대학 시험 때 받으면 합격해요. 대통령 출마 때 받으면 당선돼요. 그런데 지자체 의원에 나가면 떨어져요. 곤한 노력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에서 받으면 당선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좋게 끝낸다.

'거듭된 심연'과 '거듭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오로지 한 마음이면 형통하다. 위험을 무릅써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로지 변치 않는 마음이면 형통한 것은 곧 강중剛中하기 때문이다(行險而不失其信, 維心亨, 乃以剛中也). '행유상行有尙'의 '상尙'자는 고대에 '상賞'자와 통용되었다. 상은 공을 세워 받는 것이다. 따라서 「단전」에서는 '행유상行有尙'을 '행유공行有功'으로 풀이했다(彖曰, 行有尙, 往有功也). 그런데 정이는 '상尙'을 '가상히 여길 만한 것(可嘉尙)'으로 해석하고 여기서 공功의 개념을 도출했다. 정이천이 그 당시에 한문에 능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상은 조개패없는 것이 수없이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는 우리가 더 많이 자료를 접해요. 그러나 빌헬름은 '성공(Erfolg)'으로, 후앙은 '영예(honor)'로 번역했다.

또 「단전」에 의하면 감괘는 '위험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를 지키는(彖曰, 王公設險以守其國)' 괘다. 공격의 괘가 아니라 험한 것을 설치해서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괘예요. 공격전을 피면 불리해진다. 상대가 위험이 되어버려. 내가 이걸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하면서 감괘를 받으면 좋고, 오랑캐를 점령할까요? 해서 이 괘를 받으면 안 좋아.

이 점에서 감괘는 무서운 방비 시설을 설치해 나라를 방위하는 데 공을 세울 수 있는 괘이기도 하다(그러나 공격전에서는 공을 세울 수 없다). 또한 공자는 "물이 거듭 밀려오는 것이 '습감習坎'인 바, 그래서 군자는 항상 덕을 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거듭한다(象曰, 水洊至, 習坎, 君子以常德行, 習敎事)". 교육의 괘에요. 이 클래스가 8주 공부하고 잘 해낼까 할 때. 대단히 정확하게 뽑은 겁니다. 공부를 오로지 열심히 한다고 해야죠. 공부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감괘는 몽蒙괘와 함께 교육의 괘다. 그런데 이 교육은 청소년 교육이 아니라 백성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성인을 위한 교육이에요. 몽은 어린 것과 관련된 괘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후앙에 의하면, 이 감 괘도 무왕의 역사적 고사와 관련된 것이다. 무왕은 은나라 폭군을 타도한 후에도 99개의 소왕국을 정복하고 652명의 제후를 복속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은 설득하여 얻고 일부는 감옥에 처넣었다. 개선凱旋하는 길에 무왕은 호경鎬京을 도읍으로 정하고 여기서 주나라를 확립했다. 감옥에 처넣는 건, 감괘의 마지막 6번째 상효가 감옥의 괘에요. 위리안치 등, 가시나무 사이에 감옥을 만들어 가두는. 귀양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귀양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처자식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귀양도 있고, 자식은 왕래할 수 있는데 각시는 갈 수 없는 귀양도 있고, 집에 가두는 것, 최악의 경우는 집에 가두고 가시를 심어 나오지 못하는 위리안치라고 했어요.

개선凱旋하는 길에 무왕은 호경鎬京을 도읍으로 정하고 여기서 주나라를 확립했다. 이 시기에 주나라는 위험에 위험을 연이어 겪었다. 무왕은 확신을 견지하고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켜 수차례의 위험을 극복했다. 이 감괘의 효사들은 거듭된 위험과 극복, 그리고 설득과 옥사獄事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감괘를 얻은 자는 중첩된 고통과 위험에 파묻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에 처한 자이다. 감괘를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는 당혹스런 상황이죠. 폐강을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논의했으니까요. 당장 아무 일이 없더라도 장차 어떤 위험이 신변에 다가오고 있다. 편안할 때 받으면 닥치게 되요. 시점을 정해놓고 해석해야 해요. 자기가 나쁜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 받는지 중요해요. 아주 나쁜 상태에서 받으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좋은 상태면 심연에 빠지게 돼요. 또 모임·계약·교섭을 두고 감괘와 같이 동효 없는 중重괘를 얻으면 모임·계약·교섭이 깨진다. 뭔가 움직여야 돼요.
초육은 우리가 받은 괘는 아니지만 해보면.

初六. 習坎 入于坎窞 凶.
초육. 심연에 심연이 거듭되어 심연의 물구덩이에 빠지니 흉하리라.
[窞: 구멍(구덩이) 담] 심연속에 깊은 물구덩이죠.. 걸어다가다 탁 빠지는 곳이 담이에요.

흉(凶), 초효는 아주 안 좋아요. 동양에서는 홀수, 1 3 5 7 9은 양의 수, 2 4 6 8 10 음의 수, 대표적인 것 9 하나를 택해 양수, 음수는 6을 택했어요. 왜? 양수는 앞으로 뻗어나가니까 가장 높은 수를 선택했어요. 음수로 왜 6을 선택했느냐. 음은 겸손하니까 가운데 중용의 숫자를 택했어요. 대표적으로 음이라고 쓰려면 한자가 복잡하니까 육(六)이라고 쓴 거죠. 구(九)라고 쓰겠죠. 6번째는 육(六)육(六)이 되니까 상이라고 하고, 처음은 초라고 해준 거예요. 초육, 상육이라고 하고. 각 효의 이름이 초육, 구이, 육삼, 육사, 구오, 상육 이라고 한 거죠. 구오라고 하면 다섯째가 양효 구나 알 수 있죠. 전화로 불러줘도 아는 거예요. 다른 괘를 볼까요. [redacted] 풍지관風地觀괘는 초육, 육이, 육삼, 육사, 구오, 상구죠.

한나라 때 사람들이 정리를 해줬어요. 옛날에는 이름 없이 효사 괘사만 있었어요. 헛갈려서 어려웠어요. 효사 괘사도 없었다고 하죠. 이것만 보고도 알았다. 공자가 문왕이 6괘사를 정해주고 길흉이 분명해지고 주공이 효사를 지은 후 더 분명해졌다. 효사 괘사가 중요하고 신탁에는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심지어 괘사, 효사를 다 공부하고 나서 괘를 뽑을 때와 전에 뽑을 때 적중도가 달라요. 안 뒤에 뽑는 적중도가 훨씬 높아요. 성경책으로도 신탁을 할 수 있는데 침으로 성경책을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요. 해당사항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성경이 있는 경우는 그 목적으로만 주역은 생긴 것이고, 두 개 다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로고스가 있다는 거죠. 주역도 말씀이 중요해요.

괘의 위치, 음양의 위치 중요하지만 괘를 뽑을 때 90프로 두 번째 효가 동하면 좋구나 하면 돼요. 지난 번 2효과 상효가 뽑혔죠. 뽑을 때 나쁘지 않다. 상효는 경우에 따라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어요. 위리안치 될 수도 된 후 빠져나올 수도 있다.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뽑아야 한다. 2효과 5효는 좋다.

주역은 중도의 정신이 본질을 이루는 겁니다. 극단적인 괘, 대과는 그 효사나 동한 효의 위치가 크게 지나쳐야 상쇄되어야 하죠. 엉뚱한 데서 길한 게 나와. 4효가 길하고, 길할 수가

없는 건데, 초효는 양의 자리에 음효가 있으니까 안 좋아요. 부당위다. 합당하지 않은 위치다. 2효에는 음의 수인데 양효가 있으니까 좋지 않은데 작게 구하면 얻을 수 있다. 구소득이라 했죠. 삼효는 양의 자리인데 음이 있으니까 안 좋고 4효는 음의 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합당하게 있어요. 양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합당하고, 5효는 감 괘의 위험이 자라요. 상효는 음의 자리에 음이 있으니 좋다.

1번째는 1이니까 양의 자리고 양이 오는게 좋다. 澤風大過(택풍대과) ䷛, 여기는 고목, 버드나무 고목에 새싹이 돋은 거예요. 오버죠. 오버를 해야만 본전치기하는 거예요. 하괘는 늙은 지아비가 젊은 애첩을 얻었어. 상괘는 또 꽃이 피었어. 꽃은 십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죠. 금방 지죠. 하괘는 상당히 오래 가요. 할아버지가 돈만 있으면 오래가요. 상괘는 곧 끝나요. 오버한 건데, 상괘는 할망구가 젊은 사내를 얻었어요. 젊은 사내가 도망가죠. 꽃과 할머니와 사내남자의 관계를 비유했고, 아래는 흉한 효예요.

동룡이 높이 솟았어요. 이 효도 나쁜 효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얻는 거니까 좋은 효죠. 2효 음의 자리인데 양효가 있는데 나쁘지가 않아 삼효는 양의 자리에 양이 있는데 흉이야. 오버하는 괘인데 오버가 아니니까 중이 아닌 거야, 상쇄가 안 되는 거야. 사효는 음의 자리에 양효가 있죠. 대과 괘가 아닌 경우는 나쁜데 이 경우 아주 좋아요. 150프로 달성하는 거죠. 친구가 신문사 편집국장 될까 안 될까 봤더니 편집국장 되고 엄청 잘 돼서 오버해서 성과 달성하는 괘예요. 끝에서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서 갈등이 있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괘를 말씀드리면서 중이면 다 좋다는 것에 예외가 있다. 또 부당이라도 좋은 게 있다. 주희는 워낙 치우친 경우는 다른 치우침으로 맞서야만 중에 이룬다.

'습감習坎'은 내외 괘가 다 '감坎'이어서 위아래 거듭 심연이 이어지는 상이다. 공자는 "심연에 심연이 거듭되어 심연에 빠지니 길을 잃어 흉한 것이다(象曰, 習坎入坎, 失道凶也)"라고 풀이했다. 고형은 '담窞(구덩이)'을 '함陷'과 같은 자로 본다. 따라서 '입우감담入于坎窞'은 '심연에 빠져 밑으로 또 꺼진다'로 풀이된다.[1] 심연에 빠졌는데 그 속에서 더 깊은 구멍에 거듭 빠지는 꼴이다. 그러나 이 풀이는 간단히 '입감入坎'이라고 한 공자의 「상전」과 맥락이 닿지 않는다.

☵ 초육은 첫 번째 효는 양의 자리인데 음이 있으니까 부당해요. 안 좋아요. 사업을 하다, 정치하다가 일상적인 것 받으면 재수가 없는데 더 재수 없는 이중고가 나타나요. 전체 효에서 이 효만큼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있다는 권고도 없어요. 가장 나쁜 효라고 할 수 있어요. 초효도 안 받으면 견뎌내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천명을 알았으니까 순응해서 다른 일하는 게 나아요. 부자가 되는 일이 되려고 하면 되면 나는 마부가 되겠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 3교시 : ☵ 중수감(重水坎) ②

1) 高亨, 『周易古經今注』, 100쪽.

▲중수감(重水坎) ②
이효는 감괘가 관괘로 변할 때는 구이가 동했어요.

九二. 坎有險 求小得.
구이. 심연에 위험한 데가 있으니 작은 것을 구해 얻도다.

첫 번째 효에 비해 안심되는 효입니다. 실패해서 해체될 뻔 한 것에서, 폐강이 되어 없어지려 하다가 한마음으로 돌파를 했어요. 모든 효사에 다 적용해야 돼요. 3명이라도 가자했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구소득求小得'은 보통 '구해도 적게 얻는다' 또는 '작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로 번역하나, 이효정도 얻으면 약간 본전치기하고 남아요. 재수 좋은 경우죠.

六三. 來之坎坎. 險且枕. 入于坎窞 勿用.
육삼. 심연에서 심연으로 오가도다. 험하면서도 깊도다. 심연의 물구덩이에 빠지니 움직이지 못하리라.
[且: 곧 차(=乃), ~하면서 차, 또 차]

왕필, 정이, 주희, 후앙 등은 모두 '내지來之'를 '내왕來往(之=往)'으로, '감감坎坎'을 상하괘의 두 '감坎'으로 해석한다. 이 효의 상은 아래로 와도 '감坎'이고 위로 가도 '감坎'이라는 말이니 위아래의 두 '심연' 사이를 오가는 거듭된 험수險水의 상이다. 위험하기도 하고 깊기도 해. 물에 빠져서 물 밑바닥 구덩이에 또 빠지는 위험이 있다. 흉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유는 덕행을 할 수 있는 권고를 줬어요. 물용은 나서다, 정책을 쓰지 말라, 인물을 등용치 말라, 자기가 본 경우는 나서지 말라. 안 나서면 흉을 피할 수 있어요. 사면초가죠. 다 위험인데 꼼짝않고 있으면 위험을 돌파할 수 있다.

六四. 樽酒簋貳用缶納約自牖 終无咎.
육사. 술 한 통과 기장밥 두 그릇을 질그릇에 넣어 들창으로 바치고 약속해도 끝내 탈이 없으리라.
[簋: 제기그릇 궤. 貳: 두 이, 더할(거듭할) 이. 納: 거두어(받아)들일 납, 취할 납, 바칠 납. 約: 묶을 약, 약속할 약, 검약할 약, 줄일 약. 牖: 남쪽으로 난 창(들창) 유. 主: 공경대부 주]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위험해서 몰래 파트너, 계약당사자, 동맹을 맺어야 될 상대를 만나서 협상을 하면 성공해요. 적중도가 높은 효인데 계약을 하러 간다할지, 정치 협상하려할 때 이런 걸 받으면 밥 먹기로 해서 만나면 아주 좋아요. 많은 논쟁이 있는데 간단한 핵심이에요. '준주궤이용부樽酒簋貳用缶'를 끝내는 탈 없이 넘어간다.

九五. 坎不盈 祇既平. 无咎.
구오. (물이) 심연에 괴지 않고 흘러 평지에 이르도다. 무사하리라.
[盈: (가득) 찰, 차서 괼(머물) 영. 平: 평탄한 곳 평, 평탄한 가장자리 평. 既: 이미 기, 이윽고 기, 다할(겨우) 기, 다만

于沈竟, 入于坎中而陷焉, 故不可有所行動'고 번역한다. 고형의 이 풀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견강부회다.

기}

‘수류이불영水流而不盈’이라는 「단전」의 주석에 비추어 보면, ‘영盈’은 여기서 물이 흐르지 않고 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불영不盈’은 괴지 않는 것이다. ‘영盈’은 여기서 ‘류流’와 반대의 뜻을 갖는다. 한편, 정이와 주희는 ‘지祗’를 ‘이를 지’로 새긴다. 따라서 ‘감불영坎不盈’, 즉 ‘(물이) 심연에 괴지 않는다’는 말은 심연을 지나 넘쳐 흘러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물이 심연에 괴지 않고 흘러가 모든 위험과 광포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유익한 물 생명수는 중요하고 농사에 쓰이는 물도 중요하고 대단히 편안한 물이다. 감괘를 받고 이것을 받으면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위기의 상황에 받아요. 그럼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괘 받은 직후부터 전혀 예기치 못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서례에 이 효를 받으면 지금까지 험난한 상황을 겪어왔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이 효를 받고 나면 곧 험악한 국면과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해진다. 씻은 듯이 변해요.

上六. 係用徽纆 寘于叢棘. 三歲不得 凶.

상육. 밧줄로 묶어 가시덤불 감옥에 유치하도다. 3년을 볼 수 없으니 흉하리라.

[用: ~로(=以). 徽: (두 가닥) 밧줄 휘. 纆: (세 가닥) 밧줄 묵. 寘: 둘 치. 叢: 무더기 총, 덤불 총. 棘: 가시나무 극. 邾: 나라이름 주. 拵: 꽂을 존, 지을 존. 籬: 울타리 리. 栫: 울타리(로 둘러칠) 천]

‘휘묵徽纆’의 ‘휘徽’는 세 가닥으로 꼰 새끼줄이고 ‘묵纆’은 두 가닥으로 꼰 새끼줄이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받으면 흉해요. 감괘는 위험의 끝이잖아요. 아주 위험에 처한 사람이 받으면 좋아요. 가시덤불은 탱자나무를 썼는데 귀양을 보내고 사람을 가둘 때 탱자나무 울타리를 치고 못나오게 했어요. 귀양살이 중 최악이죠. 좌전에도 나와요. 가시덤불은 감옥이라고 해야죠. 잘사는 사람 감옥갈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이 받으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석방돼요. 감괘의 끝이니까 심연에 빠져있는 상황에 끝나. 다른 경우는 절대로 맞지 않아요. 받는 사람의 처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바뀌는 거죠.

하나만 더 하면 [redacted] 風水渙(풍수환)이 될 경우,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상황의 처지가 어려웠던 사람은 그것이 해산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은 웰빙 상태가 해산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동해서 사람의 처지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두 개가 동해서 관 괘로 변했지요. 나쁜 괘가 아닌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줘야 한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갈 것이라 봐야 해요. 공부방에 갖혀 8주를 고생하며 보내는 겁니다. 석방될 때는 관으로 석방된다. 달리 해석할 수 가 없어요. 물음에 맞춰서 해석하고 괘의 뜻이 위험이고, 오로지 마음을 한마음으로 써서 믿음을 갖고 움직이면 상을 받고 그것에 모든 효사를 맞추고 관으로도 끝나는 흐름을 맞추면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해석보다도 뜻이 풍요로워요. 두 개의 글자 감지관을 놓고 4주 후 6주 후의 뒤를 해석할 수 있어요. 정보는 2효와 상효의 내용도 들어있고 감 괘의 의미, 관 괘의 의미, 감에서 관으로 가는 흐름의 방향이 있고 우리의 처지가 있고 알고 출발하는, 클래스가 폐강될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니까요. 상효처럼 현재 자신의 처지에 무엇인가에 따라 해석을 정반대로 뒤집어야할 경우가 상당수 있다.

만약 구오의 경우

九五. 坎不盈 祇既平. 无咎.

구오. (물이) 심연에 괴지 않고 흘러 평지에 이르도다. 무사하리라.

구오를 잘사는 사람이 받았어. 그럼 어떨까요. 일단 감은 위험이고 심연이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금방 나와요. 효사내용에 평지에 가니까. 평탄해진다. 그 대신 봐줄 때는 좋은 사람이 받으면 잠깐 고생할거예요. 라고 해줘야 해요. 아주 좋다하면 틀렸다고 항의하러 와요. 감은 감이예요. 일단 어디에 빠져요. 좋은 사람은 아무튼 안 좋다. 사대난괘는 난괘니까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 3교시 : [redacted]풍지관風地觀

▲[redacted]풍지관風地觀

관 괘로 가면 20번이죠. [redacted]風地觀(풍지관), 볼 관觀자인데 어려움이 본다. 내가 본다 또 다른 뜻이, 내가 뭘 남에게 보여준다. 그때는 위세를 발휘하기 위해 쓰죠. 관병식(觀兵式)의 경우 군사를 퍼레이드 시키는 거죠. 관괘(觀卦)는 볼 관, 보여줄 관이죠. 상효와 오효의 뜻이 달라요. 관망, 관찰, 시찰, 관광, 관람의 뜻도 되고. 48페이지에 관은 음력 8월 괘이다. 관은 지켜보다, 관망하다, 멀리보다, 먼 미래를 보다, 점치다, 기회를 엿보다, 내가 사람들을 보다, 사람들이 나를 보다, 관찰하다, 시찰하다, 심사하다, 관광하다, 관람하다는 뜻이 있다.

觀 盥而不薦 (관이불천) 有孚顒若 (유부옹약), 관망하는 상이로다, 손을 씻고도 제수를 올리지 않고 있도다. 믿음으로 공경하도다. 천薦은 추천하다, 행하다, 개과천선일 때는 행하다이죠.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사지낼 때나 제수를 올릴 때 이 글자를 써요. 손을 씻고 제수를 올리지 않다. 믿음으로 엄정하게 공경한다는 뜻인데, 세세한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효 없이 관 괘를 받으면 뭔가 영기가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대체로 관 괘가 나왔다. 동효가 없다하면 감응이 없는 것이거나 잘못 뽑은 거예요. 다시 뽑아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뽑았는데 관 괘가 나오면, 물어본 말이 엉거주춤의 상황인거예요. 넋 놓고 있어야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리 좋은 괘라고 볼 수 없죠.

관괘는 64괘 가운데 의미가 가장 추상적이고 애매모호 하다. 뽑아놓고도 몰라. 너무 많이 뽑으면 이런 것이나 걸려서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하죠. 동효 없는 풍지관 괘를 얻어 묻는 일과 부합되지 않으면 감응된 바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엉뚱해, 그럼 잘못 뽑은 거예요. 너무 많이 뽑으면 주역도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뽑을수록 안 맞아. 기독교에서도 맨날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계시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꿔야지. 델포이 신전의 신녀는 일 년에 9일밖에 신탁을 안 받았다는데 하루에 20번을 봤다고 해도 일 년에 180밖에 안 봤으니까 이틀에 혹은 삼일에 한 번 본거죠.

初六. 童觀. 小人无咎 君子吝.
초육. 아이가 보는 상이다. 소인은 무탈하나 군자는 부끄럽도다.

소인 군자 나누는 것은 아이가 보는 상이다. 소인은 아이가 보는 것은 괜찮아요. 군자는 부끄럽도다. 옹색하다. 소인과 군자를 어떻게 나누냐 미성년자 청년은 소인이죠. 소녀도 소인이야. 여자는 숙녀, 남자는 신사인데 50이상 된 사람을 군자로 본다. 50이상이 받으면 옹색한 일이 벌어져요. 생각하기 싫은, 들키기 싫은 일을 들켜서 창피당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기분나쁜 일을 당해요. 君子吝(군자린)은요.

하나가 동하면 그것도 길어져요. 여러 개 동하면 금방 지나가는데. 덕의 수준은 천진난만한 사람은 무사하고 나이든 사람이 받으면 오히려 창피한 일이 벌어지듯이 꼭 군자라 해서 행복하지 않다. 군자는 덕행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 모르고 덕행하면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죠. 군자라도 창피스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주역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고 볼 수 있죠.

六二. 闚觀. 利女貞.
육이. 몰래 엿보도다. 여자가 주간하니 이로우리라.

여자가 주관하니 이롭도다. 남자든 여자든 별로 안 좋아요. 엿보는 거니까 근사한 사람이 받으면 안 좋은 괘다. 일반인들이 받을 때, 여성이 받으면 불리하지 않아요.

서례를 보면, 어떤 청과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한 부부 야채장수가 이 효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서례에서 주변 장사꾼들이 이 부부의 가게를 엿보면 은근히 가게를 내놓기를 호시탐탐 노리며 배가 아파 지켜보고 있었다. 이에 남편은 모른 체하고 부인이 가게를 주간하며 버텨냈다. 여자가 일을 맡으니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

또 어느 일진(日辰) 서례에서는 맑은 날 차를 몰고 집을 나섰는데 고속도로로 돌아올 대는 장대비가 쏟아져 앞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졌다. 와이퍼가 앞 유리를 훔치는 틈새마다 간신히 앞차 미등(尾燈)이 불빛을 엿보며 운전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하마터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출로를 놓칠 뻔했는데 옆자리의 아내가 제대로 가리켜주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서례에서 利女貞이여정은 무의미하지 않다. 거기를 놓치면 백키로를 가야하니까요. 돌아서 국도로 돌아오려면 한참 걸리죠.

대인군자가 이 효를 받으면 여자가 집안에 숨어서 조심스레 상황을 살피듯이 공론(公論)장에서 몸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심스레 상황을 관찰하며 암약하거나 물밑에서 활동하면 유리하다. 그러나 공론장에서 몸을 드러내고 밖으로 나서서 설치면 불리하다. 공론장에 안 나서고 물밑으로 헤매는 자체가 이로울지는 몰라도 대단히 힘들어요. 활동하는 사람이 받으면요. 꼭 어기고 나가서 필화사건에 말려들고 그러죠. 몰래 엿보듯이 살아야하는데 그러지 못

하니까요.

그러나 일반인들의 서례에 의하면 이 효는 대개 여자가 주간하든 남자가 주간하든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자가 하더라도 엿보는 것이라서 역시 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象曰, 闚觀女貞, 亦可醜也). 공자님은 역시 추할 수 있으니까 유쾌한 효는 아니다.

六三. 觀我生 進退.
육삼. 나의 삶을 살펴보며 나아가고 물러나도다.

진퇴가 나오는 것은 풍, 바람, 손괘는 우유부단한 측면이 있어요. 바로 풍지관이니까 상효로 넘어가니까 나와 있는데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지만 흉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되는 일도 없다. 공자님은 소극적인 해석을 가했어요. 공자는 "나의 삶을 살펴보며 나아가고 물러나니 길을 잃지 않는다(象曰, 觀我生進退, 未失道也)"라고 주석한다.

六四. 觀國之光 利用賓于王.
육사. 나라의 빛을 보니 왕의 빈객이 되는 것이 이로우리라.

뜻은 명쾌한데 오래 걸려요. 나쁜 것도 없지만 기대하는 일이 답답할 정도로 잘 안 이뤄져요. 좌전의 오래된 서례를 보면 기록상 가장 오래된 육사의 서례는 『춘추좌씨전』~장공 22년 봄에 진陳나라 여공厲公의 어린 아들 경중敬仲의 운세를 서한 것이다. 주실周室의 대사大史는 이를 이렇게 점단했다. "경중은 진陳나라를 대이어 나라를 보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럴 것이고, 이 분 자신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의 자손이 그럴 것입니다.

이걸 받으면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그 자손이 만날 수 있어요. 서증이 아니고는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럴 것이고, 이 분 자신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의 자손이 그럴 것입니다. 빛이란 아득히 멀어 다른 곳으로부터 비춰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곤坤은 땅이고 손巽은 바람이고 건乾은 하늘입니다. (외괘는) 바람이 하늘로 변하고,

풍지관의 4효가 동했으니까 건괘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분석해서 풀었어요. 바람이 천으로 변했지요. 호괘互卦는 땅 위에 산이 솟아있는 격이니, 세 개씩 끊어서 볼 수 있는데, 호 괘라고 합니다. 아랫것을 내호 괘라 하고 외호괘라 합니다. 니호 괘를 보면 간이죠. 산 위에 있는 거죠. 4효는?

산에 목재木材가 있어, 손괘가 바람도 되지만 나무도 돼요. 하늘의 빛이 이것을 비추는 형국입니다. 즉, 땅의 위에 있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빛을 봄이요 왕의 빈객이 되니 이롭다'고 한 것입니다. 제후가 천자를 뵈러 가서 뜰 가득 백물百物을 늘어놓고 옥과 비단,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가구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빈객이 되어 이롭다'고 했으니 멀리 보는 관조와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것이 후대에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그

리고 바람은 다니다가 이 땅 저 땅에 다다르니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이고, 만약 다른 나라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필시 강姜씨 성의 나라일 것입니다. 강 씨는 대악大嶽[12]의 후손입니다. 산악山嶽은 하늘과 짝하는 것으로서 이 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진나라가 쇠하면 강 씨의 나라가 창성할 것입니다." 실제로 진나라가 처음 멸망에 이르렀을 때 경중의 5세손인 진나라 환자桓子가 제齊나라에서 비로소 힘을 키웠고, 이후 또 멸망했을 때는 경중의 8세손인 성자成子가 정권을 잡았다.[13]

관 괘는 좋은 괘가 동했다고 해서 금방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간단한 일들은 다른 뜻으로 하는데 서례에서 이 효는 관광, 유람, 여행, 산봉우리로 등반해 산 아래를 구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왕 또는 대통령(후보)를 만나는 일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나 이루어진다. 이런 일들과 무관한 일에서 이 효를 얻으면 관 괘의 다른 효들과 마찬가지로 효사의 내용과 무관하게 '근심이 많은' 효이다.

九五. 觀我生. 君子无咎.
구오. 내 생활을 보여주도다. 군자면 무사하리라.

구오는 임금의 자리로 간거죠. 소동파는 '관아생觀我生'의 관觀을 '관병觀兵(군대를 보여 시위하다)'의 관觀(시위·과시하듯 또는 위력적으로 보여줄 관)과 같이 읽는 반면, 상구의 '관기생觀其生'의 관觀은 '관어觀魚(물고기를 구경하다)'의 관觀(볼 관, 구경·관람할 관)과 같이 읽는다. 왕이 자기의 생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군자라면 탈이 없다. 왕도 군자가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소인은 다 탈이 있다는 뜻이에요. 받으면 안 좋아요. 학교 총장도 학교장도 존이죠. 회사의 사장도 존이고 만약 30살 먹은 사람이야. 그럼 안 좋아요. 오히려 자랑했다가 공격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소동파는 '관아생觀我生'의 관觀을 '관병觀兵(군대를 보여 시위하다)'의 관觀(시위·과시하듯 또는 위력적으로 보여줄 관)과 같이 읽는 반면, 상구의 '관기생觀其生'의 관觀은 '관어觀魚(물고기를 구경하다)'의 관觀(볼 관, 구경·관람할 관)과 같이 읽는다. "구오는 그 지극한 현저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아생觀我生(내 생활 또는 활동을 보여주다)'이라고 했다. 반면, 상구는 지고至高에 처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니 백성이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기생觀其生(그 생산물을 관람한다)'이라고 한 것이다."[14] 관기생은 생산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아생觀我生'은 존위가 백성을 감화시키기 위해 자기의 활동이나 행동거지를 위엄 있게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군주만이 아니라 사장, 총장, 당대표, 온갖 장(長)자리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이면 무사하다.

---

12) '大嶽'은 四嶽을 다스리는 요임금 때 장관의 존칭이다.
13) 『春秋左氏傳(上)』「莊公 22年, 189쪽. 이 점서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온다. 司馬遷, 『史記世家』「陳杞世家」 참조.
14) 蘇軾, 『東坡易傳』, 193쪽. '觀兵'과 '觀魚'의 용례는 『춘추좌씨전』에 자주 보인다. 다음 예문들을 참조하라. 『春秋左氏傳(上)』「僖公 4年, 247쪽, "觀兵於東夷, 循海而歸, 其可也"; 『春秋左氏傳(上)』「宣公 3年, 531쪽, "楚子伐陸渾之戎, 遂至於雒, 觀兵於周疆"; 『春秋左氏傳(中)』「宣公 12年, 32쪽, "觀兵以威諸侯 兵不戢矣"; 『春秋左氏傳(上)』「隱公 5年, 62쪽, "五年春 公將如棠觀魚."

서례에서 지도자(군자)가 구오를 얻으면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거나 실력을 구사하여 아랫사람들에게 일반적 감동을 주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다. 반면, 일반인이 얻으면 잘난 체하다가 망신이나 조소를 당한다. 한편 여행, 풍물기행, 등산을 두고 서하면 이 구오가 잘 나온다. 등산을 두고 이 효를 얻으면 세상을 내려다보며 산 아래에 자신을 과시하듯 드러낼 수 있게끔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한다. 올라갈 때 비 오고 흐린 날도 산 정상에 오르면 밝은 햇살이 나와 좋은 경치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다. 또 군자 격格의 인물이 여행을 가면 그곳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온다는 뜻도 담고 있다. 그러나 군자의 덕이 없는 소인들은 "이 효를 스스로 당해낼 수 없어(自當不得此爻)"[15] 늘 탈이 나고 근심걱정이 생긴다. 관광여행을 앞두고 이 괘를 얻으면 의도치 않게 오면가면 어떤 역사적 인물의 생가生家나 기념(박물)관에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上九. 觀其生. 君子无咎.
상구. (뭇사람이) 그 생산물을 관람하도다. 군자면 무탈하리라.

상구는 존위보다 높은 곳에 있는 효로서 성인聖人 또는 현자賢者의 자리다. 성인은 세상으로부터 인퇴引退했을지라도 성인의 말과 행동은 백성에 의해 관찰되고 따라서 성인의 자기전시로 그칠 수 없다. 구오가 정사를 담당하는 군주와 성인의 위력적인 자기전시에 강세가 있다면, 상구는 정사를 담당하지 않는 학자나 선비가 백성들에 의해 관찰되는 것에 강세가 있다.[16]

또 주희는 『주역』의 '기其'는 종종 '다른 사람(別人)'이 아니라 '자기(自家)'를 말하니, 구오의 '관아觀我'처럼 '관기觀其'도 역시 '자관自觀'이다"라고 주석하나,[17] 이는 그릇된 해석으로 보인다. 반대로 왕필은 "'관아생觀我生'은 스스로 자기의 도道를 위엄 있게 보여주는 것(自觀其道者)이고 '관기생觀其生'은 백성이 보는(관람하는) 것(爲民所觀者)이다"라고 해설한다. 또 상구는 "직위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위의 극점에 처하여 자기 뜻을 높이 숭상하니 천하에 의해 관람되는(구경당하는) 자이다. 천하가 관람하는 지위에 처하였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군자의 덕이 드러나야 비로소 무구하다. '생生'은 활동의 표출(動出)과 같다."[18]

왕필이 해석을 잘했는데 다른 경우는 많이 틀려서 왕필의 해석에 신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생生'은 '활동'만이 아니라 활동의 산물, 즉 '생산(물)', '낳은 것', '만든 작품' 등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구는 구오와 반대로 타인(백성)이 내가 생산한 작품을 보는 상象으로서, 관중이 '나의 활동(생산), 자신의 작품을 본다(살핀다, 관찰·관람한다)'는 뜻이다. 내가 또는 내 작품이 타인 또는 만인의 참관·관찰·심사·관람에 처해지는 상이니 마음이 불안하다. 이에 「상전」은 세상사람 또는 뭇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에 부응하려니 "그 생산물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치 않다는 말이다(象曰, 觀其生, 志未平也)"라고 주석하고 있다.

15) 朱熹, 『朱子語類』, 1778쪽.
16) Huang, *The Complete I Ching*, 191쪽.
17) 朱熹, 『朱子語類』, 1789쪽. '自觀'은 '자기를 보여준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기가 본다'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로 해석하면 구오의 의미이고, 후자로 해석하면 상구의 의미이다.
18) 王弼, 『周易注』, 175쪽.

군자는 무구하다는 것은 무사하다의 뜻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증 상으로는 대단히 길한 효예요. 글로는 무사하다고 해서 경험을 안 해보면 뜻이 해독이 안 돼요. 낯선 곳에 처해 수많은 무리가 나를 또는 내 작품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치 못하다. 군자답게 자기의 독특한 색깔을 누그러뜨려 관람객의 세속적 취향이나 시류와 세속에 맞춰 행하려 하니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다. 이 효는 이례적으로 왕필의 해석이 항상 실증서례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특별히 다른 땅에 처하여 군중에 의해 관람되니 평이할 수 없다. 빛깔을 중화하여 유통시키려니(中光流通)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다."[19]

그러나 자기의 활동을 시위示威하여 백성에게 감화를 주려는 구오와 반대로 군자가 흙탕물 속에 핀 영롱한 연꽃처럼 세속에 적응하는 덕을 발휘하여 자기의 활동의 고답적인 빛깔을 중화시켜 시속에 맞춰 유통시킬 덕성이 있다면 광범한 군중의 떠들썩한 지지와 호평을 받을 것이다.

소동파도 각도는 다르지만 유사하게 해설한다. "상구효는 지고至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다보고, 백성의 관점에서 나를 올려다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기생觀其生'이라 한 것이다. 지금 길에서 수레를 타고 다닌다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불평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성인은 자기의 일신으로 천하의 즐거움을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를 두텁게 받들어 천하에 과시하는데도 천하가 원망치 않는다. 되레 반드시 크게 복종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의 즐길 수 있는 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 역시 나의 생이 즐길 수 있음을 보면 천하의 질투심이 이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면 무탈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군자인 다음에야 무탈하니 무탈하기 어려운 것이다."[20] 따라서 상구는 대인군자, 50세 이상의 신사 숙녀, 지도자(사회 지도층 인사) 등이 받으면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는 길괘吉卦이나, 일반인이 받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

2001년 서울에서 가질 동양화 전시회와 관련해 우연치 않게 '관觀'자가 든 호號를 가진 60대 초 중견화가가 이 효를 얻었다. 원래 그는 시류時流를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그린 독창적이고 고답적인 그림을 전시할 참이었다. 그러나 이 효를 얻고 난 뒤 이 효사에 담긴 경계에 따라 '군자답게' 자기 고집을 꺾고 방향을 바꿔 얼마간 시류에 부응하는 그림들을 전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무구와는 달리 모든 사람 앞에 무사한 것은 대성공입니다. 지수사의 2효도 길 무구라고 했어요. 엄청난 군대를 몰고 출정했는데 무사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과 같아.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서증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죠.

그러나 군자가 아니라 일반인(소인배)의 경우는 대개 일은 잘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곱지 않은 시선과 이목만 집중되어 마찰, 충돌, 구설(비난)이 따른다. 관광 길을 앞두고 이 효를 얻으면 관광하러 가서 현지 주민의 눈총을 사는 일이 생긴다. 취사금지 지역에서 취사하다가 걸리거나 밭으로 다니다가 혼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는 관 괘가 매끄럽지 않아요. 걱정거리, 우환거리가 크고 작은 게 생긴다.

---

19) 王弼, 『周易注』, 175쪽.
20) 蘇軾, 『東坡易傳』, 193-4쪽.

감지관이라고 하는 전체 의미는 위험한데 위험에서 벗어나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점을 보는 상태로 끝난다. 8주 후에는 그렇게 끝난다. 이때 관괘의 뜻은 멀리 내다보고 점친다는 뜻으로 감은 위험한 상태로 클래스가 운영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듯이 공부해서 상도 타고 보람도 느끼고 최종적인 곳에 잘 도착할 것이다.

제5강 : 화천대유(火天大有)

◆1교시 : 화천대유(火天大有)①

▲중수감괘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고려사에 나오는 윤관 1100년경. 윤관이 17만 명의 별무반, 공수특전단을 만들어 북벌을 감행해 9성을 쌓죠. 오랑캐들이 화전양면술로 공격도 하고 애원도 하면서, 9성을 돌려주기를 간청하니까 나중에 조정에서 성을 돌려주기로 결정하죠. 돌려주고 윤관을 삭탈관직 시켜요. 3년에 걸친 병력을 모으고 했던 노력과 9성을 쌓으면서 얻은 피해들을 무릅쓰고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데 왕과 중신들이 고민을 거듭하다 왕이 만조백관 앞에서 주역괘를 뽑아서 할지 말지 결정하자, 감지기제 괘를 얻었어요. 서례가 중요한 이유가 해석방법에 있어서 달리 말씀을 드렸는데, 개전으로 해석합니다. 개전을 결정하고 윤관을 사령관으로 출동시키죠. 결과는 흘러갔는데 감지기제 괘는 중수감重水坎 괘니까 수화기제니까 세 개가 다 동해야 뒤집히죠?

상 괘와 하 괘로 나누어 동할 때만 변 괘가 의미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전으로 결정 보면 감(坎)은 수국의 의미는 있지요. 방어 전쟁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니까. 위험을 설치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건데요. 공격전을 침략전을 한 거예요. 우선 감, 의미에 맞지 않고, 기제는 건넜다는 얘기니까 전쟁을 하면 이기는 걸로 뜻을 성취한 것으로 나와요. 기제 괘는 '전쟁을 하면 이길 겁니까' 물어보면 이미 이긴 거나 진배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는 아닌데, 점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 괘에서만 세 개가 동해서 변 괘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다만 표시를 하는 것은 감괘가 초효, 이효, 삼효 동했다고 쓰면 복잡하니까 감지기제로 다만 세 개가 동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제를 해석하지 말아야한다. 그렇다면 방어전은 유리하고 침략전은 불리하다는 거죠. 두 번째 초효 이효 삼효의 뜻은 어떤가요?

初六. 習坎 入于坎窞 凶.
초육. 심연에 심연이 거듭되어 심연의 물구덩이에 빠지니 흉하리라.

습감習坎이니까 위험이 거듭해서 있는 거예요. 또 위험한데 빠지는 入于坎窞(입우감담) 그래서 흉하다. 전쟁은 실지로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처음에 공격해서 거꾸로 크게 당해요. 두 번째 강력히 밀어 붙어서 이 효는 어때요?

九二. 坎有險 求小得.
구이. 심연에 위험한 데가 있으니 작은 것을 구해 얻도다.

약간의 전승을 해요. 9성을 쌓죠. 세 번째는 다시?

六三. 來之坎坎. 險且枕. 入于坎窞 勿用.
육삼. 심연에서 심연으로 오가도다. 험하면서도 깊도다. 심연의 물구덩이에 빠지니 움직이지 못하리라.

오도가도 다 위험이야. 위험해서 또 감담坎窞이 또 나오죠. 險且枕(험차침) 험하기도 하고 깊기도 하도다. 또 입우감담入于坎窞, 물용勿用 나서지 말아라. 군대를 운용하지 말아라. 안 좋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좋게 끝나는 걸로 해석한 거예요. 중신들이란 사람들이 주역을 하지 않고 임금을 속인 것 아닌가 혹은 임금이 속아 넘어갈 만큼 유식하지 않은 것 아닌가.

나중에 충령대군(세종대왕)이 주역을 해석한 것을 보면 좌중의 대신들이 감탄할 정도로 주석을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세종대왕도 주역을 잘했음을 알 수 있죠. 중신들을 탄복시켰으니까. 이순신도 잘했고. 조선시대 고려를 통틀어 쓸 만 한 해석서가 한권도 안 나와요. 정약용의 주역사전도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별로 도움이 안돼요.

그 시대 내내 주희와 정의천의 해석서가 이천역전, 주역본의가 교과서처럼 읽혀지고 그랬지 더 깊이 연구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거나 한 것은 없고 이율곡은 해석한 것은 없지만 대단히 주역을 잘한 걸로 알 수 있는데 퇴계는 주역을 전혀 못했어요. 과거시험에 과락을 맞아요. 반면에 이율곡은 득점과목인데 퇴계는 계속 감점과목으로 될 만큼. 퇴계는 언문으로 다루어놓은 것을 보면 깊이가 없어요. 서당에서 주역배우는 수준. 김장생의 주역도 실망스러울 정도예요. 그래도 읽을만한 게 정약용의 주역사전인데 실질적으로 쓸 만 한 것으로는 태부족하고 미흡하다.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초장에 대단히 거꾸로 타격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전과를 올린다. 최종적으로는 군대를 다 물리고 쓰지 못하는 勿用이니까. 후퇴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은 개전하면 안 된다고 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려사는 반대로 해서 윤관이 삭탈관직을 당하는, 선비로서는 비극이죠. 17만 대군이라는 것은 별무반이라는 군대는 특수부대니까 무지막지한 군대인데 그걸 다 소진시키는 상황이 벌어지죠. 고려의 국력을 기울인 토벌전인데, 주역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해석으로 타격을 받는다.

다시 환기시키면 아래에서 세 개 동한 변괘 기제는 의미가 없다. 해석하지 않는다. 감이 기제로 변했다는 것은 1,2,3효가 동했다는 표시다. 전혀 의미 없지는 않겠지만 끝난 내용인데 별로 좋게 끝난 게 아니어서 기제사건이므로 끝난 건 끝난 건데요.

▲ ䷍ 화천대유火天大有 풀이

대유 괘는 이명박 정부의 금년 잔여 운세를 봤지요. 화천대유가 나왔었죠. 금융위기는 한국에 연말까지는 없을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죠. 대유는 춘추좌씨전 등에 대풍년, 풍년을 유년이라고 해요. 대풍년은 대유년이라고 했어요. 큰 풍년이 든 걸로 번역을 합니다.

大有. 元亨.
대풍의 상이로다. 크게 형통하리라.
初九. 无交害 匪咎. 艱則无咎.
사귀어 손해나는 일이 없어 근심하지 않도다. 어렵게 여기면 무탈하리라.
九二. 大車以載. 有攸往 无咎.
큰 수레에 싣는 상이로다. 가더라도 탈이 없다.
九三. 公用亨于天子. 小人弗克.
공후가 천자께 잔치를 베풀도다. 소인은 할 수 없도다.
九四. 匪其彭 无咎.
(대임을 위해) 제 옆 사람을 분리하니 무사하리라.
六五. 厥孚交如. 威如. 吉.
그를 믿고 사귀네. 위엄으로 으르네. 길하리라.
上九. 自天祐之 吉无不利.
하늘에서 그를 도우니 길하고 또 이롭지 않은 것이 없으리라.

大有. 元亨.
대풍의 상이로다. 크게 형통하리라.

[遏: 막을 알. 休: 기뻐할(행복해할) 휴, 쉴 휴, 그칠(그만 둘) 휴, 아름다울(좋은) 휴. 僅: 겨우 근, 단지(한낱) 근]

원(元)은 크게 착하다는 도덕적 조건이 같이 들어있어요. 원이 나온 경우에는 착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착하지 않은 사람이 받으면 형통하지 않아요. 원(元)길(吉)도 나쁜 사람이 받으면 나쁠 수가 있어요. 대길(大吉)은 도덕적 조건이 완화되거나 없지요. 그 경우는 좋은데 원길은 크게 착해야 하니까 간단치 않아요.

대풍에 크게 착하다는 도덕적 조건을 붙여서 형통하다고 했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는 겸손해야 되고 많은 재물은 나누어 쓰거나 같이 공유를 해야 좋은 것이지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독식이 되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면 크게 베풀 줄 알아야 지키는 것은 세상의 이치니까 이렇게 붙였어요. 같은 재벌이라도 칭찬받는 재벌이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법이나 어기는 재벌로 비추어 욕먹는 재벌도 있지요. 큰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미움 받아 안 좋은 재벌도 있죠. 장학재단도 세우고 기타 이미지 광고도 내보내고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듯이 선한 일을 해야 재산은 지켜질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한 점사라고 볼 수 있죠.

대유는 괘명이면서 가장 큰 상(象)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상사라고 하고 원형은 점사라고 하죠. 사(辭). 대풍년의 상으로부터 여러 뜻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단전」은 말한다. "대유大有는 음유陰柔한 효가 존위를 얻은 것이다. 화천대유니까 다섯 번째 존위의 효가 음효죠. 가운데에 있죠. 중에 있다. 임금이 중에 있으므로, 임금은 주로 대(大)자로 하죠. 김대중 이름도 여기서 따서 지었을 가능성이 커요. 원래는 사람인 변(亻)이 있었는데 바꾸었죠. 크게 가운데 있다. 중도 중에는 가장 좋은 중도죠. 임금은 항상 가운데로 표시했고 임금은 천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위에 있는 여기는 임금의 중이므로 대중으로 표시했어요.

여기서 생기는 재물, 큰 인간관계, 큰 덕은 임금의 뜻으로 보면 겸손하게 베푸는 것이니까 널리 같이 써서 세상의 공유물로 만든다는 것이 대유괘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너그럽고 용서해주는 의미도 있어요. 조선 순조 때 혜경궁 홍 씨의 팔순에 사면 조치를 하는데 괘를 대유괘를 뽑아요. 동효 없이. 사면조치해주는 뜻과 부합된다고 해석했어요. 「대상전」은 대유괘를 "하늘 위에 불이 있는 것이 대유大有니 이에 군자는 악을 막고 선을 발양시키며 아름다운 천명에 순응한다(象曰, 火在天上, 大有, 君子以遏惡揚善, 順天休命)"고 말한다.

그래서 너그럽고 크게 용서해주고 하늘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뇌수해괘처럼 풀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용서해주는 의미로도 많이 썼다. 왕필은 「대상전」을 근거로 '대유大有'를 '포용의 상(包容之象)'으로 풀이했다.[21] 정이는 '휴명休命'이 통상 '대명大命' 또는 '천명天命'을 뜻하므로 「대상전」의 '순천휴명順天休命'을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받들어 순응한다(奉順天休美之命)'고 새기기도 한다. 그러나 정이천의 말은 옳다고 할 수 없는 게 서경에 보면 왕의 명령도 휴명이라고 하는데 해석은 어패가 있다. 서경에 휴명이라는 말이 세 번나오는데 왕지휴명, 천자지휴명, 천휴명, 하늘에 있다는 것인데.

고형은 『시경』, 『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 등 고대 서적에서 풍년豊年을 '유년有年'라고 했고 대풍년大豊年을 '대유(년)大有(年)'이라 표현한 사실을 근거로 '대유大有'를 '대풍大豊' 또는 '대풍년大豊年'으로 풀이했다. '대유大有'는 '수확이 좋아 크게 풍요로운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22] 후앙도 '대풍년(great harvest)'으로 풀이했다.[23] 그러나 빌헬름, 블로펠드, 클리어리, 리체마 등은 각각 '큰 것의 보유(Besitz von Grossem)', '큰 보유(great possessions, great possession, great possessing)' 등으로 옮겼다.[24] 여기서는 고형과 후앙의 해석을 따랐다. 이 외국인들은 유(有)자의 용도를 몰랐죠. 후앙은 미국인이지만 중국인이어서 (great harvest)제대로 했죠.

'대유大有'를 '대풍大豊'의 뜻으로 쓴 문헌적 전거가 충분히 명확하고,[25] 또 '유有'자에는 원래

---

21) 王弼, 『周易注』, 133쪽.
22) 高亨, 『周易古經今注』, 53쪽.
23) Huang, *The Complete I Ching*, 143쪽.
24) Wilhelm, *I Ging*, 72쪽; Blofeld, *I Ching*, 116쪽; Cleary, *I Ching: The Book of Change*, 31쪽; Ritsema and Sabbadini, *The Original I Ching Oracle*, 200쪽.
25) 『詩經』 「甫田」의 '自古有年'에 대한 『毛詩正義』의 해설 "歲其由豊年也." 또 『春秋』 桓公 3年의 '有年'; 『春秋』 宣公 16年의 '大有年'; 『春秋公羊傳』의 "此其曰, 有年何僅有年也. 彼其曰, 大有年何大豊年也"; 『春秋穀梁傳』의 "五穀皆熟爲有年也. 五穀皆大熟爲大有年也."

‘다多’ 또는 ‘풍족豊足’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26] 문왕이 주왕紂王으로부터 서변西邊 소수민족들을 관리하는 정벌권을 상징하는 ‘궁시부월弓矢斧鉞’을 상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27] 후앙은 대유 괘를 이 고사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한다. “이 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융족戎族 정벌에서 승리한 후 문왕이 은나라 폭군으로부터 큰 상을 받은 사실이다. 문왕은 이 상을 정치군사적 승부 과정에서의 대풍작으로 여겼다. 이 상은 그에게 최고의 상승과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그 상은 수레를 채울 만큼 컸으나, 문왕은 여전히 폭군의 잔학상에 대한 혁명 과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문왕은 폭군과 식사할 때 감히 너무 많이 먹지 않았다. 그의 자신감과 겸손함은 존엄으로 빛났다. 이런 덕성들 덕택에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길운의 신호였다. 아무것도 불리할 것이 없었다.”[28]

대유괘의 상효가 自天祐之 吉无不利(자천우지 길무불이). 끝날 때까지 전체 효사의 의미를 풀이한 거예요. 서례에서 동효 없는 대유 괘를 얻으면 크게 풍요로운 성과가 아니라 ‘상당한 성과’를 올린다. 이명박 정부의 나머지 3개월이 대유 괘가 나왔으니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금융위기가 닥치거나 하지 않겠죠. 동효가 없으므로 대유 괘를 얻더라도 괘질卦質이 그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크게 풍성한 성과를 올리려면 초구, 구삼, 상구의 동효를 얻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25일 성북을乙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의 당락을 서하여 대유 괘를 얻은 바 있다. 미상불 (큰 표차가 아니라) 상당한 득표율 차이(4.2%)로 낙승했다.

대유 괘가 나와서 크게 이길 거라고 해석하면 잘못한 거죠. 동효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서증이 중요한 이유가 글자대로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동효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유의 본질이 발휘되지 않은 거니까 크게 부유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글자는 대유니까 대폭 압승하는 걸로 해석하면 그릇된 판단이다. 약간의 상당한 표차로 이긴다.

이 책은 서례들이 많은데 즉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많은데 오래놓고 보면 역사기록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서례 역사기록이니까요. 고대 아테네의 델피 신전의 신탁 서례가 크게 잡으면 600여개가 넘어가는데 대다수가 역사적 대 사건으로 검증된 것이에요. 페르시아 전쟁, 1·2차 신성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쟁나기 전에 점을 쳐서 했죠. 1차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마라톤에서 이겼죠. 민주주의가 전성기를 맞을 때 델피의 신탁점도 전성기를 맞아요. 민주주의 전 기간에 전쟁하는데 동시에 델피의 신탁이 전 기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예요.

가령 wooden wall 무녀가 토해낸 신탁(신이 자신의 뜻을 표현한 것)안에, 그 시문 안에 ‘나무장벽이 홀로 부러지지 않고 그녀와 자식들을 지켜 주리라.’ 아테네의 수호신이 아테나였죠. 그녀는 아테네이고 그녀의 자식들은 아테네 시민들이겠죠. 이 논쟁이 해석을 하는 트레스몰로골이라는 신탁을 무녀 입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그리스 사회에서 대단한 지위를 누렸어요.

---

26) 大漢韓辭典編纂室(편), 『大漢韓辭典』(서울: 교학사, 2003), ‘有’ 항목.
27) 司馬遷, 『史記本紀』, 65쪽.
28) Huang, *The Complete I Ching*, 146쪽.

그런 사람이 노인들은 델피신전의 선조들이 설치했던 과거 목책이다. 델피 신전을 포함해서 아테네를 지키면서 육전으로 싸워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해석가는 나무 장벽은 목조 전함이라고 해석해요. 목조전함의 해석이 시민 민회에서 전함이라고 채택하고 아테네를 전체를 비우고 육전을 포기하고 여자와 애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감추고 모든 남자들은 전함을 급조해서 배에 타요. 두 번째 이야기가 살라미스, 거룩한 살라미스여. 그녀의 자식들을 쳐부수리라. 그녀의 자식이 누구인가. 거룩하다는 것이므로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격멸시키죠. 전체 전세를 잡죠. 아테네 문명이 살아남게 되죠. 전멸 당했으면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런 해석가가 있었고 민주주의의 운명은 신탁에 달려있다는 것이 중요한 연구거리입니다.

과거의 서례, 혜경궁 홍 씨의 팔순잔치에 대유괘가 나와 사면조치를 했다. 극형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 석방한 때 그때 대유괘가 나온다. 다 참작하면 삼개월간의 약간의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서증이 대단히 중요하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기 쉽다.

◆2교시 : 화천대유(火天大有) ②

▲화천대유火天大有 풀이

初九. 无交害 匪咎. 艱則无咎.
초구. 사귀어 손해나는 일이 없어 근심하지 않도다. 어렵게 여기면 무탈하리라.

[害: 해칠 해, 거리낄 해, 손해 해. 咎: 근심할 구, 허물(탈) 구, 나무랄 구, 책망할 구]

이것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좋은 효예요. 交害를 사귀는데 해가 있다로 하면, 이 효를 얻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대로 보면 좋은 괘가 아니죠. 상당한 길이예요. 많은 서증이 그렇게 됩니다. 서례를 하나 보면, 다른 사람과 계약 맺을 때 잘돼요. 물론 겸손하게 해야죠. 대유 괘는 원형이라는 것을 깔고 있으니까. 사람 사귀는 일도 순조로워요. 크게 성공해. 뭐든지 잘돼요. 길한 효다.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중하다면. 이 괘를 얻고 효사만 보고 씁쓸해할 필요가 없어요. 서증이 좋아요.

九二. 大車以載. 有攸往 无咎.
구이. 큰 수레에 싣는 상이로다. 가더라도 탈이 없다.

이 효는 오히려 쓰여 있는 글보다는 그리 좋은 괘는 아니에요. '탈이 없다' 정도의 의미이지 큰 수레에 실었으니 그런 의미는 없다. 무사한 효다. 효사에서 '대大'자는 예외 없이 오효에서 등장하므로(가령 同人괘 구오의 '大師', 蹇괘 구오의 '大蹇', 臨괘 구오의 '大君', 渙괘 구오의 '大號' 등) 여기서 '대차大車'는 (건乾괘 구이의 '대인大人'이 구오의 '비룡飛龍'을 가리키는 것처럼) 구이가 아니라 육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듯싶다. 육오에게 구이는 유능하고 강중한 참모이고 구이에게 육오는 이 참모를 받아들여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빈 대차大車 같이 포용력 있는 임금(지도자)이다. 이 해석은 소동

파의 관점과 가깝다.

어떤 일에 있어 윗사람이 나를 받아줄지 않을지 걱정스런 상황에서 이 괘를 받으면 무사해요. 걱정하는 상태에서 받아도 무사해요.

九三. 公用亨于天子. 小人弗克.
구삼. 공후가 천자께 잔치를 베풀도다. 소인은 할 수 없도다.

[用: 베풀 용, 시행할 용. 克: 할 수 있을 극(=能). 饗: 잔치할 향, 먹고 마실 향, 대접할 향.]

제후는 공후를 가리키니까 형(亨)은 향(饗)과 통용되었어요. 서증을 보면 천자로부터 잔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소인은 받으면 안 좋아요. 소인은 키가 작은 사람, 어린 사람, 50이 안 된 사람 또는 일반인, 지도층이 아닌 일반인이 받으면 흉해요. 또 소인이라는 도덕상의 조건을 붙여서 일반적으로 안 좋은 괘다. 대부분 사람이 대중이죠. 받으면 안 좋아요.

九四. 匪其彭 无咎.
구사. (대임을 위해) 제 옆 사람을 분리하니 무사하리라.

[匪: 나눌(구분할, 분리할) 분(=分), 비적 비, 아닐 비(=非). 彭: 띵띵할(팽팽할) 팽, 많을(성할) 방, 곁 방(=旁). 晳: 밝을 절, 총명할 절]

"『주역』중의 '기其'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말한다"는 주희의 주석에 따르면[29] 여기의 '기其'도 '자기'를 뜻한다. '匪其彭'은 여기서 '분기방'으로 읽는 것이 옳은 듯하다. '匪'는 여기서 '아닐 비(=非)', '비적 비'자가 아니라, '나눌(구분할, 분리할) 분(=分)'자이고, 또 왕필에 의하면, '彭'은 '방旁(곁 방)'과 같은 글자이기 때문이다. 구사의 '곁'은 구삼이다.[30] 구삼을 떼어내고 무사하다는 것은 위로 가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을 떼어낸다는 것은 구사가 위로 가는 것은 존위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이는 '방彭'을 '성하고 많은 모양(盛多之貌)'로 풀었다. 따라서 '비기방匪其彭 무구无咎'를 지나치게 성盛하면 흉할 수 있으나 성하지 않으니 탈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주희는 『주역본의』에서 "彭은 음과 뜻이 미상이나 『정전程傳』에 성한 모양이라 하니 이치가 혹 그럴듯하다"고 말한다.[31] 그러나 후에 『주자어류』에서는 왕필에 동조하여 '彭'을 '방旁'으로 푼다. 『주자어류』에 의하면, 구사는 강剛한 구삼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심專心으로 유柔한 육오를 받든다(專心承五). 육오의 존위를 받드는 일은 대임大任이다.[32] 왕필의 풀이를 받아들인 주희의 이 수정된 입장에 따르면 '匪其彭'은 '분기방分其旁(제 옆 사람들을 분리하다)'이다.

한편, 우번虞翻은 색다르게 이 구사의 효사를 '비기왕匪其厖(절름발이가 아니다)'으로 제시하면서 '匪'를 단순히 '비非'로 풀이하고 "왕厖(절름발이)자가 간혹 '방彭'으로 되어 있어 '방旁' 소리가

29) 朱熹, 『朱子語類』, 1789쪽.
30) 王弼, 『周易注』, 136쪽.
31) 程頤, 『伊川易傳』; 朱熹, 『周易本義』.
32) 朱熹, 『朱子語類』, 1767쪽.

나는 글자의 오류를 낳았다"라고 단정하고 있다.[33]이처럼 해석이 제각각이라 어지럽다. 글자 풀이나 논리로는 어느 것이 옳은지 가릴 수 없다.

고증과 논증으로는 가릴수 없어요. 서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죠. 서례는 매번 왕필의 해석이 옳음을 실증해준다. 제 옆 사람을 분리해서(떼어내서) 무사하다는 것, 즉 옆 사람을 물리치거나 멀리해서 무사하다는 것은 대임과 큰일을 두고 더욱 몸조심해서 무사히 대임을 완수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제 옆 사람을 분리해서 무사하다는 것은 경위에 밝고 총명하다는 말이다(象曰, 匪其彭无咎, 明辨晳也)"라고 주석한다.

양강陽剛한 대신大臣인 구사가 옆의 양강한 삼효를 멀리하고 유柔한 육오에 충성을 바치는 것은 총명하고 경위 바른 행위이다. 빌헬름은 '분기방匪其彭'을 '자기와 자기 옆 사람을 구분하다(Er macht Unterschied zwischen sich und seinem Nächsten)'로 옮기고 있다. 이 번역은 빈어로 쓰일 수 없는 '기其'자를 빈어(sich) 목적어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그릇된 번역이지만, 그의 해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기는 대명사로 쓰이지만 주어나 소유대명사로 쓰이지 목적어로 쓰이지 않아요. 오역인데 풀이는 들어볼 만해요. "이 효는 부유하고 힘 있는 이웃들 사이에 서 있는 지위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위험을 불러온다.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않는 것, 타인들과 같이 행동하려는 질투 서린 시도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해야 할 때다. 그러면 탈이 없다."[34] 그러므로 '분기방匪其彭'은 유혹하거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제 주변 사람을 멀리하다(떼어버리다)', 즉 '주변 사람을 물리치다'로 간단히 옮기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서례에 의하면, 주변(옆 사람, 측근, 비서, 참모, 가까운 사람)을 정리하거나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오도하는 주변인을 물리쳐 큰 일을 무사히 완수한다. '큰 일'은 여기서 큰 재산, 큰 수확, 높은 지지도나 인기, 큰 신뢰나 신임 등을 뜻한다. 이 괘를 받으면 주변의 방해꾼을 떼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목표의 소임을 완수해요.

六五. 厥孚交如. 威如. 吉.
육오. 그를 믿고 사귀네. 위엄으로 으르네. 길하리라.

[厥: 그 궐(=其). 如: 그럴 여, 어조사 여(=然). 威: ①위엄 위, ②힘 위, ③위협할(으를) 위, ④험할 위. 備: 갖출 비, 족할 비, 모두 비]

이 경우는 안 길해요. 굉장히 재수 없어요. 이 괘를 받으면 밑에 녀석들이 기어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도 부하도 후배도 기어올라요. 믿음으로 예뻐해 주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하극상을 하는 거죠.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눌러서 혼을 내서 주저앉히면 해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길하다는 거죠. 좋은 일이 나서 길이 아니에요. 본전치기죠. 실은 아예 이런 일이 없는 게 낫죠. 그렇게 따지면 안 좋은 괘에요. 부부간에도 이 괘를 받으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싸워요. 나중에 큰 소리 나서 잠잠해지는 식이죠. 글자 그대로 보

33) 李鼎祚 集解, 李道平 纂疏, 『周易集解纂疏』, 225쪽.
34) Wilhelm, *I Ging*, 74쪽.

면 길효 나왔다고 하면 안 돼요. 이 경우 길은 본전치기다.

주역을 철학으로만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글자그대로 풀이해서 철학으로 가면 주역하고는 멀어지는 길이죠. 괘를 뽑으면서 해석해야 주역이 본래 쓰인 의미대로 의리철학도 따지고 점의 적중도를 높이는 길이예요.

上九. 自天祐之 吉无不利.
상구. 하늘에서 그를 도우니 길하고 또 이롭지 않은 것이 없으리라.

[自: ~로부터 자. 祐: 도울 우(=佑). 助: 도울 조. 履: 신발 리, 신을 리, 밟을 리, 행할 리, 행실 리]

길무불리가 나오면 다른 경우는 별로 안 좋아요. 길해야 불리함이 없으니, 재수 좋아야하니까. 대유 괘 상효는 그렇지 않아요. 길하고 또 불리함도 없어. 두 개를 분리시켜 해석했다. 뜻을 서중 상 고정시켜 놔야만 점의 적중도가 높아요. 여기서는 분리해야 늘 맞아요. 하늘이 도와서 되는 경우니 얼마나 재수가 좋겠어요. 안될 경우도 하늘이 도와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례의 하나가 아태 프런티어 국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끼어 있어서 통일이 되려면 해양세력에 들어가든지 혹 대륙세력이 들어가든지 통일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 수동적이고 숙명론적인 정책노선이라고 생각한다. 대륙세력이 있고 해양세력이 있으면 우리는 반도세력을 구축하면 스스로 통일이 되는 것이지 끼여서 어떻게. 지금 분단은 휴전선 근처에서 대륙과 해양이 만나니까 된 것이라는 수동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자고로 반도 국가는 스스로 강한 국가는 해양과 바다 양면으로 뻗어나가 대 번영을 이루고, 로마, 고대희랍이 대표적이고, 오히려 강할 때는 주변국가가 해양과 대륙이 직접 충돌하지 않아 전쟁이 나는 일을 막아주는 완충역할을 하고 약할 때는 해양과 대륙이 직접 전쟁이 나거나 반도를 침략의 발판으로 삼아 쳐부수고 반도자체는 점령당하거나 분단당하거나, 식민지가 되거나의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은 한쪽이 우세해지면 해양이든 대륙이든 해양이 우세하면 대륙이 침략을 받아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대륙이 어려우면 아태 전체의 전쟁이 벌어지죠. 100년 동안 한반도에 벌어진 전쟁이 4번의 전쟁이죠. 청일, 러일, 중일, 한국전쟁, 중일은 우리가 발판이 되었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은 우리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지나서 군대가 움직이고 청진 흥남의 제철소는 전쟁물자 만든 거죠. 우리가 전쟁의 원인이 돼요. 우리가 약하면 전쟁의 원인이 돼요. 동북아 아시아 전체를 넘어서 원인이 돼요. 우리가 강하면 반도세력을 구축해 크게 아태 평화에 기여하고 같이 번영하는 일이 벌어진다.

외교적으로는 반도자체가 아태에 중심 허브로써 발전하면 통일의 전망과 대번영, 평화공영의 길이 벌어질 수 있다. 아태 관점에서 외교 전략을 다시 세우고 교육도, 언어도, 그렇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 세계 자본의 70프로가 집중되고 있어요. 첨단 산업의 2/3가 아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인구는 37억,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계인구가 65중이면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의 2.5

배, 대서양은 비율상으로도 하락하고 절대량으로도 무역이 감소하고 있고 환태평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서구화였는데 요즘은 세계화, 근대화를 하려면 아태화를 해야 현대화가 되는 거죠. 현대화는 아태화다. 아태에서 일등하면 세계에서 일등 하죠. 세계의 중심지가 여기니까. 지금 국경이 없어진다고 무국경시대라고 하는데 국경이 프런티어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국경이 있지만 의미가 없죠. 인터넷으로 미 국방성의 자료, 핀란드의 국가 홈페이지에서 헌법체제를 보고 국경이 있지만 국영을 넘어 매일 일을 하고 있죠. 옛날처럼 자기 영토가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거점의 의미밖에 없어요. 땅이 크냐 작냐의 강대국약소국의 결판이 났는데 땅과 관계없이 거점을 활용하면 자신의 프런티어를 넓혀갈 수 있죠.

가령 네덜란드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가 자신의 프런티어예요. 사실 농업에 있어서 전 세계는 네덜란드의 영토에 다름없어요. 미국도 모든 나라도 장미 한 송이에 대한 로열티를 다 바쳐야 해요. 지적소유권을 네덜란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냥 썼는데 경북사람들 화훼 산업 하는 사람들 바칩니다. 미국의 농업생산성이라는 것이 네덜란드를 따르지 못해요. 육종계발에서는 네덜란드를 따를 수 없어요. 네덜란드가 어느 부문에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전 세계가 네덜란드의 프런티어예요.

우리나라가 아태 만이라도 프런티어로 생각할 수 있는 유사 영토로 생각하는 거죠. 전망을 가지고 발전하면 한국이 통일과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영어를 해야 되겠죠. 미국 호주 인도 필리핀이 사용하니까 영어 하나 쓰면 여러 나라를 통용할 수 있어요. 또 독일 불어보다도 스페인어가 대단히 중요해져요. 중남미는 스페인이니까 일본어 중국어도 중요해지면 아시아의 언어가 중요해지죠. 언어교육의 방향이 변해가야 한다. 이걸 놓고 괘를 뽑았어요. 이 정책이 가능할까 실현될 수 있을까. 자천우지自天祐之 길吉'과 '무불리无不利 가 나왔어요. 미래에 두고 보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 좌우파가 전후에 국가이념으로 추구하던 것이 복지국가였죠.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는 벗어날 수 없는 관념이 있는데 서민들이 부자로 만들어 중산층으로 만든다는 공약은 엄밀히 말하면 사기죠. 박정희의 부국강병이든 뭐든 좌파들이 복지예산을 넓히려든간에 목표는 복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게 되면서 요즈음에는 소고기를 배터지게 먹는 복지가 아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근대국가 세워졌고, 우리 대한국민은 자유와 행복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복이 중요한 국가목표인데, 정책으로는 추구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복지가 이룬 후 행복한 삶이 개인과 국가의 목표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그런데 각국의 선진정당은 행복으로 작업하죠. 웰빙, 우파는 해피니스, 중도는 웰빙인데, 복지국가는 위기에 빠졌다고 하고 새로운 이념제시가 되었죠. 홈페이지에 누가 훔쳐갔는지. 국민성공시대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는데 국민행복시대로 바꿔놨어요. 행복개념을 채택 한 거예요. 이미 15년 전에 영국

노동당 클린턴은 행복정책을 많이 해요. 웰빙 정책을 해요.

1875년 노동자 대중이 최초로 외식문화에 참여해요. 삼겹살을 주로 먹어서 동나자 가짜가 나와요. 고기를 붙여서, 비계와 살을 붙여서 얼려서 구우면 해체되죠. 그러다가 90년 되니까 숯불갈비가 퍼져요. 이후 성인병 담론이 퍼지면서 고기를 멀리하고, 뭐가 먹히기 시작하냐면 조개구이와 안동찜닭이 전국을 휩쓸죠. 이것도 부담스러워. 지금은 보리밥집이 휩쓸죠. 자꾸 웰빙으로 변해가는 거죠. 건강에 좋은 것으로 가죠. 지금은 아예 보리밥도 탄수화물이니까 살찌니까 노탄시대라고 해서 화이트 칼라들 요즘 술 먹으면서 밥 안 먹어요.

이 노탄시대에 조금 광우병 위험은 있지만 소고기 싸게 먹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해서 광우병 파동이 난 거예요. 국민은 웰빙에 와있는데 정부는 박정희 식으로 부국강병으로 이해하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이 무릎 꿇었지만 세계관이 바뀐 건 아니지만 정책 담당자 하나인 후배가 내 홈에 들어오는지 이걸 훔쳐서.

대통령 8·15경축사가 중요해요. 첫 8 15 경축사는 5년간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국민행복시대로 바꿔놨어요. 성공은 돈 벌던 시대잖아요. 이렇듯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괘대로 하늘이 도와 아태 프런티어가 실현되지 않을까 상상해 봐요.

제6강 : 중천건重天乾

◆ 1교시 : ☰ 중천건重天乾 ①

▲ ☰ 중천건重天乾

乾. 元亨 利貞.

하늘의 상象이다.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이로우리라.

初九. 潛龍勿用.

잠룡潛龍이니 나서지 말라(않는다).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현룡見龍이 밭에 있도다. 대인을 만나보니 이로우리라.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

군자가 종일 힘쓰고 힘쓰다가 저녁에는 두려워하네. 위태롭게 여기니 무탈하리라.

九四. 或躍在淵. 无咎.

혹시나 해서 연못에서 뛰어보도다. 무탈하리라.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비룡飛龍이 하늘에 있도다. 대인을 보니 이로우리라.

上九. 亢龍. 有悔.

항룡亢龍의 상이로다. 아쉬움이 있도다.

用九. 見羣龍无首. 吉.

모습을 드러낸 군룡에 우두머리가 없는 상이도다. 길하리라.

춘향전을 보면 이도령이 원코 형코 이코 정코라고 읽는 것이 나오는데 정이천의 해석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형, 이정을 하나로 본 거예요.

乾. 元亨 利貞.

하늘의 상象이다.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이로우리라.

[乾: 하늘 건, 임금 건, 강건할 건, 마를 건. 筮: 점대 서, 점대로 주역점을 칠 서. 涉: 건널 섭. 牝: 암컷 빈(→수컷 모 牡). 資: 의할(의뢰할) 자, 본바탕(근본) 자. 品: 온갖 품, 물건 품]

옛날에는 말이 중요한데, 가장 빠른 동물이 말이었고 말을 타고 세계를 지배했죠. 땅을 지배하려면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지상에서 가장 좋은 게 말이야. 임금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지상에서 제일 좋은 걸 바치니까, 말을 바쳤다. 소보다 중요해요. 비싼 말은 200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말이 많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임금이 만승, 네 마리짜리 만대의 전차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넓은 땅을 가져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장악력이 크다는 거죠. 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중천건重天乾 괘는 '건상건하乾上乾下'괘라고 부르기도 하고 '건위천乾爲天'괘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는 평이한 방식으로 상괘(=外卦=悔卦)와 하괘(=內卦=貞卦)의 첫 번째 자연 상징적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중괘重卦의 특징적 측면을 강조하여 '중천건'이라 부르고자 한다.

즉, '하늘을 상징하는 팔괘상의 건乾괘가 중첩되어 있는 괘'라는 뜻이다. 이하 곤坤, 감坎, 리離, 진震, 간艮, 손巽, 태兌 등 다른 중 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부르고자 한다. 건괘는 시時로 만물이 처음 화생하는 음력 4월의 괘다. 가령 '병이 어느 달에 완쾌될지'를 서筮하여 건괘를 얻으면, 병이 쾌차하는 달은 음력 4월이다. 음력 1월 괘는 태泰, 2월 괘는 대장大壯, 3월 괘는 쾌夬, 5월 괘는 구姤, 6월 괘는 둔遯, 7월 괘는 비否, 8월 괘는 관觀, 9월 괘는 박剝, 10월 괘는 곤坤, 11월 괘는 복復, 12월 괘는 림臨이다.

건괘의 괘명卦名 바로 다음에 붙어 있는 '건乾. 원형元亨 이정利貞'은 '괘사卦辭' 또는 '단사彖辭'라 한다. '단사'의 '단彖'은 '단斷'이다. '단사'는 '괘의卦義를 단정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팔괘八卦는 복희伏羲가 그렸고 단사는 무왕武王의 주周 건국 후에 문왕文王으로 추존된 서백西伯 희창姬昌이 지은 것으로 전해져왔다. 그러나 문헌 분석의 결과는 전래되는 이야기와 달리 단사 안에 문왕 이후의 역사적 사건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주초周初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35] 그러나 이 저작에서도 때때로 서술 방법적 편의에 따라 64괘의 창안과 괘사의 창작은 문왕의 업적으로, 효사의 창작은 주공의 업적으로 간주하며 64괘

35) 朱伯崑 외 지음,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서울: 예문서원, 2003), 59-60쪽.

의 구조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단사(乾. 元亨 利貞)의 첫 글자 '건乾'은 '괘의 상象'을 보여주는 '상사象辭'다. '상象'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되 사태를 상징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은 길흉과 회린悔吝, 유불리有不利를 판단하기 위한, 즉 점단占斷을 위한 점사占辭다. '건乾. 원형元亨 이정利貞'의 단사에 주석을 가한 공자의 주석문을 「단전彖傳」이라 부르는데, 그 첫 문장은 늘 '단왈彖曰'로 시작된다. 건괘의 단사를 해설한 첫 「단전」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한 편의 아름다운 시詩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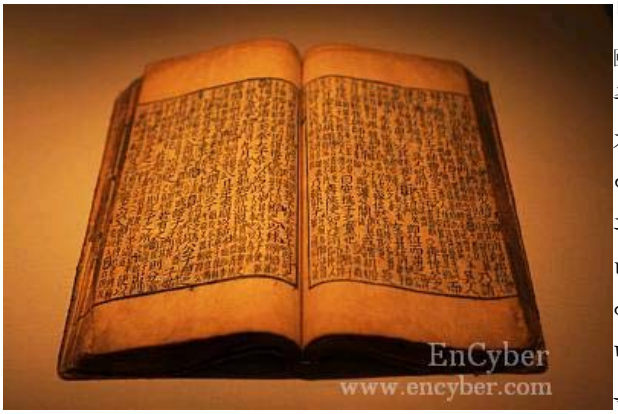
「단전」에 가로되, '위대하도다, 건乾의 으뜸(元)이여! 만물이 이것을 바탕으로 비롯되어 이내 하늘을 통할하네. 구름이 이리저리 다니며 비를 뿌리고 온갖 사물이 흘러 형태를 짓도다. 시종始終을 크게 밝히니 여섯 자리가 때맞춰 이루어져 여섯 용을 때맞춰 타고 하늘을 오르네. 이에 건도乾道는 바뀌고 화化해 각기 천성과 사명을 바르게 하고 돕고 합하여 크게 화합하니 이내 바르면 이롭도다. 뭇 존재들로부터 우두머리가 나오니 만국이 함께 안녕하리라'(彖曰, 大哉乾元! 萬物資始乃統天. 雲行雨施, 品物流形. 大明終始, 六位時成, 時乘六龍以御天.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太和, 乃利貞. 首出庶物, 萬國咸寧).

대학신문에 2006년 말 정치상황을 뜻하는 말로 사자성어를 공모했는데 풍천소축괘의 密雲不雨(구름이 짙으면서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가 채택되었는데 고건 씨가 여기서 뽑아서 雲行雨施를 기자들이 요구하니까 이것을 냈더라구요. 첫 번째 단전이 유명한 것이 많아요. 뜻도 좋고.

건괘의 이 「단전」은 땅을 뜻하는 곤坤괘의 「단전」의 앞부분과 비교하면 그 특징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단전」에 가로되, 지극하도다, 곤坤의 으뜸(元)이여! 만물이 이를 바탕으로 생육하니 하늘을 순순히 받드네. 곤은 두터워 만물을 싣고 한없이 덕과 합하고 널리 품고 크게 빛나니 온갖 사물이 다 형통하도다(彖曰, 至哉坤元! 萬物資生乃順承天. 坤厚載物, 德合无疆, 含弘光大 品物咸亨).

'건괘의 원元'은 위대하고, '곤괘의 원元'은 지극하다. '건의 원'은 만물이 비롯되는 바탕이고 '곤의 원'은 만물이 생육하는 바탕이다. '건의 원'은 하늘을 통할하고, '곤의 원'은 하늘을 순순히 받든다. 괘의 상, 즉 괘상卦象으로 보면 '하늘이 운행하는 것'은 '건乾'이다. 하늘의 운행은 굳센 것(강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스로 굳세게 하고 쉬지 않는다(象曰, 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 자강불식을 많이 꺼내서 쓰죠.

이에 반해 '땅의 기세'는 곤坤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후덕하고 만물을 실어주는 것이다(象曰, 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 건괘(와 곤괘)의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해서는 공자가 「문언전文言傳」에서 '원元'을 인仁이 체현된 '선의 으뜸(善之長)'으로, '형亨'을 편안하고 예禮에 합치되는 '아름다움의 모임(嘉之會)'으로, '이利'를 독선으로 몸을 해치지 않는 실용적인 '의의 화합(義之和)'으로, '정貞'을 슬기롭고 한결같은 '일의 주간(事之幹)'으로 풀이하는 사덕론四德論을 전개했다(文言曰, 元者, 善之長也. 亨者, 嘉之會也. 利者, 義之和也. 貞者, 事之幹也. 君子體仁足以長人, 嘉會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君子行此四德者, 故曰乾元亨利貞).



중국 공자(孔子)의 《춘추(春秋)》를 노(魯)나라 좌구명(左丘明)이 해석한 책. 《좌씨춘추(左氏春秋)》 《좌전(左傳)》이라고도 한다. BC 722~BC 481년의 역사를 다룬 것으로 《국어(國語)》와 자매편이다.

「문언전」의 이 유명한 주석에 따라 정이程頤(1033-1107), 이황李滉, 김장생金長生 등 중국과 조선의 거유巨儒들도 오랜 세월 공자의 권위를 받들어 건괘와 곤괘의 '원형이정'에 한하여 이를 사덕四德으로 새기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건·곤괘의 '원형이정'만 사덕으로 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 『춘추좌씨전』에 의하면, 공자보다 3세대 전에 살았던 목강穆姜은 수隨괘의 괘사에 나오는 '원형이정'을 건괘와 곤괘의 '원형이정'과 마찬가지로 사덕으로 풀이하고 있다.36)

공자보다 목강은 삼세대전에 산 사람인데 공자의 단전이 꼭 공자가 지은 것이라고 안보죠. 이전 것을 수집한 측면, 제자들이 가필한 것도 있다. 그것이 정설이에요. 십익이 완성되었다. 주역과 열 개의 주석문을 합쳐서 역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게다가 곤괘의 사辭는 건괘와 달리 '원형元亨 이빈마지정利牝馬之貞'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원형元亨'과 '이빈마지정利牝馬之貞'이 서로 분리될 수 있음을 뜻하고 여기서 '이利'는 '이견대인利見大人(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섭대천利涉大川(큰 내를 건넘이 이롭다)'의 '이利'자의 의미 및 문법적 역할과 동일한 것임을 보여준다. 즉, '이빈마지정利牝馬之貞'은 '암말처럼 곧바름이 이롭다'는 뜻이다.

따라서 곤괘의 '원형이정'을 사덕으로 푸는 것은 어색하다. 공자의 의리론적 주석과 다르게 본래의 복서卜筮 기능을 『주역』의 기본으로 강조한 주희朱熹(1130-1200)는 이 '원형이정'의 복서적 본의本義를 복원하고자 했다.

원형이정은 문왕文王이 붙인 사辭이고 이것으로써 한 괘의 길흉을 점단하는 것이니 소위 단사라고 하는 것이다. 원元은 '크다(大)', 형亨은 '형통하다(通)', 이利는 '적절하다(宜)', 정貞은 '곧바르다(正而固)'는 뜻이다. 문왕은 건도乾道란 크게 형통하고 지극히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서筮에서 이 괘를 얻고 여섯 효가 다 변하지 않은 경우는 '그 점이 당연히 크게 형통할 수 있고 반드시 이로움이 곧음에 있다(得大通而必利在正固)'고 말한 것이다.37)

나아가 주희는 『주자어류』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옛사람들은 어떤 일에 부딪혀

36) 『春秋左氏傳(中)』 襄公 9年, 253-4쪽. 이하 『春秋左氏傳』은 文璇奎 역저, 『春秋左氏傳(上・中・下)』(서울: 明文堂, 2002)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표시한다. 목강은 공자가 섬긴 魯나라 定公의 증조부인 宣公의 아내다. 이 책의 隨卦 해설도 참조하라.
37) 朱熹, 『周易本義』, 147쪽. 이하 『周易本義』는 成百曉 역주, 『周易傳義』(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표시한다.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점을 쳤다. 점을 쳐서 건괘를 얻은 경우에 '원형元亨'은 곧 '크게 형통하다(大亨)'를, '이정利貞'은 곧 '바름에 이利가 있다'를 뜻했다. … 무릇 '원형元亨'은 괘가 되는 까닭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정利貞'은 그로 인해 경계를 삼은 것이다. … 성인께서는 사람들이 오로지 점서占筮의 측면만 볼까 걱정되어 의리義理로써 설명하신 것이다.'

원형이정은 문왕의 괘사에서는 단지 두 가지 일을 의미했으니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이롭다'는 뜻이었다. 공자에 와서야 네 가지 일로 나누었다. 그러나 '곤坤. 원형元亨 이빈마지정利牝馬之貞'과 같은 구절은 '이利'자에서 구두를 끊을 수 없다. … 후인들은 모름지기 건과 곤괘를 다른 괘들보다 더 크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점법占法에서는 오로지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이롭다'일 뿐임에 틀림없다.[38]

원형리정이 네 개가 아니라는 논리중 하나는 형은 혼자도 점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도 이견대인처럼 떨어져서 쓰여요. 반대로 원과 정은 점사로 쓰이지 않아요. 정이라는 점사, 원이라는 점사가 없어요. 형을 꾸며주려고 원이 있는 것이고 정을 꾸미려고 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원, 정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의리 철학적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 크게 형통하다고 끝나면 안 되고 크게 착해서 형통한 거예요. 크게 도덕적으로 의리론적으로 좋아서 착한 거예요. 이정도 도덕적으로 곧고 정직해서 이로움이 있는 거죠. 내 해석은 주희와 공자의 설을 통합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옳고, 두 번째 점쳐보면 맞아요. 서증 상 확실해요. 원 형 리 정 네 개로 끊어서는 점이 안 됩니다. 춘하추동을 붙이고 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모순에 빠져요. 두 개를 통합하는 관점을 취했다.

또 주희는 『주역』의 점서占筮 전통을 강조하며 '원형이정'의 의리 역학적 왜곡을 바로잡고자 애쓴다. 팔괘의 그림은 본래 점서占筮를 위한 것이다. 복희가 괘를 그릴 때는 단지 짝수와 홀수의 그림만 있었을 뿐이니 어찌 허다한 설명들이 있었겠는가!

복희 씨의 단계에서는 음효 양효만 있었다. 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팔괘까지만 있었던 거죠. 팔괘를 두 개로 중첩한 것은 문왕이라고 하더라도 문왕도 괘사만 붙였지 효만 가지고 판단한 거죠.

문왕이 괘를 거듭하여(중복시켜) 점사를 짓고, 주공이 효사를 지은 것도 역시 점서를 위한 것이다. 공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리에 따라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건乾. 원형이정元亨利貞'이나 '곤坤. 원형元亨 이빈마지정利牝馬之貞'은 뒤쪽의 '원형이정元亨利貞'과 한 가지일 뿐이다. 원형元亨은 '크게 형통한다(大亨)'는 뜻이고 '이정利貞'은 '바름에 이利가 있다(利於正)'는 말이니, 점을 쳐서 이 괘를 얻은 자는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이롭다는 뜻일 뿐이다. 공자에 이르러서 건괘와 곤괘의 '원형이정'을 사덕四德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역시 공자 자신의 개인적인 뜻이다.

정이는 "원형이정은 건괘와 곤괘에서는 사덕이 되고, 다른 괘에서는 두 가지 일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주역』을 공부하는 자는 모름지기 『주역』을 각기 별도로 이해해야 한다. 복희 역은 따로 복희 역으로 간주해 보아야 하

38) 黎靖德 編, 王星賢 點校, 『朱子語類』(北京: 中華書局, 1999), 1621쪽.

니, 이때는 괘·효사가 한 마디도 없었다. 문왕 역은 따로 문왕 역으로 간주하고, 주공 역은 따로 주공 역으로 간주하며, 공자 역은 따로 공자 역으로 간주해 보아야 한다. 굳이 하나의 뜻으로 끌어 붙이고자 해서는 안 된다.

요즘 학자들은 『주역』이 본래 점서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를 꺼리고, 반드시 의리를 위해 지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만약 진짜 의리를 위해 지었다면 왜 바로 『중용』이나 『대학』과 같이 한 마디로 직술直述하여 의리를 설명해 사람을 깨우치지 않았겠는가?[39]

그러나 주희가 "공자에 이르러서 건괘와 곤괘의 '원형이정'을 사덕으로 나누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대목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춘추좌씨전』의 기록을 근거로 앞서 시사했듯이, 공자가 51세에 출사해 섬긴 노나라 정공의 증조부였던 선공의 비妃 목강이 이미 '원형이정'의 사덕론을 공자의 해석과 똑같이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춘추좌씨전』의 저자가 목강의 점단을 훗날 공자의 사덕론에 따라 각색한 것이 아닌 한, 주희의 주장은 위태롭다.

따라서 필자는 일단 '원형이정'을 사덕으로 푸는 의리론적 해석을 기본으로 삼는 동시에 다른 괘의 '원형이정'과 동일하게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이롭다'는 주희의 점서론적占筮論的 풀이도 수용코자 한다. 원元은 '크게 선하다(大善)'는 뜻도 있지만 '크게(大)', '으뜸으로(長)'라는 뜻도 있고, 형亨은 '형통하다(열려 있다, 통한다)', 즉 비否(막히다)와 반대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희의 주장대로 점단할 때, '원형元亨'을 한 구절로 보아 '크게 형통하다'로, '이정利貞'을 한 구절로 보아 '바르니 이롭다' 또는 '바른 데 이익이 있다'로 풀이하면서 동시에 사덕론의 함의를 음미해보는 것이다.[40]

그러나 정貞의 뜻은 맥락에 따라 아주 복잡하게 해석된다. 정貞은 '굳다(貞固)', '바르다(正)', '곧다(正固)'는 1차적인 뜻 외에도 '견지(고수)하다', '원위치(제자리)를 지키다', '주관하다(幹)', '일(事)' 또는 '일하다(行事)' 등 다양한 뜻을 지녔다.[41] 이정利貞은 일단 '바르면(니) 이롭다'로 풀이하되, 방도나 지혜를 묻는 서지筮之에서는 정貞을 조건부로 풀어서 '바르면 이롭다'로, 운명을 물었을 때는 '바르니 이롭다'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

39) 朱熹, 『朱子語類』, 1622쪽.

40) 한편 高亨은 『周易古經今注』(北京: 中華書局, 1957, 1쪽)에서 갑골문 연구를 참고해 '亨'을 모조리 '享(제사지낼 향)'으로 해석했다. 영어권에서는 우징누안이 이런 해석을 대표한다. Wu Jing-Nuan, *Yi Jing*(Washington DC: The Taoist Center, 1991), 50쪽. 그러나 고형은 『周易大傳今注』(山東: 齊魯書, 1979, 53쪽 [傳解])에서는 이런 식의 해석에서 슬그머니 후퇴했다.

41) '貞'은 '점치다'는 뜻도 있다. 고형은 『주역』의 '貞'자가 갑골문 卜辭 속의 '貞'자와 같다는 文獻古据易學派 李鏡池의 주장을 수용해 '貞'을 모조리 '占'으로 해석한 바 있다. 高亨, 『周易古經今注』, 1쪽. 그러나 나중에는 이 해석으로부터 슬그머니 후퇴했다. 가령 大畜卦의 구삼 효사의 '艱貞'을 처음에는 "환란의 일을 점쳐 묻다(占問患難之事)"로 해석했다. 『周易古經今注』, 90쪽. 그러나 1961년의 「周易卦爻辭的哲學思想」에서는 "良馬逐, 利艱貞, 曰閑輿衛, 利有攸往"을 "좋은 말을 몰고 견고한 수레를 타므로 도로의 간난과 요원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駕着良馬堅車, 就不怕路途的艱難與遙遠)"로 옮겨 슬그머니 '貞=占' 해석을 빼버리고 있다. 『文史述林』(北京: 中華書局, 1980), 309쪽. 또 1979년에는 '貞'을 '正'자로 풀이한 공자의 易傳을 병렬 소개하고 있다. 『周易大傳今注』, 256쪽. 고형의 이 '貞'자 해석에 대한 비판 및 '『주역』을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고형의 무모한 字句訓詁 방법 일반에 대한 비판은 廖名春・康學偉・梁韋鉉, 『周易研究史』(長沙: 湖南出版社, 1991), 446쪽;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서울: 예문서원, 1994), 778-9쪽을 보라.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처럼 하우(HOW)로 물으면 바르면 해롭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해라고 말해준 것이고 운명을 물으면 다음 달 운명을 물었더니 바르게 살아서 이롭게 된다로 해석해야한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에 정貞의 의리론적 의미를 합해 ‘곧고 바름’을 ‘도덕적 바름’이 아니라 ‘사지간事之幹’, 즉 ‘일의 줄기를 잡아 슬기롭고 한결 같이 주간할 줄 아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利에 의리론적 의미를 더해 ‘이로움(마땅함)’을 ‘의지화義之和’, 즉 ‘독선으로 몸을 해치지 않도록 실용과 화和하는 옳음’으로 이해한다. 원형元亨의 ‘원元’도 ‘선지장善之長’, 즉 ‘인仁을 드러낼 만큼 위대하게’로, ‘형亨’도 ‘가지회嘉之會’, 즉 ‘아름다운 예禮로써 막힘을 뚫고 화통和通하게 어울려 산다’로 이해하고자 한다.[42] 한편, ‘원元’의 의리론적 정의인 ‘선지장善之長’은 말하자면 ‘장선長善’이다.

‘장선長善’은 ‘대선大善(크게 선하다)’이다. 이 의리론적 의미를 살려 ‘원형元亨’을 항상 ‘크게 착하니 크게 형통하다, 크게 뚫리다, 크게 화통하다(大善而大亨)’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원형元亨’은 크게 착한 사람이나 선행善行의 경우에는 크게 형통하지만, 크게 착하지 않은 사람이나 불선不善한 일과 관련해서는 막히는 것으로 점단해야 한다.

고대 중국인은 천도天道가 곧 인도人道라고 믿었다. 특히 백성을 천도의 실천으로 이끌고 가르칠 의무를 짊어진 ‘하늘의 아들(天子)’ 황제에게는 양자가 더욱 동일한 것이었다. 문왕의 부친인 계력季歷, 즉 왕계王季는 은殷왕조의 한 제후였다. 계력은 한동안 정치의 모범을 보여 은나라 조정으로부터 은나라의 서변西邊의 제후들에 대한 관리를 대행할 권한을 가진 후백侯伯의 작위를 하사받았다. 그는 세상에 널리 천도天道를 밝히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자 사방의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그러나 은나라 황제 문정文丁은 이에 위협을 느껴 계력을 살해했다.[43] 보위를 이은 계력의 막내아들 문왕은 선정을 계속 잇되, 아비의 죽음을 경계삼아 재위 50년 동안 아주 겸손하고 두루 주도면밀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래도 그는 은나라 폭군 주紂의 의심과 질투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유리羑里의 옥獄에 갇히고 말았다. 감옥에 갇힌 7년(또는 3년)[44] 동안 문왕은 『주역』을 연구하고 괘사를 지었고 자신의 책무를 심사숙고했다고 한다.

그는 모든 기도와 혁명적 대의가 ‘싹트고 자라고 꽃피고 여무는’ 원형이정의 4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때 그는 은나라 폭군의 잔학한 폭압정치로부터 백성을 구할 포괄적 계획을 세웠다. 그는 천도와 자연의 발전 법칙에 깊은 통찰을 가졌기 때문에, 64괘를 재

---

42) 주희도 자신의 점서적 해석과 공자의 의리론적 해석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한 대목이 있다. 그는 「문언전」의 사덕론에 대한 주석(『周易本義』)에서 ‘사덕론’과 ‘본의’를 조화시키려 하고 있다. 歐美 역학계도 해석이 분분하기는 마찬가지다. ‘乾元亨利貞’을 “건은 탁월한 성공을 이룩하니 곧게 견지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Das Schöpferische wirkt erhabenes Gelingen, fördernd durch Beharrlichkeit)”로 옮긴 빌헬름의 해석은 주희를 따르고 있다. Richard Wilhelm, *I Ging*(München: Diederichs, 2000), 25쪽. 피델러도 유사하게 해석했다. Frank Fiedeler, *Yijing*(München: Diederichs, 1996), 265쪽. 그러나 리츠머와 카처는 ‘元亨利貞’을 四季로 보고 元을 ‘봄’(spring)으로, 亨을 ‘자라다’(growing)로, 利를 ‘곡식을 거두다’(harvesting)로, 貞을 ‘시련’(trial)으로 새겼다. Rudolf Ritsema and Stephen Karcher, *I Ching: The Classic Chinese Oracle of Change*(New York: Barnes & Noble Books, 1995), 94쪽. 알프레드 후앙은 공자의 사덕론을 따랐다. Huang, *The Complete I Ching*, 22쪽.

43) 沈約 注, 洪頤煊 校, 『竹書紀年』(北京: 中華書局, 1985), 34쪽. 신성곤・윤혜영, 『중국사』(서울: 서해문집, 2004), 34쪽도 참조.

44) 栢楊은 감금 기간을 3년으로 본다. 栢楊 지음, 김영수 옮김, 『맨 얼굴의 중국사』(서울: 창해, 2005), 206쪽.

배치해 건乾괘를 「상경上經」의 일반적 가이드라인이자 역성혁명易姓革命의 북극성으로 기여하도록 맨 처음 자리에 놓았다고 전해진다. 그리하여 알프레드 후앙(Alfred Huang)은 건괘의 초구에서 구사까지를 문왕의 행적과 고사古事로, 구오를 무왕의 역성혁명으로, 상구를 몰락을 앞둔 주왕紂王의 처지로 풀이한다.45) 이것은 건괘의 상황 전체의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돕는 흥미로운 풀이라고 생각한다.

이효를 문왕의 일이 아니라 그 이전의 순임금 때로 정이천이 해석하죠. 전혀 맞지 않아요. 건乾괘는 임금, 수장首長, 아버지의 괘라서 이 괘를 받은 자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장차 그런 지위에 오를 자질을 갖춘 대인·군자 감'이다. 따라서 서筮를 통한 실증實證 사례에 의하면 젊은 여성이 이 괘를 얻을 경우, 바른 여성이라면 시집을 못 갈 정도로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 행로를 걷든지 왕, 대통령, 지도층의 가문으로 시집을 갈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은 여성이라면 건방지기 짝이 없는 여자로서 제 잘난 멋에 평생 독신으로 황당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악하거나 음험한 사내가 이 괘를 받으면 자신과 사회에 다 이롭지 못한 대도大盜나 폭력배 두목에 불과한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서례에서는 두 고교생의 신운身運을 서했는데 둘 다 동효 없이 이 건괘를 얻었으나, 한 명은 장래 대통령을 꿈꾸는 수능시험 전국 수석으로서 '모범적인' 고교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학생 폭력조직인 '일진회'의 두목으로서 장차 전국 조직폭력배 두목을 꿈꾸는 불량학생이었다.

또 건괘는 항상 공적인 일, 정대正大한 일, 국가와 관련된 정치적·국민적 대업 등과 관련된 괘다. 따라서 서례상筮例上 이런 일과 관련해 공인 또는 공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동효 없는 건괘를 얻으면 아주 길하다. 그러나 일반인이 사적인 일, 식당 같은 작은 가게나 사업,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사사로운 재물財物 문제에서 동효 없는 건괘를 얻으면 다 망한다.

재물과 건괘는 상관없어요. 효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실증주역을 내가 내서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까. 건괘는 밥 먹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건괘가 나왔어요. 건이 이로 변했으니까. 먹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 건이 나오면 용어문제가 있으니까 주역을 물어보니까 머리말에 건지승이 나왔는데 주역의 운명을 물으니 건지승이 나왔는데 그때도 건괘가 나왔어요. 주역책의 운명이 건지승이 나왔는데 주역이라서 나왔다고 본다. 이괘가 되려면 상효와 초효를 제외하고 다 동한 거예요.

初九는 潛龍이니 勿用이니라. 첫 번째 효는 책을 일단 냈다는 뜻이야.
九二는 見龍이 在田이니 利見大人이라. 서점에 깔렸단 뜻이야. 이견대인이니까 많이 팔릴 것이다. 짧은 시간에 많이 나간 셈이었어요.
九三은 君子終日乾乾(군자종일건건하)여 夕若하면 无하니 咎리라. 군자가 나일수도 있고 출판사 사장일 수도 있고, 사장임이 틀림없어. 바로 위에는 내 이름 연과 비슷하니까. 출판사 사장이 안 팔릴까봐 걱정을 했지요. 저녁때가 되면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1024페이지니까. 자기가 직접 교정을 보고 했는데 많잖아요. 입술이 트고 그랬는데 한문이 어려우니까 직원들 시키지도 못하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갈지 걱정이 들었겠지요. 무사히 끝났고 저

45) Huang, *The Complete I Ching*, 27-9쪽.

녁때 근심걱정을 하는데 탈은 없다.
九四는 或躍在淵(혹약재연)하면 無咎리라. 혹시나 해서 도약해보는데 그 문제는 연에 달렸다. 신문에 삼대일간지에 나왔고 연합뉴스에서도 실어줬어요. 책보다도 초점을 나에 맞춰서 황태연한테 달려있다고 해서 보도한 거예요.
九五는 飛龍在天이니 利見大人이니라. 사람들이 읽고 권해서 하늘을 날 것이다. 신문에 나간 것 사간 것 1차.
上九는 亢龍이니 有悔리라. 다음에 주역을 아는 분들이 권해서 이차적으로 나간 것이 옳지 않을까.
用九는 見群龍하며 無首하면 吉하니라.
전체적으로는 바르게 먹는 정향이죠. 이(頤)는 정향이다. 먹는 것하고 관계없는 괘인데도 변괘가 되면 연관이 될 수 있다.

◆2교시 : ☰ 중천건重天乾 ②

▲중천건重天乾 해석

初九. 潛龍勿用.
초구. 잠룡潛龍이니 나서지 말라(않는다).

[潛: 물에 잠길 잠, 숨을 잠. 勿: 말 물, 아닐 물, 못할 물, 없을 물. 用: 쓸 용, 시(실)행할 용, 행할 용, 나설 용. 下: 열등할 하, 하위(아래, 밑) 하, 몹쓸 것 하, 낮출 하, 물리칠 하, 떨어질 하. 豢: 기를 환. 飂: 높이 부는 바람 요, 공허할 요. 䨓: 가마솥 종, 모일 종. 坻: 물가 저, 모래 섬 저. 蘇: 소생할 소. 軾: 수레 앞턱 횡목 식]

숨어있는 용, 자맥질하는 용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 말에 잠룡이 있어요. 잠룡이라는 함축적인 것이 있죠. 아직 대통령이 되지 못하였으나 은인자중하여 공부하고 있고 수련하는 사람이죠. 운명적으로 받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경고도 아니고 다음 달에는 안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잠룡潛龍'은 물속에 잠겨 있는 용, 물속에 숨어 있는 용이다. 그러나 물과 관계없이 그냥 '숨어 있는 용'으로 새기는 경우도 많다.[46] '물용勿用'은 통상 '쓰지(등용하지) 말라' 또는 '행하지(움직이지) 말라', '행동하지(나서지) 말라'는 명령으로 새긴다.[47] 그러나 '물勿'을 '불不(弗)'로 풀어 '나서지 않는다(못한다)', '움직이지(행동하지) 않는다'로 번역해야 할 때도 있다. 「문언전」은 '물용勿用'을 '불용弗用(나서지 않는다)'으로 바꿔놓고 있다(潛之爲言也, 隱而未見, 行而未成, 是以君子弗用也).

'초구初九'의 '초初'는 초효初爻를 뜻하고 구九는 양효陽爻를 뜻한다.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인데, 양의 숫자는 구九로 대표하고, 음의 숫자는 육六으로 대표한다. 양은 '나아가는 것(that which advances)'을 가리키고 음은 '물러나는 것(that which retreats)'을 가리킨다. 양의 성질은

46) Wilhelm, *I Ging*, 28쪽; Wu, *Yi Jing*, 50쪽.
47) Wilhelm, *I Ging*, 28쪽; Wu, *Yi Jing*, 50쪽.

제일 앞에 나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십十 안에서 홀수를 일一부터 구九까지 (나아가는 식으로) 세면 가장 위에 있는 수는 구다. 그래서 '구'는 양수를 대표하고 모든 양효는 '구'로 표시한다. 반면, 음은 중앙의 본바탕을 견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진다. 짝수를 십十에서 이二까지 (물러나는 식으로) 세면 중앙의 수는 육六이다.

그래서 '육'은 음수를 대표하고 모든 음효는 '육'으로 표시된다.[48] 따라서 양의 초효는 '초구初九', 이효는 '구이九二', 양의 삼효는 '구삼九三', 양의 사효는 '구사九四', 양의 오효는 '구오九五', 양의 상효上爻는 '상구上九'로 표시한다. 또 음의 초효는 '초육初六', 음의 이효는 '육이六二', 음의 삼효는 '육삼六三', 음의 사효는 '육사六四', 음의 오효는 '육오六五', 음의 상효는 '상육上六'이다. 여섯 번째 효를 유독 '상효上爻'라고 말하는 것은 양의 여섯 번째 효를 '구륙九六'으로, 음의 여섯 번째 효를 '육육六六'으로 표기하면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하 다 마찬가지다.

효는 종종 위치마다 '정치적 지위'를 갖는다. 초효는 대개 소인, 백성의 지위고, 이효는 중앙의 고위관리, 중소제후 또는 대大제후의 대부大夫의 지위다. 삼효는 종종 삼공三公의 지위고,[49] 사효는 재상의 지위다. 오효는 사師괘, 명이明夷괘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존위(곤의 경우 섭정, 왕비)의 지위고,

지수사는 임금이 상효에 있어요. 전쟁 상황이니까 저 후방에 있으니까 임진왜란 때 임금이 뒤에 있었죠. 명이괘도 상효에 있어요. 폭군인 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으니 저 뒤에 후방에 있어요. 건괘도 항룡은 폭군 주를 가리키는데 임금이 둘이죠. 비룡이 있고 상효의 항룡이 있고 항룡은 주왕의 처지인데 그런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 존위의 지위이고 섭정 왕비를 뜻하죠.

상효는 좋은 임금을 뜻하는 사師괘의 상효와 훌륭한 인물을 뜻하는 점漸괘의 상효를 예외로 하고 흉한 효인 곤坤, 준屯, 몽蒙, 소축小畜, 비比괘 등의 상효를 제외하면 대체로 왕사부王師傅나 상왕上王, 또는 건乾괘와 명이괘의 경우에 폭군이나 암주暗主를 뜻한다. 그런데 빌헬름은 초효와 이효는 땅, 삼효와 사효는 인간세상, 오효와 상효는 하늘로 설명한다.[50]

'잠룡물용潛龍勿用'은 효사爻辭다. 이 중 '잠룡潛龍'은 초효의 상象을 보여주는 상사象辭이고 '물용勿用'은 길흉을 말하는 점사占辭다. 이 효사는 문왕의 둘째아들이자 주周나라의 2대 왕 성왕成王을 보필한 섭정자 주공周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증된 바 없다. 효사는 주초周初에 주공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손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건괘에서 '용'을 상으로 도입한 것은 동양의 용이 서양의 용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동양의 용은 '불의 용'이 아니라, '물의 용'이다. 이 용은 천둥, 번갯불의 전기電氣 부하와 빛, 물, 공기의 창조적 폭발을 상징한다. 동양의 용은 '물의 기氣'요 에테르의 생기生氣다. 따라서 '잠룡'은 숨은 에너지, 깊이 감추어진 잠재력, 기다림 등 풍부한 상象을 지닌다.

---

48) Huang, *The Complete I Ching*, 4쪽.
49) '삼공'은 천자를 보좌해 兵權을 관장하는 천자의 최고 관원이다. Huang, *The Complete I Ching*, 86쪽.
50) Wilhelm, *I Ging*, 28쪽.

“양기가 비로소 싹트고 성인이 미천한 때이므로 마침 용이 물에 잠겨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나설 수 없고 어둠 속에서 양생하며 때를 기다린다(晦養以俟時).”[51]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지침은 분명 ‘참고 기다리라(be patient)’는 것이다.[52] 나아가 용은 천둥번개 속에 나타나는 전기적 운동력과 강력한 충격적 힘의 상징이다. 이 힘은 겨울에는 땅 속으로 물러나고 초여름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으로 현상한다. 이것의 결과로 지상에서는 창조적인 힘이 다시 생성된다. 이 초구에서는 창조적인 힘이 아직 지하에 묻혀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인간세계에 비유하면 이것은 뛰어난 인간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는 이를 무릅쓰고 스스로 충직하게 남아있다. 그는 바깥세상에서의 성패에 마음을 쓰지 않고 세상에서 물러나 올곧게 편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조용하게 힘있는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것(zu warten in ruhig starker Geduld)’이다. 자기의 힘을 너무 앞질러 낭비하거나 때가 무르익지 않은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53] 지금의 때는 ‘준비할 때’이기 때문이다.[54]

공자는 「소상전小象傳」에서 “잠룡의 상이니 쓰지 말라는 것은 양陽이 밑에 있기 때문이다(潛龍勿用, 陽在下也)”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문언전」에서는 ‘잠룡이니 쓰지 말라’는 것은 “용덕龍德을 지니고도 숨어 있는 자이니, 세류世流에 바뀌지 않고, 이름을 내지 않고, 세상을 피해 숨어 번민하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번민하지 않으며, 기쁘면 행하고 꺼림칙하면 피하며, 확고해 뽑아낼 수 없으니 잠룡이다”라고 풀이한다(初九曰, 潛龍勿用 何謂也? 子曰, 龍德而隱者也. 不易乎世, 不成乎名, 遯世无悶, 不見是而无悶, 樂則行之, 憂則違之, 確乎其不可拔, 潛龍也).

또 「문언전」의 다른 구절에서는 ‘잠룡이라 쓰지 말라는 것은 몸을 낮추고 물러간 자이기 때문이다(潛龍勿用, 下也)’는 것이고 또 ‘양기를 감추고 숨어 있기 때문이다(潛龍勿用, 陽氣潛藏)’라고 주석한다. 양기는 양기이나 아직 미숙한 양기다. 따라서 “군자란 덕의 완성을 행위로 삼으니 덕은 날로 볼 수 있는 행위다. ‘잠潛’의 말뜻은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행하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런 까닭에 군자가 쓰지 않는 것이다(君子以成德爲行, 日可見之行也. 潛之爲言也, 隱而未見, 行而未成, 是以君子弗用也)”라고 결론짓는다.

최경崔憬은 ‘잠룡물용’을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용이 땅에 숨었으니 숨은 덕德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고(韜光待時) 아직 제 행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물용勿用’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 마융馬融은 “어떤 물건도 용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용을 빌어 하늘의 양기陽氣를 비유했다”고 말한다.[55] 후앙(Alfred Huang)은 초구 ‘잠룡’의 상황을 문왕이 옥에 갇힌 고사를 기술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때가 적합하지 않고 상황이 행동하기에 유리하지 않다. 이것은 정확히 은나라의 폭군 주왕紂王이 문왕을 7년 동안 유리羑里의 옥에 가두어 두었던 상황이다. 문왕은 대단한 인내심과 자제력으로 옥살이를

51) 程頤, 『伊川易傳』, 148쪽. 이하 『伊川易傳』은 成百曉 역주, 『周易傳義』(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표시한다.
52) Wu, *Yi Jing*, 50-1쪽.
53) Wilhelm, *I Ging*, 28쪽.
54) Huang, *The Complete I Ching*, 27쪽.
55) 李鼎祚 集解, 李道平 纂疏, 『周易集解纂疏』(北京: 廣文書局, 출판연도 미상), 2쪽의 崔憬과 馬融의 주석.

견디었다."[56]

잠룡의 상황을 문왕에 비유해서 유리하게 갇혀있는 것을 기술하는 것은 재미있는 거예요. 처지를 생각할 때는 딱 맞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죠. 이인제의 경우 잠룡을 받은 후 죽어버렸죠. 잠룡나올때 움직이면 죽는다는거. 문왕이 유리에서 잠자코 감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부지못했을 거예요. 폭군 주가 죽이지.

후앙의 주장대로 '잠룡'이 문왕을 상징한다면, 문왕이 주왕을 타도하고 천자로 비천飛天하지 못했듯이 잠룡 자체는 비룡飛龍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하다.

그런데 잠룡이 자신이 힘을 기르고 있는 상황이니 언젠가는 비룡이 될 것이다.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잠룡은 잠룡으로 끝납니다. 힘만 저장하지 날지 못해요. 뒤에 증거를 대는 것 하나가 물에 숨어있는 용이 버림받은 용이라는 것.

감옥에 갇힌 상태를 뜻한다면 '물용勿用'은 '나서지(움직이지) 못한다'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춘추좌씨전』에서 위魏나라 채묵蔡墨은 진晉나라 도읍 강絳의 교외에 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건괘가 용의 상을 쓰는 이유와 '잠룡물용'의 속뜻을 알 수 있는 고사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서라벌 근처 우물에 용이 나왔다는 것이 나와요. 용이 무엇인 것 같아요?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기술했어. 용을 몰아내고 치수사업을 해서 하우 씨가 하늘의 임금으로 천거되죠 순임금에 의해서. 그때도 용을 몰아내고 맹수를 산으로 쫓고 전답을 만들고 하는데 추정으로는 악어가 아닐까. 큰 악어. 지금은 멸종되었을지 모르지만 양자강 악어보다 훨씬 큰 악어일 것이다. 미시피피강 악어는 8미터가 되요. 큰 악어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하우 씨가 몰아낸 용은 사람에게 아주 무서운 용이죠.

채묵에 의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용을 사육했다고 한다. 용을 기르는 씨족은 환룡豢龍씨와 어룡御龍씨였다. 옛날 요飂나라 숙안叔安의 후손인 동보董父는 용을 정말 좋아해 용이 잘 먹는 것을 알아내 이것을 먹이니 용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이 능력을 인연으로 순舜임금을 섬겼다. 순임금은 그에게 '동董'자를 성姓으로 하사하고 '환룡'을 씨氏로 주어 종천豵川 연변에 제후로 봉했다. 하夏나라 공갑公甲 때는 공갑이 옥황상제로부터 용 네 마리를 선물로 받아 황하와 한수漢水에 각각 암수 두 마리를 넣어 두었는데, 이 용들을 기를 수 없어 환룡 씨의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대신 환룡 씨에게 용 길들이는 법을 배운 유루劉累라는 자를 찾아 그에게 '어룡'을 씨로 주고 용 사육을 맡겼다. 그런데 네 마리 용 중 암놈 한 마리가 죽자 어룡은 이 죽은 용을 소금에 절여 임금에게 몰래 먹였다. 임금이 그 맛에 반해 계속해서 이 고기를 찾자 그는 겁이 나서 노현魯縣으로 달아났다.

어룡의 후손은 범范씨로 불렸다. 그러나 춘추시대에는 이들 씨족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채묵은 이어 위나라 헌자獻子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무릇 사물은 이 사물을 담당하는 벼슬이 있으니, 그 벼슬을 오래도록 이어받으면 그 사물이 자연히 벼슬에 따라붙고 그렇지 않으면

56) Huang, *The Complete I Ching*, 27-8쪽.

죽음이 닥치고 녹을 향유하지 못하며, 만일 그 사물을 버린다면 그 사물은 곧 물가에 잠복하고 울창한 잡초에 갇히고 막혀 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관직을 두었으니 이것이 오관입니다. … 나무를 담당하는 목정木正은 구망句芒이고, 불을 담당하는 화정火正은 축융祝融이고, 물을 담당하는 수정水正은 현명玄冥이고, 땅을 담당하는 토정土正은 후토后土입니다. 용은 물의 사물인데, 수관水官이 용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용은 산 채로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역』에 용이 나오겠습니까? 건지구乾之姤는 '잠룡물용潛龍勿用'입니다.57)

채묵의 이 이야기를 보면 잠룡潛龍은 '용덕龍德을 지니고도 숨어 있는 자이니 세류世流에 바뀌지 않고 이름을 내지 않고 세상을 피해 숨어살며 인정을 받지 못해도 번민하지 않으며 기쁘면 행하고 꺼림칙하면 피하고 이에 확실해 뽑아낼 수 없는 용'이라는 공자의 고상한 의리론적 해석과는 달리 '울창한 물가 잡초 속에서 숨어 갇힌' 것, '사로잡을 수 없는 것'(따라서 써먹을 수 없는 것)이요, '버림받은 용'인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잠룡은 현룡見龍이나 비룡飛龍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의 서지筮之에서는 공자의 해석보다 이 채묵의 해설을 중시해야 적중하는 점단占斷을 내릴 수 있다. 현룡이나 비룡이 될 수 없어요.

소식蘇軾은 건乾괘에 용의 상을 쓴 이유를 이것과 조금 달리 설명한다. "건괘가 용에서 상을 취한 까닭은 용이 능히 날고 능히 잠수할 수 있기(能飛能潛) 때문이다. 나는 것은 용의 바른 상태(正)다. 용은 바른 상태를 얻지 못하면 잠수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천하의 지극히 강건剛健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럴 수 있으리오!"58) 용은 천지간에 가장 강건한 것이어서 하늘 위에서 날고 있든지 아니면 차라리 강한 인내심으로 물 속에 꽁꽁 숨어 있든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위로 나는 용'이든 '깊은 물속에 숨은 용'이든, 용은 인간이 쉽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용은 『주역』의 시원始原인 '건乾'괘의 초월적 강건성을 표현하기에 제격이라는 뜻이다.

알프레드 후앙은 이 '잠룡물용'을 '유리의 옥'에 7년간(또는 3년간) 갇혀 있었던 서백西伯 문왕의 수감 생활을 상징한 것으로 풀이한다. 그는 이 수감 생활 동안 놀라운 인내심과 자제력으로 자신을 갈고 닦고 『주역』을 깊이 연구해 천도와 천명을 더 깊이 깨달았다.59)

서지筮之로 실증된 서례에서, 인사권자가 임용하려는 자를 서하여 '잠룡물용'을 얻으면 '실력이 미흡하니 쓰지 말라'는 뜻이고, 본인 또는 같이 속한 사람이 출마 여부를 서筮해 이것을

57) 『春秋左氏傳(下)』「昭公 27年, 304쪽. '乾之姤'는 乾卦의 초구가 動하여 음효로 바뀌어 상괘는 天을 뜻하는 乾(☰)으로 남아있되 하괘는 風을 뜻하는 巽(☴)으로 바뀌어 天風姤괘로 변했음을 나타낸다. 즉, '乾'이 '姤'로 갔음을 뜻하는 '乾之姤'는 초구가 동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효가 동하거나 두 개 이상 여러 효가 동한 경우에도 표기법은 이와 같다. 가령 泰卦가 師卦로 변했음을 뜻하는 '泰之師'는 초구와 구삼이 동했음을 나타내고, 태가 未濟로 변한 '泰之未濟'는 초구, 구삼, 육사, 상육 등 네 효가 동한 것을 나타낸다.

58) 蘇軾, 『東坡易傳』, 43쪽. 이하 『東坡易傳』은 성상구 옮김, 『東坡易傳』(서울: 청계, 2004)을 기준으로 페이지를 표시한다.

59) Huang, *The Complete I Ching*, 27-8쪽.

얻으면 '때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는 뜻이다(이 경우 출마하면 반드시 낙선한다.) 또 '물용勿用'은 '행동하지 말라', '시행하지 말라'라고 번역해야 할 때도 있다. 이 효를 얻었음에도 쓰거나 나서면 성공하지 못한다. 유권자가 후보를 서하여 이 효를 얻으면 '아직 미성숙하니 버려라(찍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997년 가을 한 재야 역학자가 신한국당에서 탈당하여 독자 출마한 이인제 후보의 대선운을 서해 이 '잠룡물용'을 얻었는바, 결과는 낙선이었다(대통령직에 쓰이지 않았다). 일상사를 물은 다른 서례에서 '잠룡물용'은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가령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산 중 정상頂上에서 만난 세 여인들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이들이 나타날지를 서해 이 '잠룡물용'을 얻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작은 일에서도 안 이뤄지는 거지요. 기다리면 내일 나타날까 아니라는 거죠. 그 여자는 잠수한 거죠. 초구라서 자세히 읽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잠룡이 비룡이 되거나 현룡이 되지 않는다. 그 하나의 점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다음이 있고 그런 것 없어요. 모든 잠룡에 대한 주역적 해석은 서증을 해보면 맞지 않아요. 이인제 후보가 출마하면 되느냐? 출마할수록 마이너스도 못 얻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3교시 : ☰ 중천건重天乾 ③

▲중천건重天乾 해석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구이. 현룡見龍이 밭에 있도다. 대인을 만나보니 이로우리라.

[田: 밭 전, 사냥터 전, 일터 전, 지상(세상) 전. 見: 나타날 현, 볼 견. 人: 사람 인, 뭇사람들 인, 백성(인민) 인, 다른 사람 인, 속세 인]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현룡은 잠룡상태에 있다가 나타났겠죠. 어디에 나타났나? 밭에 나타났어요. 밭은 수렵채집시대의 밭은 사냥터죠. 농사지을 때는 논밭이구요. 일상적으로는 일을 하는 현장이에요. 활동하는 필드예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용이에요. 그 상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현재성이 있고, 그 용이 이견대인, 이 구조에서 대인은 오효예요. 임금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열심히 일하고, 주변사람들에 의해 훌륭한 사람이라 평가받은 상황이라 임금을 만나보면 등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로는 그런데 대인의 뜻이 다양한데 원시적이고 오래된 뜻은 점쟁이예요. 그 뜻으로 보면 점 치러 가면 잘 맞겠죠. 두 번째는 임금. 오효와 맞아떨어지죠. 세 번째는 키가 큰 사람, 누구와 결혼할까요 물었더니 실지로 대인과 결혼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엄청난 키다리랑 결혼했어요. 아까 대중처럼, 인이 뭇사람인도 되죠. 많은 대중.

큰 무리의 사람을 가리킨다. 해석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의 무리가 되죠.

이게 나왔을 때 책이 수천 권이 팔리겠구나했는데 500부만 찍었다고 해서 더 찍어야 할텐데 생각했는데 나중에 더 찍었죠. 1차 나갈 때 그랬다는 거죠. 대인의 뜻을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또는 대인을 왕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보스가 될 만한 사람을 뜻하는 게 많아요. 대통령만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니까.

서례를 보면 가령 필자의 2007년 음력 1월(양력 2월 18일~3월18일)의 정치 운세를 서하여 이구이와 구오를 받았는데, 정균환 민주당 전 원내총무와 박상천 전 대표를 만났다. 구이의 '현룡 대인'에 해당하는 정 전 원내대표는 오랜 잠룡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을 개시하여 당시 4월 3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뜻을 접고 장상 전 당대표를 후보로 밀다가 참패한 반면, 구오의 '비룡飛龍 대인'에 해당하는 박 전 대표는 오랜 잠룡 상태에서 일어나 당대표에 출마하여 장상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대표에 등극한 '비룡'이 되었다. 두 개를 받았으니까. 구오의 이견대인은 당선된 사람이겠죠. 하나는 떨어진 사람이죠.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
구삼. 군자가 종일 힘쓰고 힘쓰다가 저녁에는 두려워하네. 위태롭게 여기니 무탈하리라.

[乾: 쉬지 않고 힘쓸 건. 惕: 두려울 척. 若: 그럴(어조사) 약(=然). 厲: 갈 려, 화(禍) 려, 위태로울(위태롭게 여길) 여. 咎: 허물(잡다), 탓(하다), 책망(하다), 근심(하다). 頃: 기를 이, 병(날) 이, 사고(날) 이, 탈날 이. 協: 합할 협. 襲: 이을 습, 엄습할 습]

이괘를 받으면 힘들어요. 열심히 하고 힘들어. 칭찬도 못 받고 걱정스럽고. 해만 떨어지면 걱정이 앞서. 내일 막아야하는데 분주해. 항상 위태롭게 여기고 위험을 의식하면서 움직이면 큰일을 치르거나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IMF 김대중 정권 때 일만 하고 칭찬도 못 받고 그걸로 끝났죠. 무사히 끝났어. 김영삼처럼 경제를 말아먹거나 노무현처럼 비웃음을 산 게 아니고 끝났어요.

九四. 或躍在淵. 无咎.
구사. 혹시나 해서 연못에서 뛰어보도다. 무탈하리라.

'혹시나 해서'로 해석하고요. 사람으로 하면 혹자가 뛰어보니, 누군가 뛰어본다. 뛰는데 연못에서 뛰어본다고 해석했는데 뭔가를 시도해보는데 무사한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실지로 일반사람이 괘를 받으면 혹시나 해서 해보는데 그대로 하면 안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연못에 그대로 있는 게 무사하다 그랬지 돈을 투자하고 싶은데 갖고 있는 게 무사해. 정치적인 일에서는 시도해볼만하다. 때가 왔다라고 쓰이는데, 비정치적인 일상사에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서지자의 사람이름에 관련된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데 재(在)가

달려있다는 뜻이 있어요. 뛰느냐하는 문제는 황태연에 달려있다.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구오. 비룡飛龍이 하늘에 있도다. 대인을 보니 이로우리라.

문제는 이견대인의 대인이 말이 많아요. 대인은 현신, 구이되는 현신을 뜻하는 것으로 봐요. 좋은 훌륭한 참모를 얻는 것이 좋다. 그 경우는 스스로 비룡인 경우. 대통령이 훌륭한 참모를 만날 수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아닌 경우 대인은 비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어떤 보통사람이 비룡재천 이견대인이 나왔어요.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93년 연운年運으로 이 효를 얻었는데 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청와대 운전기사로 채용되었다. 이때 대인은 대통령이죠. 평범한 사람도 임금과 관련된 것이 나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런 걸 받을까 했는데 실지로 운전기사가 되었어요. 대인을 만난 거다. 그 대인은 비룡이죠. 비룡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 괘를 볼 시점에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자신이 그 비룡을 만나는 일을 얻었어. 상징적인 의미죠.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上九. 亢龍. 有悔.
상구. 항룡亢龍의 상이로다. 아쉬움이 있도다.

[亢: (높이) 오를 항, 지나칠 항, 거만(오만)할 항, 극진할 항, 목 항, . 悔: 후회할(뉘우칠) 회, 아쉬울(유감일) 회, 회한(여한) 회. 偕: 함께 해]

'항룡'은 '하늘 높이 올라간 용', '지나치게 올라간 용', '오만한 용(haughty dragon)'이다.[60] 거드름피우는 용이야. 후앙의 고증적 방식으로 보면 사효까지는 문왕이고 오효는 무왕이고 상효는 폭군 주의 예라 그랬죠. 혹약재연도 무왕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무왕이 군대를 몰고 진주를 해봤다가 돌아가는 상황인데. 시험 삼아 해보는 건데.

혹약재연, 이 상황과 행동은 문왕의 아들 무왕이 아비의 유훈遺訓에 따라 은왕조를 치러 출동했다가 맹진盟津에서 회군回軍한 역사적 사실과 유사하다. 이 출동과 회군은 무왕이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테스트해본 것으로서, 「문언전」의 말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스로 시험하는(或躍在淵, 自試也)' 행동이다.[61] 날짜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800명의 제후가 무왕의 동정東征 출병에 호응해 맹진까지 진출했고 여기서 모여 주왕 정벌을 외쳤다. 그러나 무왕은 '아직 천명을 모른다'고 말하고 회군했다.[62] 이 고사에서도 출병은 회군으로 끝났으므로 서하여 구사를 얻으면 예정된 일을 뒤로 연기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강행하면 천명을 거슬러 탈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서례에서 본 것은 정치대회 창립대회에서 이것이 나왔어요. 높은 분한테서 창립대회를

60) Huang, *The Complete I Ching*, 25쪽.
61) Huang, *The Complete I Ching*, 28쪽. 또한 司馬遷, 『史記本紀』, 75-6쪽; 『史記世家(上)』, 29-30쪽 참고.
62) 司馬遷, 『史記本紀』, 66쪽; 75-6쪽.

연기하라고 연락와서 연기했는데 이 효가 나오면 연기하라는 것이 많아요. 구오는 무왕이 역성혁명이 성공한 상황이죠. 비룡이 되었으니까. 상구는 무왕에게 몰리고 있는 폭군 주의 처지이다. 아쉬운 후회가 있다. 끝까지 올라가는 용은 추락밖에 없죠. 몰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받으면 안 좋아요.

用九. 見羣龍无首. 吉.
용구. 모습을 드러낸 군룡에 우두머리가 없는 상이도다. 길하리라.

여기서 '용用'은 '오로지'라는 뜻이다(用唯也). 모두가 구다. 모두가 동한 것이죠. 곤괘로 간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용구用九'는 여섯 효가 '오로지 구九(양효)만' 동했다는 뜻이다. 곤괘는 보는 거예요. 6개가 동한 경우는 용구라는 효를 가지고 점단을 해요.

용구用九는 건괘에만 있다. 여기서 '용用'은 '오로지'라는 뜻이다(用唯也). 따라서 '용구用九'는 여섯 효가 '오로지 구九(양효)만' 동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빌헬름은 '용구用九'를 '오로지 구만 나오면(wenn lauter Neunen erscheinen)'으로 옮기고 후앙은 '모두 구(all nines)'로 옮겼다.[63] 건괘의 여섯 양효가 다 동하면 곤坤괘로 변하면서 용 여섯이 떼로 나타나게 되므로 '군룡羣龍'이라 한 것이다.[64] 천덕天德을 갖춘 용들은 서로 대등하므로 우두머리 없이 평화롭다.

따라서 우두머리가 없이 떼로 모인 용들이 길한 것이다. '현군룡무수見羣龍无首'의 '현見'은 '나타날 현'으로 새기는 이도 있고,[65] '볼 견'으로 새기는 이도 있는데,[66] 의미는 비슷하므로 어느 번역이든 무방하다. 공자는 이 효의 효사를 「소상전」에서 ① '천덕은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天德不可爲首也)'로 해설하고, 「문언전」에서는 ② '천하가 다스려진다(天下治也)', ③ '건원乾元이 다 구九이면 마침내 하늘의 법도가 나타난다(乾元用九, 乃見天則)'로 주석하고 있다. '현군룡무수'는 동動한 여섯 효가 모두 천덕天德을 가진 용이므로 하나가 앞장설 수도 없고 우두머리 다툼을 벌일 수도 없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롭게 잘 지내며 하늘에 순응하는 상황이다.

소동파는 「문언전」의 '내견천칙乃見天則'이라는 구절을 '하늘은 우두머리가 없는 것을 법칙으로 삼는다(天以无首爲則)'고 풀이하고 있다.[67] 따라서 '용구'를 평화와 순응의 덕을 상징하는 곤坤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적당할 듯싶다. 곤괘는 '암말의 곧음(牝馬之貞)'으로, 즉 '앞장서면 헤매고 뒤서면 주인을 얻는 것'으로 괘덕卦德을 삼고 있다. '암말'이란 본시 강인하면서도 유柔한 것이다. 이에 주희는 여섯 양효가 다 음효로 변했으니 "강하면서 능히 유함은 길吉의 도道이다"라고 했다.[68]

63) Wilhelm, *I Ging*, 30쪽; Huang, *The Complete I Ching*, 25쪽.
64) 蘇軾, 『東坡易傳』, 46쪽.
65) 가령 蘇軾, 『東坡易傳』, 46쪽.
66) 程頤, 『伊川易傳』, 154쪽.
67) 蘇軾, 『東坡易傳』, 60쪽.
68) 朱熹, 『周易本義』, 154쪽.

주희는 『주역본의』에서 건괘의 여섯 효가 다 동해 곤괘로 변하면 이 '용구'를 써서 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9) 건乾이 초효가 동해 구姤괘로 변하는 건지구乾之姤의 경우, '건'을 '본괘本卦'라 하고 변해서 이루어진 괘를 '지괘之卦' 또는 '변괘變卦'라 하는데, 『춘추좌씨전』에서 노魯나라 태사太史 채묵蔡墨은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70) "건지구乾之姤는 잠룡물용潛龍勿用이고, 건지동인乾之同人은 현룡재전見龍在田이고, 건지대유乾之大有는 비룡재천飛龍在天이고, 건지곤乾之坤은 현군룡무수見羣龍无首이고, 곤지박坤之剝은 용전우야龍戰于野다."71)

이 해설에서 채묵은 건괘의 여섯 효가 모두 동한 건지곤乾之坤의 경우 '현군룡무수見羣龍无首'를 효사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서지에서도 이 효사로 점단해야 할 것이다. 구미 역학계의 '용구用九' 해석도 참고할 만하다. 빌헬름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풀이한 바 있다. "모든 효가 구九로 동하면 전체 괘가 동해 순응과 수용을 재질才質로 삼는 곤괘로 변한다. 창조적인 것의 강성剛性과 수용하는 것의 유성柔性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강성은 군룡으로 시사되고, 유성은 이들의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에 의해 시사된다. 이것은 단호한 결의의 강성과 결합된 유성의 행위방식이 길복吉福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뜻한다."72)

한편, 알프레드 후앙의 다음과 같은 해설도 유익하다. "용구用九는 양효가 모두 음효로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64괘 가운데서 오직 이 괘와 곤괘만 여섯 효가 모두 동할 때 적용되는 별도의 용구, 용육用六 문장을 가졌다. 여섯 효가 다 변하면 이 추가된 효사를 읽어야 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용龍들이 가장 강력한 존재일지라도 리더십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늘의 뜻을 표명하고 하늘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도량이 크고 가장 겸손한 자만이 하늘에 의해 선택받는다. 그리하여 공자는 '천덕天德은 머리가 되는 것이 불가하다(天德不可爲首也)'고 말한다. 황제나 지도자는 주재자主宰者이지만 동시에 순응한다. 그는 하늘의 뜻에 순응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괘인 순응의 곤괘는 순종의 도道를 현시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건괘와 곤괘는 하나로 융합된다.

이 도는 은나라 신민들이 폭군 주紂를 그들의 지도자로 간주하지 않은 것을 시사해준다. 때는 바야흐로 참된 지도자가 하늘에 의해 점지되어야 하는 때인 것이다. 따라서 길운이 따르는 것이다."73) 후앙의 이 해석은 주희의 해석과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독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후앙에 의한 용구 효사의 해설 요지는, 천덕天德을 지닌 용들은 수장首長 자리를 놓고 다투지 않으며 수장이 되고 안 되고는 천명天命에 따를 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실제 서지에서 건괘의 여섯 효가 다 동해 곤괘로 변하면 용구를 적용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용구의 효사는 용덕龍德을 지닌 자들이 장長 자리를 다투지 않고 모여 연합하는 것을 상징한다.

1997년 초구初九의 '잠룡물용潛龍勿用'을 받아 대선에서 낙선한 이인제 의원이 2005년 10월 하순경 심대평 충남지사 세력과 합류하는 노선을 버리고 재야의 길로 가려고 작정하자, 그의 한 보좌관이 직책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며 괴로워하던 끝에 그의 벗에게 자신의 11월

69) 朱熹, 『周易本義』, 154쪽.
70) 소식도 채묵을 인용하여 풀이하고 있다. 蘇軾, 『東坡易傳』, 46-7쪽.
71) 『春秋左氏傳(下)』, 『昭公 27年, 304-5쪽.
72) Wilhelm, *I Ging*, 30쪽.
73) Huang, *The Complete I Ching*, 29쪽.

운세를 서해줄 것을 청해 건지곤乾之坤을 얻었다. 11월 초가 되자 이인제 의원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심대평과 김학원의 연대 논의에 전격 합류했고 보좌관은 자리를 그만둘 필요가 없어졌다. 합당의 장애는 세 사람이 다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세 용들(見龍: 심대평, 潛龍: 이인제와 김학원)이 주도권 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신당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 합의한 것이다. '현군룡무수見羣龍无首, 길吉'의 괘사가 실제로 징험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랜 논쟁, 무시해도 된다. 용구를 가지고 점단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여섯 개가 다 동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서증이 쉽지 않은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7강 : 중지곤重地坤 ①

◆1교시 : ䷁ 중지곤重地坤 ①

▲ 중천건의 변괘 택천쾌

지난 시간 항룡유회亢龍有悔 마지막 효를 했는데 마지막 효는 중 괘인 경우, 상 괘와 하 괘가 같은 것이 중복된 중 괘인 경우는 마지막 효 하나만 동한 경우에 한해서 변 괘를 봐줘야 한다. 중천건에서 마지막 괘만 동하면 ䷪ 澤天夬(택천쾌)로 바뀌죠. 이 괘의 변효 효사를 봐야 합니다. 上六 无號 終有凶 (상육 무호 종유흉) 똑같이 안 좋은 걸로 되어 있다. 두 개를 연결시켜 해석해야 해요. 뜻을 연이어서 풀어줘야 해요. 앞에 것을 먼저 뒤에 것을 나중에.

중지곤의 상효인 上六. 龍戰于野(용전우야) 其血玄黃(기혈현황)이라는 효사도 풀어야 해요. 하나만 동한 경우, 동시에 ䷖ 山地剝(산지박)괘의 경우 上九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석과불식군자득여소인박려),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오두막집을 무너뜨린다.

▲ ䷁ 중지곤重地坤

곤괘는 건괘와 다른 덕을 가져야 좋은 괘입니다. 건괘는 자강불식하고 애쓰고 힘쓰고 강해야 복된 괘인데 곤괘는 남을 먼저 세워주고 실어주고 태워주고, 자기는 겸손과 겸양의 덕으로 뒤에 서있는 경우에 복을 받는 괘예요.

坤. 元亨 利牝馬之貞. 君子有攸往 先迷後得主. 利西南得朋 東北喪朋. 安貞吉.

땅의 상이로다. 크게 형통하고 암말처럼 곧으니 이로우리라. 군자가 갈 바에 앞서면 헤맬 것이나, 뒤따르면 주인을 얻을 것이로다. 서쪽과 남쪽에서는 이로우니 지지자를 얻는 반면, 동쪽과 북쪽에서는 지지자를 잃으리라. 평안하고 곧으면 길하리라.

初六. 履霜 堅氷至.

서리를 밟았으니 얼음이 꽁꽁 어는 때가 오리로다.

六二. 直方大 不習 无不利.

곧고 반듯함이 크니 익히지 않아도 불리함이 없으리라.

六三. 含章可貞. 或從王事 无成有終.

아름다운 뜻을 가슴에 품고 곧게 간직할 수 있으리로다. 혹시 때맞춰 왕을 위해 종사하면 성공이 없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리라.

六四. 括囊 无咎无譽.

자루를 틀어 묶었으니 허물도 영예도 없다.

六五. 黃裳. 元吉.

노란 치마로다. 아주 선하게 길하리라.

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

용들이 들에서 싸우도다. 그 피가 검고 노랗도다.

用六. 利永貞.

오래 정고正固함이 이로우리라

坤. 元亨 利牝馬之貞. 君子有攸往 先迷後得主. 利西南得朋 東北喪朋. 安貞吉.
땅의 상이로다. 크게 형통하고 암말처럼 곧으니 이로우리라. 군자가 갈 바에 앞서면 헤맬 것이나, 뒤따르면 주인을 얻을 것이로다. 서쪽과 남쪽에서는 이로우니 지지자를 얻는 반면, 동쪽과 북쪽에서는 지지자를 잃으리라. 평안하고 곧으면 길하리라.

띄어 쓴 것 자체가 일정한 해석이 들어있죠. 先迷後得主. 利를 띄어 쓴 것은 정이천과 주희의 해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들어있는 거죠. 그 둘은 붙여놨기 때문에.

得主는 군주를 얻는다는 거죠.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면 취직하거나 발탁되거나 등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서 나가면 헤맨다는 것은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손해 봐요. 남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따라주는 것은 자기소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남이라는 방향을 뜻할 수도 있지만 대개 서쪽, 남쪽을 다 가리켜요. 다 이로워요. 이로운 내용이 지지자를 얻어요. 붕(朋)은 우(友)와 달리 우는 사적인 친구, 붕은 공적이고 대의명분에 맞고, 사사롭지 않은 친구예요. 지지자요.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미지의 인물들, 익명적인 대중들이죠. 그들이 지지자인 경우 붕으로 표현한다. 붕이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또는 아군일수도 지지자일 수도 있어요.

동쪽과 북쪽에서는 지지자를 잃으리라. 동북쪽일 수도 있지만 동쪽과 북쪽으로 나눠지는 것이 서례에 맞아요. 평안하고 곧으면 길하리라, 혹은 안정되면 길하리라. 해도 돼요. 안정되어서 길하리라 할 수도 있죠. 안정되면 조건부이고 안정되니 운명적인 거죠. 건괘가 음력 4월 괘라면 곤괘는 음력 10월 괘인데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에서 곤괘를 동효 없이 얻으면 음력 10월에 팔린다는 것이죠.

곤괘는 덕을 두텁게 해서 만물을 자기위에 얹어주어야 자기 뜻을 다하는 괘인데 건괘는 스스로 강하게 쉬지 않게 해야 덕을 다하는 괘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데, 핵심적인 상은 빈마牝馬라는 것인데 암말을 왜 썼느냐? 암소라고 하지. 왜 소를 쓰지 말을 썼는가. 곤은 팔괘 상으로는 소를 상징하죠. 여기서 말을 쓴 이유는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복 괘로 되어있는 곤괘에서 땅과 나라와 대중을 뜻하죠. 곤괘는 국민, 땅, 영토, 강토를 뜻하는데 소 가지고는 지배할 수 없어서 빠른 말을 썼어요. 그런데 암말은 순종적이고 남을 따르는 세워주는 측면에서 썼어요. 암말은 순하면서도 강하면서도 빠른 상을 대입을 시켰고, 순하면서도 강하고 빠르고 대단히 곧은 정직하고 곧고 의지가 일관된 것이죠.

빈마와 더불어 이로움이 암말의 곧음에 있다는 것은 원형이 한 묶음이고 이정이 한 묶음이다. 원형이정이 사덕이 아니라 두 가지 덕이 아닌 것으로 공자의 해석에 이의를 달았는데 그때 주희가 곤괘의 괘사를 인용했어요. 정약용은 형(亨)이나 리(利)는 점사일 수 있지만 원(元)은 하나로 점사인 것이 없고 정(正)도 점사인 적도 없다. 사덕을 부정한 거죠. 그 안에서 덕을 적용한다. 원에는 크게 착하다는 덕이 들어있고 크게 착해야만 선하다. 이정은 도덕적인 뜻이 들어있죠. 곧은 덕을 가진 사람의 경우 이로움을 얻는다. 한정적으로 덕을 조건부로 해서 점사를 해석해야 한다.

두 번째 논란이 많은 부분이 선미후득주(先迷後得主)인데, 일 년 운세로 이 괘를 얻었을 때는 1-6까지는 헤매고 7-12까지는 안정되게 지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람, 선을 시간적인 선으로 봐야한다는 사람, 선과 후를 동사로 봐야한다. 앞장서서 나가면 헤매게 되고 남을 뒤따라가면 득주得主한다. 발탁된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늘 상황에 적합하고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선후를 시간적 의미로 보는 것을 배척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서증된 의미로 앞서나가는 뒤따라가는 동사적의미를 중심에 생각해야 한다. 어려운 대목은 빈마와 선과 후이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의미는 없어요.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에서 동효 없는 곤괘를 얻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원서를 넣었는데 취직할 수 없을까 물으면? 면접 볼 때 잘난 척하면 떨어져요. 겸손하고 겸양의 모습을 보이면 돼요. 앞장서면 안 좋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할 때 출세한다.

평생 운세로 이 괘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남을 위해 도와주고 뒤따라가면 그 조직의 제2인자, 실권을 가진 2인자가 되요. 그런데 앞장서 가면 망하죠. 덕을 요구하는 게 곤덕을 요구하는 운세다.

만약 미래 자기 전체의 운을 알고 있는 경우 덕에 맞춰, 혹은 덕을 배양하면서 살 수 있는데 공자는 겉치레만 하는 사람으로 [redacted] 산화비(山火賁)괘를 얻었어요. 실세가 아니라 허세로 살아가는데 취직을 못하고 평생 자기 마음이나 주위의 무궁무진한 사상을 쓰지 못할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차라리 쓰이는 것을 포기하고 이론적이고 관조적인 인생을 삶으로써 큰 덕을 이루고 불변의 인류의 성인이 되었죠. 어떤 식으로 운명이 주어지든 자기 할 일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노력해야할 것인가는 지천을 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공자스스로 지천을 주역을 통해서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밑받침을 제공한 것인데 그 신학을 바탕으로 스스로도 신탁 점을 쳤고. 공자는 천지인(天地人) 삼도를 예기(禮記) 논어(論語)에서 시경(詩經)에서 전개했어요. 공자의 신학과 천명론을 전개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탁에 관한 이론은 전개하지 않았어요. 주역의 십익 처럼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신학이론을 형이상학에서 논리적인 필연으로 제일동인prime mover, 일차적 실체의 개념, 유일한 하늘, 단일하늘. 이런 것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으로 떨어져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해서 이 신학을 가져다 쓰죠.

희랍어로 이론을 전개하는데 공자의 십익의 등가물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인데 물론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더 많지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려던 사람도 신학을 치밀하게 전개해놓은 것이 있다. 거기에 바탕으로 점에 관한 책은 쓰지 않았지만 점은 실용으로 사용했고 신을 부정하거나 인간의 일을 우선적으로 기술한다고 해서 신개념을 소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역에서 의리철학만 추구하고 천명, 신개념을 부정하면 주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철학을 따로 하면 되죠. 그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령 의리철학에만 빠져든다는 것은 대단한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지성과 지혜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오만을 부리는 거죠. 실지로 몇 차례 얘기했듯이 인간은 미래 일을 알 수 없다. 규칙적이고 법칙적이지 않은 시장상황, 전쟁귀추, 건강운, 사업운은 알 수 없죠. 소크라테스도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을 신에게 묻는 것은 불경죄이지만 거꾸로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우기거나 신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도 불경죄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정 하에 살고 있는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계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모든 점도 계시의 일종이니까 오라클이니까. 오라클은 신한테 모르는 걸 묻는 거예요. 일차적인 형태든 고차적인 형태든 신에게 묻는 것은 공통된 것이다.

◆2교시: ䷁ 중지곤重地坤 ②

▲ ䷁ 중지곤重地坤

初六. 履霜 堅氷至.
초육. 서리를 밟았으니 얼음이 꽁꽁 어는 때가 오리로다.

[履: 밟을(밟아 나아갈) 리, 이행할 리, 신발(신을) 리. 霜: 서리 상. 堅: 굳을(단단할) 견. 馴: 순종할(좇을) 순, 길들일 순, 익숙할 순 致: 이룰(다할), 치, 이를 치]

뜻이 미묘해서 학자들이 달리 해석한 것이 많은데, 25일이 상강인데요. 서리가 내리면 엄동설한이 머지않은 거예요. 꽁꽁 얼어붙는 것이 다가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길을 가다가

발밑에서 서리가 밟혀요. 추운 겨울로 들어가겠구나. 겨울나기를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문맥에서 쓰인 겁니다. 단단한 얼음이 어는 엄동설한이 다가온다는 뜻.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뜻일까요? 안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뜻일까요. 학자들의 상당수는 긍정적인 대변화가 오는 것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다가올 것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경험상으로 좋은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동설한처럼 꽁꽁 얼어붙는 거니까요. 문왕과 무왕의 고사에 비추어보면 대단히 가혹한 정치적인 어려움, 탄압 국면, 공안정국이겠죠.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예고일 수 있다.

만약 개인적인 것에서 받으면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엄동설한 같은. 그런데 미리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양력으로 1월 22일 제일 추운데 상강은 10월 24일이거든요. 상강부터 석 달 남았으니까 안 좋은 일을 미리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흉한 효가 아니므로 흉이나 유구란 말이 없어요. 하지만 안 좋은 일에 대비해야하는 시점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뜻이 집적되어 있고요.

중요한 서례로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결정적 중심인물이 붙들려가서 수사선상에 잡히기 된 시점이 2004년이죠. 자기의 진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헌법은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없었으니까 언론들도 미지근하게 반응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제한적으로 국민투표를 인정하는데 독일헌법은 국민투표 조항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국민이 대학교수 5천만으로 되어 있어도 어리석게 만드는 제도란 말이에요. 찬과 반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건부 반대, 비판적 지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종교 식으로 보면 지옥과 천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연옥이 많은데 딱 갈라서 찬, 반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감당 못하죠. 바보가 되죠. 못하도록 독일 헌법은 뺐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나 노대통령이 자기가 취소할까 대단히 걱정스런 국가사태가 벌어져서 물었더니 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나왔으니 때를 가르쳐준 거죠. 상강 때가 지나면 손 들겠구나. 계속 몰아붙였죠. 그때 중대한 방해군이 있었는데, 김종필이 노무현과 친해져서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그랬어요. 그 국민투표는 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대통령이 이기니까. 선거기술상으로 투표는 회부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반대할 사람은 굳이 반대하지 않아요. 찬성할 사람만 골라서 찬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90프로 이상 이기게 되어 있어서 히틀러나 박정희가 많이 쓰던 수법이에요. 독일은 질려서 없애 버린 건데.

독일은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에도 국민투표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법안을 만들어놓고 각 주가 가입하는 식으로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국민투표도 요식행위니까. 우리나라는 안보와 헌법개정시 채택하는데, 위험한 사항이라서 김종필이 굴복하지 않고 노무현과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거 전력이 있는 한나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도 안 해요. 왜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평가 받겠다고 주장한 적 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발목 잡힌 게 있으니 주장하지 않고, 새천년민주당만 주장했는데. 뭘 찾았느냐.

노태우가 중간평가를 해야 되었을 때 김대중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안하도록 했어요. 물밑접촉을 해서. 20억 돈을 갖다 줬나 봐요. 야당당수가 면해줘야 면해지니까. 그때 보도된 경향신문만 전산화만 했더라고요. 어렵게 찾았죠. 김대중도 잊었고, 김대중 밑에서 원내총무 했던 박상천, 김원기도 잊었어요. 원내총무가 김원기고 박상천은 부총무죠. 김원기는 자기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보도가 나왔는데, 잊고 노무현 밑에 따라갔으니까 위헌 아니라고 주장할 때거든요. 줬더니 기자들이 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치는 빨리 돌아가니 본인자신도 잊어요. 그거 하나 찾아서 전멸시킨 것이죠.

별 수 없이 대통령이 외국 갔다 와서, 밥 먹다가 해도 되죠? 하니까 김종필이 그거 위헌이라고 합디다, 하면서 일면 톱에 실리고 그만두게 되면서 그게 10월 30일예요. 그 사이에 끝날 걸로 봤죠. 자료는 줬는데 기사는 안 쓰더니 일제히 쓰면서 국민들이 위헌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기자들이 쓰기 싫어서 안 쓰는데 내가 쓰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고 하늘이 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 시점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발동이 걸리면서 위헌으로 정리가 되죠.

헌정 상으로 국민투표를 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의 당리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해서 이기는 것이니까. 그 시점에 한나라당과 새천년은 반대 입장에서 싸워야 하니까 연속성상에서 총선으로 들어가 봐요. 민주당은 한 석도 못 얻는 거죠. 하나는 이긴 대통령을 가지고 치르는 것이고 이쪽은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쪽에서 싸워야하니까 탄핵역풍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당리당략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었지만 논리를 제공하고 과거 증거물을 내놔도 잦아지지 않더라고요. 24,5일 되니까 정리가 되었다.

제일 마지막 때를 묻는 서지筮之에서 이 효를 얻으면 '리상履霜 견빙지堅氷至'는 서리가 내리는 절기인 상강霜降, 즉 양력 10월 24일부터 얼음이 꽁꽁 어는 대한大寒, 즉 음력 12월 30일까지 석 달 열흘을 뜻한다.

서례로 써 놓으면 좋은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당 사정을 다 써놔야 이해가 되니까. 내가 뽑은 것이 아니라 재야 역학자가 뽑은 건데 누가 뽑아도 상관없으니까. 해석은 내가 했지만 적중해서 맞아떨어진 경우죠.

六二. 直方大 不習 无不利.

육이. 곧고 반듯함이 크니 익히지 않아도 불리함이 없으리라.

[直: 곧을 직, 가질 직, 맡을(조종할) 직. 方: 모 방, 방위(지방) 방, 도리(방도) 방, 병선(뗏목) 방, 나란히 할 방, 네모지듯 반듯할(바를) 방, 둘레(두루) 방]

덕과 윤리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전통이었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형이라는 중국의 학자가 1950년대 주역 해설서에서 이것을 직을 맡을 직(直), 방(方)은 병주, 멍텅구리배 두 개를 묶은 것, 대는 불습과 붙여 直方 大不習, 훈토를 이렇게 해서, 병선을 맡아서 움직이니 크게 배우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해석했어요. 학자들이 방(方)자가 그런 뜻이 없지 않아요. 직(直)에 맡을 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이 실제에 맞지 않아요. 전통적으

로 곧고, 방정하고 크니 덕이 여러 번 익히지 않아도 불리함이 없다.

실지로 이 효를 받으면 앞장서 나가면서 잘난 체 안하면 잘 풀려요. 길이라는 말이 없지만 제 일인자는 못되어도 실권이 없는 2인자가 되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운이 좋고 만사가 형통하다. 조직과 세력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인생의 정점에 이르러 조직의 제2인자로서 실권을 장악한다. 2인자의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이름도 많이 나죠. 두 번째 직책이 이름이 더 유명한 곳이 많죠. 정당의 경우는 사무총장의 경우, 당 총재는 얼굴마담인 경우가 많았죠. 막강한 사무총장의 시대, 지금 신문사의 경우 편집국장이 최고죠. 방송국은 보도국장이 최고죠, 지위는 1등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일에서 수장이죠. 진짜 실권자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성격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많이 세워주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인생이나 일에 관해 잘 풀린다. '직방대直方大'를 의리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이는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으로 보인다. '배 두 개를 결합시킨 배를 맡아서 운전하니 크게 배우지 않아도 불리함이 없도다' 는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다.

六三. 含章可貞. 或從王事 无成有終.

육삼. 아름다운 뜻을 가슴에 품고 곧게 간직할 수 있으리로다. 혹시 때맞춰 왕을 위해 종사하면 성공이 없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리라.

[章: 아름다울 장, 좋은 아이디어(계획) 장, 문서 장. 无: 따지지 않을 무. 敢: 감히 (행)하다]

곧게 간직한다는 可貞것은 곤괘의 덕과 일치하는 거예요. 곧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니까. 간직하고 있으면 실현돼요. 곤괘는 실현되는데 과정이 겸덕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혹시 때가 와서 왕을 위해 종사하면, 왕의 일에 따르다고 해도 되지만, 왕을 따라서 섬기면으로 해도 돼요. 성공이 없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리라. 그런데 무성유종无成有終이 해석이 안돼요. 성공, 성명, 이름이 나는 것 자신의 이익과 벼슬, 출세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출세하거나 이름이 나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지만 맡은 바 임무를 끝낼 수 있다. 끝내게 되면 마음속에 굳게 간직할 수 있었던 뜻을 때를 맞아 실현시킬 수 있어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면 끝을 보고 그 끝은 유종지미를 가지는데, 그 내용이 원래 간직했던 뜻을. 그런데 이 효를 받으면 굳게 간직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발설하고 싶어서 덕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 굳게 간직하지 못하냐면 효가 육삼이에요. 육삼은 음효가 양위陽位의 터에 거했으므로 음이 터의 양기를 머금고 있다. 그래서 들썩거려 불안정하다. 하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효를 받으면 자신의 덕에 달려있어요. 흉효로 될 수 있어요. 굳게 가정可貞하면 자기 의지에 따라 길효가 될 수 있다. 천지인(天地人) 세 개 중에 지(地)도가 지배하는 곤괘지만 사람의 도에 맡겨둔 것도 있어요. 주역의 많은 효와 괘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덕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여기서 역사적 의미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은 여기까지가 문왕의 일이다. 문왕은 자기 마

음속에 폭군 주(紂)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질서를 가진 백성을 구제해야한다는 혁명을 가지고 있지만 끝내 감추고 주왕을 섬겼죠. 그때의 심정, 양상을 그린 겁니다. 혹시 왕을 따라 섬기는 경우는 폭군 주(紂)이죠. 너의 명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끝내는 것으로 전부를 삼아야지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왕이 살아남았고 천 여 명이 넘는 제후국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죠. 그 지지를 자기 아들에게 이양할 수 있는 밑받침을 만들었듯이 삼효는 문왕의 고사가 담겨져 있다.

문왕의 고사 입장에서 보면 전체의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문왕의 역사와 무관하게 해석하면 잘 안돼요. 장(章)은 역성혁명의 뜻, 혁명의지를 감추고 오래 간직할 수 있도다. 혹시나 폭군의 일을 도와줘서 궁정에 근무하는 일이 있어도 문왕은 주왕의 궁정에서 근무했죠. 자기의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봉사하듯이 해야 한다. 그러면 앞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실현한다는 것이 생략되었죠. 자기 대가 아니고 아들 대니까 실제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 맛을 보지 못하겠죠. 자기가 아니면 남편이라도 애인이라도 자식이라도 유관자가 그 덕을 보는 거예요.

◆3교시 : ䷁ 중지곤重地坤 ③

▲ ䷁ 중지곤重地坤

六四. 括囊 无咎无譽.
육사. 자루를 틀어 묶었으니 허물도 영예도 없다.
[括: 묶을 괄. 囊: 주머니 낭, 배낭(자루) 낭, 불알 낭. 譽: 칭찬할(기릴) 예]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쥐죽은 듯 엎드려있는 문왕이 건드리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자기 귀주에 음복해서 숨어서 선정만 베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하 입장에서는 탈도 없고 무사하고 칭찬도 받지 않는 것이죠. 잠복근무시점이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많은 정벌의 권한을 얻어 서쪽의 문제를 책임지는 제후가 되었죠. 서백의 지위를 얻은 상황, 천황의 권한 중에 서쪽 변방에 넘겨 받는 거니까 높아진 거죠.

이 효를 받으면 액션을 취하면 안 좋아요. 군사를 일으키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면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입을 함구해야한다. 삼효보다도 사효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길하지 않아요. 탈이 없을 정도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엄중한 상황이죠. 특별히 덕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서례에서는 ① 입과 귀를 닫고 바깥일과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나서지 말며, ② 문을 닫고 출타하거나 여행을 떠나지 말고, ③ 귀를 틀어막고 뜬소문을 듣지 말고 뜬소문을 듣고 직장을 옮기거나 움직이지 말며, ④ 금고를 걸고 투자하지 말라는 근신의 뜻, 즉 신중하게 제자

리에 머물거나 본분과 본전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까지 넓게 풀이된다.

六五. 黃裳. 元吉.
육오. 노란 치마로다. 아주 선하게 길하리라.

[裳: 치마 상(=裙), 바지 상(=褲=袴; 바지 고). 攝: 잡을(쥘) 섭. 皐: 물가 고. 陶: 질그릇 도. 偰: 맑을 설, 사람이름 설. 蒯: 황모(黃茅) 괴. 媧: 사람이름 왜(과). 擅: 멋대로 할 천]

전체 효 중에 곤괘는 오효(五爻)와 상효(上爻)가 가장 중요한데 육오(六五)가 그 중 하나예요. 조건부로 해석하면 아주 선해야 길하리라. 여기에 덕의 의미가 들어있죠. 노란 색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중앙을 뜻했고 임금을 뜻했어요. 군주, 주군, 수장의 색깔이에요. 중국에서는 가운데서 지배한다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높은 데보다는 가운데. 가운데 색깔이 황이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오효라서 노란색을 쓰는데 오효(五爻)는 大가 나오거나 노란색이 나오거나 또 이효(二爻)도 중용의 위치가 제대로 된 경우면 노란색이 많이 나와요. 雷水解(뇌수해)괘 九二 田獲三狐 得黃失전획삼호 득황시. 노란 화살.

여기서는 다섯째 노란색은 존위의 색이예요. 황실과 관련되어 있어요. 곤괘가 아닌 오효 존위는 임금의 부인 황후, 왕비에 해당되고 임금이 아닌 경우 임금 노릇을 임시적으로 하는 사람 섭정자, 대통령 권한 대행, 당수나 다름없는 실질적인 남자, 여자인 박근혜 대표같이. 또는 역사상으로는 이윤의 경우는 주공, 어린 성왕을 보좌했던 주공을 황상으로 비유합니다.

세 번째로 뜻은 하늘의 용은 검은색, 검을 현, 누를 황, 그러죠. 하늘은 검고 땅은 노랗다라고 말하고 그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파란데 왜 그럴까요. 달이나 해의 색이 합쳐서 비추는 거죠. 그것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검은 것이죠. 정확한 거죠. 가물 가물한게 아니에요. 땅은 황토가 많으니까 땅은 노란색으로 생각했어요. 은나라든 당나라든 황토지방에서 탄생했으니까 당나라의 서울이 장안, 서안이니까 황토흙 천지잖아요. 황하자체가 물이 깎여 내려가 노란색이어서 황하라고 하죠. 황 자 안 붙여도 마찬가진데. 강은 양자강을 가리켜 장강이라고 하죠. 장 자를 안 붙여도. 황하는 노란 물만 쓸어내렸죠. 서해가 황해가 될 정도니까. 하늘이 검으냐보다 땅은 다 노랬어요. 남쪽으로 많이 와서 노랗지 않은 땅도 있지만 그 전에는 노란 땅 밖에 없었다.

검은 용은 동북쪽의 용인 경우도 있지만 방향의 경우도 있지만 하늘과 땅만 관련되면 하늘의 용은 흑룡이고 땅의 용은 황룡이고, 여기서는 땅의 색이란 뜻이죠. 하늘의 색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므로 황상은 땅과 관련되며 겸손한 왕비나 제 2인자로서 일인자의 인물을 정당화하게 한 경우입니다. 부당한 경우는 황상이 아니에요. 찬탈한 경우는 아니에요. 반드시 헌법과 헌장에 맞게 합법적으로 섭정하는 경우에는 황상으로 묘사한다.

그 뒤에 두 가지 괘 자체의 덕은 겸양해야죠. 남을 세워주고 자기는 뒤따라 가야하니까 크게 착해야 된다는 뜻이 괘의 뜻에 있고, 두 번째 원길 조건부로 해줬어요. 아주 착해야 길

하도다. 평균적으로 이 괘를 받으면 좋을까요? 조건이 많아서 받으면 부담스럽죠. 가령 '수수께끼처럼 어떤 여자 분이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서 황상원길이 나왔다. 그 사람이 후보가 될까요, 안될까요? 해석상의 기법은 어떨까요.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존위의 자리지만 법적으로 2인자 자리죠. 후보는 되지 못한다. 못해도 그런 지위에 가있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후보는 되지만 여기서는 후보를 물었으니까요. 또 '4,5선 의원이 공천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괘를 받으면 못 받죠. 착해야 되는데 4,5선은 그 자체가 황상의 자리에 있어요. 또 하려고 하면 못 받았어요. 재선, 초선 의원은 황상원길을 받으면 공천받아요. 그 사람 황상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도덕적 여유가 있죠. 똑같이 나오면 초재선 의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은 못 받았어, 그런데 자신이 나갔어. 또 떨어졌어.

일회적으로 끝나진 않아요. 평생 한 번만 대통령 출마한다면 맨날 이것만 보고 있겠지만.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도 대통령 후보의 지명도에는 못 따라가요. '비'가 유명한 것 같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몰라요. 지명도가 있어도 대통령 후보보다 많은 사람이 없어요. 한 달을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니까. 완전히 알려지는데. '비'처럼 아는 사람들 있지만. 노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배우들을 잘 알뿐이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부분적으로만 연예인도 알고 있고, 어떤 연예인도 대통령 후보의 지명도를 못 따라간다. 일단 나와 봐서 지지를 축적시키는 게 좋죠. 한번에 안 된다고 해서 안하면 정치는 못하는 거죠. 여러 번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90프로 이상 될 확률이게 때문에 끝까지 국민이 지칠 때까지 나오는 거죠.

옛날 DJ는 4수해서 되었죠. 그때 대국민 협박 세 개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당선 안 시켜주면 또 나온다. 이인제 후보는 만약 이번에 나 당선 안 시켜주면 본선도 불복한다. 뭐 이런 협박들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 당시 끈질긴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찍은 사람도 있지만 또 나올까봐 찍은 사람이 많았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었어요. 저 사람 안 찍어주면 다음에 또 나오니까 이번에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강원도 노인은 후보를 봤는데 자기가 아는 놈은 DJ 밖에 없더래. 계속 30년을 나와서 싫어하는데 지명도가 있으면 친근해주는 게 있어요. 찍었다고 하죠. 지식인들은 또 나올까봐 찍었다고 하죠. 그 노인들은 아는 놈이 없어서요. 자주 나오면 기본표는 얻어요. 여야당은 자주 나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안 된 사람 중에 이회창 총재가 못 되었죠. 계속 있었으면 모르는데 나가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고 그랬죠. 실제로 끝까지 나온 경우는 많지 않아요.

황상원길과 관련해서 남괴의 서례가 잘 알려져 있죠. 장차 반란을 하려고 괘를 뽑았는데 황상원길을 받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해석을 해주죠. 원길의 원자의 도덕적 의미를 강조를 해요. 반란은 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손한 거죠. 실패해서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인생을 불운하게 끝났어요.

노나라 계손 씨의 가신 중에 남괴는 높은 사람이 아닌데 너도나도 반란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계손 씨는 노나라 황공의 세 아들의 자손인데 그 중 하나가 계손 씨고, 맹손 씨고, 숙손 씨인데 그 아들의 자손들이 노나라의 실세가문이 되었어요. 계손 씨는 대대로 재상자리를 이어받고 맹손과 숙손은 재상보다 낮은 자리를 세습하듯 이어받아서 군주인 제후가 별 인사할 것이 없어요.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몰아내려고 애쓰다가 쫓겨난 임금도 있고,

나중에 포기하고 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계손 숙손 맹손의 가신들이 실권을 쥐어서 환공의 아들들인 삼환이 임금을 무력화했다면 가신들이 거꾸로 삼환을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남괴가 반역해서 황상원길을 받아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도 예언적인 얘기가 대부분이죠. 선지자도 예언자고 예언자는 큰 점쟁이인데 주역 책 효사 괘사를 성경책으로 대체한 그런 책도 가지고 있어요. 뜻이 같은 구절을 찾아서 성경의 그것으로 정했어요. 미국에서 산건데요. 이미 복음서의 상당부분은 서례집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죠. 성경에서 만약에 예언이나 계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자를 설득하기 위한 장치이다 하면 도구가 되는 거죠. 성스러운 말이 아니라 그런 측면인데 오라클의 본질적 뜻은 신이 직접 사람한테 계시를 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뜻을 표현하는 걸 신탁이라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 하든, 꿈속에서 인물을 통해서 하든 선몽을 받았든 주역을 통해서 하든 무녀를 통해서 하든 다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부호 내지는 징조로 신이 자기 뜻을 알리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가령 그리스 시대는 제사를 지낸 희생물의 내장을 꺼낸 후 내장의 형태로 점을 쳤다고 해요. 또는 점장이들 동전 던져서 치는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고, 그것은 그 사람만 알 수 있죠.

두 번째 가장 광범위한 게 어떤 종교든 물어보는 사람이 무당한테 또는 목사한테 물어서 입말로 구술로 하는 신탁,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은 잘못 말하면 부호로 갈수도 있어요. 델피 신전의 오라클은 언어로 되어 있죠. 고대 역사학의 논쟁은 시의 형식으로 했느냐. 산문으로 했느냐. 그것만 갖고 논쟁해요. 호머나 헤로도투스는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신녀가 시를 잘 지었냐 부터 나중에 산문으로 말한 것을 시문으로 바꾼 것이다. 나중에는 투키데테스의 신탁 내용은 산문으로 되어 있다. 플로타크가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형태로 하든 언어인데 대단히 상징적인 언어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가장 유명한 신탁이 wooden wall 신탁 서례가 600여개가 남아 있죠. 그 중 반은 역사적 대 사건과 관련된 거라. 역사책의 내용과 신탁 내용이 반 이상이 일치하는 게 많아요. 버려지지 않고 인터넷에 실려 있어요.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 상징적인 말인데 뭘 뜻하는지 해석가가 있는데. 그 해석가는 아테네 민주주의 시대 대단히 지위가 높았는데 나무 장벽만이 오로지 부서지지 않고 남아서 그녀와 그녀의 자손들을 지켜준다는 것인데 무녀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그 해석을 놓고 이걸 노인들은 아테네 원로들은 델피 신전의 과거에 설치했던 나무목책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중 하나가 민회에서 저것은 나무 전함이다.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해전을 준비합니다. 아테네 시 전체를 소개시키고 자식들하고 여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감추고 남자들은 급조된 선박에 타서 페르시아 군대를 살라미스에서 이기죠?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요.

상징적인 언어로 해놓으니까 논란이 있고 이 뜻을 알아서 아테네를 구하고 그리스 문명 나아가 서구문명을 구한 것으로 해석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해석을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아시아 있는 어떤 참주는 신탁의 예언을 받았느냐 하면, '니가 그 강을 건너면 제국을 부수리라 파괴하리라' 하고 받았어요. 공격을 했지만 페르시아에게 역공을 당해서 제국이 없어졌어요. 그 제국이 어딘지 어느 제국을 가리키는지 묻지 않았어요. 자기 제국이죠. 전쟁을 일으키면 망하리라인데 영어로는 피시아phycia가 올림픽만큼 유명한 체육대회를 델피신전에서 개최했어요.

세 번째는 글말로 신탁이 주어지는 것, 입말은 무녀와 신전이 소멸하면서 없어졌죠. 기원후 4세기 사라졌고. **글말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주역이에요.** 주역은 이미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글말이 있죠. 효사 괘사로. 거기에 정신통일을 통해서 무녀는 트랜스 상태, 무아지경, 신들린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고 주역은 정신통일해서 뽑는 거니까 뜻은 고정되지 않아요. 말글은 고정되어 있지만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거기에 덕행의 의미가 첨가되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종교학에서는 굳이 차별하지 않아요. 단계가 글말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높다. 성경책으로 점보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칼로 성경책을 찌르라고 그래요. 그 페이지를 열어요. 그 내용을 읽어요. 읽어서 그 내용을 풀어서 점을 칩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경책도 글이 고정되어 있죠. 그 방법도 발달되어 있는데 타로 점은 이 셋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적중도가 높으니까 살아남았겠죠.

어쨌든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의 뜻을 물어보는 것에서는 같다. 우리말로 신탁도 신의 뜻을 묻는 것이고 신이 다른 걸 매개로 자기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 오라클도 뭘 매개로 해서 주는 것이죠. 직접 음성으로 주는 계시도 있지만 그건 revelation이라고 해요. '너는 어떻게 해라.' 라고 나오는 경우하고 다른 사람의 사인을 통해 얻는 것은 다르죠.

◆ 4교시 : 점을 치는 이유

▲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처음부터 얘기하는 덕행구복의 관점하고 덕행을 계속하면 복을 구할 수 있다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적 덕행으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공자는 어떻게 대응했던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대응했던가를 얘기해드렸는데 결국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어요. 미래를 조금만 알아야 대비를 하는데 대천명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대천명도 달리 보면 오만한 겁니다. 나는 인간의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늘이 나중에는 책임져 하면. 아빠 책임져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지. 소크라테스가 말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으로 나눈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은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는 뜻이 델피신전에 쓰인 것이고 '뭐든지 지나친 것은 없다' '위기가 닥쳐오니 맹세하라.' 세 개가 쓰여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것이에요. 델피 신전에 쓰여 있는 만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라 그러면 지혜로운 것이니라. 지나친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중용의 뜻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중용을 지켜라.' '징조가 안 좋으니 맹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 하나예요. 공자님도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지(知)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아니까 아는 것이다'는 유치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을 안다고 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이다.**

소크라테스 말이나 공자님 말이나 참으로 내용은 같으나 소크라테스가 델피신전의 말로 소피스트를 깨우치려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고. 나도 여러분들만 할 때 내 머리로 이해 못할 것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미래는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안다고 오만을 떨고 있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천은 아는 방법이 있어야 알죠. 주역을 통해서 지천명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 전에 지식은 지인(知人)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을 못하게 해요. 지천과 지인 중에 다른 제자가 귀신에 대해 물으니까 핀잔하죠. 논어에 사람일도 모르는데 귀신을 물어보냐. 괴력난신 하지 않았다. 인, 행하기 어려운 것 말씀안하셨고 이익 같은 치사한 것, 천명은 말을 안했다. 하늘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신비적인 것을 피하고 싶고 미신적인 것을 피하고 싶어서 안한 건데 논어의 그 이야기는 전부 40대 이전 이야기예요.

논어에는 청년 어록과 만년 공자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어떤 학자도 주역이 앞뒤가 안 맞게. 천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고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는 천명을 경외하고 천명을 받은 대인을 경외하고 세 번째는 천명을 알고 순종하고 즐기는 성인의 말씀을 경외하니라. 이때는 공자님은 자기 말을 그대로 한 군자가 아니죠. 천명을 우습게 알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 해야 한다. 마치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아테네 신전에서 신들을 쫓아내서 폴리스 사이에 신들을 가둬보려고 했듯이, 신전에서 인간적인 일만 하고 신적인 일을 못하게 하려는, 유물론적이고 쾌락적인 입장을 보였듯이 공자도 합리적인 입장을 보내요.

청년칸트는 인간의 이성에 신을 가두려고 했죠. 나중에 도대체 역사의 진행하고 도덕률에 맞는 국제 정치와 전쟁이 계속되는 현실이 안 맞으니까 언젠가는 맞아떨어진다고 말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연섭리론 적으로 언젠가는 도덕과 국제정치와 현실정치가 일치할 것이다. 아무런 덕행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해결해줄 것이다. 칸트보다 머리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못 풀었을까요. 그 사람이 원칙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다른 접근 방법 종교든 신탁이든 없다.

공자는 47세부터 혁명이라는 주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으로 나와 있고 50에 지천명을 했다고 하죠. 50이후의 문제와 다르다. 60대에는 순천(順天), 60이순(耳順)이라고 했는데 이순천명, 천명을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고 듣고 따르는 낙천(樂天)은 70대에 이르니 하나님하고 노는 거예요. 인간으로 한계 지어져서 태어난 것을 즐길 수 있는 공자님이 받은 두 개의 괘 산회비괘와 화산려 괘는 돈하고 권력하고 관계없고 자기가 귀부, 부귀(富貴),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 학문적, 철학적인 덕행으로 학덕을 쌓는 일에 집중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의 부분에서 관조적인 삶이 정신적인 활동이므로 가장 외적인 요건을 적게 요구하는 이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완전한 행복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여가도 있고 정치나 봉사활동도 있지만 그 덕행은 쉬는 여가가 없다고 하고 정신의 활동인 관조야 말로 신 자체가 정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부분적으로 정신으로 되어 있어서 신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관조라는 것이죠. 관조적인 삶에서 최고의 행복이 이루어진다. 전제는 신은 완전히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공자님이 그 방향으로 가서 행복하게 눈을 감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참하게 눈을 감아요. 61세에 죽었고 공자는 73세에 죽었으니까 12년 더 살았죠. 플라톤은 82세까지 살았고 소크라테스도 74세까지 살았어요. 공자님보다 1년 더 살았어요. 다 물음표 되어 있어요. 통설로 해석하면 74세예요. 공자님은 73세고.

마지막에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만큼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부유했던 사람도 없어요. 삼대가 마케도니아왕 삼대가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왕의 주치의였어요. 그 인연으로 그 아들도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었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아테네 총독이 되어 돌아와요. 아리스토텔레스도요. 델피 신전 안에다 학당을 지어요. 평생을 최고 권력과 부를 뒷받침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우연히도 매형이 플라톤 친구였어요. 델피신전에 점쳐서 17살밖에 안 먹어서 걱정스러워 신탁을 했거든요. 아마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플라톤에게 보내요. 철학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요. 긍정적으로 나왔겠죠. 그때도 유산이 남았고 플라톤이라는 세계의 커다란 스승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운, 머리를 좋게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따지면 관조적인 삶으로 간다는 것은 억세게 운 좋은 행운아예요. 요새로 따지면 순수이론, 철학 신학분야에 근무하는데 정년보장 받은 것이죠. 가장 운 좋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자기가 증명하려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해방된 행복이 관조적 삶의 행복이에요. 따져보면 가장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강력히 서포트 되어야만 가능한 삶이예요. 그 논증은 실패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관조하고 있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누가 돈 벌어줘야죠. 교수들. 조교수 부교수 논문 안 쓰면 잘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번도 그런 부담에 취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 영향력이 그렇게 막강한 사람이 없어요. 대대로 삼대로 그리스 최강의 나라에서 서포트를 받고 알렉산더는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되었는데 알렉산더가 급사를 하자마자 반란이 일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명예훈장이 박탈돼요. 곧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죄목으로 죽게 된 상황에 자기도 의연히 감내하려고 하는데 순천과 낙천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죽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른 나이에 죽어요. 초로의 나이에 죽었으니까.

종합해서 보면 어떤 경우든 덕행 구복과 지천명의 측면, 지천과 순천의 측면이 결합이 되어 있다. 처음부터 공자님도 덕행구복만 하고 서지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못해요. 이덕희점이라고 했는데 덕행을 우선하되 서지하는 것을 줄이는 것, 한 달에 백번 치면 2, 30으로 줄이

는 것, 순자처럼 점치지 말아라. 덕행을 점치는 것을 대체하라고 안 해요, 공자님은요.

그 전통으로 보면 주희의 주역 해석이 중용적인데 서점과 철학 사이에 주희가 정통적이죠. 두 개의 측면을 다 포용하는 것. 실질적으로 기복적인 측면을 빼버리면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을 것이다. 그 부분을 빼고 강요하면 신도들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기적의 사실 신념들을 주지 않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믿어야만 하죠. 믿음도 없이 말씀만 가지고 하려면 더한 미신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토크빌이 쓴 1934년대 책을 보면 미국사회가 가장 물질적인데 가장 미신적인 기독교가 난리더라. 미국방송의 기독교 채널이. 한편으론 그렇게 미신적인데 또 그렇게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미국처럼 추구하는 나라가 없어요. 막스 베버가 똑같은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물질화되면 극단적인 반동이 일어나서 정신의 황폐화를 회복하려는 강력한 후보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카톨릭이 번성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참고가 되죠. 균형적이고 중용적인 접근이 주역이나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머니의 장원으로 도망갔어요. 외갓집 장원으로 갔어요. 아티카 안에 있어요. 터키가 더 위험하죠. 안전하다 했으니 갔겠죠. 거기 있으면서도 불안해서 떨어요 체포될까봐. 1년 못가고 죽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로 죽어요.

어차피 남긴 남는데 자기 이론에 충실한 사람으로 남겠죠. 소크라테스처럼. 엄청난 불안 속에서 1년 못되어 죽었어요. 행동에서 어긋나 있는데 거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죠.

◆5교시 : ䷁ 중지곤重地坤 ④

▲ ䷁ 중지곤重地坤

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
상육. 용들이 들에서 싸우도다. 그 피가 검고 노랗도다.

[野: 목외(牧外) 야,[74] 들 야. 玄: 검을 현, 하늘(하늘빛) 현, 그윽할(멀) 현]

이 말뜻만 가지고 풀이하면 해석이 안돼요. 무왕이 기병해서 군대를 몰고 목야牧野'까지 온 거예요. 도성바깥을 교(郊), 그 바깥을 야(野)라고 해요. 목(牧)은 야(野)보다도 먼 곳이 목인데,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광야를 일반 명사로 할 수 있지만 고유명사에서 목야는 지명일 수 있다. 두 마리 용이 싸운다. 역사적 상황에 고정시키면 하나는 무왕이라는 왕, 황용, 하나는 임금이 되어 있는 흑룡, 황룡과 흑룡이 목야에서 싸우도다. 그 피가 검고 노랗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흑룡은 다치면 검은 피, 황룡은 다치면 노란피를 흘린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74) 『爾雅』는 郊를 '邑外'로, 牧을 '郊外'로, 野를 '牧外'로 주석한다. 한편, '邑'은 天子가 직할하는 영지로서 '畿內'를 뜻한다.

역사적으로는 무왕과 폭군 주(紂)가 목야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치열했다. 쌍방 간에 피해가 있었던 거죠. 누가 이긴 건지 알고 있죠. 이 괘는 곤괘이므로 황룡이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무왕이 이겼죠. 일치하는 것이고. 흑룡은 그걸로 정리가 되고 말죠.

실제적으로 이 괘를 받으면 대단히 치열한 갈등이 벌어져요. 아무 길(吉)과 흉(凶)이 없어서 길로도 흉으로도 단정할 수 없어요. 싸우다 말 수도 있어요. 만약 어떤 정책의 미래의 선에서 받으면 그 정책을 집행하는데 험난한 것이 예정된 효(爻)예요. 만약 집행하는 사람이 황 씨면 그 사람이 이겨요. 혹은 현 씨면 그 사람이 이겨요. 혹은 현 변이 있는 성이나 이름이 있으면 이겨요. 혹은 여성이 이겨요. 곤은 여성의 편이므로 남성은 져요. 도전자와 수성자가 있으면 수성자가 지고 도전자가 이겨요. 치열한 싸움 끝에 이기는 것이므로 상당한 희생 후에 이겨요.

정치적이지 않고 일상적인 것에 의해 받으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추돌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일 경우는 차가 어떤 차건 간에 용과 관련이 있어요. 버스와 차가 추돌이 났는데 버스회사 차고지가 용문동일 수 있어요. 서증 상으로 많이 나타난다. 상표이름이라도 관련 있어요.

이걸 받으면 신수나 운으로 이것을 받으면 잘 안 돌아다니는 게 좋다. 일진으로 보면 하루 안 나가면 되니까 괜찮은데. 공자님은 요편에서 안 좋으면 피하면 되고 좋으면 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澤風大過(택풍대과)의 삼효(三爻)면 흉하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니 흉하도다. 棟橈 凶 세미나를 가려고 하는데 그게 나왔어요. 아주 안 좋아서.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 저녁 7시 정도 후배가 오랜 만에 연락을 해서 찾아와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서 집 앞에 나가 술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고 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내가 위험한 상황에 유리를 깨서 아무데나 찌르고 다녀도 누군지도 몰라보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데 12시가 넘어서 집으로 왔어요. 혼자 해결된 것 같아, 하루가 지난 것 같아. 거의 11시 40분 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피해있어도 끝까지 쫓아와서.

내태來兌 라는 규정이 있어요. 중택태괘(重澤兌卦)의 삼효(三爻) 내태인데 올 래, 때릴 태인데, 때린다. 노래한다. 기뻐한다는 뜻인데 두들겨 패는 걸로 해석해야 해요. 한 달 내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데 한 번은 술을 산다고 해서 교수들하고 가서 끝나고 오면 되는데 나이 많은 교수의 1년 선배가 술판이 합쳐졌어요. 나중에 상석에 앉아서 술 따라주는 상황이 된 거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교수가 괘씸했는데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내가 피하려고 애썼는데 굳이 와서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에 대한 상처가 몇 년 갔어요. 주먹다짐 한 건 아닌데 마음대로 폭언도 하는 행태가 잊기 힘들게 겪었으면 심난했을 거예요. 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자님은 안 좋으면 피하면 된다고 했는데 일 년 내내 어떻게 피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결과가 안 좋아요. 덕행을 따라야 되는데 흉이니까 피해야 하니 결국은 몸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죠. 알고도 비난을 받고 해야 할 경우가 많죠. 나중에 반전될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경우도 길흉이 없는 경우 피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역을 소개를 드릴 때 64개의 괘사가 있죠. 사(辭)가 448개의 효사(爻辭), 건괘의 7번째, 곤괘의 7번째 효사가 있죠. 450개의 효사가 있죠. 이 경우는 6개가 모조리 동하면 건(乾)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건(乾) 곤(坤)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용육(用六)으로 판단한다. 용육은 모두 여섯이다. 모두 음효다. 오로지 음효만 동했다는 거예요. 쓸 용이 아니라 용구, 모조리 양효(陽爻)만 동했다는 뜻이죠. 곤괘의 괘덕은 남을 내세워주고 자기는 겸양하고 거기에는 참는 의미도 들어있죠. 참는 뜻으로 봤을 때 곤괘의 겸덕과 맞아 떨어지는 用六 利氷貞 내용을 안고 있어요. 이걸로 판단하면 오래 견디고 차분한 성품이 이로움을 얻고 그 사람에게 좋은 승리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게 많지 않아요. 서례가 많지 않아요. 6개가 다 동하는 경우는 없어서 서례를 쓰지 못했어요. 이 경우는 역사적으로 무왕이 혁명에 성공해서 그 입장을 고수해서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이롭다고 했어요. 실지로 설치한 것도 6번째 용육을 설치한 것도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8강 : 수화기제水火既濟 와 화수미제火水未濟

◆1교시 : ䷾ 수화기제水火既濟

▲ ䷾ 수화기제水火既濟

63번. 920페이지입니다.

금융위기를 궁금해 하시니, 궁금증이 많으면 적중도가 높아요. 몽괘를 보면 알지만 신은 자기에게 장난치거나 비웃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에서 혹시 희극이 우스워 확산되면 웃음도 확산되고 그 웃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웃을까봐 찢어내 버리거나 독약을 발라 밤새 읽다가 죽는 수사들이 영화의 시작이죠. 엄지손가락이 시커매져서 죽는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만 있어요. 분명히 희극도 썼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독약 발라놓는 것도 찢은 것 같아. 시학의 희극이 없어졌다는 말이 전해오죠.

既濟. 亨 小. 利貞. 初吉終亂.

이미 건넜도다. 형통하도다, 작은 것이여! 바르게 자리를 지키니 이로우리라. 처음에는 길하고 나중에는 어지럽도다.

기제괘(既濟卦)는 '이미 건넜도다' 큰일은 이룬 상태예요. 작은 것이여 형통하도다. 기제괘는 큰일은 이룬 상태예요. 큰일을 방어하는 잔일들을 해나가는 때고 그런 일은 잘돼요 바르게

지키면 길하리라. 처음에는 좋으나 끝으로 갈수록 어지러워진다. 뭐든지 기득은 어지러워지죠. 이긴 상황에서 대업의 치적을 지키는 괘입니다. 큰 기득권의 괘고.

만약 무슨 일을 물어서 고위 공직자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뽑았더니 기제 괘가 나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미 기득권의 괘니까 결재가 난거나 진배없다. 가장 좋은 괘예요. 기제괘중에서 좋은 것은 아무 동효(動爻)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괘사 초길종난 初吉終亂은 맞지 않아요. 초효 부터 상효까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점사로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운을 봤더니 기제 괘가 동효 없이 나오면 평생 잘 살아요. 60,70어지러워지고 그러지도 않는다.

괘사 중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자꾸 해보는 수가 없어요. 하루 일진을 보니 기제가 나왔다 저녁 6시부터 나빠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좋은 복을 받은 거나 진배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기제 다음은 미제인데 기제 괘는 흩어지면서 미제 상황이 돼요. 미제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걸로 상효가 끝나게 되어 있다.

기제는 물을 건너는 것을 기본적 상징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위험한 물을 건넌 상태야. 큰 모험이 끝난 상태다. 이 자체에 중요한 기득권 방어 차원에서 볼 때는 동효 없는 기제는 기득권자가 받으면 좋아요. 도전자가 받으면 목표로 한 만큼은 쉽게 얻어요. 그 다음단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초길종란은 동효 없는 기제괘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길하다가 나중에 어지럽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요.

初九. 曳其輪. 濡其尾 无咎.
수레바퀴를 (뒤로) 끌도다. 그 후미가 (물에) 적시더라도 무탈하도다.

六二. 婦喪其茀. 勿逐. 七日得.
부인이 자기 머리 장식물을 잃어버렸도다. 좇지 말아라. 칠일이면 얻으리라.

九三. 高宗伐鬼方 三年克之. 小人勿用.
고종이 귀방을 정벌하여 3년 걸려 이기도다. 소인을 쓰지 말라.

六四. 繻有衣袽 終日戒.
배에 물이 스밈에 헌옷조각을 안고 종일 경계서도다.

九五. 東隣殺牛 不如西隣之禴祭 實受其福.
동쪽 이웃은 소를 잡아 제사지내도 서쪽 이웃이 약제禴祭를 지내 알차게 복을 받는 것만 못하리라.

上六. 濡其首 厲.
제 머리까지 (술에) 젖으니 위태로우리라.

初九. 曳其輪. 濡其尾 无咎.
초구. 수레바퀴를 (뒤로) 끌도다. 그 후미가 (물에) 적시더라도 무탈하도다.

[曳: (뒤로) 끌 예. 濡: 적실 유]

‘예曳’는 ‘뒤에서 끌 예’자다. 못 가게. ‘예기륜曳其輪’, 즉 수레바퀴를 뒤에서 끈다. 수레바퀴를 ‘뒤에서 끈다’는 것은 수레가 전진하지 못하게 바퀴에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침착하게 만들어 늦게 가는 것. 다독여서 늦게 가는 것. 수레 후미가 적의 타격을 받거나 비난을 듣더라도 별 탈은 없다. 실제로 이 효(爻)를 받으면 별 탈을 받지 않아요. 기득권은 워낙 강해서 본인은 탈을 당해도 탈을 받은 지도 모른다. 미미한 느낌이 있는 거죠.

六二. 婦喪其茀. 勿逐. 七日得.

육이. 부인이 자기 머리 장식물을 잃어버렸도다. 좇지 말아라. 칠일이면 얻으리라.

[茀: (외출용) 머리장식물 불, 수레를 장식하는 휘장 불]

외양을 꾸미는 거니까 상징적인 것으로는, 밖에 행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마비를 대주는 사람이 없어진다거나, 실제로 브로치나 머플러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좇지 말아라. 일주일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진짜 일주일일 수 있고 칠 주 일 수, 칠년일 수 있죠. 7년까지는 가지 않겠죠. 많이 길어도 70일, 물어본 경우에 따라 날 수를 계산해야 돼요. 한 달 단위나 수개월 단위로 물어서 7일이 아니면 7주나 70일이겠죠. 득(得)자는 다시의 뜻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들어있으니까 다시 얻게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제괘도 적중도가 백퍼센트예요. 동효 없이 받으면 잘 뽑으면요. 육이(六二)를 받아도 적중도가 백퍼센트예요. 안 이뤄지는 경우가 없어요. 육이는 지위 상 합당하고 음(陰)의 자리에 음효(陰爻)가 와 있으니까 중용치고는 좋은 중도에 있는 겁니다. 약간 마음고생을 하죠. 처음에 잃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오면 참으면 돼요.

九三. 高宗伐鬼方 三年克之. 小人勿用.

구삼. 고종이 귀방을 정벌하여 3년 걸려 이기도다. 소인을 쓰지 말라.

[憊: 고달플 비. 肜: 융제사(제사 다음날 제사) 융, 배 떠나가는 모양 융]

여기서 ‘고종’은 은殷나라를 중흥시킨 무정武丁 황제(B.C. 1324-1266)의 존호다.[75] ‘곤이昆夷’라고도 불린 ‘귀방鬼方’은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후 1세기 말까지 중국 서북방에서 활약한 ‘흉노匈奴’를 말한다. 하夏나라 때는 훈육薰育이라 불렸다. ‘귀방’은 은말殷末과 주초周初에 쓰인 이름이다. 주나라 중엽 이후에는 ‘험윤玁狁’으로 불리다가 춘추시대에는 ‘융戎’ 또는 ‘적狄’으로 불렸고 전국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흉노匈奴’ 또는 ‘호胡’로 불렸다.[76] 이름은 바뀌었지만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방오랑캐인 귀방을 정벌하는데 3년 동안 그것을 이겼다. 3년이면 상당히 길죠. ‘3년 만에 이겼다’는 것은 그 과정이 ‘고달팠다’는 것이다(象曰, 三年克之, 憊也). 이런 전쟁에는 소인배를 등용하여 지휘관으로 중용하면 탈주하거나 항복하여 전쟁에서 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소인들을 쓰지 말라’는 경고가 붙은 것이다. 따라서 소인(일반인, 소신 없는 철새 정치인, 청소년,

75) 『書經』「高宗肜日」 참조. 車相轅 역저, 『書經』, 161쪽.
76) 김학주 역주, 『詩經』, 348쪽 참조. 귀방은 중세에 서양을 침략한 훈(Huns)족의 선조다. Huang, *The Complete I Ching*, 490쪽.

50대 이르지 않은 경솔한 청년들 등)이 구삼 효를 얻으면 고달픈 전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하니 아주 흉하다.

이 효(伐鬼方)를 받으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사람이 인내심이 없어서 끝내는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고달픈 경우가 맞다. 공자님의 해석은 고달프구나 했어요. 고달픈 경우가 맞다. 일단 해석은 고달프구나, 고생을 각오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자의 해석이 촌철살인이 많아요. 딱 한 마디인데 여러 번 경험해보면면 딱 맞아요. 소인이 받으면 흉합니다요. 소인은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 중이나 후나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도층 인사가 아니라 소인이면 흉괘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 고달프고 흉하도다, 극지, 이기지도 못해요. 오히려 당해요. 고종이 귀방을 3년 만에 이겼는데 소인이 어떻게 이겨요. 30년 줘도 못 이겨요.

기제 괘 전체는 은나라가 처음에 세워져서 두 번째 안정되고 약간의 혼란이 있다가 중흥의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육사 괘에 이르게 되면 육사 괘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없고 많이 그랬는데.

六四. 繻有衣袽 終日戒.
육사. 배에 물이 스밈에 헌옷조각을 안고 종일 경계서도다.

[繻: 명주실 수(유). 袽: 해질 여, (헝겊을 해지게 해서 만든) 옷솜 여. 絮: 솜옷 서]

은실을 배에 비유하고 오래 되어 구멍이 나 물이 스며드는 상황이에요. 뱃밥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는 건데 옛날 목화가 재배되지 않을 때라 풀로 만든 삼베를 잘게 찢어서 솜을 만들었어요. 그걸 여袽라고 했는데 헌옷들을 뭉개서 물이 스며든 곳에 박아 넣는 것, 그것이 명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수繻는 유로 같이 해석합니다. 뱃밥솜의 물이 스며든다. 기득권층의 전체가 구멍이 나서 그것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 주의 깊게 애를 쓰는 장면이에요. 흉(凶)이나 유구란 말이 없죠. 이 정도면 기득권 괘에서는 상당히 좋은 괘예요. 육사가 음의 자리에 음의 효가 와 있기 때문에 잘 방어합니다. 기득권이 침해되는 걸 잘 방해해요. 오효와 상효의 상황과는 다르다.

◆2교시 : ䷾ 수화기제水火既濟 ②

▲ ䷾ 수화기제水火既濟 풀이

九五. 東隣殺牛 不如西隣之禴祭 實受其福.
구오. 동쪽 이웃은 소를 잡아 제사지내도 서쪽 이웃이 약제禴祭를 지내 알차게 복을 받는 것만 못하리라.

[禴: 간단한 여름 제사 약, 봄 제사 약, 불시의 간단한 제사 약]

동쪽 이웃이 소를 잡는 것은 서쪽 이웃이 약소한 제사를 지내서 실지로 그 복을 받는 것만 못하리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동린東隣'은 동부에 위치한 은나라 주紂왕, 즉 기득권자를 가리키고 '서린西隣'은 은나라의 서쪽 변경에 위치한 기주岐周의 문왕, 공자님은 동쪽 이웃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 서쪽 이웃이 제사지내는 일을 때를 맞추는 것만 못하다. 不如西隣之禴祭 또 實受其福는 알차게 복을 받으리니 길함이 크게 오리라고 번역했어요. 주석을 가했는데요.

서린이 약제를 지내는 것을 때맞추는 제사라고 한 것은 봄과 여름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시절에 맞추어 간단하게 제사지내야 맞는데 소도 잡고 소는 말과 함께 대생大牲, 즉 큰 제물祭物이다. 소, 말, 코끼리를 대생이라고 하는데, 약제를 지내야할 때, 봄과 여름에 춘궁기나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시기에 호화로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례에 맞지 않는다. 자기 지역에 나는 물산으로 제사를 지내야하고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야 해요. 어려운 시기 궁한 시기는 궁한 만큼 물산을 써서 해야 되고 산악에 사는 민족이 해물들을 제사지내거나 또는 바닷가 사람들이 산악에 있는 어려운 제물을 쓴다는 것, 예에 맞지 않는다. 호화 ,사치스러운 제사는 때맞추어, 상황에 맞는 제수를 쓰지 않는 거죠. 지나친 제수이므로 약제라는 것은 제사시기가 봄과 여름인데 가을에 제사지내는 것처럼 '대생'을 썼다.

그렇게 지내는 것은 천신(天神) 지신(地神) 귀신(鬼神)도 흠향하지 않는다고 해요. 복을 내리지 않는 거죠. 흠향(歆饗)은 천신 산신 하신들에게 지내는, 오래된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들은 흠향제라고 하는데, 흠향제는 익혀서 음식을 장만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고기를 얹어놓는 거예요. 소 생고기, 콩도 익히거나 볶지 않고, 쌀, 조, 기장을 올리는 등을 생으로 올리고, 어떻게 흠향을 하느냐. 돼지털 소털을 기름에 묻혀 숯불에 태워요. 냄새가 진동하면 흠향하도록 제사지내는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는 때에 맞추어 어려운 시기에 호화로운 대생을 올리므로 흠향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 때에 맞추지 않는 것은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 제례에 맞지 않으므로 귀신이 좋아하지 않죠. 아직은 재력 권력이 있어서 호화 사치스런 제사를 지낼 수 있을지 몰라도 동쪽 이웃이 전도가 어두운 거죠. 서쪽 이웃은 전망이 있는 거죠. 실지로 알찬 복을 받는 거죠. 기득권자로 동린을 해석하고 서린은 신흥세력으로 봐야한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괘를 총선을 놓고 야당이 구오(九五)를 얻었다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기제괘(旣濟卦)는 기득권자가 우세한 괘예요. 신흥세력이 힘이 커오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혁명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제 괘는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렇다고 신흥세력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었어도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취약하거나 하면 승리를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신흥세력이 성장하고 전망이 좋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기득권의 세력이니까 동린은 소를 잡을 정도로 예법은 안 맞지만 강력한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어본 말씀과 관련해서 야당이 받았을 때 이 경우 답을 여당이 이기는데 야당이 상당히 약진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맞아요. 약진한 힘이 그 의석수를 가지고도 이후부터 실제

로 알찬 복을 받을 만큼 의정활동을 해요. 그게 지금 이 괘에 맞는 기제괘의 깊은 의미구조에 맞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흥세력이나 시간강사와 교수와의 관계에서 교수가 나이가 많았을 때 이 괘를 시간강사가 얻었다. 세미나에서 시간강사가 유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전망 있는 평가는 받지만 기득권 세력은 그 자리를 유지한다. 글자 그대로 효사(爻辭)만 보면 물론 서린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실수기복의 시차가 있다. 알찬복은 그 이후에 받는 거예요.

제사지낸 이후에. 선거라는 행사 안에서는 상당한 약진을 보이되 지는 겁니다. 소를 잡을 능력이 없어서, 약제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알찬 복은 그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받게 된다. 미래형으로 실수기복實受其福을 시간차를 넣어 미래적으로 된다는 뜻으로 해야 되고 질문에 대해 바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는 그렇다고 신흥세력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上六. 濡其首 厲.

상육. 제 머리까지 (술에) 젖으니 위태로우리라.

[酣: 흥겨울 감, 술을 마시며 즐길 함, 술에 취할 함. 沈: 잠길 심. 湎: 술에 빠질 면. 酗: 주정할 후]

수화기제 괘잖아요. 술은 물도 되고 작은 양으로도 위험한 것이 술이죠. 감신할 정도로 몸에 적실 정도로 술을 마시고 머리카락까지도 퍼부을 정도로 마셨다. 이것은 대단한 위험인데 정치사회적으로 보면 기존지배세력의 여당 세력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문란을 뜻하는 거예요. 해체의 징후가 높은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여우의 머리가 젖었다는 해석이 많은데 그건 단연코 아니고 여기서는 젖은 것은 술이고 사람의 머리고, 국가라면 국가 지도부 수뇌부의 기강문란이에요.

이것은 폭군 주(紂)의 행태, 주지육림(酒池肉林)의 행태와 관련된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서경 「주고」의 '함신酣身'이라는 표현은 술로 멱 감는 것이니까 '유기수濡其首'와 통한다. 실제로는 모든 기득권은 역사적으로 기득재산은 주색잡기(酒色雜技)로 망가지죠. 주왕은 주색잡기로 나라를 잃었고 일제시대 천석군 만석군도 주색잡기로 잃었고. 사회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지도급 인사가 이걸 받으면 각별히 술을 조심해야 한다. 엄청난 정치적 타격 사회적 체면상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받으면 술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술 하나도 안 마신다면 자기 집안의 어른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나 집안 어른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이 경험되는데, 이것 하나만 상육(上六) 하나만 동했다면 중괘가 아닌 경우에도 수화기제 화수미제 괘는 변 괘의 효사를 봐줘야 합니다. 하나만 동화면 수화기제는 風火家人(풍화가인)괘로 바뀌는데 거기서는 싸움을 많이 해요. 부부사이에. 술 먹고 싸우는 걸로 귀결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풍화가인의 上九 有孚 威如 終吉 (유부 위여 종길), 믿음을 가지고 위력을 쓰되 종내는 길하게 끝나리라. 이것은 위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를 받은 경우는 부부싸움을 엄청하고 끝내는 화해로 끝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 끝내 길하다는, 끝내는 본전치기이므로 좋지 않아요. 상효가 동(動)해 변 괘가 되어서 변 괘의 상효를 보면 술 먹고 싸우는 경우 많아요. 집안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과 다툼을 많이 한다. 상육(上六)은 안 좋은 효예요.

◆3교시 : ䷿ 화수미제火水未濟 ①

▲ ䷿ 화수미제火水未濟 풀이

未濟. 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

아직 건너지 못하도다. 형통하도다. 작은 여우가 거의 다 건너서 꼬리를 물에 적시도다. 이로울 바가 없으리라.

初六. 濡其尾 吝.

꼬리를 물에 적시니 부끄럽도다.

九二. 曳其輪. 貞吉.

수레바퀴를 (뒤로) 끌도다. 바르게 지키니 길하리라.

六三. 未濟 征凶 利涉大川.

아직 다 건너지 못한 미제니 정벌하면 흉하나, 이와 달리 큰 내를 건너면 이로우리라.

九四. 貞吉 悔亡. 震用伐鬼方 三年有賞于大國.

바르면 길하고 한이 풀리리라. 진震이 귀방 오랑캐를 정벌하니 삼 년이 되어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도다.

六五. 貞吉 无悔. 君子之光有孚 吉.

바르면 길해 여한이 없으리라. 군자의 광휘는 믿음이 있으니 길하리라.

上九. 有孚于飮酒 无咎. 濡其首 有孚失是.

성신誠信을 담아 술을 마시니 허물이 없으리라. 제 머리까지 젖으니 확실히 실성하리라.

未濟. 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
아직 건너지 못하도다. 형통하도다. 작은 여우가 거의 다 건너서 꼬리를 물에 적시도다. 이로울 바가 없으리라.

미완의 괘라는 것이고 귀추를 알 수 없는 괘라는 뜻이죠. 기제 괘와는 달리 未濟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 (미제형 소호흘제 유기미 무유리), 여우의 상이 나와요. 작은 여우라고 번역했는데, 형통함이 적다, 작은 것이여 형통하다 라고 해도 되지만 작은 여우가 거의 물을 다 건너서 꼬리를 물에 적시도다. 이로울 바가 없으리라.

미제(未濟)괘는 동효 없이 받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되는 것 같지만 실패로

끝나요. 여우 상은 미제괘의 괘사에 나와 있는 유일한 여우의 말인데 큰 의미를 갖기 못해요. 어떤 학자들은 여우가 강을 건널 때는 조심스럽게 건너다가 빠져서 꼬리가 적셨다는 것은 여우는 꼬리를 바짝 들고 건너기 때문에 몸 전체가 빠진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여우의 도강 습성 상 맞다.

빌헬름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느냐하고 물으면 다 성공하다가 크게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无攸利(무유리) 이로운 바가 없다고 했으니까. 좋게 해석할 까닭이 없다. 항상 모든 효사를 미제를 깔고서, 아까 기제를 깔고 해석하는 것처럼, 미제를 깔고 해석해야 한다.

기제괘는 은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잘 살다가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까지 썼다면 미제괘는 기주의 입장에서 은나라의 도전세력 입장에서 뜻이 배열되어 있다. 효사도 그 차례를 가지고 있다. 문왕의 직전 또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주나라가 커 와서 새로운 시대를 개창하는데까지 이르느냐. 그 순서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초육, 구이, 육삼, 구사, 단계들이 그러는데.

初六. 濡其尾 吝.

초육. 꼬리를 물에 적시니 부끄럽도다.

[濡: 젖을 수(유), 적실 수(유), 물이 잠길 수. 極: 용마루(정점) 극, 이를 극, 다할 극, 끝(한계) 극, 심히(극히) 극.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여기서 해석을 다 해놓고는 자체가 여우의 꼬리인지 수레의 꼬리인지 해설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우의 꼬리로 했어요. 유기미濡其尾가 기제(旣濟)괘에서는 수레의 후미로 해석을 했는데 표현은 같죠. 공자님은 여기에다가 지혜롭지 못함이 극에 이르도다. 亦不知節也 조심하던 여우가 지혜롭지 못하게 물속에 빠지는 그런 상으로 치욕을 당하는 상으로 해석을 했어요. 얼음을 건너가는 것에 있어서는 여우만큼 조심스럽고 능란한 동물이 없는데 여우가 강물 속에 빠졌다는 것은 창피스런 일이죠.

『전국책』은 "『주역』에서 말하기를 '여우가 그 꼬리를 적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작은 쉬우나 끝마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易曰, 狐濡其尾, 此言始之易 終之難也)"라고 해설하고 있다.77) 즉, 처음에는 쉬우나 나중에는 어려워지는 일을 말하는 바, 『전국책』의 이 해석도 중요하다. 끝에는 결국은 실패하는 걸로, 이 해석이 중요할 때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九二. 曳其輪. 貞吉.

구이. 수레바퀴를 (뒤로) 끌도다. 바르게 지키니 길하리라.

[輪: 수레바퀴 륜, 수레 륜]

비교적 구이(九二)는 안정된 의미로 들어왔는데 중용의 효이기 때문에 수레바퀴를 뒤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36계 줄행랑이라는 말, 36번째 계책 중에 이것을 인용해서 설명했어요.

77) 『戰國策』「秦策」.

후퇴하는 자세를 바르게 지키면 길하다, 적이 나보다 강할 때는 싸우면 손해고 안 싸우고 공격받으면 세모고 도망가면 다음에라도 싸울 수 있으니까 제일 나은 걸로. 주가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뜻을 해설하면서 화수미제 괘 구이 효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 효가 나오면 하는 일을 중단하고 후퇴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후퇴해 있으면 나중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문왕의 할아버지가 고공단보古公亶父인데 오랑캐戎狄가 주(周)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 재물들을 요구했어요. 물적인 재물들을 다 주고 놨더니 또 재물도 요구하고 땅도 요구하는 거예요. 주(周)나라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물리치자 당할 수 없잖느냐고 분기탱천할 때 고공단보는 그러지 않고 그것도 물려주고 여러분들이 어느 군왕을 믿고 살던 간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버지나 아들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물리치고 기산 기슭으로 와서 새로운 나라를 열죠. 백성들이 그쪽으로 다 따라와서 전쟁을 피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선정을 유지하고 힘을 길러요. 나라의 문왕이 다스릴 미래의 나라의 기틀을 닦게 되는데 후퇴해서 덕을 보는 경우예요.

이 효는 주나라 문왕의 조부인 고공단보古公亶父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훗날 태왕太王으로 추존된 고공단보는 훈육薰育과 융적戎狄이 침략하여 재물을 요구하자 이들과 싸우지 않고 재물을 내주었고 재침하여 땅과 백성을 요구하자 이들에게 빈읍豳邑을 내주고 떠났다. 백성들이 모두 분개하여 투쟁을 외쳤지만 고공단보는 백성이 죽는 전쟁보다 평화를 강조하며 사병私兵만을 거느리고 빈을 떠나 기산岐山 기슭(陝西省 岐山縣 일대)에 정착했다. 이에 빈 사람들은 거국적으로 노인을 부축하고 약한 자를 끌고 몽땅 기산의 고공단보에게 귀의했다. 이에 옆 나라들도 소문을 듣고 역시 고공에게 귀의했다. 고공은 주변 제후국들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선정을 베풀고 조용히 국력을 길렀다. 이때부터 '빈豳'나라는 국호를 '주周'로 정했다.[78] 구이 효사는 침략자에게 양보하고 평화를 지킴으로써 번영하게 되는 괘예요. 그런 입장을 바르게 취하면요.

서례에서도 이 효는 잘 징험된다. 필자가 2004년 9월 한국정치사상학회 학회지에 「유럽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 2005년 2월 먼저 두 명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평가가 도착했으나 나머지 한 명의 심사자가 늑장을 부리며 심사평을 보내지 않아 답답해하던 차 서지해 이 효를 얻었다. 마지막 심사평은 3월 말에나 당도했는데 결과는 미상불 '조건부 길함(貞吉)', 즉 약간 물리는 것을 조건으로 게재를 보장하는 '수정 후 게재'였다. 이 괘가 나오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후퇴시키면 실어주겠습니다'란 뜻이 들어있죠. 曳其輪. 貞吉.이니까요. 조금 수정한다고 했어요.

六三. 未濟 征凶 利涉大川.

육삼. 아직 다 건너지 못한 미제니 정벌하면 흉하나, 이와 달리 큰 내를 건너면 이로우리라.

[翳: 일산(양산) 예]

78) 司馬遷, 『史記本紀』, 71쪽 참조.

미제(未濟) 괘에 미제가 나오는 것은 육삼(六三) 하나인데 아주 안 좋다. 정벌하는 것이 아니고 물러났다가 다른 일을 하면 좋은 괘인데 이 괘를 받고 물러나 안하고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꾸 공격하고 싶은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사가 크게 동할 때 이 효가 동합니다. 공자님은 이것이 왜 나쁘냐면 육삼의 양의 자리에 음이 있어서 나쁘다. 자리가 합당치 않아서 그렇다고 하죠. 육사하고는 잘 응하죠. 기다려서 다른 일을 하면 괜찮다.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풀이를 해봤는데요.

이 효사는 문왕의 부친 계력季歷의 비극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력은 세상에 천도를 밝히고 사방의 백성들을 주나라로 몰려들게 만드는 공세적 정치를 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 조용히 힘을 기르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할 줄 몰랐던 계력은 그의 공세적인 활약에 위협을 느낀 은나라 문정文丁 천자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다.[79] 건너지 못한 때 공세를 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육삼 효사의 앞부분 '미제정흉未濟征凶'은 바로 이 충격적 비극과 내용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반면, '이섭대천利涉大川'은 문왕이 부친과 달리 겸양으로 조용히 대업을 준비한 일을 묘사한다. 아래 각주를 보면.

사마천 사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竹書紀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정사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앞뒤의 의미가 맞아떨어져요. 서례에서 정벌이나 기존의 공세적 계획을 도모하면 흉하다. 그러나 기존의 계획을 폐기하고 시간을 갖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利涉大川) 이롭다. 또는 의도한 일이 현시점에서는 흉하니 후일이나 내년, 다음 기회, (신문, 잡지 등의) 다음 호 등을 기약하면 이롭다는 뜻이다.

◆4교시 : ䷾ 화수미제火水未濟 ②

▲䷾ 화수미제火水未濟 풀이

九四. 貞吉 悔亡. 震用伐鬼方 三年有賞于大國.
구사. 바르면 길하고 한이 풀리리라. 진震이 귀방 오랑캐를 정벌하니 삼 년이 되어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도다.

진(震)이 누구나, 벼락으로 귀방鬼方을 공격한다. 주나라 제후로부터 은나라 고종을 도와서 고종벌귀방 삼년극지(高宗伐鬼方 三年克之), 고종이 귀방을 공격하여 3년 후에 이겼다는 걸로 연결시키면 고종의 귀방정벌전에 참여한 장군이름이 진(震)일 가능성이 크다. 그 장군은

79) 『竹書紀年』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문정 2년 주공 계력은 燕京의 戎을 정벌했고", 4년에는 "余無의 융을 정벌했고", 5년에는 "程邑을 만들었고", 7년에는 또 "始呼의 융을 정벌했고", 11년에는 "翳徒의 융을 정벌해 세 대부를 잡고 돌아와 노획물을 바쳤다." 이에 "문정 왕이 계력을 죽였다." 또 이어서 부연하기를, "왕은 계력의 공을 치하하고 그에게 圭璨과 기장으로 빚은 울창주를 하사하고 九命(아홉 번째 순위로 명)하여 후백으로 삼았다. 그러고 나서 그를 밀폐된 창고 안에 붙잡아 가뒀고 계력은 그 안에서 곤하여 죽고 말았다(旣而執諸塞庫, 季歷困而死). 이로 인해 문정이 계력을 살해했다고 하는 것이다(因謂文丁殺季歷)"라고 하고 있다. 『竹書紀年』「卷上」, 33-4쪽.

기주에서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고 貞吉 悔亡은 뜻은 바르면 길하고 한이 풀리리라는 제약적인 뜻인데 뜻은 행해진다. 결과는 나쁘지 않다. 오랫동안 싸워야 하니까 결국은 큰나라로 부터 상을 받는다. 진이 기주이전의 주나라 빈이라는 나라의 장군으로 봐야만 대국으로 가정이 되죠. 은나라를 가리키는 걸로 봐야하니까. 은나라로부터 3년 내 고종황제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진震'은 벼락천둥 또는 진동震動이 아니라[80] 주나라 제후(추정컨대 고공단보)로부터 은나라 고종을 도와 귀방을 정벌하라는 명을 받은 주나라 장군의 이름으로 보인다.[81] 따라서 이 효는 은나라 고종이 직접 출정한 오랑캐 정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나라 신하 '진' 장군의 정벌사업을 기술하고 있다. 또 '대국大國'은 은나라로 보인다. 당대에 지구상에서 은나라보다 더 큰 '대국'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 장군이 오랑캐 정벌의 승전으로 대국 은나라 천자 고종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이다. '대국'은 '대방大邦'과 같다. '대방'은 『서경』의 여러 어법과 『시경』의 표현을 참조할 때,[82] 은나라를 뜻한다. 제후국 시절 주나라는 은나라를 왕왕 '대방'이라 칭하고 스스로를 '소방小邦'이라 칭했다.[83]

한자에서 방(邦)은 큰나라, 천자지국을 방이라했고 제후는 국이라고 하는데 대방이라면 간단할 것을 대국(大國)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혹은 방(邦) 대신에 대국(大國)이 몽땅 방(邦)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치국은 제후국이고 평천하는 대방을 다스리는 거죠.

六五. 貞吉 无悔. 君子之光有孚 吉.
육오. 바르면 길해 여한이 없으리라. 군자의 광휘는 믿음이 있으니 길하리라.

문왕의 이야기다. 구사보다 육오(六五)가 조금 좋아요. 구사는 회망悔亡, 한이 풀리리라는 것은 한이 있다는 것이죠. 뉘우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무회无悔는 처음부터 없는 거죠. 바르면 길하고 후회할 일이 없다. 군자가 누구냐. 군자는 문왕이죠. 시경에서는 임금을 군자라고 많이 불러요. 기주의 임금 문왕을 가리킨다.

어느 시절이냐. 문왕이 참고 견디고 은인자중하여 선정을 베풀어 천하의 관심이 문왕에게 집중되고 문왕의 행동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퍼질 때 광(光)으로 표현했어요. 유명해지고 우러러보는 시점을 공자님은 그 광휘는 길하리라. 이 육오(六五)를 받으면 좋은 거예요. 특히 신흥세력이 받으면 승리가 담보되는데 본인이 이루지는 못한다. 혁명의 과업을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대장은 못돼요. 문왕이 대장되지 못했죠. 문왕이 천하의 존경을 받았지만 천명을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 이야기에 맞춰서 해석해야 해요.

---

80) 정이, 빌헬름, 후앙 등은 '벼락천둥'이나 '진동'으로 이해했고 주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程頤, 『伊川易傳』; Wilhelm, *I Ging*, 235쪽; Huang, *The Complete I Ching*, 395쪽; 朱熹, 『周易本義』.
81) 高亨, 『周易古經今注』, 222쪽; 高亨, 『周易古經通說』, 38쪽.
82) 『詩經』「大雅」 '皇矣'의 "王此大邦"; 「大雅」 '大明'의 "大邦有子, 大邦有子, 俔天之妹 … 篤生武王, 保右命爾, 燮伐大商." 또 高亨, 『周易古經今注』, 40쪽 참조.
83) 高亨, 『周易古經今注』, 222쪽.

정치적인 의미로 풀면 야당이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받았다면 여한이 없을 만큼 의석수는 얻겠지만 이기지는 못해요. 자기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세력 확장을 가져오지만 뒤집어 엎지는 못한다. 광(光)이면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긴 거나 진배없는 상황이야. 문왕은 혁명을 안했는데 혁명을 한 거나 다름없는 영광을 누렸죠. 비슷하다.

上九. 有孚于飮酒 无咎. 濡其首 有孚失是.
상구. 성신誠信을 담아 술을 마시니 허물이 없으리라. 제 머리까지 젖으니 확실히 실성하리라.

[孚: 벌줄 부, 믿을 부. 腆: 음식을 많이 차릴 전. 羞: (맛있는 음식을) 드릴(바칠) 수. 耆: 늙은이 구. 惟: ~와 유]

이 효사도 이상하게 했는데 최악의 오역은 붙여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니, -하니, 로 해석하면 모든 전체가 인과관계로 묶여져서 뜻이 망가지고 만다. 有孚于飮酒 无咎와 濡其首 有孚失是 유부우음주 무구. 유기수 유부실시 는 다른 사건이다. 성신을 담아 술을 마시니 허물이 없으리라.

지난달 운수가 이거라고 했어요. 술을 조심하면 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제(旣濟)괘의 상처럼 술독에 머리를 처박아 머리가 젖을 만큼 술을 마시면 틀림없이 확실히 이성을 잃어 어려워지는 거죠. 상구(上九)는 미제괘의 마지막이므로 새로운 시대로의 체인지 대 전환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때에는 경건하게 일을 준비하고 꾸미고 새 시대를 맞으려면 성실한 자세가 필요해서 술을 마시더라도 음주를 하는데도 성신이 있어야 돼요. 폭음하면 큰일 난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는 것이므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바로 뒤로 濡其首 有孚失是(유기수 유부실시)로 의미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좋지 않다. 이것은 은나라의 역사적 음주문화와 관련된 건데, 은나라는 濡其首 有孚失是로 되기 싫고, 앞부분은 有孚于飮酒 无咎신흥세력이 경건하게 절도를 갖고 새로운 시대를 개창하는 그런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 효사의 앞부분('성신을 담아 술을 마시니 허물이 없으리라')은 광영을 누리며 번영하는 주周나라 신흥세력의 주도酒道를 갖춘 음주 풍습을 기술하고 있는 반면, 효사의 뒷부분('제 머리까지 젖으니 확실히 실성한다')은 기성세력인 은나라 주왕紂王이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빠지고 은나라 백성은 백주과음白晝過飮 문화에 젖어든 사회풍조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상구(上九)는 신흥세력이 받으면 길한 반면, 기성세력이 받으면 흉하다.

은나라의 음주문화는 역사적으로 무절제했다. 이러한 백주과음의 음주 습관은 혁명 후에도 청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공은 「주고酒誥」를 써야 했다. 여기의 '유기수濡其首'도 온 몸이 흠뻑 술어 빠져 있는 것을 뜻하는 「주고」의 '함신酣身'이라는 표현과 통한다.[84] 문왕과 주공이 음주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 「주고」에 의하면 음주가 허용되는 때는 첫째로 제사 술을 쓸 때, 거기에 성신이 있으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둘째로는 부모를 효로써 봉양해 부모가 기뻐한 뒤에 제 몸을 씻고 음식을 많이 차리고 술을 마실 때, 그때는 마셔도 돼요.

84) 『書經』「酒誥」 참조. '濡其首'를 여우의 머리가 적시는 것으로 보는 주희, 김장생, 후앙 등의 주석은 다 그릇된 것이다. 이 해석은 실증서례와도 상치된다.

셋째로는 노인과 임금에게 음식을 많이 바친 뒤, 마시고 먹고 실컷 취할 때이다.[85]

이 세 가지 경우의 음주는 성의와 성신誠信의 뜻이 담긴 경우로서 허용된다. 특히 임금과 노인에게 많은 음식을 바칠 만큼 나라가 풍요로워지면 기쁨에 술을 실컷 마셔도 잘못이 없다. 상구의 효사 '유부우음주有孚于飮酒 무구无咎'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빌헬름도 "참된 신뢰 속에서 술을 마시니 무탈하다(In wahrem Vertrauen trinkt man Wein. Kein Makel)"로 번역한다.[86] 퇴계는 '유부우음주有孚于飮酒 무구无咎'를 '술을 마심에 믿음을 두면'으로 번역하고 "'부孚가 있으면'이라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주석하고 있으나[87] 퇴계의 이 번역이나 주석이 다 그릇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부우음주有孚于飮酒 무구无咎'를 고형高亨을 따라[88] '음주에 벌을 주니 무탈하다'로 옮기는 이도 있으나 이 번역도 옳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是'는 사리분별이다. 정이는 '마땅함(宜)'으로, 주희는 '바름(義)'으로 보았다.[89] '유기수濡其首 유부실시有孚失是'는 머리까지 차도록 술을 마시니 확실히 실성하는(분별을 잃는) 것을 뜻한다. 공자도 "역시 절도를 모른다(象曰, 飮酒濡首, 亦不知節也)"로 풀이했다. 주희는 미제괘 상구의 이 '유기수濡其首'도 여우가 물을 건너다가 머리를 적시는 것으로 오역하고 있다.[90]

미제 괘 괘사('작은 여우가 강을 거의 다 건너 꼬리를 적시다')의 상에 사로잡힌 이 오역은 유사한 효사도 괘와 효에 따라 뜻이 다른 것(가령 소축괘의 괘사 '密雲不雨'와 소과괘 구오의 '密雲不雨', 소축괘 구삼의 '輿說輻'과 대축괘 구이의 '輿說輹'의 차이)을 깨닫지 못한 처사이고, 동시에 '음주飮酒'와 '유수濡首'를 직접 결합시키고 '역부지절야亦不知節也'라고 주석하고 있는 공자의 「소상전」을 무시한 것이다. 김장생도 효사가 '술을 마셔 머리가 젖다'라고 했으니 '문장의 뜻을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고 말하고 상구의 '머리가 젖다'가 괘사에 나온 '여우의 꼬리가 물에 젖는' 상과 달리 사람의 머리가 술에 젖는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공의 효사와 공자의 「상전」이 다르다고 말하는 윤두수尹斗壽와 최명룡崔命龍의 주장과, 주자의 설을 따르면 「소상전」의 '음주지어유수飮酒至於濡首' 구절은 매우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하는 최립崔立의 주장을 소개하고 정경세鄭經世라는 학자의 다음과 같은 논지를 인용하여 논란을 올바로 종결짓고 있다. "경임景任 정경세가 말하기를 '『주역』이라는 책은 다른 책과 다르다. 매 괘의 효에서 각기 나름의 상을 취하고 있어 『대학』, 『중용』의 문장처럼 수미일관하고 상하의 문장이 상응하는 것과 다르다.

삼가 생각건대, 두 괘의 여러 효에서 말한 '머리를 적시다'와 '꼬리를 적시다'는 모두 여우를

85) 『書經』「酒誥」.
86) Wilhelm, *I Ging*, 236쪽. 후앙도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信實해야 한다(Being sincere and truthful, while drinking wine)'고 번역한다. Huang, *The Complete I Ching*, 496쪽.
87) 李滉, 『經書釋義』, 248쪽.
88) 高亨, 『周易古經今注』, 223쪽.
89) 程頤, 『伊川易傳』; 朱熹, 『周易本義』.
90) 朱熹, 『周易本義』.

상으로 취하였으나 미제의 상구가 홀로 '술을 마셔 머리를 적신다' 라는 상을 취한 것도 나쁠 것 없다. 이는 건괘의 다섯 효가 모두 용의 상을 취하였으나 중간 효만은 홀로 '군자건건君子乾乾'을 상으로 취한 것과 같은 것이다. 최립이 논한 것이 나의 뜻과 같다'고 하였다."[91] 최립의 이 논지는 실로 탁월하다.[92]

그러나 각주를 보면 다만 기제 괘와 미제 괘의 "여러 효에서 말한 '머리를 적시다'와 '꼬리를 적시다'는 모두 여우를 상으로 취했다"는 최립의 단정은 그릇된 것이다. '물에 젖는 여우의 상'을 취한 것은 미제 괘의 괘사(小狐汔濟, 濡其尾)의 초효(濡其尾, 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기제 괘의 다른 것이 여우고 미제괘의 상구만 여우가 아닌 것은 아니다. 사람의 머리로 봤어요. 기제 괘의 상효도 사람의 머리가 술에 젖은 걸로 봤죠.

결국 주역은 미제 괘로 마치면서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어요. 하나는 술을 많이 마셔 타락하여 몰락하는 세력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세력은 음주에 있어서 규율과 절도를 가진 기뻐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가릴 줄 아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도래를 알림으로써 개방된 형태로 주역을 마치고 있다.

제9강 : 천택리天澤履 와 풍뢰익風雷益

◆1교시 : ☱☰ 천택리天澤履 ①

▲천택리天澤履 풀이

건곤(乾坤), 기제(旣濟), 미제(未濟)를 끝냈는데 그것 말고도 중요한 괘가 많아서 골라서 하려고 해요. 전체를 한 효(爻)씩 정성들여서 하려면 2년 걸려요. 8주 가지고 소화할 수 없으므로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안내 지침을 하는 정도로 주역 괘를 다루려고 해요. 관련된 효로는 회원이 본인의 올해 운세로 이걸 뽑았는데 보통 하나만 동(動)하면 그것 하나만 해석하면 좋은데 이 분이 뽑은 것은 세 개가 동해서 복잡한 상황이에요.

천택리天澤履괘인데 변괘는 세 개가 나누어 변했으니까 의미가 있죠. ䷢ 火地晋(화지진)괘로 변했어요. 뭘 물었냐면 10월 13일 이후 2008년 말까지 본인의 신운을 뽑았어요. 이 뜻을 해석하려면 리 괘(履卦)를 공부해야죠.

천택리는 대단히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큰 해가 미치거나 처음에 느끼는 것 보다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진해 나가는 괘예요. 대단히 예법이

91) 金長生, 『經書辨疑』, 198-9쪽.
92) 다만 기제괘와 미제괘의 "여러 효에서 말한 '머리를 적시다'와 '꼬리를 적시다'는 모두 여우를 상으로 취했다"는 최립의 단정은 그릇된 것이다. '물에 젖는 여우의 상'을 취한 것은 미제괘의 괘사(小狐汔濟, 濡其尾)와 초효(濡其尾, 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괘다. 밟아나가고 이양할 때는 예법이 중요하죠.

첫 괘사가 履虎尾 不咥人.(리호미 불질인) 亨.(형)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도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를 갖춰서 밟으면 호랑이가 물지 않을까요. 이 괘는 문왕이 은나라 마지막 황제 주(紂)를 상대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의 총신 중에 숭나라의 제후 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이 주왕이 호랑이라면 그는 꼬리 정도 되죠. 숭후호는 주왕의 꼬리 정도 되니까 호미정도 해석하면 결국은 승후를 문왕이 토벌하죠. 문왕이 주왕의 총신을 제거해요. 얼마나 정밀하고 정치하게 예의에 맞게 움직였으면 총애하는 폭군 주의 신하를 제거할 수 있었겠어요.

다 절차를 지키고 온갖 것을 한 이후에 참고 견디어서 유리羑里옥에 가두어서 7년을 감옥생활을 하죠. 거기에 미인들 좋은 말, 땅을 선물을 주니까 주왕이 문왕에게 서쪽의 변방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서백의 자리를 줘요. 궁시부월弓矢斧鉞이라는 상징적인 물건을 주는데 다스리는 권한이죠. 그때 만나서 주왕이 뭐라면, 실은 너를 7년이나 유리 옥에 가두게 모함한 자는 숭호이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 권한을 얻은 뒤에 그 권한을 가지고 숭호를 제거하는데 확인하는데 독대했을 때 문왕은 주왕으로부터 주왕의 신임이 더 이상 두지 않는다고 알게 되고 정조준해서 제거하니까 주왕이 그걸 빌미로 문왕을 탓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계력이라는 아버지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행동하다가 살해되었다고 하죠. 그 이야기들이 효사에 많이 전개되어 있어요.

履虎尾 不咥人. 亨.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도다. 형통하리라.

初九. 素履. 往无咎.

소박하게 밟아가도다. 가면 무탈하리라.

九二. 履道坦坦. 幽人貞吉.

밟는 길이 탄탄하리라. 숨은 사람의 자세를 견지하면 길하리라.

六三. 眇能視 跛能履 履虎尾 咥人 凶. 武人爲于大君.

외눈박이도 잘 보고 절름발이도 잘 걸을 수 있지만 그러다 호랑이 꼬리를 밟게 되면 사람을 물어 흉하리라. 무인은 대군을 도와 일하노라.

九四. 履虎尾 愬愬 終吉.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두렵고 두려우나 종내는 길하게 끝나리라.

九五. 夬履. 貞厲.

과단성 있게 밟도다. 꿋꿋하면서 동시에 위험의식을 갖도다.

上九. 視履. 考祥其旋 元吉.

밟아온 이력을 자세히 살피도다. 조짐을 숙고하니 그것이 선회하여 크게 길하리라.

初九. 素履. 往无咎.

초구. 소박하게 밟아가도다. 가면 무탈하리라.

[素: 흴 소, 검소할 소, 바탕 소, 빌 소(=空). 履: 신발 리, 밟아나갈 리, 행할 리]

뜻만 가지고는 정황을 몰라요. 뭘 물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기 주변 상황이 변해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리하게 고립되게 혼자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을 하도록 평소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변화가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소대로 가는 거예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그런데 평소대로 가면 무사하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가면 지지를 해줘요.

첫 번째 효가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10월 13일 날 뽑았으니까 10월 달까지 초효가 적용되죠. 10월까지는 소신대로 평소대로 죽 꾸준히 가는 것이 무사한 일이다.

2003년 말부터 새천년민주당 연구소장으로 있던 한 학자가 자신과 적대적인 인물이 새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 그달의 월운月運으로 이 효를 받았다. 새 대표는 미상불 줄곧 연구소장의 주장과 보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소장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해 나갔고 그 결과 한 달 후 당대표는 이 연구소장을 가장 신뢰하는 막료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다 끝나갈 때쯤 자기에게 냉랭하던 주변이 따뜻하게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관심도 안 갖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11월 초까지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도, 첫 번째 냉정함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 받았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연구소장 그만두고 나가라는 것은 아닌데 앉아 있어도 보람을 안 느껴요.

九二. 履道坦坦. 幽人貞吉.

구이. 밟는 길이 탄탄하리라. 숨은 사람의 자세를 견지하면 길하리라.

[幽: 그윽할 유, 숨을 유]

이효(二爻)가 동했는데, 심산유곡(深山幽谷)할 때도 유(幽)자예요. 도망간다는 둔괘의 뜻이 아니라 빨리 숨는 뜻이 아니라 안보이게 숨는 거죠. 어두울 유(幽)자니까요. '리도履道'의 '도道'는 길(路)이다.[93] 추상적인 의미의 도가 아니라, 숨어 지내는 은둔자의 길은 탄탄해요.

만약 현역 정치인이 구이(九二)를 받았어요.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선거를 통해 낙선하는 비운을 맞아요. 더 이상 활동 못해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 숨어야 되니까 운이 바뀌게 돼요. 숨어서 가는 길은 탄탄해요. 그 사람이 정치하는 걸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망가져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뜻을 새겨야 돼요 시간적 순서대로. 10월 달은 초효가 적

93) 朱熹, 『朱子語類』, 1758쪽.

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효는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2월 초까지 이것은 12월 초가 되기 싶고 진(晉)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변 괘는 괘의(掛意)만 봐주는 거죠. 하나 둘 셋 상대되는 효사(爻辭)나 괘사(卦辭)를 보면 안 돼요. 괘의 의미만 봐야 돼요. 잘 나간다는 것이죠. 효사를 신경 쓰면 안 된다.

뜻을 깊이 들어가려고 묻는 겁니다. 유인(幽人)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동양에서? 숨어있는 은둔자가 할 수 있는 일? 바깥에서 하는 일의 대비해서 하는 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책 읽고 학문하는 것, 수도하는 일, 수양하는 일, 공부, 교육, 젊은이들 가르치는 일이 은둔자의 길이고 집에서 가정 살림하는 것, 또는 낙향해서 고향일 해주는 것이 은둔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직업 자체가 이런 일이 많죠.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은 동양적 개념에서는 교육계 일은 유인(幽人)의 길이다. 교육계 일에 있는 사람이 이 괘를 받았어요, 좋습니까. 그럼 아주 좋은 괘예요. 활동하던 사람이 한 달이나 두 달 휴가내서 집사람 병간호를 하거나 자식 입시 뒷바라지 하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탄탄할 것이다.

뜻을 정확히 잡아야지 안 그러면 점단이 틀릴 수 있어요. 자기 실력을 배양하거나 교육 사업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그림을 그리는데 정진하거나 하는 일은 좋다. 그러나 밖에서 활동하고 그로 인해 세상을 영향을 미치거나 바꾸거나 개혁하는 일은 좋지 못하다. 은자(隱者) 현자(賢者) 주부 부인들이 받으면 좋다. 그런데 현직에서 받으면 그 현직을 그만두게 돼요.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죠. 눈앞에 놓고도 해석을 잘못하잖아요. 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점단은 정확할 수 있어요. 괘는 정확히 잘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 뽑아도 해석을 잘못하면 받는 사람은 틀렸다고 할 수 있죠. 분명히 할 수 있는 인간의 실수고. 서례를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인데 원래 효사, 괘사에 대한 고증 논증 서증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어떤 특정한 물음과 관련해서 받았을 때 연결시켜 해석은 공부가 필요하죠. 서례적 공부 외에는 없어요. 평생 가는 거죠. 수년 해보면 정확하게 하는데.

주역은 길흉도 나오지만 길흉 없는 효사도 많아요. 늦느냐 빠르냐가 많아서 스토리가 있어서 단순히 평면적인 스토리가 아니어서 반드시 덕행을 요구하잖아요. 음주의 절도를 가지면 무사하고 머리가 술독에 담길 만큼 마시면 반드시 정신을 잃고 난장판이 될 것이다.

하나는 술에 관한 주도의 유무에 따라 효사가 달리 배치되어 있잖아요. 스토리가 실지로 정확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러 개 동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 달 반 가량을 봤는데 초효와 이효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선 두 개가 모순되지는 않는데 소리素履 고 평소대로 자신을 굳히면 잘 나가면 왕무구往无咎하리라, 두 번째 숨어서 지내는 것 애들을 교육, 뒷바라지하거나 지금 아들을 특목고 보내는 데

뒷바라지 하는데 불가피하게 11월은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효는 항상 집안을 가리키는 것이 많으니까 남자도 집안을 봐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받으면 나쁘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받았으니까 좋은 것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11월이 극적인 시간인데. 한 달 잘못하면 끝나는 거죠.

◆2교시 : ☱☰ 천택리天澤履 ②

▲천택리天澤履 풀이

六三. 眇能視 跛能履 履虎尾 咥人 凶. 武人爲于大君.
육삼. 외눈박이도 잘 보고 절름발이도 잘 걸을 수 있지만 그러다 호랑이 꼬리를 밟게 되면 사람을 물어 흉하리라. 무인은 대군을 도와 일하노라.

[眇: 외눈박이 묘. 跛: 절름발이 파. 爲: 할 위, 도울(보좌할) 위]

여기도 두 개로 나누어져요. 흉(凶)에서 하나 끊어져요. 무인(武人)이라는 말은 은나라나 주나라 초기 까지 열등한 의미를 갖지 않아요. 무왕(武王)도 무(武)에 뛰어나니까 탕왕(湯王)도 자기를 무(武)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무가 문보다 낮은 의미가 없는데 칼잡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나쁘다고 해석했는데 절대 잘못되었어요.

외눈박이도 시력은 좋을 수 있어요. 절름발이도 튼튼하면 잘 걸을 수 있어요. 아주 계력처럼 뛰어난 무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어 앞만 보고 가는데, 그런 뛰어난 왕은 천자의 위를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만 보는 자는 외눈박이에 지나지 않는다. 앞은 잘 볼지는 모르겠지만 절름발이는 잘 가기는 하지만 천자와 발을 못 맞추는 거죠. 발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호랑이 꼬리를 뜻하고 그것은 천자의 총신들의 모함에 걸려드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문다. 계력이 결국 죽게 되죠.

이 효는 주나라의 왕계(계력)와 그의 아들 문왕의 고사를 기술하고 있다. 왕계는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과감하게 결정하며 많은 오랑캐 종족들을 정벌하여 세력을 넓혀나갔다. 그러자 은나라 황제 문정文丁은 왕계에게 위협을 느끼고 꼬리를 밟힌 호랑이가 사람을 물듯이 후작의 작위를 내리고 왕계를 유인하여 밀폐된 창고에 가둬 죽였다.[94]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사람을 물어 흉하리라'는 구절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왕계는 유능하고 용감한 제후였지만 주도면밀하지도 않았고 주의 깊지도 못했다. 그는 아래는 잘 보지만 멀리 볼 수 없는 외눈박이와 같았고 잘 걷지만 걸음이 크고 빠른 윗사람(은실 황제)과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절름발이와 같았다.

외눈박이는 어디까지나 외눈박이이고 절름발이는 어디까지나 절름발이인 것이다. 그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지실知悉하지 않고 은인자중할 줄 몰랐기 때문에 문정 황제에게 살해되고 말았던 것이다. 반면, 왕계를 이은 문왕은 아비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단 주왕紂王과 그

94) 沈約 注, 洪頤煊 校, 『竹書紀年』, 33-4쪽.

주변의 의심을 벗고 살아남기 위해 여러 차례 주왕을 위해 일했다(은실의 관리, 삼공, 오랑캐 정벌, 서백 등). '무인이 대군을 도와 일했다'는 구절은 이 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묘능시파능리眇能視跛能履 리호미질인履虎尾咥人 흉凶'은 왕계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인 반면, '무인위우대군武人爲于大君'은 문왕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다.

뒤에, 무인이 나쁜 것으로 포악의 상을 입히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효를 받으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왕계, 문왕인지 묻는 사람에게 판단해야 돼요. 왕계라면 흉하게 되고 문왕의 경우 주도면밀한 덕자의 경우는 뒤에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점단을 내릴 때에는 왕계와 문왕의 경우를 구별하여 효사를 적용해야 한다. 왕계 같은 비전술적 활동가에는 육삼(六三)이 흉한 효인반면, 문왕처럼 전술적 은인자중(隱忍自重)을 아는 전략가에게는 육삼(六三)도 흉한 효가 아니다.

九四. 履虎尾 愬愬 終吉.

구사.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두렵고 두려우나 종내는 길하게 끝나리라.

[愬: 두렵고 놀랄 색]

이 효는 복잡할 것이 없는데 공자는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 했어요. 이 효를 받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강해요. 실지로 보면 순조롭게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긴장된 가운데서 잘 되어 있어서 원래 리(履)괘가 그런 뜻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행하면 큰일은 안 난다. 예절바르고 법도에 맞추어 나가면 구사(九四)도 끝내는 길효로 증명된다.

九五. 夬履. 貞厲.

구오. 과단성 있게 밟도다. 꿋꿋하면서 동시에 위험의식을 갖도다.

[夬: 과감히 결단할 쾌. 疚: 병으로 오래 고생할 구, 괴로울(꺼림칙할) 구]

구오(九五)는 보기보다 정려貞厲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 나쁜 효가 아니다. 하여간 조심스럽게 밟아오다가 구오에 이르면 과감한 행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계속 나가는데 위험한 의식, 위태로울 수 있다는, 시험 같은 경우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괜찮아요.

구오는 대인군자가 받으면 결정·과업·직책 등의 의무를 과감하게 이행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위험을 잘 살펴 '좋은 성과'를 올려 성공하는 효다. 그러나 일반인이 받으면 지나치게 밀어붙이다가 꿋꿋하게 버티지도 못하고 주의 깊지도 못하여 실패하거나 난관에 봉착한다. 여행길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경영자는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위기에 처한다. 중정을 찾아가면 이 효가 좋아요. 오랫동안 주도면밀했던 것이 여기서는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단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갖기 않으면 나빠져요.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덕행에 따라 길흉이 갈리기 때문에, 아예 길흉(吉凶)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달려있다. 본인의 주체적 주도력 덕성 수준에 달려있다.

上九. 視履. 考祥其旋 元吉.

상구. 밟아온 이력을 자세히 살피도다. 조짐을 숙고하니 그것이 선회하여 크게 길하리라.

[考: 상고할(곰곰 생각할) 고, 죽은 아비 고. 祥: 조짐 상, 상서로울 상, 상세할 상(=詳). 旋: 돌 선, 돌아올(귀환할) 선]

어떤 경우냐면 글을 쓰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이 괘가 나오면 반드시 쳐다봐야 해요. 그러면 결정적인 하자(瑕疵)가 있어요. 그걸 고치면 좋게 되는데 갑자기 선회해서 180도 바뀌어서 크게 길하게 된다. 원길元吉이므로 반드시 좋은 일을 해야만 길해요. 나쁜 일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 나쁜 일이 아닌 경우 상구(上九)는 좋게 봐야 한다. 곡절이 있는데 다시 숙고해야 하는 과정이 끼어있다. 180도 바뀌어서 좋게 크게 길하게 된다.

이제 천택리 괘를 봤으니까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10월 중순, 말까지는 초효(初爻)가 적용되니까 素履. 往无咎 평소대로, 주변의 뜻과 부합되지 않아도 무시하고 자기 일을 해나가면 무사한 상황이고 호전될 수 있어요. 이것은 집에서 숨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면 그 일이 잘 풀려가요. 결국 성과는 좋다. 유인(幽人)정길 했으니까 들락날락하면 안 좋고 바르게 가야 길하다. 바르다는 덕을 요구하고 있어요. 유인의 길을 가려는 결심을 초지일관(初志一貫)해야한다.

상효는 좀 벗어나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반드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안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과 위험 의식을 가지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유리하게 바뀌어서 나아갈 진 리(履)지(之)진(晉)이 되었죠.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곡절이 많지만 결국에는 밟아나가는 전진하는 2008년 말이 될 것이다. 12월 25일을 기분 좋게 맞을 수 있겠다.

구오가 길흉이 없으니 답을 준거예요. 진(晉)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과감하게 나아가되 위험의식을 갖고 주도면밀하게 임하면 그 결과는 진은 길이나 마찬가지죠. 동효 없이 진괘를 없으면 잘 못나가요. 진괘를 얻으면 나아가요. 변괘를 얻으면 잘 나가요. 아무 동효 없이 얻는 것보다 훨씬 좋은 진이예요 본괘냐 변괘에 따라 뜻이 바뀌죠.

◆3교시 : ䷩ 풍뢰익風雷益

▲ ䷩ 풍뢰익風雷益 풀이

益. 利有攸往 利涉大川.

보태주도다. 갈 바가 있어도 이롭고 큰 내를 건너도 이로우리라.

初九. 利用爲大作. 元吉 无咎.

큰 작업을 도와 일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크게 길해야 무탈하리라.

六二. 或益之. 十朋之龜弗克違. 永貞吉. 王用享于帝 吉.

혹자가 그에게 보태주도다. 값비싼 거북점도 거스르지 못하도다. 오래 곧으니 길하리라. 임금이 옥황상제에게 제향을 올리니 길하리라.

六三. 益之用凶事 无咎. 有孚 中行告公用圭.

그에게 보탬을 주어 흉사를 다스리게 하니 무탈하리라. 성신誠信을 갖고 가운뎃길(지름길)로 가서 공公에게 고하고 규圭를 썼(보였)노라.

六四. 中行告公從. 利用爲依遷國.

가운뎃길로 가서 공公에게 고하여 따르도록 하노라. 도움을 받아 천도하니 이로우리라.

九五. 有孚惠心 勿問 元吉. 有孚惠我德.

성신誠信과 자혜로운 마음이 있으니 물을 것 없이 크게 길하리라. 성신과 자혜로움이 있는 것은 나의 덕이도다.

上九. 莫益之 或擊之. 立心勿恒 凶.

아무도 그에게 보태주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그를 치도다. 마음을 세워도 오래 버티지 못하니 흉하리라.

풍뢰익 괘는 산택손괘와 짝이 되는데 풍뢰익 괘는 정약용과 관련된 해석이 있어서 '보태준다.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자체는 떠나가려는데 받아도 좋고 큰일을 앞두고 받아도 좋아요.

初九. 利用爲大作. 元吉 无咎.

초구. 큰 작업을 도와 일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크게 길해야 무탈하리라.

이 효가 길합니까 흉합니까. 재수가 엄청 좋아야 본전치기라는 것이다. 원길무구元吉 无咎, 길무구보다 나빠요. 이런 경우 해석을 못해서 점단을 못해요. 利用爲大作 어떤 인물을 봤을 때 그 사람은 큰일에 쓰일 수 있어요. 임금의 일에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재수가 좋아야 해요. 그 사람이 크게 착하고 크게 길해야 해요. 그래야 무사히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탈당을 해서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받았어요. 그게 원(元)한 게 아니죠. 탈당해서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 이것을 받았어요. 원(元)에는 맞지 않아요. 착하고 정도로 가는 길이 아니니까요. 끝내 안 좋게 되고 말았는데. 어떤 중대지사를 위해 쓰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됨됨이는 바른길을 가지 않아서 크게 대길하지 못하고 무사하지 못하다.

六二. 或益之. 十朋之龜弗克違. 永貞吉. 王用享于帝 吉.

육이. 혹자가 그에게 보태주도다. 값비싼 거북점도 거스르지 못하도다. 오래 곧으니 길하리라. 임금이 옥황상제에게 제향을 올리니 길하리라.

이것을 받으면 자기에게 보탬이 있어요. 아무리 영험한 거북점을 쳐도 무효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깔고 그 자리에 버티는 것이 길하다. 향(享)은 형(亨)과 같다. 왕이 제(帝)는 옥황상제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길할까요 아닐까요' 물어서 얻으면 제사를 지내도 좋다라는 의미로 붙어있어요. 옛날에 물었더니 나중에 봤더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았더라. 그것을 옛날의 서례를 옮겨놓은 거예요.

六三. 益之用凶事 无咎. 有孚 中行告公用圭.
육삼. 그에게 보탬을 주어 흉사를 다스리게 하니 무탈하리라. 성신誠信을 갖고 가운뎃길(지름길)로 가서 공公에게 고하고 규圭를 썼(보였)노라.

[告: 알릴 고, 깨우칠(가르칠) 고. 凶: 흉년 흉. 札: 돌림병 찰. 禬: 푸닥거리 회. 用: 다스릴 용, 관리할 용. 圭: 상서로운 구슬 규, 홀(천자가 제후를 봉하거나 제사지낼 때 쓰던 신표) 규. 如: 갈 여. 磬: 경쇠(작은 놋쇠 방울) 경. 糴: 쌀을 사들일 적]

대단히 논쟁이 많은 효라서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주례』에 의하면, 고대국가는 다섯 가지 '흉례凶禮'로써 다른 나라들의 다섯 가지 우환, 즉 흉사凶事를 서로 애도하고 상부상조했다. "상례喪禮로는 사망을 애도하고 황례荒禮로는 흉년과 돌림병(凶札)을 애도하고 조례弔禮로는 화재禍災를 애도하고 회례禬禮로는 포위와 패전(圍敗)을 애도하고 휼례恤禮로는 오랑캐의 침입(寇亂)을 애도한다."[95] 사망, 흉찰凶札, 화재禍災, 위패圍敗, 구란寇亂 등 다섯 가지 흉사는 고대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의 큰 재앙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효사에서 "그에게 보탬(도움)을 주어 흉사를 다스리게 하면 무탈하다"고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자는 "보탬을 주어 흉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본디부터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象曰, 益用凶事, 固有之也)"라고 주석했다. 보태주어 흉사를 다스리는 목적은 흉사를 줄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주희는 『서경』의 "우리의 흉덕을 줄이고 우리나라에 공적을 기린다(用降我凶德, 嘉績于朕邦)"는 구절[96]을 상기시키고 있다.[97] '익지용흉사益之用凶事'의 '용用'은 '다스리다(관리하다)'로[98] 새기고 '고공용규告公用圭'의 '용用'은 '쓰다(보여주다)'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익지용흉사'의 '용'을 '이以'로 풀어 '그의 흉사에 보탬을 주다'로 옮겨도 무방하다. 여기서 '지之'는 '그를, 그에게'를 뜻하는 빈어(목적격 대명사)이다.

주희는 『주자어류』에서 '익지용흉사益之用凶事'를 "신민이 임금의 극심한 어려움에 보탬을 주는데, 반드시 위언危言과 정론으로 임금을 두렵도록 을러 움직이게 하고 보탬을 주는 것"으로 새겼다.[99] 그러나 이 해석은 논리적 맥락에서 지나친 해석이고 실증서례와도 전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중행中行'은 여기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육삼이 중中을 벗어나 있으므로 의리론적 의미의 중도(중용)로 풀이할 수는 없겠다. 그렇다고 딱히 '도중途中'이나 '길 가운데(中道)'로[100] 볼 근거도 없다. 고형은 육삼과 육사의 '중행中行'을 '중도'로 보는 기존 해석을 버리고 1979년에는 미자微子의 동생 '중연中衍'으로 해석했다.[101] 그러나 은말과 주초에 미자의 동생 중연이 육삼의 흉사 구휼이나 육사의 천도와 관련하여 활동했다는 역사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95) 『周禮』「大宗伯」.
96) 『書經』「盤庚下」.
97) 朱熹, 『朱子語類』, 1835쪽.
98) 大漢韓辭典編纂室(편), 『大漢韓辭典』, '用' 항목.
99) 朱熹, 『朱子語類』, 1835쪽.
100) 高亨, 『周易古經今注』, 144쪽.
101) 高亨, 『周易大傳今注』, 364쪽.

‘중中’자가 같다는 근거로 ‘중행’을 ‘중연’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다산은 ‘중행’을 사신使臣으로 풀이하고 육삼 효사의 정황을 사신을 파견하여 구휼하는 상으로 본다. “사신이 왕명을 받들고 제후를 굽어보는 것”이 ‘고공告公’이라는 것이다. 다산은 『주례』「추관秋官」에 타국에 사신으로 가고 타국의 사신을 맞는 일을 맡는 ‘대행인大行人’과 ‘소행인小行人’의 직책이 있다는 기록과, 춘추시대에 이 관직을 성 씨로 삼은 중행中行씨가 있었음을 증거로 들어 ‘중행中行’을 사신으로 해석한 것이다.[102]

그러나 『주례』에 ‘대행인’과 ‘소행인’의 기록은 많으나 ‘중행인中行人’이라는 명칭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 춘추시대에는 사신 직책으로서의 중행이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그 시대 중행 씨는 사신이 아니라 군대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진晉나라가 노魯나라 희공僖公 28년에 군대를 좌행·중행·우행의 삼행三行으로 나누었을 때 순임보荀林父가 중행의 대장을 맡은 이래로 ‘중행’은 순임보와 그 자손의 성씨가 되었다.[103] 따라서 다산의 풀이도 꺼림칙하다.

다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놔요. 춘추좌씨전의 중행 씨는 군인이지 사신이 아니에요. 주례에는 대행인, 소행인은 있어도 중행인은 없어요. 관직에요.

여기서는 긴박한 흉사와 관련된 만큼 좌행左行과 우행右行의 우회로 사이의 ‘가운뎃길(中路)을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가운뎃길로 가는 것은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유부중행有孚中行 고공용규告公用圭’는 성신誠信의 마음을 갖고 지름길로 빨리 가서 공公에게 흉사를 알려주는 정황이다.[104]

‘규圭’는 고대에 사신이 지니고 가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때 제시하는 신표信標, 즉 신인信印이다. 다산은 『주례』「춘관春官」에 규圭의 발행업무를 관장하는 관리를 전서典瑞라 불렀는데, 전서는 “진규珍圭를 가지고 수령을 징계하고 흉황凶荒을 구휼하게 한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규’를 훗날의 ‘부절符節’과 같은 신표로 풀이한다. 다산은 또한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왕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 제후를 징계하는데, 흉황이 든 나라이면 규를 주어 가게 하여 왕명을 전했으니 지금의 사자가 부절을 지닌 것과 같다’고 한다”고 말하고 또한 “『예기』에는 ‘대부가 규를 가지고 사신으로 가는 까닭은 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공용규告公用圭는 대개 이런 예를 가리킨다”고 풀이한다.[105] 실로 명쾌하다.

그러나 규를 주어 구휼 목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일이 꼭 위에서 아래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고대에는 자기 나라에 흉사가 있을 때에도 황실이나 다른 나라 군주에게 알려 도움을 구하곤 했다. 물론 거꾸로 황실도 황국에 흉사가 나면 제후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했다. 이것은 고대의 흉례에 속했다.

『춘추좌씨전』에도 “경사京師(천자의 도읍)에서 와서 기근을 고했고, 공公은 이를 위해 송宋·위

102) 丁若鏞, 『周易四箋(5)』, 188-90쪽.
103) 『春秋左氏傳(上)』「僖公 28年, 391쪽. 이때부터 순임보는 ‘中行桓子’로 불렸다. 『春秋左氏傳(上)』「文公 13年, 478쪽.
104) 후앙은 ‘가운뎃길을 걸어가다(walking the central path)’로 옮겼다. Huang, *The Complete I Ching*, 342쪽. 블로펄드는 ‘홀의 가운데로 걸어가다(walking up the center of the hall)’로 옮겼다. Blofeld, *I Ching*, 169쪽.
105) 丁若鏞, 『周易四箋(5)』, 190쪽.

衛·제齊·정鄭나라에 쌀을 사들일 것을 요청했으니, 이는 예禮였다"라는 구절이 나온다.[106] 그런데 천자가 흉황이 든 제후국의 제후를 징계하고 제후국의 흉사를 구휼하는 데만 규를 쓴 것이 아니라 옆 나라에 자기 나라의 흉사를 알리는 데에도 규를 제시하는 예禮가 필요했다. 고형은 『국어』의 "노魯나라에 기근이 들어 장문중臧文仲이 울창주(鬯)와 규圭, 구슬(玉)과 경쇠(磬)를 가지고 제齊나라로 가서 알리고 쌀을 사들였다(如齊告糴)"는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107] 따라서 '고공용규告公用圭'는 '공에게 고하고 규를 보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효사 전체의 이야기는, 그에게 보탬을 주어 흉사를 다스리게 하여 무사했는데 이는 성신誠信의 마음을 갖고 빨리 지름길로 가서 공에게 고하고 규를 보여 자국의 흉사를 위에 알린 덕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은 쪽(益之의 之)은 천자일 수도 있고 제후일 수도 있다. 서례에서는 이 효를 받으면 흉한 꼴을 겪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거나 자기의 흉사를 다른 사람 또는 윗사람에게 알려 도움을 받는다. 또는 공식 절차로 특정한 윗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기도 하다.

이 구절이 엄청나게 논란이 많아요. 여기서 명쾌하게 정리해놨는데 정다산까지도 틀리게 되어 더 헷갈리니까 나중에 깊이 공부할 때 다시 보면 이 해석이 무난한 해석일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六四. 中行告公從. 利用爲依遷國.
육사. 가운뎃길로 가서 공公에게 고하여 따르도록 하노라. 도움을 받아 천도하니 이로우리라.

여기서도 '중행中行'은 '가운뎃길(지름길)로 가다'이다.[108] 육사도 중中에 미달하여 의리론적·사회적 의미의 '중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공종告公從의 '고告'는 여기서 사使·령令·명命·견遣·교敎·비俾·권勸·소召·조助 등과 같은 일종의 사역형 또는 준準사역형 동사다.[109] 그러므로 '중행고공종中行告公從'은 '가운뎃길로 가서 공에게 고해 따르도록 한다'는 뜻이다.[110] '따른다'는 말이 나오므로 이 효사는 상하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용위의천국利用爲依遷國'의 '천국遷國'은 도읍의 창건이 건국과 동일했던 고대의 역사적 사리事理에서 '천도遷都'와 같다. 나라를 옮긴다는 것은 천도와 같아. 은나라가 상 땅에서 도읍을 정했을 때는 상나라라고 했는데 은으로 옮기고는 은나라라고 불렀어요. 도읍을 옮기는 것을 나라를 옮기는 것으로 많이 썼어요. 이국천도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섰다.

---

106) 『春秋左氏傳(上)』「僖公 6年, 70쪽.
107) 『國語』「魯語」. 高亨, 『周易古經今注』, 144쪽 참조.
108) 고형은 '中行'을 '중도'로 보던 『周易古經今注』의 해석을 버리고 1979년에는 '中衍'으로 해석했다. 高亨, 『周易大傳今注』, 364쪽. 그러나 중연(微子의 동생)은 은말·주초의 인물이므로 '依遷國'을 殷의 천도로 보는 자신의 해석과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최초 해석이 차라리 무방한 듯하다.
109) 황태연, 『要點漢文法』〈4. 사역형〉.
110) 후앙은 "가운뎃길로 걸어가 공후에게 보고하니 공후가 따르다(Walking the central path, reporting to the lord. The lord follows)"로 옮겼다. Huang, *The Complete I Ching*, 343쪽. 빌헬름은 '中行告公從'을 "당신이 가운데서 행하여 공후에게 고하면 그가 따를 것이다(Wenn du in der Mitte wandelst und dem Fürsten berichtest so wird er folgen)"로 독역했다. Wilhelm, *I Ging*, 161쪽. 그러나 블로펄드는 보고한 사람 자신이 공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충성을 고하다(He … informed the prince of his fealty)"로 옮기고 있다. Blofeld, *I Ching*, 170쪽.

고형은 '의依'를 '은殷'으로 해석한다. 그 근거는 '은殷'을 모두 '의衣'로 표기한 『예기』~「중용」의 한 구절, 고대에 '은殷'과 '의衣'가 발음상 동일했던 점, 은殷자를 모두 의衣로 쓴 은허 갑골문의 복사卜辭 등이다.[111] 그러나 '은殷'자를 '의衣'자로 쓴 기록은 있으나 '의依'자로 쓴 기록은 없어 고형의 해석은 심히 꺼림칙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다산은 "주周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함에 진나라와 정나라의 도움을 받았다(周之東遷, 晉鄭焉依)"는 『좌전』~은공隱公 6년의 역사적 용례를 근거로 '의依'를 '도움을 받다'로 풀이했다. 다산은 "사정이 유사하지 않을지라도 천도에는 꼭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다.[112] 다산의 풀이가 일목요연하다고 할 것이다. 효사의 정황은 천자가 천도하는 데 제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지름길로 사람을 보내 제후에게 이를 알리고 천자의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공후에게 고해 따르도록 한 것은 보탬을 줄 생각 때문이다(象曰, 告公從, 以益志也)"라고 주석하고 있다.[113]

'천도'는 실제로 국가적 차원의 천도를 뜻할 때도 있고 일상적 차원에서 정당의 분당分黨, 이사, 부동산(주택, 별장, 콘도) 매각처분 등을 뜻할 때도 있다. 일반 서례로는 필자가 한 중년 부인의 2006년 운세를 서하여 육사와 구오를 얻은 사례가 있다. 이 부인은 팔려고 내놓은 콘도가 팔리지도 않고 가격만 자꾸 떨어져 곤란한 상황에서 이 괘를 얻은 후에 우연히 친정아버지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고 이 콘도를 사줄 것을 부탁했더니 친정아버지가 의외로 흔쾌히 사주겠다고 언약했다. 그리하여 콘도를 처분하고 현금화할 수 있었다.

집을 정리하는 경우에도 천국이 잘 나와요.

九五. 有孚惠心 勿問 元吉. 有孚惠我德.
구오. 성신誠信과 자혜로운 마음이 있으니 물을 것 없이 크게 길하리라. 성신과 자혜로움이 있는 것은 나의 덕이도다.

[惠: 은혜(자혜) 혜, 은혜를 베풀(자혜로울) 혜]

'유부혜심有孚惠心'은 '유부여혜심有孚與惠心'으로 보아 '성신과 자혜로운 마음이 있다'로 번역했다. 그런데 빌헬름은 '부孚'를 부사로 보아 '참으로 자혜로운 마음이 있다면(wenn du wahrhaftig ein gütiges Herz hast)'으로 번역하고, '유부혜아덕有孚惠我德'은 '참으로 자혜로움이 너의 덕으로 인정될 것이다(Wahrhaftig wird Güte als deien Tugend anerkannt werden)'로 번역한다.[114] 성신과 자혜는 내 덕에서 연유한다는 말이다.

---

111) 高亨, 『周易古經今注』, 144쪽. 『죽서기년』의 기록을 근거로 고형은 육사 효사의 이야기를 은나라 武乙 천자와 제후국 周나라 高公亶父의 고사로 해석하고 효사의 '公'을 고공단보로 추정했다. 물론 훗날에는 이 해석을 포기했다. 高亨, 『周易大傳今注』, 364쪽.

112) 丁若鏞, 『周易四箋(5)』, 193쪽.

113) Huang, *The Complete I Ching*, 343쪽; Cleary, *I Ching: The Book of Change*, 94쪽. 王弼, 『周易注』, 328쪽; Lynn, *The Classic of Changes*, 401쪽; 程頤, 『伊川易傳』~참조. 그러나 빌헬름은 '益志'를 '보태줄 뜻'이 아니라 '뜻이 보태지는 것(seine Gesinnung wird gemehrt)'으로 오역하고 있다. Wilhelm, *I Ging*, 535쪽.

114) Wilhelm, *I Ging*, 161쪽.

이 괘는 대단히 좋은 효입니다. 다 읽지 않겠어요. 서례도 잘 들어맞고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은혜와 덕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자기가 투자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야. 공짜로 들어와요. 받고 싶겠지만 받기 힘들어요. 수천만 원이 들어와요. 1년 괘로 받은 경우에는.

上九. 莫益之 或擊之. 立心勿恒 凶.
상구. 아무도 그에게 보태주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그를 치도다. 마음을 세워도 오래 버티지 못하니 흉하리라.

상구는 안 좋은 효인데, 막(莫)은 '-한 것은 없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로 쓰인다. 막대(莫大)하다면 무조건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nobody인데 이 괘 받으면 안 좋아요. 해석을 꼬고 비틀 그럴 필요는 없고. 이 효(爻)를 받으면 인심을 잃고 증오의 대상이 되거나 개망신이 됩니다. 자기를 두들겨 패는 위해집단에 맞서려는 집단에 마음을 다짐하고 대항해야지 해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아요. 立心勿恒 凶 오래 버티지 못한다. 마음을 세워도요.

이미 이 효를 받은 경우는 남에게 베푼 것이 없고 갈취한 경우예요. 민심을 흉해진 걸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무사할 수는 있겠지만 덕행 아니면 감당할 수도 없어요.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상수고 안 돌아다니는 게 좋고요. 그 기간으로 받은 경우는 그 기간만 넘어가면 되죠.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구오가 나오면 돈이 상상 못하게 들어와요. 두 개가 동했다면 초장에 들어오다가 나중에 얻어 터집니다. 처음 것 받으려고 어느 때부터 엎드려야지 감을 못잡죠. 조심해야 되는 괘다.

▲ ☱☰ 택천쾌澤天夬

대단히 멋진 괘예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그런 효예요. 둑이 터질 듯 결단하고 상쾌함의 괘다.

夬. 揚于王庭 孚號 有厲 告自邑. 不利卽戎 利有攸往.

결단하도다. 왕정에 널리 알리고 성신誠信으로 외쳐서 위험이 닥쳤음을 도읍에서 경고하도다. 병장기를 잡는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는 것이 이로우리라.

初九. 壯于前趾. 往不勝 爲咎.

앞발에 힘이 세도다. 가면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리라.

九二. 惕號 莫夜有戎. 勿恤.

두려워하는 구호를 외치는데 늦은 밤에 오랑캐가 나타나도다. 걱정하지 말라.

九三. 壯于頄 有凶. 君子夬夬 獨行遇雨 若濡有慍 无咎.

볼에 세게 힘이 들어가면 흉액이 있으리라. 군자가 과감히 결단하고(박차고 내달려) 홀로 가다가 비를 맞도다. 몸이 적시면 성이 나나 허물은 없으리라.

九四. 臀无膚 其行次且. 牽羊悔亡. 聞言不信.

엉덩이에 근육 살이 없으니 행보가 머뭇거리고 막히도다. 양羊을 끌고 가서 (사죄와 화친을 구하는 예禮를 올려) 회한을 풀었노라.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리라.

九五. 莧陸夬夬. 中行无咎.

쇠비름을 싹둑싹둑 자르노라(산양이 뛰어 내달리노라). 그래도 중도를 행하니 허물은 없으리라.

上六. 无號 終有凶.

경보의 외침이 없으니 끝내 흉액이 되살아나리라.

夬. 揚于王庭 孚號 有厲 告自邑. 不利卽戎 利有攸往.

결단하도다. 왕정에 널리 알리고 성신誠信으로 외쳐서 위험이 닥쳤음을 도읍에서 경고하도다. 병장기를 잡는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는 것이 이로우리라.

[夬: 결단할 결, 과단성 있을 결. 揚: 날아오를 양, 들어올릴 양, 드날릴 양, (소리 또는 지위를) 높일 양, 드러낼(널리 알릴) 양, 드러날(알려질) 양, 큰 도끼(斧鉞) 양]

이것은 해석할 때 골치 아픈 구절입니다. 택천쾌를 받고 점단할 때 이 괘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잊어도 돼요. 「단전」에 '결이화決而和(결단해 화합하다)'가 있는데 동효 없이 쾌 괘가 나왔다면 행동의 방침이 정해졌는데 결단력 있게 움직이면 상대와 화합에 이른다.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결이화決而和결론은 화로 끝나는데 결단력을 갖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괘사는 잊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돼. 괘사는 잊고 결이화를 새기면 된다.

初九. 壯于前趾. 往不勝 爲咎.

초구. 앞발에 힘이 세도다. 가면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리라.

장(壯)은 닫힐 장, 죽일 장과 통해서, 대장괘의 장과 같은데 힘이 앞발에 들어가면 앞발이 다칠 가능성이 많아요. 젊었을 때 상처 나죠. 앞발의 힘이 들어가면 가서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온다. 허물이 온다. 좋지 않은 효예요. 모든 효는 결이화라는 것이 초효와 상효만 '결이화決而和'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단력 있게 움직여도 별로 좋지 않아.

九二. 惕號 莫夜有戎. 勿恤.

구이. 두려워하는 구호를 외치는데 늦은 밤에 오랑캐가 나타나도다. 걱정하지 말라.

[號: 고할 호, 이를(신호할) 호, 울 호. 戎: 군사 융, 병장기 융, 되놈(북방오랑캐) 융]

구이(九二)는 밤에 무슨 일이 나요.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좋은 일이야. 상당히 뜻밖에 결단력 있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주희가 소개하는 걸로는 밤에 적군이 나타나는데 적군한테 장수로 임명받는 행운을 얻고, 밤늦게 전화가 오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받았죠. 분명히 정치적으로 나쁜 전화 같은데.

九三. 壯于頄 有凶. 君子夬夬 獨行遇雨 若濡有愠 无咎.

구삼. 볼에 세게 힘이 들어가면 흉액이 있으리라. 군자가 과감히 결단하고(박차고 내달려) 홀로 가다가 비를 맞도다. 몸이 적시면 성이 나나 허물은 없으리라.

[頄: 광대뼈 구(규). 凶: 보기에 좋지 않을 흉. 濡: 젖을 유]

이 경우도 과감하게 움직이면 자기 뜻이 실현되거나 좋습니다. 이 효는 만남이나 모임에서 나를 음해한 소인배나 장차 나를 해칠 소인배를 보게 되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망설임 없이 내 주장을 과감하게 천명하거나 껄끄러운 부탁을 과감히 말하면 뜻밖에 내 말이 흔쾌히 수락되고 화합하게 되는 것을 예고하는 효이다. 이 괘는 부탁하기 힘든 말, 꺼내기 힘든 말을 부탁하면 딱 성사돼요. 기본적으로 과감하면 길하고 과감하면 더욱 길(吉)한 효입니다.

九四. 臀无膚 其行次且. 牽羊悔亡. 聞言不信.

구사. 엉덩이에 근육살이 없으니 행보가 머뭇거리고 막히도다. 양羊을 끌고 가서 (사죄와 화친을 구하는 예禮를 올려) 회한을 풀었노라.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리라.

[次: 머뭇거릴 차, 머물 차, 행렬 차. 且: 머뭇거릴 저, 막을(저지할) 저(=沮), 또 차. 袒: 웃통 벗을 단]

가장 문제는 牽羊悔亡(견양회망) 정이천부터 양을 끌고 가니 양은 뒤에서 몰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는데 잘 안가니까 안 좋다는 뜻인데 그럼 회망이란 것과 안 맞죠. 그런 뜻이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이 사실들이 숨겨져 있는데.

효사에 양羊이 등장하는 것은 외괘 태兌가 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견양牽羊'의 의미다. 일찍이 19세기 초 정약용은 『주역사전周易四箋』에서 이 '견양'의 의미와 관련하여, "옛적에 엎드려 대죄待罪하는 자는 양을 끌고 갔는데[『춘추전』에서 鄭나라 백작의 牽羊], 이 효사가 지시하는 바는 대강 이 예禮를 가리키는 것이다(古者, 服其罪者, 牽羊以行[春秋傳鄭伯牽羊], 是詞所指, 盖指此禮也)"라고 갈파하고 있다.[1] 그러나 다산의 이 풀이는 그간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다. 이와 별도로 20세기 중반에 들어 '견양牽羊'을 고대의 관례慣例로 풀이하고 『춘추좌씨전』의 정鄭나라 백작의 항복 사건을 그 증거로 제시한 사람은 고형이다.[2]

그러나 정이, 주희, 빌헬름, 후앙 등은 모두 이런 고대 관례를 알지 못해 "양을 끌고 가지 않고 양을 앞서게 하고 뒤따라가면 잘 간다"는 등 억지 해설을 가하고 있다.[3] 그러나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을 보면, 견양牽羊의 예禮는 춘추시대 훨씬 이전인 은말殷末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주周나라 무왕이 주紂를 토벌하고 은나라를 무너뜨리자 미자微子는 종묘 안의 제기祭器를 가지고 무왕의 군문軍門으로 가서 웃통을 벗고 몸 겉면을 밧줄로 묶게 한 후, 왼쪽으로는 양을 끌고 오른쪽으로는 띠풀을 쥐고 무릎으로 기어 앞으로 나아가 고했다(肉袒面縛, 左牽羊, 右把茅, 膝行而前以告). 이에 무왕은 미자를 풀어주고 그 지위를 옛날처럼 회복시켜주었다."[4] 정

1) 丁若鏞, 『周易四箋(5)』, 227-8쪽.
2) 高亨, 『周易古經今注』, 147-8쪽. 피델러는 고형의 해석을 따른다. Fiedeler, *Yijing*, 393쪽.
3) 程頤, 『伊川易傳』; 朱熹, 『周易本義』; Huang, *The Complete I Ching*, 352쪽. 심지어 빌헬름은 '牽羊悔亡'을 '자신을 양처럼 끌고 가게 만들면 후회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오역하고 있다. Wilhelm, *I Ging*, 165쪽.

약용과 고형이 인용한 『춘추좌씨전』의 기록도 이와 유사한 항복·대죄의 예禮를 보여준다. 초楚나라 자작이 정鄭나라를 포위하여 함락시키고 입성하자 정나라 백작은 "웃통을 벗은 알몸으로 양을 끌고 (자작을) 맞이하고(肉袒牽羊以逆) 말했다. '저는 실로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해 당신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노기를 품고 제 도읍까지 오게 한 것은 저의 죄입니다. 그러니 명하시는 것을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 … 만약 은혜롭게 이전의 우호를 돌아보시어 … 저의 사직社稷을 망하지 않게 하고 개과改過하여 당신을 섬기며 구현九縣에서 편히 살게 해주신다면 이는 당신의 은혜요 저의 원입니다.' 이에 초왕은 30리를 물러나 그에게 화평和平을 허락해 주었다."[5]

이 '견양牽羊'의 예禮를 두예杜預는 "항복해 신하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示服爲臣僕)"이라고 주석한다.[6]. 고대 중국에서 양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짐승으로 여겨졌다.[7] 따라서 '견양회망牽羊悔亡'은 항복과 함께 사죄를 구하고 화평을 비는 뜻으로 양을 끌고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양을 바치며 자비와 화친을 청하는 예禮를 올려 (상대가 화친을 받아들으니) '한이 풀렸다' 또는 '회한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문언불신聞言不信'은 '견양회망'과 다른 별개의 점사다. 뜻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도 불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과 말의 평가를 서해 이 효가 나오면 불길하다.

자기가 막 주장해서 토론해서 잘 먹히겠습니까. 해서 이게 나오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 주는거예요. 견양이라는 뜻을 잘 알고 해야 합니다. 사죄를 하려고 하면 사죄를 받아주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 반신반의할 수 있다.

九五. 莧陸夬夬. 中行无咎.

구오. 쇠비름을 싹둑싹둑 자르노라(산양이 뛰어 내달리노라). 그래도 중도를 행하니 허물은 없으리라.

[趹: 달릴 결. 莧: 비름 한, 자리공 현, 상륙 현. 陸: 뛸 육. 未: 충분히 ~하지 않을 미]

글자풀이로는 진위(眞僞)를 가릴 수 없어요. 여기에 많은 논란들을 정리했는데 읽어보세요. 다만 이 괘도 결이화가 통해서 말하기 어려운 청탁이나 고백을 서해 이 효를 얻으면 어떤 경우든 흔쾌히 받아들여져 길하다. 莧陸夬夬(현육쾌쾌)도 시원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경우든 과감하게 결단해 화합하게 된다.

上六. 无號 終有凶.

상육. 경보의 외침이 없으니 끝내 흉액이 되살아나리라.

'결이화決而和'가 통하지 않아요. 안 좋아요. '무호无號'는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서 전달도 되지 않고 그래서 끝내는 흉하게 되는 효예요.

---

4) 司馬遷, 『史記世家(上)』, 149쪽.
5) 『春秋左氏傳(中)』 宣公 12年, 10쪽. 이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에도 거의 그대로 나온다. 사마천은 이 사건을 정나라 襄公이 초나라 莊王에게 항복하고 사죄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司馬遷, 『史記世家(上)』, 226-7쪽.
6) 高亨, 『周易古經今注』, 147-8쪽에서 재인용.
7) Fiedeler, *Yijing*, 393쪽.

제10강 : 중화리重火離 와 수뢰준水雷屯

◆ 1교시 : ䷝ 중화리重火離 ①

▲ ䷝ 중화리重火離 풀이

지금 여기 있는 64 괘를 다 할 수 없어 의미 있는 괘만 했고 또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뽑아온 괘를 보았는데 어떤 분이 괘를 뽑아온 게, '취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는가가 아니라 방도를 물은 것이죠. 자기의 행동철학을 의리 철학적으로 물은 거예요. 중화리重火離의 초효(初爻)와 상효(上爻)가 동했네요. 이것은 변 괘가 의미가 있죠. 두 개가 동했으니까요. ䷽ 雷山小過(뇌산소과)로 변했다.

離. 利貞. 亨. 畜牝牛吉.

밝도다(빛나도다). 자리를 굳게 지키니 이로우리라. 형통하도다. 암소를 기르니 길하리라.

初九. 履錯然. 敬之 无咎.

발걸음이 얽혀 꼬이도다. 삼가고 신중히 하니 탈이 없다.

六二. 黃離 元吉.

노랗게 빛나니(노랑에 붙으니) 크게 길하리라.

九三. 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

해가 기울어 (하늘에) 걸려 있도다. 장구 치고 노래하지 않으면 원로가 탄식할 것이로다. 흉하리라.

九四. 突如其來如. 焚如 死如 棄如.

갑작스럽네 그것이 닥치네. 불타네 죽네 버리네.

六五. 出涕沱若. 戚嗟若. 吉.

물 흐르듯 눈물을 흘리네. 근심하고 탄식하네. 길하리라.

上九. 王用出征 有嘉. 折首獲匪其醜 无咎.

왕이 출정을 하니 가상嘉祥한 일이 있으리라. 적장만 베고 적의 무리를 잡지 않으니 탈이 없으리라.

初九. 履錯然. 敬之 无咎.
초구. 발걸음이 얽혀 꼬이도다. 삼가고 신중히 하니 탈이 없다.

초효는 발이 꼬이게 된다. 삼가고 삼가서 받아들이면 무사하다. 초효가 썩 좋은 괘가 아니에요. 일단 발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감옥에 빠지는 경우죠. 나중에 빠져나오긴 하는데 물은 것은 운명적인 물음이 아니라. 잘못 봤어요. 중수감 괘의 상효가 아니라 중화리의 상효(上爻)는 王用出征 有嘉折首 獲匪其醜 无咎왕용출정유가절수획비기추무구 로 되어 있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도를 물었으니까. 취직을 하려면 발이 꼬일 것이다. 敬之 덕을 말해줬죠. 삼가고 남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해나가면 무사히 취직을

한다. 상당히 꼬이고 그걸 푸는 과정이 있죠.

위에는 왕이 출정을 해서 승리의 가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목 적의 수장의 목은 베고 그를 따르는 무리는 죽이지 않는 거죠. 탈이 없으리라. 덕을 취하면 어떤 행동의 덕이 있냐면 누구와 싸우게 되는 경우는 그 대표하는 사람과는 싸우되 그를 편드는 사람은 건들지 마라. 오히려 껴안아라. 그러면 좋다.

소과小過괘는 내려앉는 괘예요. 차라리 아래에 있는 것이 길하다. 잘난 척하면서 취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를 바닥에 낮추고 노력을 하면 꼬이면 삼가는 행동, 근신하면서 움직이고 충돌하게 되는 경우는 우두머리와는 갈등을 하더라도 나머지 따르거나 지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탈이 없다. 차라리 아래에 있는 것이 길하다. 놈을 낮추고 겸손하고 잘 풀린다. 30편 중화리 괘를 공부하죠.

중하리 괘는 팔괘 상의 리가 두 개 중복되어 있는 괘이므로 아주 밝은, 방향감각으로는 남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불, 밝음, 빛남, 나타남 붙음인데 주로 쓰이는 것은 불과 붙음이다. 불은 밝으면서 다른 하나는 옮겨 붙으므로 붙는다는 뜻이 있어요. 리는 오늘날 떨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뜻이 뒤집혀 있어요. 한문에서는 뜻이 뒤집힌 경우가 많아요. 아래로 내려다 줄 석, 받을 석 줄 때도 석, 받을 때도 석, 붙을 때도 리, 떨어진다는 리, 고대에는 붙는다는 뜻이 많다.

우리말로는 어떤 말이 뒤집어질까요. 쌀을 팔면 쌀이 아닌 경우에는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판다는 것인데 시골에서 쌀 판다는 것은 돈 주고 쌀을 구입하러 가는 쌀을 사러 간다는 것은 시장에 돈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보리 산다. 곡식과 관련해서는 뒤집혀요. 한국말로도 뒤집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서는 붙는다는 뜻이다. 불 자체는 가장 핵심에 가까워질수록 어두워진다. 그런 뜻으로 음효가 팔괘상의 리 괘 안에 음효가 들어 있다고 했죠. 바깥에는 양효인데 안쪽에는 석유등잔불의 심지나 촛불의 심지처럼 어두움이 들어 있다. 양효는 밝음이고 음효는 어두움이 들어 있다. 어두움이 핵심적인 부분에 들어 있죠.

離. 利貞. 亨. 畜牝牛吉.
밝도다(빛나도다). 자리를 굳게 지키니 이로우리라. 형통하도다. 암소를 기르니 길하리라.
[麗: 빛날(광채를 발할) 려, 맑을 려, 고울(아름다울) 려, 붙을(부착할) 려]

원래는 기른다는 뜻으로 하려면 소 우(牛)를 해야죠. 오늘날은 쌓아둔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기른다는 뜻으로. 밝도다. 붉도다. 가만히 있으면 이롭고 형통하도다. 암소를 기르는 것이 길하다. 곤괘에서 빈마지정利牝馬之貞과 이것은 이미지가 달라요. 곤괘에서는 순종적이면서도 대단히 빠르고 강인한데 소는 암소는 대단히 빠른 건 아니죠. 강인하지 않고 부드럽고 연약한 의미가 있어요.

암소를 기른다는 뜻은 처자식을 기르고 기타 가솔을 기른다는 거예요. 가솔이란 종일 수도, 의탁해 사는 친척들의 어른들일 수도 있고, 전체 뜻은 벼슬에 나가 있다가 받으면 차라리 돌아와 식솔들을 챙기게 되고 그것이 길하다는 겁니다. 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받으면 별로 안 좋죠. 현직을 그만두게 되는데 리 괘의 괘사는 점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점단으로 효력이 없어요. 밝다. 붙는다의 뜻으로 봐서 해당되는 점을 봤을 때 리가 나오면 사안에서 해당되어야 해요. 그 사람과 처음 만나는데 그 일이 잘될까요. 인연이 있는 것인가 하면 붙는다는 뜻이니까 인연이 좋은 거죠. 영화가 흥행이 되겠느냐 했을 때 리 괘가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춰지고 빛나게 되겠죠. 많은 관객이 붙겠죠.

이 괘는 사안에 관련된 것이 나올 때는 좋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쇼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단전」은 '리離'를 '려麗(붙다)'로 풀이할 때는 '붙을 려'예요. 고구려, 고려, 아름다울 려도 있지만 아름답다는 뜻이 불이 밝아서 아름다운 측면도 있지만 '려'에서는 붙는다는 뜻을 채택해야 한다. 단전에는 려로 해석해서 뜻을 바로 "해와 달이 하늘에 붙어 있고 오곡백과와 초목은 땅에 붙어 있다(彖曰, 離 麗也. 日月麗乎天, 百穀草木麗乎土)." 붙는다는 것과 밝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실지로 서례의 경우에는 동효 없는 리離를 얻으면 바깥일을 그만두고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보살피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크게 작용은 하지 않는데 매달려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붙는다. 학교 시험 운을 봤는데 리 괘가 나왔으면 붙는 거죠.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여기서도 붙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꼬여요. 상당히 삼가고 근신하고 기다려야 한다. 시험을 본 경우에는 그렇지만 취직의 방법을 물었을 때는 삼가고 용서해주고 또 자기를 낮추는 의미가 통하죠. 강한 의리론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初九. 履錯然. 敬之 无咎.

초구. 발걸음이 얽혀 꼬이도다. 삼가고 신중히 하니 탈이 없다.

[離: 밝을(빛날) 리, 붙을 리, 떨어질 리. 履: 밟을 리, 신발 리. 錯: 섞일(어긋날) 착, 금칠(도금)할 착. 敬: 잡도리할 경, 신중히 할 경]

자기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효가 나왔어요. 어떨까요? 조직을 창립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잘 될지 미래를 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나중에 대단히 꼬이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을 그치지 않고 경주를 해서 가긴 갔는데 두 번째 효가 안 좋더니 한 번 광풍이 부니 해산되었어요. 일 년 가까이는 버텼는데 그 사이 꼬이는 일이 많아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더라구요. 안팎으로 조직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경지敬之의 경을 해석하지 못해서 어렵지 어려운 괘가 아니에요. 신발 리(履)도 돼고 밟아나간다는 뜻도 있어요. 연은 '-하니' 신중히 하면 탈이 없다로 바꿔야 돼. 여기서는 방도를 물었으니까 '-하면'으로 바꿔야 돼.

六二. 黃離 元吉.
육이. 노랗게 빛나니(노랑에 붙으니) 크게 길하리라.

큰 시각에서 보면 착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경우에 받아요.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서 받으면 안 좋다. 으뜸 원(元)은 착하며 으뜸이다. 대(大)선(先)해야만 길해지는 거니까. 황리 원길黃離 元吉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컨닝 부정행위해서 나오거나 돈 빼앗으려고 하거나 하면 흉이에요. 황상원길과 비슷하죠. 곤괘 5효예요. 노랗다는 뜻은 중국 고대에서 가운데를 뜻하죠. 중(中)은 중도 중용, 또는 가장 높은 분, 임금은 세상의 중심에 있으니까. 중국의 중자도 이런 뜻이에요. 가운데 있다는 뜻이네요. 가운데가 권력의 중심이므로. 이미지를 전환시키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최고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니까. 중심과 높다는 것은 같은 뜻이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오면 노랑에 붙는다는 것은 옛말로 임금한테 붙는다는 것이죠. 요즈음은 대통령한테 붙는다. 이 사람이 여당으로 공천을 받아야하는가 야당으로 공천을 받아야 하는가. 헛갈리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여당에 신청해야 하죠. 오효와 통하니까요. 이효와 오효는 상관관계가 있죠. 존위를 따르는 것이 크게 착해서 길하도다. 존위를 따르려했더니 대통령이 백성에게 핍박받고 혼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죠. 민심이 갈려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때가 있는데 과거 5공, 6공 때 흉한 거예요. 주역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하죠.

또 황(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경우 황 씨의 경우 나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았어요. 황 씨를 만나는 뜻도 있지만 황씨와 착한일로 사귀면 길하다는 뜻이다. 같이 만나는 두 사람이 황 씨였어요. 중화리 괘는 노랑이 두 개 겹쳐있죠. 두 황 씨한테 하나는 학문적으로 사귀었고 다른 하나는 출판사하고 협력해서 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좋았어요. 사람 이름의 경우는 이름을 우선시해서 해석해야 한다.

가령 리(履)자가 들어 있는 경우 그게 우선이에요. 황이 아니라 리가. 원이 있는 경우도 춘추좌씨전에 이름이 원인 경우가 옳았죠. 둘째는 원(元)이야, 첫째는 맹집이야. 원형리정이 나오니까 원자(元子)의 뜻으로 해석해서 장자(長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름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겼는데 이름자 그 원(元)자가 임금이 돼요.

발음이 중요하지 않고 뜻이 같아야 하죠. 황리원길黃離元吉은 괘를 받은 경우 적중도가 백프로예요. 모든 효가 적중도가 같지 않아요. 강도가 같지 않아요. 이건 거의 백프로예요. 이걸 뽑았으면 자기가 잘 뽑았다는 적중할 것이다 예감할 수 있다. 여러 차례 경험한 거예요.

◆2교시 : ☲☲ 중화리重火離 ②

▲ ☲☲ 중화리重火離 풀이

九三. 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
구삼. 해가 기울어 (하늘에) 걸려 있도다. 장구 치고 노래하지 않으면 원로가 탄식할 것이로다. 흉하리라.

[昃: 해 기울 측. 缶: 장군(그릇) 부. 耋: 노인 질. 伐: 칠 벌. 鼓: 북 고. 朔: 초하루 삭. 摩: 갈 마. 孔: 구멍 공, 매우 공]

양(陽)의 자리에 양(陽)의 효가 있죠. 중용을 벗어나서 육이(六二)는 좋지만 이것은 벗어나 있죠. 양에 양이 있으니까 오버해서 지나친 괘인데 뜻이 어려워요. '일측지리日昃之離'의 측은 기울 측(昃)자고 서쪽으로 해가 기운다는 뜻이죠. 해가 기울어 하늘에 붙어있다. 불고구이가不鼓缶而歌 질장구를 두드리고 노래 부르지 않으니 대질大耋, 대원로라는 뜻인데 나라의 큰 노인이 한탄하다. 흉하다.

해가 기운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매일 벌어지는 사건이면 노인네가 한탄할 일이 아니죠. 당연히 자연의 섭리인데 여기서는 일식입니다. 해가 먹히는 겁니다. 대자 전에는 일식의 뜻으로 측으로 안 쓰여요. 그런데 원로가 탄식하느냐는 것에 대해 사례들을 찾았는데 일식사태를 주변의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기를 가려 패덕한 상황이 되는 것으로 봤어요. 음기가 양기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양기를 북돋기 위해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던 예가 이었다. 그것을 '구일지례救日之禮' 해를 구하는 예를 했다.

음기陰氣를 상징하는 달이 모든 양기陽氣의 원천인 해를 가리는 대흉사로서 일식은 고대에 해를 상징하는 왕이 음험한 간신배 때문에 총명함을 잃어 천명天命을 무시하고 선정善政을 베풀지 못해 닥치는 대흉사로 여겼다. 따라서 일식이 닥치면 고대의 임금들은 밖으로 행차하지 않고 음식을 줄이고 실정失政을 반성하며 하늘에 용서를 구하는 한편, 전투하듯이 큰북을 마구 쳐서 양기를 돋우고 음기를 쫓아 해를 구하는 '구일지례救日之禮' 라는 예식을 거행했다.

『춘추좌씨전』은 문공文公 때 "일식이 있으면 천자는 거동치 않고 지신地神을 모신 사社에서 북을 친다. 제후는 사에서 폐백을 올리고 조정에서 북을 치고 귀신을 모시는 것을 밝혀 백성에게 임금을 섬기는 것을 훈육하고 위엄의 차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옛 법도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8]

소공昭公 때도 여름(음력 6월)에 일식이 일어나 음기를 쫓고 양기를 북돋워 해를 구하는 '구

8) 『春秋左氏傳(上)』 文公 15年, 492쪽.

일지례救日之禮'를 행한 기록이 있다.[9] 장공莊公 25년 유월 초하루에도 일식이 있었는데,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은 "유월 신미辛未일 초하루에 해가 일식을 맞았다. 또 『서경』에도 일식 때 북을 친다는 말이 나온다.[10] 이처럼 "소리를 내는 것은 다 양기의 일로써 음기를 누르는 것이다."[11]

우리 나라는 예가 있었는데, 고대의 이 '구일지례'는 역대 중국 왕조에 의해 전근대까지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에서도 역대 임금들은 태양을 일식에서 구하는 '구식례救蝕禮'를 거행했다. 서운관書雲觀 또는 관상감觀象監이 일식 날짜와 시각을 예고하면 수일 전부터 임금은 식음을 폐하거나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죄수를 방면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다.

그리고 일식 당일에는 임금이 소복으로 갈아입고 편전에 나와 해를 보고 앉아 하늘에 용서를 빌고 편전 앞에 두 줄로 해를 향해 군졸들을 배치하고 큰 기旗들을 세우고 일식 개시 시각부터 해가 다시 나올 때까지 큰북을 크게 울렸다. 이때 소복한 관상감 제조提調는 꿇어앉아 일식이 시작되면 임금을 향해, "해가 장차 이지러져 먹히려 합니다. 청컨대 경척警惕, 수성修省하소서!"라고 거듭 고함쳤고, 일식이 더욱 심해지면 또 꿇어앉아 "해가 장차 많이 먹히겠습니다. 청컨대 더욱 경성警省하소서"라고 소리치고, 해가 다시 복원復圓하려 하면 다시 꿇어앉아 "해가 장차 다시 복원하려 합니다. 청컨대 경성을 게을리 하지 마소서"라고 소리쳤다. 해가 복원되면 북을 그치고 구식례를 끝냈다.[12]

인용하고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의 구식례의 예를 들고 있어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수십 개를 인용했는데 출판사에서 잘라냈네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식례는 영조 18년(서기 1742년) 5월 1일의 사례다.

『조선왕조실록』의 이러한 '구식례' 기록과 중국 고대 문헌의 '구일지례' 기록을 종합할 때, '질장구[13]를 치고 노래하지 않는다(不鼓缶而歌)'는 것은 왕이 북을 쳐서 양기를 북돋우고 자신의 실정을 반성함으로써 해를 구하는 '구일지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는 구식례를 하지 않고 나라가 어렵고 임금의 덕이 쇠잔해졌는데도 어영부영하니까 국가 원로가 한탄한다는 뜻이에요. 정치적의미로 바꾸면 실정失政으로 인해 대통령이 반성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났다고 떠들어내던 경우가 있었죠. 나이든 노인들이 광화문에 많이 모였었어요. 그때 구삼 효가 동했어요. 다른 거 뽑다가 자꾸 나와요. 지금

---

9) 『春秋左氏傳(下)』「昭公 16年, 172쪽.

10) 『書經』「胤征」, "乃季秋月朔, 辰弗集于房, 瞽奉鼓, 嗇夫馳, 庶人走." 車相轅 역저, 『書經』(서울: 明文堂, 1993), 107쪽 참조.

11)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春秋穀梁傳注疏』, 107쪽.

12) 『朝鮮王朝實錄』「正祖實錄」 정조 9년 7월 1일 戊申條(서기 1785년), "일식이 있었다. 하교하기를, 일월식의 구식에 있어 문헌이 소루하다. 서울과 지방관의 救蝕條는 비록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오례의』와 『속오례의』의 「구식의」에 모두 기록이 있는데, '백관은 각각 그 소관 관사에서 관청에 북을 설치해 놓고 두 줄로 해를 향해 선다'라고 했다. '두 줄'이라 했으니, 각사의 관원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근래에는 왕이 친림하지 않으면 입직한 낭관만으로 구식한다고 하는데, 일의 체통이 이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후에는 응당 관원들을 참석시키되, 일정한 규격과 격식이 없을 수 없으니, 병조, 관상감, 군기시는 근거가 될 만한 문적을 상고하고 묘당을 오가며 하나를 지적하고 품처하도록 하라 했다."

13) '질장구', 즉 '缶'는 흙을 구워서 밥소라처럼 만든 타악기다. 대나무로 변죽을 쳐서 소리를 낸다. '土鼓'라고도 한다. '土鼓'는 직역하면 '흙북'이다. 구삼 효사에는 '가죽북' 대신에 '흙북'인 '질장구'가 등장하고 있다.

은 뽑으면 안 나와요.

서례에서 육삼 효사는 보통 하늘의 태양에 해당하는 국가 원수가 거듭된 실정으로 통치 기반이 무너져 가는데도 반성 없이 아집과 자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나라의 원로들이 탄식을 쏟아내는 정국으로 나타난다.

九四. 突如其來如. 焚如 死如 棄如.
구사. 갑작스럽네 그것이 닥치네. 불타네 죽네 버리네.

능동으로 바꾸면 불태우네 죽이네 버리네 무슨 뜻인지 불확실해요. 물어본 것과 관련되어 뜻이 드러나요. 뜻은 광범하게 취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 일반적 상이예요. 느닷없이 일어난다. 焚如불탄다는 것이니까 곱게 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태우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횃불이나 촛불이나 방화하는 것입니다. 死如는 국가의 일이니까 정치적인 일로 죽거나 자살하거나 살해되는 것이에요. 棄如는 임금과 가까이 있는 구사니까 대통령의 측근들이 배반을 당해요. 배반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진다. 핵심측근들이요.

이런 일들은 갑작스레 벌어지는 것들이라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자는 "갑작스럽게 그것이 닥친다는 것은 받아들일 곳이 없다는 말이다(象曰, 突如其來如, 无所容也)"라고 주석한다. 속수무책이라는 뜻이죠. 이 괘는 서례를 보지 않으면 뜻을 알지 못해요.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을까. 실지로 많이 납니다.

서례에서 대인군자(사회 지도층 또는 50세 이상의 신사숙녀)가 엉뚱하게 이 효를 얻으면, 물은 물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물음을 물었는데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곧 벌어집니다. 소인들은 자기 운명인 경우가 많아.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군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아무 뜻없이 엉뚱하게 받는 경우는 나라 사정이 나타난다. 바깥세상(나라)에 갑작스레 불과 관련된 난동(방화, 화형식, 촛불 시위 등)이 일어나고 자살과 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배신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예컨대 2004년 3~4월 탄핵정국 즈음에 이 효가 많이 동했다. 이 시절에 가족 동반 자살자와 한강 투신자가 줄을 잇고('死如') 그때 이 괘가 많이 동했어요. 이상수 의원과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신 및 측근들이 줄줄이 버림받아 구속되고('棄如') 소위 '노빠'와 '노사모'의 촛불시위('焚如')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여진으로 이번에도 촛불시위가 난 걸로 보이는데 사그라 들었지만 한편, 일상적인 일을 물어 이 효를 얻으면 신청한 것이 거절되거나 성과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갑작스레 '버림받는(棄如)' 일을 당한다. 작은 것 물어서 '취직을 하겠습니까' 했는데 이게 나오면 버림받았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죽는 것이나 불타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나 따라서 일반인이 얻으면, 불타고 죽는 흉사凶事까지는 당하지 않으나 상황은 신청이 예상과 달리 기각되는, 이룬 일이 무효가 되는 등 갑작스레 복잡해진다. 불타거나 죽는 것은 해당 없으니 棄如버림받는다만 해

당된다.

六五. 出涕沱若. 戚嗟若. 吉.
육오. 물 흐르듯 눈물을 흘리네. 근심하고 탄식하네. 길하리라.
[涕: 눈물 체. 沱: 눈물 흐를 타. 戚: 근심할 척]

존위에 있는 사람이 울거나 대오반성 함으로써 더 큰 화를 면하는 괘다. 가령 육오(六五)는 난장판을 부리던 왕(대통령)이 자신의 폭력적 난동을 반성하며 우는 효다. '탄식하니 길하다'는 것은 눈물을 양껏 흘리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밝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쓰라린 후회는 도움이 된다. 탄식하는 것은 호괘互卦 태兌가 '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14] 육오는 존위, 즉 왕 또는 공후公侯의 자리인데, 음효의 부당위不當位라서 존위에 있음에도 겸손한 가운데 비탄에 빠졌다.[15]

따라서 울고 탄식하니 상황이 길복으로 반전된다는 것은 서지자가 왕 또는 공후면 어떤 잘못 때문에 눈물을 쏟으며 사죄하여 존위(왕 또는 공후, 즉 오늘날은 대통령 또는 총리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고 서지자가 왕과 공후가 아니면 눈물을 쏟고 사죄하여 존위에 붙어 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육오가 길함은 왕과 공후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象曰, 六五之吉, 離王公也)"라고 주석한다.

빌헬름에 의하면 "이 효는 생生의 정점이다. 경계가 없다면 이 지위에서 화염처럼 소진되어 버릴 것이다. 그 대신 공포와 희망을 포기하고 만사가 허무함을 통찰하여 울고 흐느끼고 자신의 밝은 정신을 보존하려고 애쓴다면 이 비애로부터 길복吉福이 온다. 이 효는 구삼의 일시적인 정서와 달리 진정한 반전을 언급하고 있다."[16] 길한 건 아니에요. 목이 잘리려고 하던 고위 관직자가 목숨을 부지하는 불행 중 다행의 괘입니다.

실제 점단에서 왕 또는 공후는 나에 대해 지배적 권위를 가진 인물을 뜻한다.[17] 따라서 이 효의 길함은 소극적 의미('불행 중 다행')이다. 2006년 3월 말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를 서하여 이 효를 얻었다. 이는 한씨가 총리(공후)직에 붙으나(인사청문회를 통과하나) 총리 임기 중 실정으로 국민과 야당의 추궁을 받고 사죄를 거듭하여 의미 없이 임기를 마치는 것을 예고했다. 예고대로 한씨의 처지는 실제로 그리 되었다. 의미 없이 마쳤어요. 그 사이에 많은 사과를 했어요.

미군부대 옮기는 평택 초소 위병을 공격했지요. 공격한 것을 대처하는 쪽에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적인 발언을 했어요. 초병에 대한 훼손을 군법재판감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국정이나 국권수호에 의미 있는 사람인가 사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겸손했으니까 살아남았는데 실제로 임기를 의미 없이 마치는 걸로 끝냈죠.

14) Blofeld, *I Ching*, 147쪽 주석(8).
15) Wilhelm, *I Ging*, 483쪽; 朱熹, 『周易本義』.
16) Wilhelm, *I Ging*, 124쪽.
17) Blofeld, *I Ching*, 147쪽 주석(9).

◆ 3교시 : ☲☲ 중화리重火離 ③

▲ ☲☲ 중화리重火離 풀이

上九. 王用出征 有嘉. 折首獲匪其醜 无咎.
상구. 왕이 출정을 하니 가상嘉祥한 일이 있으리라. 적장만 베고 적의 무리를 잡지 않으니 탈이 없으리라.

[折: 꺾을 절, 자를 절. 獲: 잡을 획. 醜: 적 무리 추. 殲: 다 죽일 섬. 渠: 클 거, 우두머리 거. 罔: 아닐 망, 없을 망(=亡)]

복잡한 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해석상의 논란이 많은 겁니다. 왕이 오효(五爻)에 나타나야 되는데 상효(上爻)에 나타났을까. 전체적으로 역사적 상황을 보면 무왕이 혁명을 한 후에 복잡한 일, 불타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서술되었다고 봐야하고 상구(上九)의 왕은 무왕이에요. 혁명을 완성한 후에 또 출정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지방에서 순복하지 않고 버티니까 출정을 해서 수백 군데에서 싸우거나 항복을 받아서 제후들을 접수해야하는 2년 동안의 고난을 받죠. 그리고 죽죠. 그 과정이에요.

출정해서 크고 작은 제후들과 충성 맹약을 받은 경우에는 有嘉잔치가 있었다. 가례는 좋은 뜻으로만 하는거니까. 충성서약 잔치를 열고 좋았다. 이 자체가 나라가 안서서 나라를 바르게 하려고 해서 공자는 "왕이 출정한 것은 나라를 바루기 위함이다(象曰, 王用出征, 以正邦也)" 라고 주석했다.

무왕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으면 공자님이 왜 정방야로 해석 했는가 뜻이 안통해요. 무왕의 혁명이후 2년간의 행적을 알아야 딱 들어맞죠. 그 역사를 배제하고 공자의 주석을 해석하려도 안된다. 공자의 주석이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무왕이나 문왕의 이야기 걸왕의 이야기로 짜여있다고 공자는 이미는 앵글을 맞춘 거지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 공자의 상전주석들이 역사를 도입해야만 주석의 의미를 알게 되므로 역사 은(殷)말(末)과 주(周)초(初)의 역사를 대입하지 않고 주역의 괘 효사를 해석하려는 것은 엉뚱한 짓이 될 수 있다.

왕이 출정했는데 잔치를 베풀고 공자는 정방야로 해석했다. 왕이 다시 움직여야 하므로 상효에서 정복전쟁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상효에 나오는 거예요. 절(折)은 자른다는 뜻이므로 칼로 무엇을 죽이냐. 수(首)가 머리수도 되고 수장도 되기 때문에 싸우기 딱 좋죠. 어떤 이는 머리를 자른다. 참수의 뜻으로 본다. 어떤 이는 우두머리의 목을 벤다는 뜻도 있어요. 뒤의 뜻 때문에 獲匪其醜(획비기추) 획은 시경에 나오듯이 사람을 전장터에서 베어 죽이고 왼쪽 귀를 잘라올 획입니다.

귀를 왜 자르냐. 자기가 적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전쟁 끝나고 포상 받으려고. 획은 베어 죽인다는 겁니다. 우두머리는 베고 따르는 무리는 죽이지 않는 거죠. 비匪는 공비, 도적 비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되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 其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닐 비로 봐야한다. 其醜우두머리의 무리 추, 적의 무리라는 의미, 무리라는 뜻, 적으로 봐도 상

관없어요. 우두머리를 베고 우두머리의 무리는 베지 않는다. 그러니 탈이 없도다.

대표적 서례에서도 일례로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2004년 연운은 리 괘의 초효와 상효였는데, 그는 2004년 3월 13일 민주당을 배신하고 탈당해 나간 '철새들'을 놓아두고 그 적장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노 대통령을 청와대에 2개월간 유폐시켰다. 헌법에 의해 2개월은 직무를 정지당하죠. 정치에서는 죽이고 살리기보다 타격을 가하는 건데.

아까 초효(初爻)와 상효(上爻)받은 것은 똑같네요. 1년 걸 받아서 초효는 발이 얽히고 설켜서 당대표를 하니 마니 하는 과정이고 나중에 탄핵을 하는 과정이고 그때 우두머리는 당대표로 봐야한다. 우두머리는 베고 밑의 사람은 놔두는 형국이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거의 경이로운 것이다.

박정희가 2/3을 넘어가는 의석수를 확보했으면 절대 유신 안 해요. 13석이 넘어가는 2/3을 확보했어요. 탄핵소추 통과될 때 2/3의 13석이 넘어가는 것이죠. 박정희가 유신을 안 할 정도니까 어려운 의석수이죠. 2개월 혼내주려는 것은 혼내주려는 것이니까. 통과되는 날 전투기 두 대가 추락했어요. 그 전날 대우사장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많이 배운 양반들 우리 형님 만나지 마시오해서 그런 것이 자극이 되어서 표가 엄청 모여서 탄핵을 자초한 거죠.

하루 전까지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통과되어 모가지 날아가면 대통령 선거를 한단 말인가. 적극적인 사람, 아닌 사람 반반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급변했어요. 어렴풋이 탄핵소추안이 통과한다는 뜻이 들어있지만 현장에서 소추안이 발의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 되요. 이틀 안에 통과되는지 봤는데 수풍정의 구오(九五)가 나왔어요. 水風井(수풍정) 井洌 寒泉食 (정렬 한천식).

수풍정의 구오만큼 신나는 것도 없는데 구오를 받으면 적중도가 백프로예요. 찬물이 나오는데 한천寒泉, 천(泉)은 샘 천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물 천(泉)도 되요. 우물물천도 되요. 시원할 한도 되요. 시원한 물을 먹도다. 목이 말라서 샘을 팠는데 물줄기를 발견해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거죠. 자기도 먹고 우물은 나눠주는 공익적인 상황이 된 거죠.

어떤 경우에 봤느냐. 앞길이 막혀 깜깜하거나 막혀있어서 방해를 받는 상황 방해물이 많은 상황 사람들이 받아요. 암담한 상황에서. 받으면 방해물들 유해조건들이 해소되면서 시원스럽게 일이 뚫리고 안 되던 일도 찬물이 치솟듯 길이 뚫려요. 실제도 회복이 된다.

통과될 줄 알았죠. 그 아홉 시간 이후에 통과되더라고요. 심지어 불이 얼마나 잘 났나. 焚如死如 棄如(분여 사여 기여)의 뜻이 국회에 자기 차로 불을 지르러 온 사람이 2명이 있어요. 탄핵통과 되고 나서. 쿠데타 세력도 국회를 그림 그려진 안쪽으로 차량도 기동하지 않았는데 시민이 국회에 들어왔어요. 불을 질러서 자기 차에다. 보통 민주주의의 적이 군부에나 있고 시민 중에는 없는 걸로 생각해서 보통 우익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죄는 독재로 벌어지고 좌익들의 민주주의의 죄는 떼거리 정치하다가 중우정치, 데모만 하다가 망가뜨려요. 히

틀러가 집권할 때도 대중들을 선동하고 떼로 몰아서 민주주의를 파괴하죠.

▲ 직접민주주의의 위험

과거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희랍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떼거리 정치, 소위 중우정치 때문에 거부했듯이 너무나 고귀한 것만 추구하다보면 독재로 흐르고 각각 좌익과 우익이 민주주의의 파괴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근대사를 보면, 좌익은 데모하던 습관으로 민주주의를 망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의회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국민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정치인데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가. 촛불시위의 의사가 국민의사인지 여론조사가 국민의사인지 뭐가 국민의사예요, 여론조사가 국민의사라고 해서 한나라당 탈당해서 혼자 대통령 나와서 망해버린 사람도 있죠. 촛불시위가 국민의사라고 해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40만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건데 삼천만 유권자의 의사예요.

삼천만 유권자가 제대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우기는 것이 반민주적인 사고예요. 그것을 의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국민의사로 본다는 것을 헌법으로 정해놨어요. 국회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야. 의회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의제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예요.

대통령과 의견이 다른 국민이 있을 수 있고 행정부와 다른 의견이 다른 국민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와 의견이 다른 그 국민이 있다면 그건 반란이야. 의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의회를 향해 데모한다. 행정부나 청와대를 향해 얼마든지 데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민주주의가 아닌 의회민주주의지.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안준 것은 의회는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국회라는 소리예요. 국회가 주인인 이유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대표할 권리를 안줬어요.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원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내정치에서의 국가원수는 국회야. 국회만이 국민이 선거에 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총선과 총선사이에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거예요. 장관도 탄핵하고. 행정부를 향해서 데모하는 것과 국회를 향해 데모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거예요. 국회를 향해 대표하는 것은 자기를 향해 데모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결정은 항상 독임재적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교수 세 사람 약속하려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 돼. 결국 못 만나. 국회의원 세 사람 맨날 다른 소리해. 의견일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집체적 결정에는 처음부터 독재는 불가능해요. 의회 쿠데타, 이런 말 있을 수 없죠. 그런 식이면 둥근 네모와 마찬가지죠. 의회는 혁명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군주적으로 갈수도 있고 위험이 항상 있어서 자체를 선출된 황제라고 했어요. 대통령의 모델은 민주적인 것에서 본 딴 것 아니에요. 후기 절대주의의 왕을 땄어요. 절대왕

조의 절대왕은 평생 가는 거니까 임기제로 해서 선출하자. 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제의 구상이에요. 구상은 영국의 마지막 절대적 왕이 모델이었다.

여기에 권력을 주면 안 되니까 미국은 하원에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 하원에 있어요. 계엄령은 미국 하원에서 선포해요. 선전포고는 미국 하원이 선포해요. 긴급조치, 긴급 명령권, 전부 하원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막강하죠. 그런데 시민들이 성장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으니까. 그 권한만큼 책임만 남는 거야.

대통령 잘못하면 동네북 됩니다. 길가다가 길 잘못 닦았다고 대통령 욕하고 책임만 남는거죠. 약할 때는 독재자로 갈 수 있어요. 집체적 결정을 하는 의회가 감시를 할 수 있게 염두에 두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는 크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까. 하면 위험 하니까 안하는 거예요. 직접은 좋고 간접은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직접 민주주의는 전부 국민이 모여 있는데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직접민주주의에서 민회와 민회가 맨날 열리는 것이 있으니까. 1년에 40번 열렸어요. 안 열리는 기간에는 아테네 정치는 뽑힌 사람이 했어요. 선거가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뽑았어요. 하나는 추첨, 제비뽑기 두 번째는 윤번제로 했어요.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행정을 맡았어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의 중우정치의 위험이 아주 노골화돼요.

최대의 문제가 민회에서는 일만 명 이만 명이 넘는데서 토론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토론은 열명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의회(議會)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떠들고 그것을 ○ ×로 결정하는 거죠. 일만 명이 모였는데 최대로 이만명인데 그것을 어떻게 의사를 표현했느냐. 고함소리가 좌우하니까. 자기 노예 중 고함소리가 제일 큰 놈을 데라고 왔어요. 스텐토어stentor 라고 불렀어요.

광장 직접민주주의라 고함소리의 크기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여자들은 다 뺐죠. 나오면 터지니까 어린이 청소년 다 뺐죠. 고함소기가 가급적 크기를 바라서 희랍신의 고함소리신도 있어요. 고함소리가 커야 민주주의가 살아있으니까 조그맣게 주인이 말하면 노예가 크게 확성기 대용으로 썼는데 결정적인 것인 추첨, 윤번제 다 좋은데 백성들의 고충이나 고통이나 어느 개선사항이나 희망 사항을 백성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사항이나 곤궁이나 고통 빈곤을 해결해야할 대책을 정책을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압니까. 백성이 알면 부자가 되었지. 알더라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을 백성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대답도 찬반으로 대답해요. 이유 있는 반대가 있잖아요. 조건부 반대, 비판적 지지.

국민들 의견 안에 경부운하를 놓고 찬성을 모조건 적으로 하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을 빼면 가운데 있죠. 거기에 대고 ○ ×로 대답하시오 하면 백성이 대학교수만 오천만이라도 그 질문으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직접민주주의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보로 만드는 중우정치의 경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묻는 것은 외교안보, 헌법 개정 두 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어요. 독일은 히틀러에 질려서 국민투표를 삭제했어요. 실지로 제헌이후에도 개정하는데 있어서 국민에게 묻지 못하게 했어요. 헌법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안묻느냐. 거꾸로 반문하는 거예요. 헌법적인 전문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물어서 뭐하냐. 어차피 ○×로 대답하는 건데 전문가들이 집체적인 논의 속에서 싸우는 것이 이성적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우리나라는 박정희 때 국민투표 많이 했어요. 그것으로 입을 막는데 많이 썼어요. 개정을 통해 두 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국민한테 직접 정책을 물을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니까 안하는 거예요. 왜 못 물어요. 지금처럼 돈 들어서 그러지 인터넷 이용하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나오세요. 모아서 보면 되잖아요.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는 전문가가 논의하지 않거나 비전문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경부운하 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신경질 내죠. 정치적 부담을 국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직업적으로 맡긴 것을 하기 위해 뽑아놓은 건데 그 놈들은 제쳐놓고 자꾸만 물으면 국민이 세금 내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하는 거다.

며칠 전 국회 가서 토론을 했더니 이전에도 광우병 수입 소고기 국민투표들이 해야 된다는 의원이 있어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촛불시위가 직접민주주의라고. 촛불시위나 인터넷은 비판하고 이 사람은 옹호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비판하고 옹호할 필요가 없다.

우선 촛불시위는 직접민주주의는 아니다. 헌법 어디에도 촛불시위를 직접민주주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모나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연장이다. 인터넷이 생겨 직접 민주주의가 증진되느냐. 인터넷이 나타나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는지는 몰라도 직접민주주의가 생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가 헌법에 보장된 것은 국민 투표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법률로 주민소환제 할 수 있죠. 단체장 문제 있을 때. 하남에서 시행되었는데 요구한 쪽에서 패배했죠. 세 번째는 추첨으로 하려는 것, 국민배심원제도 도입하려고 시동 걸고 있죠. 옛날 직접민주주의처럼 추첨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외에는 시도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이 등장해서 표현의 자유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전제하에는 직접민주주의는 좋은데 인구가 많아서 안하는 걸로 말하지 말라. 대단히 위험한 사고예요. 간접은 직접 민주주의를 못하니까 대안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자기 의견도 바뀌는데 그것을 국민 의견으로 보는 것은 위험해요.

대표적으로 박정희 때 경부고속도로 반대가 90프로였어요. 김대중 야당대표 할 때 유신헌법 찬성은 90프로예요. 90프로 찬성한 유신헌법은 없어졌고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남아서 역할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문제를,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물

어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국민들에게 일어난 여론은 참고하되 스크린 할 장치를 하되 대단히 신중하게 어떤 의견도 색깔 씌워져서 처음부터 말하지 못하게 봉쇄되지 못하게 되는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에서 집체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 스크린 장치가 국회예요. 거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 정치에서 직접 뛰고 있는 국회의원도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를 배우고 살았죠. 일제시대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부 그렇죠. 민주주의에 대해 한사람도 국민을 향해 말해준 적도 없었고 의회민주주의는 더 그렇죠. 항상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고 정치적 위험도는 높아져서 주역의 위험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독일에서 19년 동안 민주주의가 존속했어요. 히틀러가 19년 된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가 20년인데 20년 사이의 나타난 민주주의가 히틀러에 의해 사라졌어요. 93년의 김영삼을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19년이 안되었어요. 지금도 박정희의 지지가 일등인 것 보면 위험한 상황에 민주주의가 처해있다.

◆ 4교시 : ䷂ 수뢰준水雷屯 ①

▲수뢰준水雷屯 풀이

세 번째 괘입니다. 수뢰준은 나아가기 어렵다. 처음이어서가 아니고 항상 나아가기 어렵다 또는 가만있어야 된다. 주둔해 있어야 한다. 괘의 뜻은 봐야하죠. 읽기는 수뢰둔이라고 안 읽고 수뢰준이라고 읽는 게 좋다. 수뢰둔이라고 해도 어렵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屯'은 '진 친다'는 의미일 때 '둔'으로 읽는다. 뒤에 둔괘가 또 있어요. 혼동하지 않으려고 준으로 읽는 게 좋다. 둔괘가 천산둔괘가 33번가 있어서 준괘하고 하는 게 좋다. 이 괘가 월간조선에 나왔던 괘죠.

屯. 元亨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

막혀서 나아가기 어려운 상이로다. 크게 형통하고 굳게 제 자리를 지키니 이로우리라. 갈 일이 있어도 나서지 말라. 제후를 세움이 마땅하리라.

初九. 磐桓. 利居貞 利建侯.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도다. 곧게 제 뜻을 지키는 것이 이롭고,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로우리라.

六二. 屯如邅如. 乘馬班如. 匪寇婚媾. 女子貞不字 十年乃字.

나가지 못하네 머뭇거리네. 말을 탔다가 내리네(네 필의 말이 서로 갈라져 끌어 나아가지 못하네). 노략질이 아니라 혼인하려는 것이도다. 그래도 여자가 곧아서 허혼許婚하지 않다가 10년 만에 비로소 허혼하리라.

六三. 卽鹿无虞 惟入于林中. 君子幾不如舍 往吝.

산지기 없이 사슴을 바짝 쫓아 숲 속에 들어가려고 꾀하도다. 군자라면, 포기하는 것만 못하여 그대로 가면 옹색해진다는 것을 낌새로 알아차리리라.

六四. 乘馬班如. 求婚媾 往吉 无不利.

말을 탔다가 내리네. 혼인할 짝을 구하러 가면 길하고 불리할 것이 없으리라.

九五. 屯其膏. 小貞吉 大貞凶.

은택을 베풀기 어렵도다(은택을 베푸는 데 인색하도다). 작은 일은 바르면 길하나 큰 일은 바르더라도 흉하리라.

上六. 乘馬班如. 泣血漣如.

말을 탔다가 내리네. 피눈물을 줄줄 쏟으며 우네.

屯. 元亨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

막혀서 나아가기 어려운 상이로다. 크게 형통하고 굳게 제 자리를 지키니 이로우리라. 갈 일이 있어도 나서지 말라. 제후를 세움이 마땅하리라.

[屯: 모을 둔, (병력을 모아) 진칠 둔, 늘어놓을(진열할) 둔, 막을 둔, 인색할 준(=吝), 어려울 준(=難), 견고할 둔(=固), 두터울 둔(=厚), 가득 찰 둔(=盈). 草: 어지러울 초, 풀 초]

勿用有攸往,에서 앞에 有는 at 이고 攸는 바 소(所)이다. 제후를 세우지 않는 차원 중 첫째는 임금이 큰 천하를 경영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서 제후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세운다는 뜻과 같다. 건국의 뜻이에요. 대부분 천자의 위치에 있지 못하죠. 수장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천자대신에 제후국의 임금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수동형으로 보는 거예요. 제후로 세워짐이 마땅하도다. 내가 출마했는데 자기가 세워지는 게 마땅한 거죠. 인사문제나 성취되는 문제에 있어서 후(候)가 자기인 경우에는 수동태로 해석한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의미예요. 나라와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사소한 일 반인의 얘기로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준괘니까 남을 대신 시키면 돼요. 직접 하면, 되지 않고 흉하다.

기본구조는 수는 물은 험수, 험지險地, 위험한 물이거나 위험한 땅 산악이 가려져 있어서 뇌(雷)는 움직일 동(動)을 뜻하죠.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있다. 그래서 '나아가기 어려움'의 괘가 된다. 나갈 수가 없으면 꼭 나쁜 건가요? 나가서는 안 되는 때 나가지 않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때인데 주식을 많이 하면 망하는데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산을 지킬 수 있죠. 4대 난 괘를 준 괘를 보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나중에 괘를 보면 알겠지만, 「단전」은 '이건후利建侯'를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문제, 신하들이 볼 때는 득군의 문제, 득국, 득군의 괘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순신이 원균의 운을 뽑은 거라고 했죠.

▲수뢰준水雷屯 서례 1

이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서례는 이순신李舜臣(1545-1598년) 장군이 다른 이를 시켜서 한 원균元均의 서례일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丁酉年) 5월 12일 참모 신홍수申弘壽가 찾아와 그로 하여금 당시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의 운명을 서하게 해서 '준지구屯之姤(屯괘가 구오를 제외하고 다 난동 끝에 姤괘로 격변하는 괘)'를 얻었다. 이를 두고 이순신은 '변괘가 본괘를 극했으니 크게 흉하고 크게 흉하다'라고 해석했다.[18] 3개월 뒤 1597년 8월 원균은 대군을 출전시켜 대패했고 자신도 전사하고 말았다. 밑에 각주를 보면 이순신, 『완역 초서체 진중일기』, 최두환 譯註, 『忠武公李舜臣全集(제1권)』~"申弘壽來見, 以元公占之, 則初卦水雷屯變則天風姤. 用克體, 大凶大凶."

왜 이것을 읽었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난중일기(亂中日記)는 기타 점을 삭제했어요. 두 개만 남기고 없앴어요. 정조 때 나온 이순신 전집이 난중일기를 개작했어요. 이것은 초서체 진중일기라고 한 것은 완역일기이고 하나도 빼지 않았다는 것은 이순신이 남긴 모든 문집에서 초서로 쓴 것을 한쪽에 영인본으로 해주고 다음 장에서는 인쇄체 한자로 뽑아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최두환 씨가 대단한 해사 교수인데 큰일을 해줬는데.

여기 원본난중일기, 구분하려고 진중일기로 붙였는데 소위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정조 때 일어날 때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사상적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지만 인간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에 있어서는 경박하고 천박한 풍조가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미신이라고 해서 삭제해요. 삭제하는 정도가 원전을 훼손시키는 정도까지 갔어요.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과학주의는 우리나라는 실학을 타고 스며들어왔는데 실학은 독자적인 사상이 아니라 서양 문물의 충격 속에서 일어나는데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지 모른다고, 서양에서는 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헌법에 대고 취임선서를 놓고 하지 불교경전 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은 성경책 놓고 선서해요.

미국대통령은 발가벗은 과학주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완전히 말살하려는 주의로 가요. 또 일본 같은 나라. 명치유신 때 불교는 포기하고 동양적인 것은 쓸어내요. 중국은 공산당이 그랬죠. 공자묘를 파헤쳤으니까 서양에 대한 엄청난 열등의식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 것은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같은 거예요. 진시황은 파묻었지만 중국은 과거의 학자들을 하방 시켜 못 올라가게 해서 늙어 죽었어요. 북경대 총장까지. 나중에 등소평이 등장한 이래로 북경대 총장 딸이, 자기 아버지가 홍위병에게 끌려가서 유리조각 깨진 데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을 본 걸로 글도 썼는데 중국 사람이 충격을 먹었죠. 영화까지 만들었대요.

지들이 20년 전에 벌였던 야만을 북경올림픽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공자 논어에 나오는 예지본(禮之本)은 화(和)를 카드섹션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자기들 사상인양 공자의 삼천제자

18) 이순신, 『완역 초서체 진중일기』, 최두환 譯註, 『忠武公李舜臣全集(제1권)』(서울: 宇石出版社, 1999), 정유년(1597년) 5월 12일 일기, "申弘壽來見, 以元公占之, 則初卦水雷屯變則天風姤. 用克體, 大凶大凶."

등장시키고 북경 올림픽 개막식 날은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자멸선언의 날이에요. 레닌은 어디가고 공자가 나와서. 옳지 못한 사상이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그래도 복귀를 했고 공자사상을 탄압하고 맹자를 불살랐던 진시황은 15년 만에 망해요.

15년 뒤에 등장한 나라는 공자의 사상을 국교로 정한 한나라예요. 한나라는 중국에서 오래 왕조를 이끈 나라고 전 후한 거의 400년이 넘어요. 중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게 돼서 자신들을 한나라라고 하고, 중국이 서는 과정에서 항우와 유방의 싸움을 장기판 만들어서 지금도 만들고 있죠. 한나라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를 한국 사람들은 보존하고 배우고 있는데 지들은 없앴어. 그러면 나중에 누가 문화적으로 높습니까.

아테네 것,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들 것이라 우겨도 그리스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배우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배우려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야지 아테네로 가면 안 되죠. 마찬가지죠. 주역 배우려면 철학아카데미로 와야지 중국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한참 중국어로 번역하려는 상황 말했는데 중국 출판사에 돈을 안주면 출판 안 되니까. 중국으로 출판해서 돈을 벌 생각마라 내가 중국을 잘 알아서 기가 막혔는데 우리 출판사 사장은 돈 내고 하라면 안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문화가 묶여있고 공자묘를 찾아갔을 때 총장이 찾아 갔을 때 공자묘를 어렵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접촉을 안 하려고 해요. 풀렸는데도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카드섹션으로 화를 내세웠으니까 빠른 속도로 변하긴 했죠. 공자님이 예(禮)에 효용(效用)은 화가 가장 귀중하다. 예지용은 화합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 하나도 예의를 지킨 것 같지 않아요. 내세우기만 했지 전혀 체득이 안돼서 다른 나라 프랑스, 미국 대통령은 관중석에 앉혀놓고 저들은 로얄 박스에 앉아서. 완전 천자한테 조공 바치러 오는 모양새를 강제로 만들어서 좋아하니까 저놈들 키우면 안 되겠구나,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올림픽으로 중국은 손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이 세지면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도 느꼈을 거예요. 나아가기 힘든 때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싸울 수 없는 적하고는 안 싸우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初九. 磐桓. 利居貞 利建侯.

초구.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도다. 곧게 제 뜻을 지키는 것이 이롭고,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로우리라.

[磐: 너럭바위(암반) 반, 머뭇거릴 반. 桓: 머물 환, 머뭇거릴 환, 굳셀 환, 클 환, 푯말나무 환. 襄: 도울 양, 높은 곳으로 오를 양. 嫺: 얼굴 얌전할 주. 姶: 예쁠 압. 蒸: 찔 증. 鉏: 호미(괭이) 서. 圉: 마부 어, 마구간(감옥) 어]

'반환磐桓'은 음이 다르게 다양하게 쓰여요. 밑에 '돌 석' 없이 쓸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릇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아가지 못하다'는 뜻인데, 여러 가지 경우를 찾아봤는데 출판되고 나서는 더 많이 찾았어요. 뜻은 수도 없이 많아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

리에 있는 것. 利居貞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겁니다. 나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뜻이 안 잡힐 거예요.

핵심적인 뜻은 서례를 보면 확실하게 들어와요. 초효와 관련해서는 『춘추좌씨전』의 두 서례筮例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이 중 첫 번째 서례는 먼저 민공閔公 원년元年, 위魏나라를 멸망시킨 전공으로 위나라 땅을 봉지封地로 받고 대부大夫가 된 진晉나라 필만畢萬이 진나라를 섬기는 것을 서한 것이다.

위나라에 있는 세력을 멸망시킨 거죠. 나중에는 진나라가 없어지고 삼진시대로 가죠. 삼진시대는 위(衛), 한(韓), 조(曺)나라 가 진나라의 땅을 나눠갔죠. 세 왕조는 진나라의 대부였지요. 필만처럼. 삼진시대라고 하는데 진나라가 대단히 큰 나라라서 천제가 있는 나라는 주나라였죠. 주나라가 많이 진나라를 의존했어요. 춘추시대에.

민공閔公 원년元年, 위魏나라를 멸망시킨 전공으로 위나라 땅을 봉지封地로 받고 대부大夫가 된 진晉나라 필만畢萬이 진나라를 섬기는 것을 서한 것이다. "전에 필만이 진나라를 섬기는 것을 서해 준지비屯之比를 받았다. 신료辛廖가 점단해 아뢰되, '길합니다. 준屯은 한결 같이 고수하는 것(固)이고 비比는 드는 것(入)입니다.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게 길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번창할 것입니다. (준屯의 내괘인) 진震이 땅으로 변하니 수레가 말을 따르고 (말의) 발은 땅을 딛고 형兄은 수레에 타고 있습니다.[19] 형은 장남이 되고 어미는 이것을 덮으니 뭇사람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여섯 효로 된 괘의 뜻이 바뀌지 않음에[20] 연합해 한결같이 고수할 수 있어[21] 평안케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생殺生의 권능이 있으니 공후公侯가 될 괘입니다. 반드시 그 처음으로[22] 돌아갈 것입니다."[23]

공후가 된다고 했으니까 필만은 대부에 지나지 않는데 공후의 괘가 나왔어요. 실지로 나라가 되죠. 신료의 이 점단은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는 초구 효사, 그리고 '비록 나아가지 않고 굳세게 머물지라도 뜻을 바르게 행하고, 귀한 자가 천한 자에게 몸을 낮추니 백성을 크게 얻는다'는 공자의 주석과 합치된다.

공자는 大得民也크게 백성을 얻는다고 했어요. 귀한 자가 천한 자에게 몸을 낮추니 백성을 크게 얻도다(象曰, 雖磐桓, 志行正也, 以貴下賤, 大得民也)

▲수뢰준水雷屯 서례 2

두 번째 서례는 위衛나라의 영공靈公의 운수 서례다. 본부인과 사이에 아들이 없던 위나라 양공襄公의 애첩 주압嫋姶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不具의 아들 맹집孟縶을 낳았을 때, 증

19) 상병화에 따르면 屯은 험난한 까닭에 견고함이고, 比는 친밀한 까닭에 들 수 있다. 또 震은 '수레', '발', '장자'이고 坤은 '말', '어미'를 상징한다. 尙秉和, 『周易古筮考』, 卷三 二.
20) 屯의 괘사에는 '利建侯'라는 구절이 있고, 比의 「대상전」에는 '建萬國, 親諸侯'라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屯과 比는 나라를 세우고 공후가 된다는 점에서 그 뜻이 유사하다.
21) '연합'은 군주가 제후들을 친애해 결속시키는 比괘의 뜻이고, 한결같이 고수하는 것은 준괘 초효의 뜻이다.
22) 畢萬은 周나라 畢公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23) 『春秋左氏傳(上)』「閔公 元年, 221쪽.

서蒸鉏라는 이름의 위나라 호족인 공성자公成子가 꿈을 꾸었는데, 주周나라 2대 성왕成王의 동생으로 위나라의 시조인 강숙康叔이 나타나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일렀다. “원元을 세워라. 내가 네 아들 기羈의 손자인 어圉와 사조史朝의 아들인 사구史苟를 시켜 그를 돕게 하리라.”

그런데 사조도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강숙이 나타나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일렀다. “내가 장차 네 아들 사구와 공증서의 증손자 어에게 명해서 원을 돕게 하리라.” 이런 일이 있은 뒤 주압이 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원元’이라 지었다. 이에 공성자가 『주역』으로 서지筮之하면서 “원元이 위나라를 지배하고 사직을 주관하기를 바라옵니다”라고 아뢰고 준屯괘를 얻었다.

또 “나는 맹집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부디 운수가 좋을 수 있기를 바라 옵니다”라고 아뢰고 준지비屯之比를 얻어 사조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사조는 “원형元亨이라,[24] 또 무엇을 의심하리요!”라고 말했다. 이에 성자가 “원元자는 장자長子 맹집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 사조가 말했다. “강숙께서 원元이라 이름지어주셨으니 이 원元을 장자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맹집은 비인非人이니 장차 종주宗主의 대열에 낄 수 없고 ‘장長’이라 이를 수 없는 데다 그 괘사와 효사가 ‘이건후利建侯’입니다. 자동으로 상속하는 의미의 ‘사嗣’가 길하면 왜 굳이 ‘세운다(建)’고 하겠습니까? ‘건建’은 ‘사嗣’가 아닙니다. 두 괘가 다 ‘이건후利建侯’를 이르니 ‘원元’을 세우십시오. 강숙께서 이를 명하고 두 괘가 그것을 고하고 있습니다. 서筮가 꿈을 이을 때는 무왕께서도 일찍이 이를 쓰셨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어찌 할 것이옵니까?”

결국 공성자는 ‘원元’을 영공靈公으로 세웠다.[25] 이렇듯 준괘 초효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인내심을 지녔다면 대길한 효이다. 사조의 이 점단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원형이정元亨利貞’ 괘사의 글자가 서지자의 이름 자(가령 ‘元’)와 일치할 때 점단에서 우선하는 것은 ‘원형이정’의 뜻보다 사辭의 글자와 일치하는 서지자 이름이라는 점이다.

초구·육삼·구오가 동해 준屯괘가 예豫괘로 변한 ‘준지예屯之豫’의 고대 서례로는 『국어』「진어」에 전하는 서례가 있다. 진晉나라 공자公子가 진나라를 영유하기를 바라면서 친히 서지筮之하여 정貞괘(본괘)로 준屯을, 회悔괘(지괘)로 예豫를 얻었다. 이에 대해 서사筮史들이 점단하여 다 말하기를 “불길합니다. 폐색되고 불통합니다. 효爻는 무위無爲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공계자司空季子는 말하기를 “길합니다. 이것은 『주역』에 있는데 다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고 하였습니다. 진나라를 보유치 못하면 왕실을 보좌하니 어찌 제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나라를 영유하기를 바라면서 서지를 명하니 서괘筮卦가 나에게 고하기를,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로우니 나라의 일을 얻을 것’이라 하니 길함이 이보다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 이 두 괘는 모두 나라를 얻는 괘입니다”라고 하였다.[26] ‘준지예屯之豫’에 대한 사공계자의 이 해석은 왕이나 영수領袖의 운명과 관련된 서지에서 준屯과 예豫의 두 괘가 둘 다 ‘득국得國’ 및 ‘집권’의 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24) ‘元亨’은 준괘의 괘사 ‘元亨利貞’을 가리킨다.
25) 『春秋左氏傳(下)』「昭公 7年, 73-4쪽.
26) 『國語』「晉語」.

이 '득국'을 뜻하는 최근의 비근한 서례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인생운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 원주原州의 재야 역학자 백오白烏가 김정일의 인생운을 서해 준屯괘의 초구와 상육을 얻었다. 두 효가 동한 경우 첫 효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지시한다. 수뢰준 괘가 풍지관 괘로 변했죠. 준지관으로 된 거죠.

이 첫 효의 의미대로 김정일은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는 때라서 즉각 부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 지지기반을 다지며 일단 제자리에 눌러앉기로 굳게 마음먹고(磐桓, 利居貞, 雖磐桓, 志行正也) 김일성 사후 3년을 이른바 삼년상과 '유훈통치' 기간으로 선포했다. 다른 사람들 3년 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부위원하고 그랬어요.

3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통치하겠다. 완전히 유교적인 얘기죠. 공자가 뭐라고 해요. 왜 3년 상을 하냐 제가가 묻죠. 너는 3년 상을 안 하는 게 편하냐? 그렇게 하라. 나가고 나니 저놈은 소인이구나. 공자는 뒷담화를 잘 하니까. 나간 다음에 하죠. 우리가 철이 들어서 말을 하기 전에 삼년간 슬하에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삼년상을 안 하는 것은 소인이다. 3년 상의 의미를 곱씹고 말해줘요. 효를 말할 때도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3년을 아버지 뜻대로 따라주는 것이 효라고 논어에서 하죠. 3년을 아버지 뜻대로 유훈통치를 한 거죠. 상당한 효자죠. 아버지 죽었다고 내가 국방위원장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유교적 풍습대로 해준거예요. 귀한 몸이 백성들과 같은 以貴下賤 몸을 낮추니 크게 백성을 얻으리라.

그는 꼬박 3년 뒤 '불세출의 효자'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무사히 당 총비서직을 승계하였다. 그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권력 세습이 만천하에 조롱당하는 험난한 시기에 처했으나 왕도 세습하기 힘든 마당에 왕도 아닌 사람이 왕처럼 세습하는데 만천하에 조롱당하는 세상에서 끝내 백성을 크게 얻어(以貴下賤, 大得民也) '북한'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득국하는데 성공했죠. 대단히 적중하는 괘죠.

◆5교시 : ䷂ 수뢰준水雷屯 ②

▲ 天風姤(천풍구)와 이순신

이순신의 효에서 다섯 개가 동해서 천풍구 이야기하다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수뢰준괘가 ䷫ 天風姤(천풍구)로 변하죠. 상당히 재수 없는 괘인데요. 천풍구는 엄청난 어지러운 동효(動爻) 난동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 괘가 깨져버렸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준지구로 변했어요. 내용도 개별적인 효사 의미가 계속 나빠져요. 최고로 나빠져요. 준이 깨어져서 박살나서 주둔해 있을 수 없어요.

구괘(姤卦)의 괘사는 이거예요. 女壯 勿用取女 괘사를 보지 말라했는데 비중이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왼쪽을 본괘 바뀐 것을 변괘, 지(之)괘라고 하는데 본래는 체(体)라고 쓰죠. 나중에 용(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커졌다는 의미로 용(用)극(克)체(体)라고 했어요. 지 괘가 본괘를 극했어요. 이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재수가 안 좋게 변했어요. 괘사는 느닷없

이 불리한 상황에 닥친다는 뜻이 있어요. 구(姤)자는요.

여자가 힘 세니 그 여자를 취하지 말아라. 취(取)는 장가갈 취죠. 그 여자를 획득하지 말아라. 남녀관계에서는 이렇고 적과의 관계에서는 적을 뜻해요. 적이 기세가 세니 공격하지 말아라. 재수 없는 괘니까 반드시 공격하게 되요. 가만히 주문해 있지 못하고 강한 적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주둔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되었죠.

원균이라는 장군이 임란(壬亂) 삼공신 중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공신이 원균, 권율, 이순신이 세 번째야. 이순신 장군을 영웅화하다보니까 원균에는 나쁜 짓만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정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자.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들이 역사를 왜곡시킨 대표적인 사례죠.

지난번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원균의 본래 상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부산포를 공격하는 문제예요. 부산포는 왜선들이 엄청나게 집결되어 있어서 최초의 명령이 이순신에게 떨어져요. 이순신은 차일피일 미루고 이순신은 단 한 번이라도 전쟁에서 지면 조선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한 번도 패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23번 싸워서 23번 이겨요. 지면 일본의 기세는 일어나고 조선은 기세가 꺾여서, 유일하게 이기고 있는 것이 해군인데 왕이 공격하라고 명령해요. 차일피일 미루니까 왜적과 내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잡혀갑니다. 처형 직전에 목숨은 건져서 백의종군하죠.

원균은 바보입니까. 수군통제사인데 공격하라고 하죠. 계속 미루다가 너도 이순신처럼 당할래해서 할 수 없이 출전해서 망가지죠. 열두 척의 배가 살아남는데 두 척만 온전하고 나머지는 반파되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가 되었죠. 원균스스로도 작은 섬에 상륙해서 졸병들에게 맞아 죽죠. 비참한 패배를 당하는데.

배후에 부산포를 공격하라는 책략을 내놓은 사람은 유성룡인데 그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를 전라좌수사에 임명한 사람도, 원균을 떼어내고 한 달 만에 이상한 인사를 한사람도 유성룡인데 죽음의 고지로 넣은 사람도 그예요. 역사를 볼 때마다 유성룡이 요사스런 신하다. 별거나 된 것처럼 징비록 하나 써 놓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임란과 관련해서 죄가 많은 사람이다.

황윤길은 유성룡의 반대편 서인으로 올바로 보고 해요. 부사로 따라간 김성일이 거짓보고합니다. 거짓 보고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유성룡이 그 사람을 처벌 안 해요. 그 뒤에는 퇴계가 있었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퇴계학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소설가들이 원균을 바보로 만들어놓고 이순신을 성웅화 하는데. 원균을 바보로 만들 필요가 없죠. 정당하게 평가하고 원균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장렬하게 죽은 거지요.

왕이 미안하니까 원균을 일등하고 이등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선조가 미안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한 줄 괘를 해석했지만 정확한 거다. 본 괘가 주둔하라는 건데 그것이 깨어졌다는 것은 주둔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시도를 해야 되고. 내용은, 적은 기세가 강하니 공격을 하지 말아야하는데 그 뜻을 어겨서 공격을 해야 되는 불행에 빠지는 거

죠. 알고도 지는 경우. 꼭 원균이 모라자거나 비겁자가 아니라 아무리 실력이 좋고 전세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운이 없으면 비참하게 생이 끝날 수 있다.

▲ 수뢰준괘 풀이

六二. 屯如邅如. 乘馬班如. 匪寇婚媾. 女子貞不字 十年乃字.
육이. 나가지 못하네 머뭇거리네. 말을 탔다가 내리네(네 필의 말이 서로 갈라져 끌어 나아가지 못하네). 노략질이 아니라 혼인하려는 것이도다. 그래도 여자가 곧아서 허혼許婚하지 않다가 10년 만에 비로소 허혼하리라.

[邅: 머뭇거릴 전, 돌 전. 班: 서성일 반, 돌아갈 반, 나눌 반, 헤어질(이별할) 반. 寇: 도적 구, 침략할(노략질할) 구. 婚: 혼인할 혼. 媾: 화친할 구, 사랑할 구. 貞: 청혼(유혹)에 동하지 않을 정, 시집가지 않을 정. 字: 허혼할 자]

준괘의 연장선상인데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匪寇婚媾(비구혼구)는 적인 줄 알았는데 혼인자다. 헷갈리는 상황이죠. 女子貞不字는 기본적으로 곧아서 정조를 지키는 거죠. 자(字)는 허혼하다는 뜻이 있어요.

어려운 것은 '승마반여乘馬班如'예요. '승마乘馬'는 대개 '말을 타다'로 풀이하나, 그것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말을 타고 내린다. 말과 갈라진다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틀려요. (말을 탔으나 제자리를 돌며 나아가지 못하다)

『경전석문』은 '승乘'자가 본래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 '천승지국千乘之國', '만승지국萬乘之國'은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가 초현대식 전차가 만 대가 있는 나라 강대국이라는 뜻이다. 지금 명마는 60억 되죠. 240억짜리 전차, 그게 만 대가 있어. 천자나 가능한 것이고, 천승지국해도 엄청 부자죠. 말도 얼룩 잡말은 임금이 타지도 않았고 순수한 색의 말만 썼는데 성질이 좋아야 돼. 네 마리 말을 묶으면 서로 싸워서 엉켜져서 전차말로 쓰지 못하는 거죠. 전차말로 쓰이는 것이 승마예요. 엉키니까. 말도 성질이 고약해서 바깥쪽에 배치한 말을 앞쪽에 배치하면 난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바깥에 배치해서 잘 나가면 바깥에 배치하고 안에는 안에 배치하고. 네 마리 말로 전차를 구성할 수 있는 말은 최고급의 말예요.

그런데 승마가 '반班'은 가를 반, 네 마리가 갈라져서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끌고 하면 못나가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의 경우에는 좋은 말이 아니라 엉성한 말이어서 힘이 갈라져서 못나가는 거예요. 엉켜서 고전에도 영어도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말이 안돼요. 오늘날의 승마라는 뜻으로 승을 쓰지 않았어요. 말과 관련해서는 승거, 승차는 썼지요. 상하를 많이 썼지요. 승마(乘馬), 하마(下馬), 말이 갈라져서 못 나간다. 육이는 그 문제를 떼어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우(友)적(敵)이 헛갈리는 상황이다. 엉기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 친구인지 적인지 몰라요.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별로 좋은 괘는 아니에요. 흉이 안 나와서 그렇지.

六三. 卽鹿无虞 惟入于林中. 君子幾不如舍 往吝.

육삼. 산지기 없이 사슴을 바짝 쫓아 숲 속에 들어가려고 꾀하도다. 군자라면, 포기하는 것만 못하여 그대로 가면 옹색해진다는 것을 낌새로 알아차리리라.

[虞: 산지기 우. 惟: 생각할 유, 꾀할(도모할) 유, 오직 유. 幾: 기미(낌새·조짐) 기, 거의(가까울) 기, 위태로울 기, (위험·기미를) 살필 기, 바랄 기. 舍: 집(여관) 사, 버릴(놓을) 사, 그만둘(폐할) 사, 쉴 사]

'즉녹무우卽鹿无虞 사슴을 바짝 좇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산지기 없이 들어가다. 虞는 산을 살피는 사람 관직에서 나오는 말인데 나중에 산을 잘 아는 사람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惟)는 오로지 혼자 들어가는 거죠. 숲속 안쪽에 들어가 빠지는 거죠. 우(于)는 가운데로 퐁당 빠지는 거예요.

숲속에서 길을 잃어본다는 사실 경험이 없죠. 길을 잃어 봐야하는데. 우리나라 숲은 산중에 있는 숲인데 유럽에 알프스 산밖에 없는데 대체로 평탄한데 산이 있어요. 독일에 꿀들이 많이 나요. 브뢰멘에 갔다가 숲에 들어가서 길을 잃었어요. 한참가도 안 나오고 한참가도 안 나와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 한 방향으로 갔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서 택시타고 온 적이 있는데 동서남북을 못 가려. 이리저리 구부려져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분간도 못해요. 작은 산 올라가도 못 찾아갈 거예요.

촌에서 자란 사람은 강남에 떨어뜨려놓으면 못 찾아요.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진짜 문제는 군자가 아닌 사람이 삼효(三爻)를 받으면 엄청 헤매요. 군자는 낌새를 알고 안 나가서 괜찮은데 일반인은 가다가 옹색해져서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창피한 일을 당하고 체면깎이는 일을 당한다. 뜻은 그런 뜻인데 해석은 어려운데 뜻은 그래요. 군자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모면할 뿐이에요. 완전히 본전치기도 못하죠.

六四. 乘馬班如. 求婚媾 往吉 无不利.

육사. 말을 탔다가 내리네. 혼인할 짝을 구하러 가면 길하고 불리할 것이 없으리라.

수뢰준괘에서 초효(初爻)가 제일 좋고 조금 나은 게 육사(六四)예요. 말이 갈려서 못가고 있는데 동맹자를 구하는 거예요. 고대에 결혼은 정치적인 의미인데 혼인동맹이죠. 일반적인 의미로는 나의 동맹자, 나의 친구를 찾아서 가거나 할 때 이 효를 받으면 좋아요. 그 사람을 받아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정치적으로 하자고 설득해야하는데 이 괘를 받았다. 설득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일을 크게 성사시키고 사람을 만나는데 이 효는 좋다.

九五. 屯其膏. 小貞吉 大貞凶.

구오. 은택을 베풀기 어렵도다(은택을 베푸는 데 인색하도다). 작은 일은 바르면 길하나 큰 일은 바르더라도 흉하리라.

[屯: 어려울 준, 인색할 준. 膏: 은택(은혜) 고, 기름(진 고기) 고]

이 효는 목표한 양의 1/10만 얻어요. 백을 예정했으면 10개를 얻어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분당한 노무현이 90석을 목표로 선거했는데 9석 얻었어요. 선거치르기 전에 괘를 얻었죠. 한 자리 숫자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작은 일은 잘되는데. 서례에서 '작은 일'은 집안의 소소한 일과 관련해 이 효를 얻으면 길하다는 뜻이고 바깥의 대사에서 이 효를 얻으면 풀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上六. 乘馬班如. 泣血漣如.

상육. 말을 탔다가 내리네. 피눈물을 줄줄 쏟으며 우네.

[泣: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며 울 연. 漣: 눈물이 줄줄 흐를 연. 顚: 엎어질(넘어질) 전, 머리(이마, 꼭대기) 전. 沛: 넘어질(자빠질) 패, 늪 패, 성할 패]

김정일 위원장의 94년 이후의 인생운이 초효(初爻)를 얻고 상효(上爻)를 얻었죠. 권력의 마지막 정점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말이 엉키니까. 그것으로 많이 가슴속 깊이 슬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승마반여乘馬班如를 낙마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말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야. 전차 말이 흐트러지는 거니까. 나라를 가진 사람이라면 혼란스러워서 말이 못나가듯이 국가도 전진하지 못하고 통치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뽑아줄 때 괘가 나쁘면 주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원망 받아요. 나쁠 때는 모르겠다고 하고 관찰만 하세요. 다 끝난 다음에 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차마 못 줬다. 하면 안 혼나는데 그런데 마치 괘를 뽑아서 나쁜 것을 예고 한 것 때문에 나빠진 것처럼 한다고. 괘를 줬는데 해석을 안 해줬어.

마지막 서례를 보면, 2003년 5월 초 모 교수의 인생운을 서하여 이 상효를 얻었다. 그는 아닌 게 아니라 정년을 3년 앞두고 2006년 총장 선거에서 '승마乘馬', 즉 출마했는데 개표 결과 네 명 중 꼴등했어요. 사효가 나왔으니까 피눈물을 흘릴 만큼 꼴등을 해야죠. 4명중에 두명만 뽑아서 올리는데 컷오프에서 아웃됐다. 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만했다. 무력하고 허탈하게 교수생활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직선된 두 총장 후보들을 무시하고 외부 영입인사를 총장에 임명했다. 총장 선거 자체가 의미 없게 되었지요. 선거 3개월 뒤에 선거의 당락 결과가 완전히 무의미해진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그 교수는 마음을 정리하였다.

김정일과 관련된 것은 끝을 비참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피눈물 흘린 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월간조선은 다른 점장이랑 합쳐져서 큰일 날 것처럼 해놨더니. 교수의 경우를 보세요. 행복해요. 총장 안 나가길 잘 되었다고. 총장 직선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일단들이 총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했어요. 두 사람이 탈락하고 두 사람이 추천을 해서 올리는 거니까 이사회에 올리지 말고 총장추천위에 올려라. 총추위를 무시하고 선거를 했거든요. 총추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사회는 지지하고 대립된 국면에서 당선된 1,2등이 여기다가 낸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낸 거예요. 다시 4명이 붙었는데 물론 당연히 이사회에서

민 사람이 되었어요. 40명 에 추천이 안 되었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영향을 미치기 쉽잖아요. 공식적인 측에서. 결국 두 사람은 총추위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총추위를 부정하는 입장인데 교수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그것이 총장 직선제의 최후가 된 거예요. 총추위가 살아났으니까. 제도가 된 거예요. 직선제의 폐지에 가담한 교수가 된 거예요. 차라리 3,4등 한 교수들은 거기에 기여하지 않은 거죠.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제 11강 : 산수몽山水蒙 과 지수사地水師

◆1교시 : ䷃ 산수몽山水蒙

▲ 강의 계획

종강이 되겠습니다. 8강에 64괘를 다 할 수 없고 칠판에 써 놓은 네 개의 주요한 괘를 다루려고 합니다. **몽괘(蒙卦)**는 어리다는 뜻, 어리면 어리석지요. 어리석으면 배워야하고 교육의 의미도 있다. 도산서원은 대단히 높은 학문을 하는 사학인데 조선시대 사립대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딸린 있는 서당이 있었고 서당 앞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이름이 몽(蒙)이야. 안 좋은 뜻으로 어둡다. 전망을 물었는데 몽을 얻으면 암담합니다. 그 안에서 효를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 뜻은 차별적으로 진행된다.

7번째는 지수사괘인데 군대라는 뜻도 되고 많은 사람, 무리 중(衆)의 뜻도 있어요. 조직된 무리야. 조직되지 않은 지지되지 않은 사람은 동인 괘로 공적인 모인 사람은 동인이고, 똑같이 무리 중이라도 조직된 것은 사(師)고. 두 개다 공적인 목적으로 모인 겁니다.

8번째는 동인괘(同人卦)와 친한 괘인데 지지자와 친밀한 관계인데 공적이지 않고 사사롭게 친한 겁니다. 은밀하게 친하고 비괘(比卦)는요. 앞에 것은 공적이고 공개적이죠. 비괘는 친애, 은밀한 친근감, 드러나면 별로 안 좋은. 드러나도 한 사람만 좋은데 임금과 친애하는 모습, 백성과 친애하며 악수하며 두들겨주는 모습은 좋죠. 인구가 삼천만하고 악수할 수 없지만 상징적으로 악수해서 계속 보여줘서 전 국민과 한 식구처럼 같은 이미지를 박정희 대통령 농사꾼들하고 똑같이 농번기 때 벼 몇 포기 꽂고 막걸리 먹는 거 대한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은 공개되더라고 좋은 거예요. 오효에는 친애함을 드러내도다. 한 번의 행위로 만백성에게 가까운 친근감을 보여줄 수 있어도 좋고. 그런데 사사로운 사람이 받으면 나빠요. 관공서에 동창관계나 친척관계로 부탁했는데 그 친근함이 드러나면 안 되죠. 폭로되면 될 일도 안 된다. 누가 받느냐에 따라 좋고 나쁘고가 갈리고.

승괘(升卦)는 64괘 중에서 가장 좋은 괘입니다. 괘는 어떤 효를 받든 동효를 받든 모조리 좋아요. 여섯 효가 좋은 경우는 승괘 하나밖에 없고 다만 여섯 번째 효는 한시적인 것들에

의해 받으면 안 좋아요. 불멸의 것, 종교적, 학문적, 예술적, 무한한 일과 관련해서 받으면 좋다. 이것만 조건부고 승괘는 모조리 다 좋아요. 세 번째 괘가 좋은데 끝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 효마다 특징은 있지만 따져보겠습니다.

▲ ☶☵ 산수몽山水蒙

네 번째 몽괘를 보시면, 산수몽은 모양으로는 산 아래 물이 흐르는 괘입니다. 산 아래 물이 나오는 의미를 공자는 풀어서 군자가 과감하게 덕을 육성한다는 뜻으로 교육의 뜻으로 풀었어요. 괘사(卦辭)는 몽괘가 동효(動爻)없이 나온 경우 내용은 복잡하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괘의, 어리다 어리석다. 몽매, 이런 뜻으로 해야되고 이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蒙. 亨.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初筮告 再三瀆 瀆則不告. 利貞.

어리석음(몽매)과 어둠의 상象이로다. 형통하리라. 내가 아이처럼 어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아이처럼 어린 것이 나를 찾는 것이도다. 초서初筮는 고해주나 재서再筮 삼서三筮는 모독하는 것이니 모독하면 고해주지 않으리로다. 곧으면 이로우리라.

初六. 發蒙. 利用刑人. 用說桎梏 以往吝.

어리석음을 깨치게 하도다. 사람을 벌주는 것이 이로우리라. 족쇄와 수갑을 벗긴 채 그대로 가면 어려워지리라.

九二. 包蒙吉 納婦吉 子克家.

어리석음을 감싸안으니 길하고 여인네들을 받아들이니 길하여 아들이 집을 잘 다스리리라.

六三. 勿用取女. 見金夫 不有躬. 无攸利.

여자를 취하지 말라. 힘있고 돈 많은 사내를 보면 몸을 가만두지 못하는 계집이니라. 이로울 바가 없으리라.

六四. 困蒙 吝.

곤혹스레 어리석으니 옹색하도다(부끄럽도다).

六五. 童蒙 吉.

아이처럼 어리니 길하도다.

上九. 擊蒙. 不利爲寇 利禦寇.

어리석은 자를 때리는 상이로다. 노략질을 하는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노략질을 막는 것이 이로우리라.

蒙. 亨.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初筮告 再三瀆 瀆則不告. 利貞.
어리석음(몽매)과 어둠의 상象이로다. 형통하리라. 내가 아이처럼 어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아이처럼 어린 것이 나를 찾는 것이도다. 초서初筮는 고해주나 재서再筮 삼서三筮는 모독하는 것이니 모독하면 고해주지 않으리로다. 곧으면 이로우리라.

[蒙: 어린 상태. 穉: 어릴 치(=稚). 冥: 어두울 명. 褻: 더럽힐 설, 무례하게 굴 설]

모든 괘는 한 번 뽑아야 해요. 예기에서 주석을 가한 사람은 서(筮)를 물어보는 뜻으로 했

어요. 처음에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데, 두 번, 세 번 물으면 스승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서점해서 써먹지 못 해요. 괘사가 전혀 맞지 않아요. 무시해야 한다. 어떤 의미를 살려야 하느냐. 어떤 일을 물어서 몽 괘를 나왔다면 그 일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괘의를 판단해야 한다. 어떤 사람인가를 물었더니 참 어린 사람예요. 어른한테 어린이처럼 어리석은 자야. 그때는 어리석다는 것으로 해석해야죠.

初六. 發蒙. 利用刑人. 用說桎梏 以往吝.

초육. 어리석음을 깨치게 하도다. 사람을 벌주는 것이 이로우리라. 족쇄와 수갑을 벗긴 채 그대로 가면 어려워지리라.

[用: 할 용. 刑: 형벌 형, 벌줄 형, 제어할(바로잡을) 형, 본받을 형. 說: 벗길 탈(=脫). 桎: 족쇄 질. 梏: 수갑 곡]

이 효는 어떤 일들을 물었을 때 상대가 어리석은 경우 일정한 규율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묻는 때는, 강한 자기 규율을 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 옹색해지고 부끄러워질 수 있다. 논란을 일으키는 효가 아니고요.

九二. 包蒙吉 納婦吉 子克家.

구이. 어리석음을 감싸안으니 길하고 여인네들을 받아들이니 길하여 아들이 집을 잘 다스리리라.

[納: 장가들 납, 婦: 지어미(아내) 부, 여자 부, 며느리 부. 克: 잘 다스릴 극, 이룰 극]

구이(九二)는 육오(六五)와 정응正應이에요. 음양으로. 구이는 어린 수장의 스승이 되는 현신입니다. 사부죠. 실제로 벼슬이 있는 包蒙은 어린 임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납부길納婦吉은 자기보다 손아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길하고 받아들이면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과 결혼한 이가 집을 잘 다스려서 나이든 사람에게 봉양한다. 자기가 장관으로 발탁이 될까요. 물었더니 이괘가 나왔다. 包蒙吉일까 納婦吉일까요?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納婦吉자기가 발탁된다는 것이고 발탁되어서 일을 잘할 것이다. 그런데 아주 나이 먹은 가령 임금보다 대통령보다 나이 많은 원로가 자기를 받아 들일까의 여부로 이 효를 받았다면 包蒙吉에 해당되겠죠. 경우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 뒤집히는 경우는 잘 안돼요.

인사, 스카우트 등의 문제에서 서지자가 성인, 남성 또는 윗사람이면 이 효는 아주 길하다. 또 서례에서 '납부納婦'의 '부婦'는 꼭 지어미, 아내, 며느리, 부인, 여성만이 아니고 남편, 새 인사人士, 남자친구, 찾는 사람, 부하직원, 노약자, 유柔한 상사일 수도 있다. 서례에서 이 효를 얻으면 대개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가령 미아를 찾아 나선 사람은 아이를 곧 찾게 되고, 독신자는 부자와 재혼해 잘 살게 된다. 참모 발탁, 회사의 채용, 스카우트 등 윗사람이 아랫사람(또는 어린 사람)을 얻거나 아랫사람(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얻는 인사 문제에서도 이 효를 얻으면 아주 길하다. 그러나 영입될 사람이 인사권자보다 연령상 또는 과거의 신분상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인사가 꼬인다. 영

입될 사람의 거절로 이 인사는 좌절되기 십상이다.

그 사람이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데 지위도 낮으면서 지위는 들어갈 사람이 높고 벼슬도 높았던 사람이면 꼬이게 돼요.

六三. 勿用取女. 見金夫 不有躬. 无攸利.
육삼. 여자를 취하지 말라. 힘있고 돈 많은 사내를 보면 몸을 가만두지 못하는 계집이니라. 이로울 바가 없으리라.

[用: (시행)할 용. 取: 얻을 취, 장가들(아내로 맞을) 취(=娶)]

이 경우는 여자가 나타나요. 여자를 취하면 안 되는데 취하게 될까요? 안될까요. 공적인 일에서. 그래서 유리하지 않게 된다. 개인적인 일이면 자기가 결심하면 되는데 자기가 결심안해도 의결한 대로 진행되어서 취하게 돼요. 물용을 못 지켜. 칼자루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경우 결정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진다. 뼈저린 서례인데 각자 읽어보세요.

六四. 困蒙 吝.
육사. 곤혹스레 어리석으니 옹색하도다(부끄럽도다).

육삼만큼 나쁘지 않지만 고생해요. 흉(凶)까지는 가지는 않아도 옹색하게 끝나요. 육사는 뜻이 어렵지 않아요.

六五. 童蒙 吉.
육오. 아이처럼 어리니 길하도다.

[呆: 어리석을 매(태)]

왜 아이처럼 어린데 길할까요. 실지로 어린 사람의 경우 아이처럼 어리게 처신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 길하다죠. 이 괘를 어린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이 받으면 좋지 않다. 육오는 나이 적은 높은 지위자는 현명한 신하, 현명한 나이든 참모를 필요로 하고 얻으면 성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끝난다.

따라서 이 효는 부모와 스승을 잘 따르는 귀한 어린 아이와 모범적인 청소년, 노숙한 참모와 측근들에 의존하는 어린 임금과 젊은 대통령, 남편이나 아들의 도움을 구하는 여자 자산가나 홀어머니(여자 가장), 여자 사장이나 여자 대통령, 자기 아래 고참과 베테랑 참모들의 지혜와 자문을 경청하고 이에 의존하여 일을 처리하는 젊은 상사나 사장(회장) 및 대표, 강중剛中한 제1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의 작은 여당, 노약한(늙어서 어리석은) 아비나 군주(수장) 등이 받으면 길하다.

그러나 성인남자, 대인, 군자, 노인, 고참(씨니어), 베테랑, 임금(대통령), 여당 등이 이 효를 받

으면 웃어른이 '아이처럼 어린'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이 되므로 '어리석은 것', '치매癡呆 든 것', '정신병에 걸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이 받으면 매우 불길하다. 가령 웃어른이나 여당이 '동몽童蒙'의 효를 받으면 치매 든 사람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어리석은 결정과 어처구니없는 큰 실수를 연발해 사업, 회사운영, 국정운영 등을 망치게 된다. 또는 실제로 정신병에 걸려 미치광이가 되거나 망령들게 된다. 또 좁쌀영감 같은 어린이, 되바라진 어린이, 비행청소년, 남자를 깔고 뭉개는 여자, 하극상을 일삼는 부하나 후배, 반역자, 범법자, 당파싸움만 일삼는 야당 등이 받아도 흉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참모로 두었더라면 국정운영에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만약 이 괘 위주로 생각한다면.

上九. 擊蒙. 不利爲寇 利禦寇.
상구. 어리석은 자를 때리는 상이로다. 노략질을 하는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노략질을 막는 것이 이로우리라.

간단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대 패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 패면 어떻게 되죠. 고발당할뿐더러 교육효과가 없죠. 반발심을 사서요. 불리해지죠.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분풀이를 하는 것은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노략질은 공부안하고 방해하는 오랑캐 같은 것을 제지하는 것은 좋은데 넘어가면 좋지 않다. 실제 오랑캐 짓을 하지 못하게 제압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가 오랑캐 짓을 하면 옳지 않다. 오랑캐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랑캐 짓을 막는 것이 이롭다. 해석만 가지고는 깊은 뜻을 못 느끼죠.

사람 영입이나 공천, 헤드헌팅, 스카우트를 서해 이 상효를 얻으면 서지자筮之者가 관계자의 몽매를 깨우쳐 일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또 대통령 재직 1년차 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완료 여부를 서해 이 상구를 얻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격몽' 차원의 탄핵소추를 당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강過剛을 자제하고 대통령의 그간 행적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강력히 경고함과 동시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집행유예' 성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치몽의 도道'를 넘지 않는 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격몽'했다.

노 대통령의 임기 완료 여부를 서한 이 서괘筮卦는 상구만 동한 몽지사蒙之師 괘다. 변괘 사師괘는 본괘 사괘와 달리 지휘권을 유지하거나 발휘한다. 이 때문에 이 경우의 상구는 '치몽'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격몽', 즉 '계몽'이라는 좋은 교육적 효과만 나타낸 것이다. 변괘가 좋은 경우는 반길반흉反吉反凶인 몽 괘 상구도 길한 효가 되는 반면, 변괘가 좋지 않으면 상구는 흉효로 해석되어야 한다.

좋은 변괘는 건乾, 사師, 태泰, 동인同人, 대유大有, 익益, 함咸, 진晉, 췌萃, 승升, 중부中孚, 기제旣濟 등이고, 좋지 않은 변괘는 준屯, 감坎, 송訟, 소축小畜, 비否, 대과大過, 고蠱, 서합噬嗑, 명이明夷, 둔遯, 규睽, 건蹇, 환渙, 소과小過, 미제未濟 등이다.

예를 들어 감괘로 변한 경우가 있는데 몽지감으로 변했어요. ䷃ -> ䷜ 감괘(坎卦)로 변했죠. 일년 운세로 나왔어요. 나이어린 박사니까 동몽(童蒙)길(吉)은 좋죠. 감으로 바뀌었으나 상효는 반길(吉) 반흉(凶)이니까 감은 안 좋으니까 흉으로 해석해야 돼. 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동몽길로 객원교수로 되었어. 잘리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거의 중복되게. 객원교수로 되면서 얽히면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연구소와 학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맞고 얻어터지고 하나는 좋게 끝났어요.

변괘가 안 좋은 흉괘일 때 동했을 경우 안 좋게 해석해야 한다. 하나만 변하면 지수사괘로 변하죠. 나름대로 변 괘의 경우 좋아요. 리더십을 장악해요. 본 괘 4괘는 고충이 많은데 변 괘의 경우 조직된 리더십을 장악하게 된다. 몽 괘는 하나만 동하면 좋아요. 한 대 얻어맞고 말아요. 노무현은 한 대 얻어맞고 자기 리더십은 장악했죠. 감(坎)이나 안 좋은 괘로 변한 경우는 흉할 수도 길할 수도 있는 격몽의 뜻은 흉하게 해석해야 한다. 상구가 어려운 효입니다.

동효가 하나 일 때는 변 괘를 고려하지 않는데 애매한 경우는 변 괘에서 어느 쪽인가 가늠해봐야 합니다. 다 쓸 수 없잖아요. 이 책만 냈더니 출판사 사장이 괘 뽑는 법을 안 쓰면 책 안 팔린다고 해서 2주 동안 쓴 겁니다. 간략하게요.

상구가 자주 나오는데 해석 때문에 적중도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지(之)괘가 좋으면 상구를 좋게 해석해야 되고 나쁘면 나쁘게 해석해야 한다. 물론 지 괘를 보면 안돼요. 지 괘는 본 괘를 해석하는 데만 참조해야 하는데 이리로 빠지지 않아요. 두 개가 동했지만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직장은 잃었지만 지위는 훨씬 높아졌으니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죠.

◆2교시 ䷆ 지수사地水師 ①

▲ 지수사地水師

제 7괘 지수사괘는 대중이라는 뜻, 군대, 장수, 지도자의 괘입니다. 사괘는 괘사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전체를 개괄할 수 있어요.

師. 貞丈人吉 无咎.

조직된 무리의 상이로다. 바르면 노장은 길하고 또 허물도 없으리라.

初六. 師出以律. 否臧 凶.

군대는 군율로써 출동하는 것이로다. 순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흉하리라.

九二. 在師中 吉. 无咎. 王三錫命.

무리 한가운데 들어 있으니 길하리라. 또 무탈하리라. 왕이 세 번 명을 내리도다.

六三. 師或輿尸 凶.

군대가 혹시 신주를 싣고 출전하면 흉하리라.

六四. 師左次 无咎.

군대를 숙영지로 물리면 무탈하리라.

六五. 田有禽. 利執言 无咎. 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

밭에 짐승이 있도다. 서언誓言을 행하니 이롭고 탈이 없으리라. 장자는 군사를 잘 이끌었도다. 그러나 아우들은 신주를 싣고 출전하여 그대로 고집하니 흉하리라.

上六. 大君有命 開國承家. 小人勿用.

대군이 명을 내려 개국승가를 하는 상이로다. 소인은 쓰지 말라.

師. 貞丈人吉 无咎.

조직된 무리의 상이로다. 바르면 노장은 길하고 또 허물도 없으리라.

노장이 아닌 경우는, 50세 이상 되는 지도자를 노장이라 하죠. 50세 이상이 안 되면 허물도 있고 길하지도 않아요. 50세 이상도 아니고 지도자가 아닌 경우도 불길하고 허물이 있어요. 일반인이 받으면 안 좋아요. 엄격한 조건에 맞추면 좋을 수 없어요. 단순한 장인이라고 해서 베테랑이면 장인인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빠. 대단히 까다로운 괘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리더를 해야 할 경우는 탈만 없어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5천만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무사히 임기만 마쳐도 엄청난 위업을 달성하는 건데 쉽지 않죠. 우리나라 대통령 한명도 칭찬받고 끝난 경우 없지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는 이끄는 문제도 장수들 옛날 조선시대든 이전이든 목숨부지하기 힘들었죠. 고구려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출세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역적으로 몰려 죽죠. 이순신 장군은 거룩하게 싸웠지만 역적으로 몰려 백의종군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내놔야 되었죠.

까다로운 괘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동효(動爻)없이 받으면 고충이 많다. 고민이 많아요. 살길은 자를 것은 자르고 과감하게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안 좋다. 대체로 본괘 로 사괘(師卦)가 나오면 좋지 않다.

임금은 대체로 다섯 번째 자리에 있는데 임금이 두 번 있는 경우도 있죠. 건괘 경우 비룡재천, 황룡이 있고, 폭군 주에 해당되는 임금이 있고 오효는 비룡인 무왕의 지위가 있고 명인 괘도 제일 위에 있는데 주왕이야. 다섯째는 기자가 있고 명인 괘는 했어요. 이 괘는 임금이 여기 있어요.

上六. 大君有命 開國承家. 小人勿用.

상육. 대군이 명을 내려 개국승가를 하는 상이로다. 소인은 쓰지 말라.

전쟁 상황을 가정하면 임금이 의주에 피난해 있거나 하는 거예요. 군 통수권은 이효(二爻)

에 있어요. 하 괘가 움직이는 군대라면 중군에 있어야 하니까. 장수는 전쟁의 상황을 잘 알죠. 전권이 이임되면 오해를 많이 사요. 전쟁의 통수권을 이용해서 나를 치지 않을까 후방의 임금은 의심하는 거죠. 승전을 할 때마다 만백성의 연호가 지지가 장수에게 모여요. 더욱더 역적모의를 할까 전전긍긍하게 되고, 선조와 이순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갈등에 빠졌을 때, 군대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在師中 吉. 无咎

九二. 在師中 吉. 无咎. 王三錫命.
구이. 무리 한가운데 들어 있으니 길하리라. 또 무탈하리라. 왕이 세 번 명을 내리도다.

이런 경우에 처해있다면 장군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60만 대군의 통수권을 지고 전쟁의 수행할 전권을 받았어요. 일선상황을 모르고 자꾸 간섭해. 후방의 대통령은 자꾸 간섭하게 되면 갈등은 증폭돼요. 갈등은 역사상 없어진지 없었다. 매양 충돌이 벌어져서 대충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냐면 이 장군이 비참하게 끝나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역적으로 몰려 처형, 삭탈관직해서 재야 촌부로 전락해서 소리 없이 사라지던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저항하다가 야전군 총사령관의 지위를 맥아더는 잘렸어요. 하원에서 연설할 기회를 하나 주고 뭉갰어요. 그때 연설문에서 미국 졸병들의 노래 군가를 한 구절을 인용해서 노병은 죽지 않고 희미해져서 사라질 뿐이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미군가의 소절을 인용한 거예요. 육군 일등병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능멸하고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이 부르니까 대통령한테 전쟁 중이라 안 간다고 해서 태평양한가운데 하와이 근처에 있는 열사의 모래가 있는 그 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섬에서 만나요. 미국에 안 들어가려고. 결국은 삼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 있는 핵으로 만주를 공격하라고 했죠. 거기서 위험분자로 처형하는데 고졸이었던 트루먼은 맥아더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위험한 놈으로 가장 불명예스런 아웃을 시키죠.

많은 장군들은 역적으로 몰려죽었죠.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스스로 와서 왕까지 돼버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군대를 회군, 탕왕은 오랑캐를 정벌할 정벌권을 받아서 오랑캐를 정벌하면서 돌아오면서 쳐요. 이성계는 전권을 받고 싸우지 않고 회군해서 치죠. 국가존망의 상황을 정쟁에 이용해 먹냐. 이성계 세력의 군부를 명나라를 치게 해서 이기든 지든 좋은 거예요. 지면 지는 대로 와해되고 지면 복종하면 돼. 명나라를 상전으로 모시면 되고 이성계 세력은 소거시킬 수 있죠. 이기면 좋고 완전히 정쟁의 일환으로 명나라로 치러 가죠. 이성계는 간파하죠.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가도 죽고 머물러 있어도 명령위반이야.

막후의 휘장들을 그 사이에 죽으로 가는 목숨이라고 설득해서 돌아와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 자기가 임금이 되죠.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이젠하워는 맥아더 케이스를 보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그때는 전쟁영웅이 최고죠.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니까 임기가 다해서 루즈벨트가 출마하면 되니까 갈등이 없었죠.

이순신도 민주주의 시대였으면 대통령으로 되었을 거예요. 이순신은 회군도 하지 않고 회군은 혁명이든 반역이든 기존의 법률을 위반하는 거죠. 그렇다고 스스로 역적으로 몰려서 죽지도 않아요. 왜적한테 일부러 죽어. 재사중在師中이니까 중군에 있어요. 총사령관은. 대장선이 최전방으로 나가면서 노량해전에서 전방에 나가 전쟁을 천천히 해야 되는 게 독점고를 쳐. 자기 운명은 [redacted]명인明夷괘의 삼효(三爻)가 그 사람의 운명인데 不可疾 貞 질주하듯이 바르게 하지 말라. 천천히 전쟁하라는 것인데 거꾸로 적용해서 적의 탄환을 맞고 죽죠. 죽음으로써 역적으로 몰리는 것으로 피했고 반역을 하려는 유혹도 벗어났죠. 성웅이 될 수 있었죠. 어느 쪽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 시대였으면 자기를 장렬히 죽여야 되는 그럴 필요는 없었다.

비슷한 장군이 아테네의 이순신 테미스토클로스 2차 페르시아 전쟁을 해전을 승리로 이끈 해군의 총지휘였어요. 좌우명이나 이순신의 좌우명이 같다. 바다를 건너서 오는 적은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초토화시키고 때려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륙한 자는 백성에게 손해죠. 상륙하기 전에 목선을 지어야 된다고 했죠. wooden wall 나무 방벽을 넣고 신탁이 뭐냐고 논쟁하고 테미스토클로스는 나무로 만든 배다. 배로 해서 논쟁에서 정쟁에서 이겨서 급조를 합니다. 그 해군의 좌우명은 바다를 건너오는 페르시아 군대는 바다에서 물리쳐야 한다.

그런데 이겨서 영웅이 되는데 최후는 이순신보다 훨씬 비참하게 끝나요. 이순신도 정쟁에 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정쟁에 져서 패각추방 돼요. 위험한 놈으로 몰려서 조개껍질에 위험한 놈 쓰라고 해서 많이 받은 놈이라고 해서 추방되어요. 페르시아와 내통했다고 이순신과 몰린 것도 부산포를 공격하라니까 공격을 않고 미적대고 지지 않은 전쟁을 안 하려니까 일본하고 내통했다고 몰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로 압송되는 거예요. 똑같이 몰려요. 결국은 자기의 적국인 페르시아 왕이 내준 비호권 안에서 여생을 마쳐요.

끝이 이순신보다 치욕적으로 변했죠. 적의 품에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으니까요.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적을 죽이고 싸우다가 적탄에 죽는 것이 본래 모습 아니에요. 싸우다 죽으니까 선조도 파묻지 못했어요. 할 수 없이 임란 삼공신중 한 사람으로 삼등으로 집어넣어 줬죠. 1, 2 등은 권율하고 원균이고 지금 역사는 거꾸로 이순신이 1등이고 원균은 역적으로 모는데 그것도 옳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사괘(師卦)안에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사괘는 많은 철학과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초효로 넘어가면,

初六. 師出以律. 否臧 凶.

초육. 군대는 군율로써 출동하는 것이로다. 순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흉하리라.

[否: 악할 비, 막힐 비, 아닐 부. 逆: 거스를 역, 거꾸로(반대로, 역으로) 역. 臧: 순종할 장, 착할(훌륭할) 장, 성공할 장, 거둘 장, 숨길 장, 竭: 다할(바닥날) 갈, 마를 갈. 夭: 일찍 죽을 요, 어릴 요, 한창일(왕성할) 요]

아주 복잡한 논쟁이 계재되어 있는데 운명으로 받으면 안 좋아요. 흉으로 끝나는 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방도를 물었을 때는 순리대로 행하면 흉하지는 않아요.

九二. 在師中 吉. 无咎. 王三錫命.
구이. 무리 한가운데 들어 있으니 길하리라. 또 무탈하리라. 왕이 세 번 명을 내리도다.
[錫: 아래가 위에 바칠 석, 위에서 아래에 하사할 석, 주석 석]

'길해야 무탈하다'.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구이(九二)는 너무 좋은 효라서 끊어놨어요. 길하리라 무탈하리라. 길해야 무탈해야 된다는 것은 재수가 아주 좋아야 탈이 없다는 것이니까 보통이면 탈이 생기는 거죠. '왕삼석명王三錫命'의 '석錫'자는 '줄 석'이자 동시에 '받을 석'이기도 하다. 경우도 받는 경우, 주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가 왕이면 세 번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겠죠. 구이(九二) 육이(六二)는 집안을 뜻하는 것이므로 '왕삼석명王三錫命'은 '집안에서 왕이 셋이 나온다는 뜻으로 풀 수도 있고 세 번 명을 받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또 이 효의 '길吉 무구无咎'는 괘사의 '길무구吉无咎(길해야 무탈하리라)'와 달리 '길하고 또 무탈하리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구이는 이 괘 전체를 주도하는 강중剛中한 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지자가 베테랑이 아니고 초보자라면 '길하면 무사하다'로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보자(첫 출마자, 입시생, 첫 번째 응시하는 고시생 등)에게 이 효는 재수 없으면 탈이 나는 좋지 않은 효다.

2008년 총선 관련 서례에서 처음 총선공천에 지원한 두 사람이 제각기 서해 구이를 얻었는데 둘 다 공천 문제에서 초보자인 까닭에 둘 다 보기 좋게 낙천落薦당하고 말았다. 백오白烏라는 한 재야 역학자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운세를 서해 이 효를 얻은 적이 있다. '사중師中'의 '중中'자는 '김대중金大中'의 '중中'자와 겹치니 더욱 길하다.

이 경우는 길해야 무탈하다고 하면 안 되고 길하고 무탈하다. 탈도 없을 것이라는 암살위험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도 당선되고 암살도 안 될 것이다. 세밀하게 넘어가면요.

DJ는 서지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5년 뒤 그 휘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다. 앞으로 DJ 휘하 인맥에 속한 정치인들 가운데 한 명이 더 대통령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DJ를 빼고 해석하면 노무현 외에 두 명이 더 대통령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왕삼석명王三錫'왕이 세 번 명을 내린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왕 셋이 천명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세 명에 김대중을 빼면 네 명이고 포함하면 세 명이다.

다른 서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의 성북을 보궐선거를 서한 경우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당선 여부를 물어 이 구이를 얻었는데,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인제, 장기표, 홍사덕, 심지어 뉴라이트 세력 등)의 초당적 지원으로 조순형 전 대표가 낙승樂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파를 초월한 지원운동이 일어난 것은 그야말로 아무

도 예상치 못한 일, 말하자면 천운이었다.

단순한 사람이 받았는데 정당의 중견간부인데 세 번을 계속 명을 받는 거예요. 선관위원, 인사 발령 세 번 등등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다 승진이었어요.

◆3교시 : ☷☵ 지수사地水師 ②

▲지수사地水師

六三. 師或輿尸 凶.
육삼. 군대가 혹시 신주를 싣고 출전하면 흉하리라.

아버지나 상사가 난 경우 삼년상을 치러야죠. 마치기도 전에 출전을 해서 골치 아프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 전차에 신주를 싣고 가는 거죠. 예법에 어긋나는 거죠. 민심을 잃을 수 있다. 전쟁은 패배로 끝나요. 무왕이 삼년이 안 되어 탈상전에 신주를 싣고 나무 신주를 싣고 출전하죠. 맹진孟津까지 이르렀죠. 백이숙제가 나타나 어떻게 신하로 왕을 치며 아버지가 탈상도 안했는데 전쟁을 일으키냐 한탄을 하자 그것을 보고 강태공이 돌아가자고 회군하죠. 맹진에서 회군하고 삼년상이 치러 진 다음해 주왕을 치는 기병을 하죠. 그때는 이기게 되는데 흉하니까 돌아간 거죠. 그 경우를 말한 것이죠. 백이숙제가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군대가 신주를 싣고 출전하면 흉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육사가 답이 나오죠.

六四. 師左次 无咎.
육사. 군대를 숙영지로 물리면 무탈하리라.
[左: 물릴 좌. 次: 숙영지, 숙소, 병영 차]

좌(左)는 왼쪽 할 때, 물리다, 차는 일 ₩차 이차 할 때도 쓰이고 군대용어로는 '차次'는 3일 이상 숙영하는 숙영지나 그런 막사(병영)를 말한다.[27] 하루 묵으면, 사(師), 이틀은 신(信), 삼일 이상은 차(次)라고 불렀다. 이것을 36계 전술에서 36번째 계를 설명할 때 師左次 无咎 상대방의 군대가 너무 세서 우리가 약할 때 세 가지로 분석하죠. 싸우면 지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반절 분쇄될 수 있고 도망가면 줄행랑을 놓으면 온전히 유지되어서 다음에 싸울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군대가 열세 일 때는 뺑소니가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인용한다.

27) 『春秋左氏傳(上)』 莊公 3年, 151-2쪽, "凡出師 一宿爲舍, 再宿爲信, 過信爲次"

六五. 田有禽. 利執言 无咎. 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
육오. 밭에 짐승이 있도다. 서언誓言을 행하니 이롭고 탈이 없으리라. 장자는 군사를 잘 이끌었도다. 그러나 아우들은 신주를 싣고 출전하여 그대로 고집하니 흉하리라.

[禽: 날짐승 금, 짐승 금. 執: 잡을 집, 붙들(저지할) 집, 시행할 집, 집행할 집, 맡을 집, 집필할(지을) 집. 言: 말씀 언, 명(정령) 언, 서언(誓言) 언. 帥: 잘 이끌 솔, 모범(본보기) 솔]

이 사건은 장자는 무왕이나 그의 동생 주공이고 제자는 무공의 아우인 두명의 동생들을 가리킨다. 이들이 무왕이 죽은 뒤에 이 효는 문왕의 장자인 무왕의 동정東征 고사와 나중에 무왕이 죽자 난을 일으킨 그의 삼사제三四弟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의 내란사건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장자'까지의 효사는 주왕紂王의 학정에 대해 동정군東征軍을 일으킨 무왕이 출정에 즈음해 발표한 일련의 서언誓言,[28] 상중喪中으로 말미암은 맹진 회군回軍, 탈상脫喪 후 인륜적 출전과 지휘('帥師') 등을 함의하고 있다.[29]

반면, 아우들의 이야기는 무왕의 상중에 난을 일으켜 신주를 싣고 출전하는 반反인륜을 그리고 있다. 무왕은 문왕이 서거한 해(B.C. 1135)에 주왕을 타도하러 부왕父王 상중에 신주를 싣고 출병했다가 도중에 효孝를 상기시킨 백이와 숙제의 간언이 있어 맹진에서 회군한 바 있다.

마침내 삼년상을 마친 B.C. 1133년 무왕은 주왕의 패란이 극에 달하자 동정東征을 결행하면서 「태서」 3편과 「목서」 1편 등 일련의 서언誓言을 행하여 동참한 제후와 병사들의 사기를 고무하는 한편, 이로써 대명大命을 가로막는 미련과 회유를 깨끗이 청소해 군기를 엄정히 했다. 무왕은 이렇게 '군사를 모범적으로 잘 이끈' 결과 무사히 주왕을 멸할 수 있었다. 장자(무왕)가 군대를 잘 이끈 것에 대해 공자는 '중도中道로 행했기 때문이다(象曰, 長子帥師, 以中行也)'라고 해설하고 있다.

B.C. 1115년 무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어린 성왕成王이 즉위한 뒤 무왕의 바로 아래 동생인 주공이 섭정을 했다. 그러자 관숙과 채숙은 주공이 어린 왕을 해칠 것이라고 의심하며 주공을 모함하는 말을 퍼트렸다. 이에 성왕도 주공을 의심하는 눈치가 보이자 주공은 이를 피해 2년 동안 동쪽에 은둔해 살았다.

금등金縢을 여는 사건[30]을 기점으로 왕의 의심이 풀려 주공을 다시 불러들이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관숙과 채숙이 주紂의 아들 무경武庚과 함께 무왕의 상중(B.C. 1113년)에 난을 일으켰다. 금등을 여는 사건은 무왕이 아팠을 때 주공이 하늘에 간절히 기도한 곽이예요. 무왕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차라리 내가 그 병을 앓고 무왕이 나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실제로 일정기간 병이 호전돼요. 금등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간절한 충성스런 마음이 입증이 되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삼촌들의 말에 흔들리다가 주공을 신뢰하게 되어 불러 올려 나머지 삼촌들을 평정하도록 전권을 위임하죠.

28) 『書經』「泰誓」 및 「牧誓」 참조.
29) 司馬遷, 『史記本紀』「周本紀」 참조.
30) 『書經』「金縢」 참조.

이것은 '무왕의 신주를 싣고 상중출병을 한' 셈이다. 정흉貞凶, 바르더라고 흉하죠. 성왕은 제후들을 불러 모아 대고大誥하고 이 반인륜적 반란군을 진압한 후, 관숙과 무경을 베고 채숙을 귀양 보냈다. 무경은 폭군 주(紂)의 아들인데 그를 임명하고 관숙 채숙을 보내 감시하도록 했는데 무경과 한패가 되어 반란을 일으켰죠. 무경을 베고 관숙 채숙을 베고 무경대신 그 땅에 미자를 봉해서 송나라의 시조를 만들죠. 송나라는 은나라를 잇는 땅이다.

공자도 이 '신주를 실은' 상중출병을 "군사를 부림이 당치 않다(象曰, 弟子輿尸, 使不當也)"고 보았다. '전유금田有禽'의 전田은 밭, 사냥터이고, 금禽은 야수, 금수로서 패란자悖亂者를 상징하니, '전유금田有禽'은 내부에서 패란자가 생겨났다는 말이다. 따라서 야수가 외부에서 경작지 안으로 침입한 것, 즉 적침敵侵으로 새기고 육오 효사를 적침을 막는 방어적 효사로 보는 여러 전통적 해석들[31]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집언利執言'도 여러 해석이 난무하나[32] '언言'을 '말씀', '명령', '서언誓言'으로 새기고 '집執'을 '시행하다', '집행하다', '집필하다'로 새겨 '(명령의) 말을 집행하니 이롭다', '서언을 행하니 이롭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실증서례에 의하면 '언言'은 방해물을 제거하는 '명령'이나 '선언' 혹은 방해자(음해세력)를 비판하는 '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빌헬름은 '언言'을 허사로 보고 '이집언利執言'을 '붙잡는 것이 이로우리라'로 새기는데,[33] 별다른 근거가 없고 또 서례에도 반한다. 한편, '장자長子'는 맏형, 즉 괘사의 '장인丈人'이나 올바르고 노련한 베테랑, 바른 전문가를 뜻한다. 반면, '제자弟子'는 바르지 못한 아우들, 요사스럽고 열등한 아마추어, 그릇된 야심을 품은 초보자를 뜻한다.

서례에서는 어떤 사람이 승진 여부를 두고 이 효를 얻었는데, 그를 음해하는 내부의 방해꾼 때문에 승진이 어려웠다(田有禽). 충심의 설득과 엄중한 협박의 말을 집행해 이 방해꾼을 다스리고 정리한 뒤에야(利執言) 무사히 승진할 수 있었다(无咎).

아주 사소한 일에서 어떤 사람이 참새를 잡으려고 체를 받쳐놓고 쌀을 뿌리고 멀리서 당기면 엎어지게 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안잡혀 괘를 뽑았더니 이게 나왔어. 담 넘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시끄럽게 해서 놀래서 들어가지 않고 참새들이 예민하게 재빠르게 해서 못 잡았어요. 할아버지에게 말로 쫓아버린 후에 안심하고 있을 때 여러 마리 잡았다.

上六. 大君有命 開國承家. 小人勿用.

상육. 대군이 명을 내려 개국승가를 하는 상이로다. 소인은 쓰지 말라.

[承: 받을(받들) 승, 이을 승]

---

31) 程頤, 『伊川易傳』; 朱熹, 『周易本義』; Wilhelm, *I Ging*, 52쪽; Huang, *The Complete I Ching*, 93쪽 등.

32) 정이는 '말씀을 받드는 것(奉辭)'으로, 주희는 뜻 없는 어조사로 보았다. 程頤, 『伊川易傳』; 朱熹, 『周易本義』. 후앙과 빌헬름도 어조사로 보았다. Huang, *The Complete I Ching*, 91쪽; Wilhelm, *I Ging*, 51쪽. 다만 블로펄드는 '言'을 '말(speech)'로 보고 '利執言'을 '실수를 피하기 위해 말을 막아야 한다'로 영역했다. Blofeld, *I Ching*, 103쪽. 고형은 특이하게 '言'을 長江과 淮水에서 나는 노란 새인 '焉鳥'로 해석했다. 高亨, 『周易古經今注』, 26-7쪽. 둘 다 엉뚱한 해석으로 여겨진다.

33) Wilhelm, *I Ging*, 51쪽.

대군大君은 천자, 큰 임금이 개국開國, 나라를 준다. 제후를 임명하는 거죠. 제후의 나라는 국, 천자의 나라는 천하예요. 경대부의 땅은 가(家), 제후에게 봉토와 봉토를 주어 제후국을 열게 하고 承家경대부들에게는 땅을 주어 가문을 열수 있게 한다.

어떤 어린이가 괘를 뽑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첫 번째 뽑은 괘가 상육(上六)예요. 평생의 의미를 봤을 때 50이 넘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제후를 임명하고 경대부를 땅을 봉할 지위에 갈 수 있다. 창업해서 지부장들을 임명하는 것이죠. 지부장이 임명하는 것이 승가예요. 맞춰서 해석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정권을 세울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냥 물었어요. 소인무용이 나와서 너는 어려서 안 되겠다 했죠. 개국승가開國承家를 옥편의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괘는 정치인이 받으면 정당을 만들거나 나라를 세우는 중심인물이 된다. 유력한 경제인이 이 괘를 받으면 장차 큰 가문을 창설하거나 (대)기업과 그룹을 창설한다. 50세 이상의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 효를 받으면, 국가원수나 이사회, 기타 인사권자에 의해 총리, 장관, 기업 사장, 기타 단체의 장에 임명되거나, 장차 50세가 되면 스스로 나라나 큰 정당, 기업을 창설, 관할하는 최고 권력자로 부상한다. 그러나 소인배(일반인)나 어린이, 청소년 등이 받으면 흉하다. 가령 초등학생이 회장 출마를 서해 이 효를 받으면 낙선한다. 인생운이면 50이 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50이 될 수 없죠.

제 12 강 : 수지비水地比 와 지풍승地風升

◆ 1교시 : ䷇ 수지비水地比

▲䷇ 수지비水地比

比. 吉. 原筮元永貞 无咎. 不寧方來. 後夫凶.

친밀·친애의 상이로다. 길하도다. 원래의 서筮가 아주 길게 정고貞固하면 무탈하리라. 불순한 자가 바야흐로 오리라. 나중의 사내는 흉하리라.

初六. 有孚比之 无咎. 有孚盈缶 終來 有它 吉.

(처음에) 믿음성 있게 그를 친애하니 무탈하도다. 정성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니 끝이 오면 다른 일에서 길하리라.

六二. 比之自內. 貞吉.

안으로부터 그를 친애하도다. 바르면 길하리라.

六三. 比之匪人.

그 나쁜 사람을 친애하도다.

六四. 外比之. 貞吉.

밖에서 그를 친애하도다. 바르니 길하리라.

九五. 顯比. 王用三驅 失前禽 邑人不誡. 吉.

드러나게 친애하도다. 왕이 삼면에서 몰면서 앞으로 마주 달려오는 짐승을 놓아주니 읍인邑人들이 경계하지 않도다. 길하리라.

上六. 比之无首 凶.

그를 친애하니 머리가 없도다. 흉하리라.

比. 吉. 原筮元永貞 无咎. 不寧方來. 後夫凶.

친밀·친애의 상이로다. 길하도다. 원래의 서筮가 아주 길게 정고貞固하면 무탈하리라. 불순한 자가 바야흐로 오리라. 나중의 사내는 흉하리라.

[比: 견줄 비, 비슷할 비, 친밀할 비, 가까울(친근할) 비]

이것의 뜻은 그렇게 논란이 있진 않아요. 다만 不寧方來(불녕방래)가 뭐냐. 모임으로 이 괘를 받으면 좋아요.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 그런데 不寧方來, 꼭 한 두 사람의 문제아가 있어요. 편안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이 있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가고 새로 오면 뒤에 사람이 안 좋아요. 후부後夫는 뒤에 오는 사람이에요. 여섯 효 경우 비괘에서 여러 개가 동하면 첫 번째는 나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내편을 가리키고 세 번째는 중간사람, 사효는 상대편을 가리킨다.

初六. 有孚比之 无咎. 有孚盈缶 終來 有它 吉.

초육. (처음에) 믿음성 있게 그를 친애하니 무탈하도다. 정성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니 끝이 오면 다른 일에서 길하리라.

[孚: 미쁠(믿음직스러울, 믿음성 있을) 부, 믿을 부, 포로, 벌(罰) 부(=俘), 알 깔 부(=孵), 뜰 부(=浮). 盈: (가득) 찰 영. 缶: 장군(물을 담거나 타악기로 쓰는 옹기그릇의 일종) 부. 它: 다를 타(=他), 뱀 타(=蛇)]

한문에 대한 해석은 건너뛰고 서례가 많지 않아서 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공자는 "비괘의 초육은 다른 곳(일)에서 길한 것이다(象曰, 比之初六, 有它吉也)"라고 주석한다. 자기가 물은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서 길하게 되어서 영향을 받는 식으로.

六二. 比之自內. 貞吉.

육이. 안으로부터 그를 친애하도다. 바르면 길하리라.

가령 어느 정당의 총선을 물었다면 이 효가 나왔다. 한나라당이 받았으면 다른 데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충청도나 강원도로 하려면 해롭다는 뜻이에요. 자기 거라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지키면 길해서 선방하거나 좀 더 알차게 수확할 수 있다. 다른 서례는 쓸 수 없어서 안 썼는데 어떤 청소년이 자꾸 말라서 아버지가 걱정해서 괘를 뽑았더니 이게 나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자위를 많이 해서 의사한테 데리고 가서 훈계를 하고 안정시킨 적 있어요.

六三. 比之匪人.
육삼. 그 나쁜 사람을 친애하도다.

어울리는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서례에 의하면, 한 부인이 남편의 방탕한 생활을 서해 이 효를 얻었다. 그녀는 남편을 나쁜 친구들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먼 동네로 이사를 갔다. 이후 남편은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고 곧 아내의 품으로 돌아왔다.

六四. 外比之. 貞吉.
육사. 밖에서 그를 친애하도다. 바르니 길하리라.

뜻으로는 논란이 없고요. 항상 효의 실질적인 규모와 강도가 중요한데 서례가 중요하죠. 사주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와줄 것이다. 그 경우가 해당돼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도와줘서 빈털터리도 일이 잘 풀리는 경우예요.

처지가 어려운 정치인도 바라던 군주(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를 만나 측근 참모로 발탁된다. 가령 2006년 6월 필자가 어느 대통령 후보 예비주자가 요구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그 보고서의 운세를 서하여 이 효를 얻었다. 후보는 이 보고서를 읽은 후 필자를 은밀히 불러 친견親見하고 측근 참모로 대우했다. 또 땡전 한 푼 없이 망한 부인이 연운을 서해 이 효를 얻었는데, 잘사는 고교 시절 친구가 1억을 대겠으니 자기 집 근처로 와서 장사하라는 '집요한' 제안을 받았다.

바깥에서 도와줘서 이걸 받고 외부적인 일을 하면 잘돼요. 성공적이에요.

九五. 顯比. 王用三驅 失前禽 邑人不誡. 吉.
구오. 드러나게 친애하도다. 왕이 삼면에서 몰면서 앞으로 마주 달려오는 짐승을 놓아주니 읍인邑人들이 경계하지 않도다. 길하리라.

[顯: 나타날(낼) 현, 드러날(낼) 현. 驅: 몰(몰이할) 구, 말달릴 구. 失: 버릴 (포기할) 실(棄也). 前: 앞으로 나아갈(마주 올) 전. 逆: 맞을 역(迎也), 돌(선회할) 역(旋回也), 거스를 역. 順: 거스르지 않을 순, ~을 따라 ~으로 갈 순. 誡: 경계할 계, 조심할 계, 혼낼(훈계할) 계]

구오는 엄청 오래된 해석서로 누적된 효예요. 이 효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해서 해독했는데 '현비顯比'는 '친애를 (밖으로) 드러내다', '(밖으로) 드러나게 친애하다'는 뜻이다. 왕만이 밖으로 드러내서 친애할 수 있는데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는데 왕이 아닌 사람이 친근한 관계를 드러내면 손해나요. 일반 소인이 받으면 손해요. 지도자가 받아야 돼요.

'왕용삼구王用三驅 실전금失前禽'의 '용用'자는 용무用務, 용건用件, 용의用意 등의 용례에서와 같이 '(행)하다'는 뜻이다. '구驅'는 '말달릴 구', '몰(몰이할) 구'자이므로 '삼구三驅'는 '삼면에서 몰다'는 뜻이고 '왕용삼구王用三驅'는 '왕이 (사람들을 풀어 사냥감을) 삼면에서 모는 것'

을 뜻한다. '실失'은 여기서 '버리다(舍)' 또는 '놓아주다(棄)'는 뜻이고, '전前'은 '앞으로 마주 올 전'자다.

따라서 '실전금失前禽'은 ('코앞의 짐승을 놓치다'가 아니라) 몰이에 쫓겨 왕을 등진 채 달아나는 짐승을 쏘아 잡고 '(왕을 등지고 도망치다가 180도 방향을 돌이켜) 왕 앞쪽으로 마주 달려오는 짐승은 놓아준다'는 뜻이다. 빌헬름은 '실失'을 '버리다(verzichten)'로 독역했고, 왕필의 『주역주』를 영역한 린은 '실失'을 '놓아주다(forgo)'로, '전금前禽'을 '그(왕)의 앞쪽으로 달려오는 것들(those that come before him)'로 영역한다.[1)]

왕이 등장한 것은 구오가 존위의 효이기 때문이다. 구오의 존위는 양강陽剛한 데다 또 정중正中하기도 하고 또 육이와 정응正應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마주 오는 짐승'을 친밀히 느껴 놓아주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읍인들이 이를 보고 왕을 경계하지 않고 친하게 여기며 따르는 것은, 배신하고 떠나가는 자만을 징벌하고 읍인들처럼 왕에게 다가와 충성하는 자는 친애할 것임을 왕의 사냥 방법을 보고 실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왕에게도 길하다. 읍인들이 믿고 따르면 임금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공자는 일찍이 "친애를 드러냄이 길한 것은 자리가 바르고 적중하기 때문이다. 몸을 돌려 마주 오는 놈을 버리고 몰이에 순응해 달아나는 놈을 취한다는 것은 (왕) 앞으로 마주 달려오는 짐승을 놓아준다는 말이다. 읍인이 경계하지 않는 것은 윗사람의 사람 부림이 적중하기 때문이다(象曰, 顯比之吉, 位正中也. 舍逆取順, 失前禽也. 邑人不誡, 上使中也)"라고 주석하고 있다.

여기서 공자 주석의 '역逆'자는 '돌(선회할) 역', '되돌아올 역'자이고, '순順'은 '불역不逆', 즉 '돌지(되돌아오지) 않는 것', 말하자면 몰이에 순응해 달아나는 것을 뜻한다. 린은 '역逆'자를 '급선회하여 돌아오다(double back)'로, '순順'자를 '몰이에 따라 달아나다(go with the drive)'로 정확하게 영역했다.[2)] 따라서 '사역취순舍逆取順'은 '되돌아 거슬러오는 놈은 놓아주고 몰이에 순응해 달아나는 놈은 쫓아가 잡는다'는 뜻이다.

구오 효사와 공자 주석의 이 의미구조를 왕필은 '삼구지례三驅之禮'로 갈파한 바 있다. 왕필은 "무릇 삼구지례三驅之禮란 짐승이 길을 돌이켜 나에게 마주 오면 놓아주고 나를 등지고 달아나면 쏘아 잡는 것(禽逆來趣己, 則舍之, 背己而走, 則射之)이니, 이것은 오는 것을 사랑하고 가는 것을 미워하는 것(愛其來而惡於去也)이다. 그러므로 사냥을 시행하면 늘 앞쪽으로 마주 달려오는 짐승을 놓아줌으로써 친애를 드러내며 왕위에 거하면 이는 삼구의 도道를 쓰는 자이다.

이런 까닭에 '왕용삼구王用三驅 실전금失前禽'이라 한 것이다. 이렇게 중정中正을 쓰므로 정벌과 토벌에 상도常道가 있으니 정벌 대상에 자기 읍邑을 넣지 않고 움직이면 반드시 반도叛徒만을 토벌한다. 그래서 읍인이 근심걱정이 없다.

정이와 주희는 효사의 '삼구三驅'와 '실전금失前禽'의 의미구조 및 공자와 왕필의 적중한 주석

1) Wilhelm, *I Ging*, 55쪽; Lynn, *The Classic of Changes*, 187쪽.
2) Lynn, *The Classic of Changes*, 188쪽.

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이들은 심지어 공자 주석의 '사역취순舍逆取順'도 '거스르는 놈을 놓아주고 순한 놈을 취한다'라고 번역함으로써 동서양에 만연한 오역과 그릇된 해석의 조종祖宗이 되고 말았다.[3)]

증거를 주석에 설명하는데 정이는 '成湯祝網'을 원용하여 '王用三驅, 失前禽'을 해석하고 있다. 程頤, 『伊川易傳』, 304-5쪽. 그러나 『史記』에 의하면, 탕왕이 들에서 四面에 그물을 매고 '천하 사방으로부터 다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라고 축원하는 것을 보고 '허! 씨를 말리겠도다' 라고 말하고는 삼면의 그물을 제거하고 축원하기를, '좌로 가고 싶은 놈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은 놈은 우로 가라. 내 명을 안 듣는 놈만 내 그물로 들어오라!'고 했다. 따라서 이 '成湯祝網'과 '王用三驅, 失前禽'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다. '王用三驅'가 짐승을 삼면(중앙의 왕과 좌우의 군사들)에서 모는 반면, 탕왕의 '그물축원'은 세 면의 그물을 제거하고 나머지 한 면의 그물만 남겨두기 때문이다. 주희, 빌헬름, 후앙, 클리어리 등 동서양의 많은 주석자들은 모두 정이의 저 그릇된 해석을 따랐다. 朱熹, 『周易本義』; Wilhelm, *I Ging*, 55쪽; 391쪽; Huang, *The Complete I Ching*, 100쪽; Cleary, *I Ching: The Book of Change*, 19쪽.

주희는 『주자어류』에서 좀 색다른 설명을 시도하지만 이것도 그릇된 것이다. 고대 사냥꾼은 붉은 기로 문을 세우고 풀로 긴 포위망을 만들어 문 쪽에서 망 속으로 짐승을 몰아넣었다. 이때 '내 앞으로' 달려들어 문 쪽으로 탈출하는 놈은 놓아주고, 몰이에 쫓겨 망 안으로 들어온 놈만 사냥했다는 것이다. "前禽으로는 가는 놈은 좇지 않는 것을 비유하고, 잡는다는 것은 오면 이를 취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以前禽比去者不追, 獲者譬來則取之)." 朱熹, 『朱子語類』, 1754쪽. 빌헬름의 해설도 유사하다. 또 "왕은 잡기 어려운 놈들을 내버려두고 만만한 놈들을 추적했음에도 제 앞에서 사냥감을 놓친다"라고 풀이한 블로펠드의 해석은 더욱 그릇된 것이다. Blofeld, *I Ching*, 105쪽.

종합하면 '왕용삼구王用三驅 실전금失前禽'은 왕이 중앙(자기 쪽)과 좌우의 삼면에서 사냥감을 몰아 등을 보이며 달아나는 짐승을 쏘아 잡고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방향을 급선회하여 왕 앞으로 거슬러오는 짐승은 놓아주는 것이다. '왕용삼구王用三驅'는 짐승들에게 달아날 길을 터주는 식의 인덕仁德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자기에게 오는 놈만 놓아주고

---

3) 정이는 '成湯祝網'을 원용하여 '王用三驅, 失前禽'을 해석하고 있다. 程頤, 『伊川易傳』, 304-5쪽. 그러나 『史記』에 의하면, 탕왕이 들에서 四面에 그물을 매고 '천하 사방으로부터 다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라고 축원하는 것을 보고 '허! 씨를 말리겠도다'라고 말하고는 삼면의 그물을 제거하고 축원하기를, '좌로 가고 싶은 놈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은 놈은 우로 가라. 내 명을 안 듣는 놈만 내 그물로 들어오라!'고 했다. 司馬遷, 『史記本紀』, 56쪽. 따라서 이 '成湯祝網'과 '王用三驅, 失前禽'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다. '王用三驅'가 짐승을 삼면(중앙의 왕과 좌우의 군사들)에서 모는 반면, 탕왕의 '그물축원'은 세 면의 그물을 제거하고 나머지 한 면의 그물만 남겨두기 때문이다. 주희, 빌헬름, 후앙, 클리어리 등 동서양의 많은 주석자들은 모두 정이의 저 그릇된 해석을 따랐다. 朱熹, 『周易本義』; Wilhelm, *I Ging*, 55쪽; 391쪽; Huang, *The Complete I Ching*, 100쪽; Cleary, *I Ching: The Book of Change*, 19쪽. 주희는 『주자어류』에서 좀 색다른 설명을 시도하지만 이것도 그릇된 것이다. 고대 사냥꾼은 붉은 기로 문을 세우고 풀로 긴 포위망을 만들어 문 쪽에서 망 속으로 짐승을 몰아넣었다. 이때 '내 앞으로' 달려들어 문 쪽으로 탈출하는 놈은 놓아주고, 몰이에 쫓겨 망 안으로 들어온 놈만 사냥했다는 것이다. "前禽으로는 가는 놈은 좇지 않는 것을 비유하고, 잡는다는 것은 오면 이를 취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以前禽比去者不追, 獲者譬來則取之)." 朱熹, 『朱子語類』, 1754쪽. 빌헬름의 해설도 유사하다. 또 "왕은 잡기 어려운 놈들을 내버려두고 만만한 놈들을 추적했음에도 제 앞에서 사냥감을 놓친다"라고 풀이한 블로펠드의 해석은 더욱 그릇된 것이다. Blofeld, *I Ching*, 105쪽.

자기를 등지고 달아나는 놈들은 다 사냥하는 친애와 정벌의 구분을 상징한다.

이 구오는 기본적으로 길효다. 그러나 구오가 존위(왕)의 행동이기 때문에 서지자가 왕과 대인군자 또는 국가나 정당 등 공익단체인 경우에만 길하다. 이 효를 대인(지도층인사)이 받으면, 따르는 아랫사람들을 친애하여 읍인(지지기반)을 넓히고 자기를 등지는 자들을 제압하여 오히려 인심을 얻으니(顯比) 길한 것이다.

반면, 소인의 경우에는 읍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은 길하고, 읍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왕의 법과 기준에 미달한) 사람이나 왕처럼 구는 사람은 흉하여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 왕처럼 굴며 사익이나 사사로운 연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人事를 주무르는 일반인들의 경우, '현비顯比'는 공무公務에서 이런 연줄과 사익이 들통나 곤란에 빠지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또 당국(왕)이 제시하는 법과 기준(커트라인)에 미달하거나 이를 두려워하면서도 당국의 인정을 받으려는 소인의 경우에도 구오九五는 흉하다. 이런 사람들은 등록증, 인허가증, 등기, 석방 명령 등을 얻지 못하거나 낙방, 낙선 등의 징벌을 받는다. 읍인처럼 충직한 일반인은 다가오지만, 불충한 일반인의 경우 '경계하여' 달아나는(증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어떤 사장이 눈독을 들일 만큼 실력과 미모가 뛰어난 신입사원 지원자를 두고 서해 이 효를 얻으면, 이 지원자는 달아난다. 이 지원자는 아직 '읍인'이 아닌 데다 실력과 미모가 워낙 빼어나서 이 직장에 별 관심이 없기(충성심이 없기) 때문이다. 또 실력이 입시 커트라인에 미달하거나 턱걸이 수준에 있는 불안한 수험생이 입사·입학시험을 두고 이 효를 얻으면 낙방한다.

등지고 멀리 가는 자는 나빠요. 대표적으로 탈당해서 출마하면 등진 거죠. 낙선합니다. 선거 입후보자를 서해 이 효를 얻으면, 동지애의 공적 상도常道를 무시하고 출마하면 낙선한다. 2005년 10월 26일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 출마한 홍사덕 후보의 경기 광주 재보선 운세를 서해 이 효를 얻었는데, 결과는 낙선이었다. 당을 등졌기 때문이다.

上六. 比之无首 凶.
상육. 그를 친애하니 머리가 없도다. 흉하리라.

결말이 없다. 우두머리가 없다. 다양한 풀이가 타당하다. 서례에서는 결말이 없어서 흉하다. 아무리 친해도 결말이 없어서 흉하다. 어려운 효사는 아니다.

◆2교시 : ䷭ 지풍승地風升

▲ ䷭ 지풍승地風升 풀이

46번 지풍승地風升 괘는 64괘중에 가장 좋은 괘입니다. 받으면 아주 좋아요. 다만 단서가

한두 개 있다. 지풍승 괘는 아래의 바람이 위의 순한 곤한 바람을 뚫고 가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백서주역』은 '승升'괘를 아예 '등登'으로 표기하고 있다.[4] 뜻은 똑같아요. 오를 승 오를 등, 승은 되 승으로도 쓰는데 오를 승이죠. 그러면 지풍승은 일단은 사람을 등용한다. 발탁한다는 등용문의 뜻이에요. 등이 더 가깝죠. 승도 등의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升. 元亨. 用見大人. 勿恤. 南征吉.

오르도다. 크게 형통하리라. 대인을 찾아뵙는 것이 이로우리라. 걱정하지 말라. 남정南征하면 길하리라.

初六. 允升. 大吉.

지지 받아 오르도다. 크게 길하리라.

九二. 孚乃利用禴. 无咎.

참되고 믿음이 있으니 간소한 제사를 올려도 도리어 이로우리라. 허물이 없으리라.

九三. 升虛邑.

빈 도읍에 오르도다.

六四. 王用亨于岐山. 吉 无咎.

왕이 기산에서 제향하도다. 길하고 탈이 없으리라.

六五. 貞吉. 升階.

곧으면 길하리라. 섬돌을 오르도다.

上六. 冥升. 利于不息之貞.

어둠 속에서 오르도다. 쉬지 않고 곧고 바름에 이로움이 있으리라.

升. 元亨. 用見大人. 勿恤. 南征吉.

오르도다. 크게 형통하리라. 대인을 찾아뵙는 것이 이로우리라. 걱정하지 말라. 남정南征하면 길하리라.

[用: 이로울 용(=利). 升: 오를 승(=昇), 되 승]

용견대인用見大人이 이견대인利見大人과 같다. 괘사의 내용은 맞거나 적중하지 않은데 동효 없이 승을 받으면 아주 좋아요. 무(無) 동효(動爻)는 일을 하는데 두 번째 좋은데 단서는 무동효의 승괘는 인사문제는 물은 날짜의 달에 승진이 이루어지지만 발표되는 것은 다음 달에 이루어져요. 답답한 면이 있어요. 동효가 없는 것은 에너지가 약하죠.

아주 좋은 괘인데 좋은 것도 강도가 달라요. 가장 좋은 것은 ① 초효 ② 무동효 ③ 삼효 ④ 이효 ⑤ 오효 ⑥ 상효가 앞선 순번대로 길하다. 상효가 가장 조건부가 심해요. 영원불멸의 일에만 이롭기 때문에 다만, 승진 인사를 두고 무동효 승 괘를 받으면 물은 날짜나 달에 승진 결정이 이루어지나 공표는 다음날이나 다음 달에 이루어진다. 또 상효를 받으면 득실을 초월한 영원하고 보편적 진리나 정의의 문제에서는 길하나 그렇지 않은 문제에서는 전망이

4) 鄧球柏, 『白話帛書周易』, 102쪽; 廖名春, 『馬王堆帛書 周易經傳釋文』, 9쪽; 邢文, 『帛書周易研究』, 36쪽.

어둡다.

初六. 允升. 大吉.
초육. 지지 받아 오르도다. 크게 길하리라.

[允: 동의할 윤, 진실로 윤]

'윤允'은 '진실로 믿다', '믿음직스럽다(믿음직스러워하다)', '승락하다(지지하다)'는 뜻이다.[1] 밑에서 받들어서 지지하는 것, 지지받아 오르도다 크게 길하리라 원길도 아니고 대길이므로 아주 좋은 효다. 내가 뽑아본 것 중에 1,2번 뽑고 못 뽑았는데 적중도도 높다. 백퍼센트에 가까운 적중도이다.

九二. 孚乃利用禴. 无咎.
구이. 참되고 믿음이 있으니 간소한 제사를 올려도 도리어 이로우리라. 허물이 없으리라.

[禴: 종묘의 작은 봄·여름 제사 약, 약식 제사 약. 乃: 이에 내, 비로소(그런 뒤에야) 내, 그리하여 내, 도리어 내, 겨우~뿐(다만) 내, 바로(정말로·그야말로) 내]

'약禴'은 종묘에서 봄과 여름에 올리는 간소한 약식 제사를 말한다. 대생大牲을 쓰지 않는다. 코끼리, 소, 말을 올리는 것을 대생이라고 하고 돼지, 물고기, 닭은 대생이 아닌데 그런 걸 올려서 돼지나 닭 잡아서 올리는 것을 '약제禴祭'라고 합니다. 농번기에 해당되므로 농민의 처지를 생각해서 호화롭게 제사지내지 않는 거죠. 때에 맞춰야 하는 것이므로. 기제 괘에서 설명했죠. 東隣殺牛 不如西隣之禴祭 實受其福.(동린살우 불여서린지약제 실수기복) 동쪽 이웃은 소를 잡아 제사지내도 서쪽 이웃이 약제禴祭를 지내 알차게 복을 받는 것만 못하리라. 실제로는 복을 서쪽이웃이 받으리라.

길(吉)의 다섯 개 중에서는 가장 빠른건데 효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꼭 돈이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상당한 돈이 들어요. 연운으로 받으면 많은 돈이 들어와요. 1억이 들어오고 달로 받으면 수백만 원이 들어와요. 적중도는 백프로예요. 이번 달 재운이 이건데 백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불법적인 돈은 아니고 합법적인 돈인데, 작년에 동짓날 뽑으면서 11월 달에는 돈이 들어오는 구나. 알았어요. 음력으로 11월로 바뀌는 날 그 돈을 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딱 하루사이에 어제까지는 아무소리 없더니. 대단히 적중도가 높다. 어떤 때는 백만 원, 2백만 원. 이 괘가 나오면 꼭 받아요. 또 일에 관련되어 돈에 관한 재운을 묻지 않았는데 이 괘를 받으면 돈이 따라와서 뭐가 이루어져요. 누구든지 받으면 좋은 효죠. 수십 번 뽑아서 받으면 소용없고. 한 번에 뽑아야죠.

1) 그러나 鄧球柏은 '계속하다(繼續)', '전진하다(前進)'는 뜻으로 풀고 있다. 鄧球柏, 『白話帛書周易』, 102쪽.

九三. 升虛邑.
구삼. 빈 도읍에 오르도다.

센터에 올라가는 건데, 아무 점사가 없죠. 길(吉)하니 무구니 없어요. 점사가 비었는데 조건 중에 고려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목표로 하는 일은 강력한 저항세력이 없어져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승이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자기가 한 단계 벼슬이 높아지거나 물리적으로 11층으로 12층으로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다른 부서로 승진되면서 올라간다. 빈 집이니까 저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끝에 불분명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모호해서 골치아 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력한 경쟁자와 공천 경쟁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정치자금법이든 비리와 관련된 자는 공천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졌죠. 강력한 공천경쟁자가 사라졌어. 공천신청자가 혼자가 되었어. 그 사람이 괘를 뽑았더니 이것을 나왔어. 빈 집에 그냥 들어갔어.

그런데 결말이 상대방을 한나라당을 이기거나 많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어. 끝이 흐지부지해서 공천자는 되었지만 그 자리를 못 지켰어. 어떤 경우는 부산에 발령나야하는데 그곳에 경쟁자가 한 명도 없겠다. 그런데 결말을 알 수 없다. 지금도 발령이 안 났어. 벽에 인사가 공고되지 않으면 의미 없죠. 땅땅했는데 계속 공표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또 어떤 이는 실지로 올라가서 원하는 센터의 장이 되었는데 계속 사법 소송이 나서 지금도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무구无咎라고 나오던지 대길(大吉)이라고 나오던지 그것이 아니니까 결말이 불투명해요. 그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六四. 王用亨于岐山. 吉 无咎.
육사. 왕이 기산에서 제향하도다. 길하고 탈이 없으리라.

[用: (잔치, 제사 등을) 시행할(베풀) 용, (제사를) 지낼(올릴) 용. 亨: 제향할 형(=享)]

점사가 나와 있으니까. 길(吉)하고 무탈하다고 했어요. 조건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일반 소인이 받으면 감당하기 힘들다. 임금이 등장했으니까. 임금이 제사에 지내는 것은 소인도 괜찮죠. 오늘날 대통령이 제사재내는 일이 무엇이죠. 8 15 경축 개천절 행사를 참가하는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나쁘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 않은 경우 평범한 사람이 받으면 찾아먹지 못한다.

六五. 貞吉. 升階.
육오. 곧으면 길하리라. 섬돌을 오르도다.

[階: 섬돌(층계) 계, 품계 계. 瑁: 서옥(瑞玉) 모. 阼: 주인이 당(堂)에 올라가는 동편 섬돌 조, 보위(제위) 조. 隮: 오를 제. 御: 들릴 어]

동편 섬돌이라는 것으로 보면 보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나라에서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괘이다. 貞吉 바르면 길하다고 해서. 탈당한 유명인사

가 있었는데 안 풀리더라구요. 결국 낙선했어요. 다시 입당하기도 힘들게 하고 공천을 어렵게 했는데 낙선했어. 바르면 길하니까 바르게 하지 않은 사람은 못 찾아먹고 바르게 한 사람만 찾아 먹는다.

上六. 冥升. 利于不息之貞.
상육. 어둠 속에서 오르도다. 쉬지 않고 곧고 바름에 이로움이 있으리라.
[息: 숨쉴 식, 쉴(그칠) 식]

바른 것에 이로움이 있는데 불멸의 끊임이 없고, 이익 득실을 초월한 것이 좋아요. 예술적, 학문적, 종교적, 영원한 정신적인일, 모든 당파를 초월한 국가전체에 관련된 공익에 관한 것은 이롭다. 기타 사적인 것에는 이롭지 않아요. 불리해요. 이런 조건부를 빼놓고는 평범한 뜻입니다.

◆3교시 : 서양과 동양의 신에 대한 관점

▲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차이

여기까지 괘 강의는 마치고요, 소크라테스는 덕을 행함으로써 행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공자는 덕행구복이라 했죠. 덕을 행해서 행복을 얻는다.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차이는 사후의 일을 소크라테스는 가정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같은 입장으로 보고요. 사후의 일을 말한 것은 기독교와 같아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문제에 나아가는데 있어서 잘 나가다가 신학적인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논리성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기모순에 빠져요. 공자는 덕행을 구복하지만 덕행을 많이 한 자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덕으로 점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고 줄이려고 했어요. 이덕희점以德羲占. 먼저 항상 선덕후점(先德後占)을 앞세우고 점을 뒤로 했다. 그런데도 덕을 행한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는 문제는 미리 아는 서(筮)를 통해 주역을 통해 미리 아는 방도로 불행을 피하는 식으로 행복론을 완성해요. 공자는 뒷부분을 지천, 하늘을 아는 문제라고 했다.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을 쳐서 아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유교신학이죠. 공자의 역학은 십익으로 표현된 공자의 역학은 신학에 해당된다. 행복론을 완성하죠.

만약 순자가 이덕대점以德代占, 덕행만 하고 점을 대처하려면 공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겪는 동일한 문제에 빠질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덕행하는 사람이 현세에서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뒤에 신이 사후에 보장해줄 것이다. 플라톤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신학학 얘기를 많이 해요. 신에 대한 얘기는 플라톤에서 신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기독교 신학의 교부철학으로 넘어가 기독교의 기본 토대가 되죠.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는데 신학적 내용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훨씬 많다. 소크

라테스는 무당이라고 봐야한다. 자기 마음속에 다이몬신이 있다고 해서 이질적인 신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중요한 원고들의 논의들 중 하나가 이질적 낯선 신을 도입했다는 것이죠. 두가지야. 낯선 신을 도입했고 젊은이를 타락시켰다. 낯선 신이 다이몬 신인데 자기 몸속에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당밖에 없죠. 신의 계시를 계속 듣는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테네의 중요한 신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아테네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잘 말하면 사제, 철학은 신학자인지 철학자인지 아주 혼효된 애매모호한 사람예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강의 제목 중에 '철학이라는 칼을 든 사제, 소크라테스', 철학이라는 칼을 든 무당, 어떤 사제가 신이 자기 몸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당 빼고는. 끊임없이 신이 말이 들리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신에 대해 기술한 양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10배 20배 많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공공연하게 델피신전의 신탁점을 치라고 해요.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의 지혜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적인 것 두 개가 있는데 인간이 이것까지 안다고 우기는 것을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거꾸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을 신에게 물어보는 것도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을 놓고 너 자신을 알라는 델피신전의 구절이 인간이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해서 잘 살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강을 건너는데 노련한 수영선수를 쓰는 것하고 초보자를 쓰는 것하고는 어떤 것하고 좋을지는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아름다운 부인과 결혼한 사람의 결말은 모른다는 것이죠. 미래 일이니까 모른다는 거죠. 신한테 물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 위정자, 국가의 정치를 하려는 자는 신한테 물어 모르는 일을 정해야한다. 전쟁 역병의 도래 풍년 흉년은 인간의 지혜를 벗어나는 거죠.

그것까지 알고 있다고 우기는 자를 쫓아다니며 모른다는 사실을 입증해요. 귀찮게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원성을 사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그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나빠서 그 차원이 아니예요. 인간의 차원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知之爲知之)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不知爲不知)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是知也). 바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알키바데스는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한단 말이야.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지혜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를 물어요. 효용이 없다.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중 초기 알키바데스 대화록 1번입니다. 2번은 위작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변호라는 책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테네의 다른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유는 자기가 무지한 줄 아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아는데 자기는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묘한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신적인 지혜를 접근할 수 있는 지혜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은연중에 소크라테스 변호론에서 전개해요. 그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켜 다수가 사형선고를 내리는 거죠. 결코 여러 명을 설득할 수 없는 소격한 낮선 논리를 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후논리가 없어요. 덕을 쌓은 것을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프리머스 왕은 트로이 전쟁에서 왕자가 50명인데 장자가 헥토르에요. 엄청난 영웅이야. 전 국민의 지지와 칭송을 받는데 50명의 왕자가 아킬레우스한테 걸려서 다 죽죠. 눈물을 흘리는데 헥토르라는 장자 왕자인데 그 장자 왕자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아킬레우스에게 기어들어가 돈 주고 시신을 찾아오죠. 그렇게 비참해져요. 프리머스라는 왕은 무지한 덕자고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했죠.

그 경우를 스스로 들어요. 그 경우는 덕행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서 덕행으로 살면 덕행은 그중에서 영원의 훌륭함으로 살면 영원한 신이 인간이 사랑해서 영원한 덕행을 하는 자를 사랑해서 신이 사랑해서 신이 주는 사랑으로 건 행운이죠. 신이 주는 행운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발점은, 덕행으로 부정하려던 것은 행운과 행복은 같지 않다. 행복은 덕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행운이 있어서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그걸 입증하려고 모든 윤리학을 전개하죠 니코모 윤리학은. 그런데 나중에 사후논리를 전개안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신이 사랑할 것이라는 말은 신이 행운을 줄 거라는 것이니까 가장 행운이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논리 속에서 붕괴돼요. 그렇다고 사후 논리를 전개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가. 옛날에는 있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신적인 요소가 모두 추방되고 우리나라가 신적인 효소가 완전히 추방했죠. 미국 돈에는 동전에 신에 대한 믿음, 영국의 신이여 여왕을 보호 하소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개 태극지의 주역 하나,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신적인 요소가 거의 추방된 과학만이 숭상된 세계에서 과연 그러한 세계의 행복과 국민과 개인의 행복을 뭘로 보장하겠어요. 속된 말로 복불복이죠. 운 좋으면 행복이고 운 나쁘면 불행한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논리는 미완성이면서 자기모순에 빠져있죠. 그런데 공공연하게 델피신저의 오라클을 권하고 주장하고 계속 인용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용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스스로 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운명은 점을 봤어요. 내가 철학자가 되어야할까에 대한 점을 17살 때 아테네에 유학 오기 전에 봤다고 해요. 스스로 델피신전의 오라클만은 신뢰할 만한 글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고 대신 형이상학에서 신학을 전개합니다. 상당히 간략한 신학인데 유일신이 전개되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는 유일신이 분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논리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결합해서 유일신 기독교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존해서 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것인데 존재인 한에서의 존재들을 다루는 거예요. 현상학에서는. “in so much as they are be a been”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존재들을 다룬다. 여기에는 유일신 개념이 들어있고 유일신 개념이 아테네의 다신론 개념을 은밀하게 넘어서는 측면이 있어요. 나중에 교부 기독교 신학의 대표적인 것이 된다.

공자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길을 취했지만 공공연하게 권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신학을 사후논리는 전개하지 않았다. 사후논리는 전개할 필요가 없었다. 점으로 알면 길하지 않으면 피해가고 안하면 되죠.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일과 관련해서 길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면 되죠. 자기에게 오랜 세월을 14년 넘게 출사를 하려고 벼슬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게 천명임을 알고 스스로 경험도 해봤지만 괘 자체도 화산려 괘, 산화비괘가 나왔으니까 벼슬하고 관련 없죠. 스스로 학문의 길로 가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끊임없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는 지혜를 다 이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애(愛)지자는 될 수 있다. 경지가 단순한 지자(知者)가 아니라 넘어서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넘어서는 애지자가 되는 문제인데 공자의 경우는 행복이 복(福)자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운 낙(樂)으로 표현된다.

영어의 pleasure 의 큰 문제가 희(喜)와 구분이 안돼. 미분화되어 있어. 쾌락설에 행복이 있느냐하는데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락과 희는 다르죠. 희(喜)는 느끼는 건데 쾌락은 느끼고 락은 즐거워함 정신적인 것, 락(樂)은 복이라는 말로 통한다. 공자가 지지자는 호지자, 호지자보다 높은 게 낙지자야. 知之者 不如好之者(지지자 불여호지자) 好之者 不如樂之者(호지자 불여락지자)논리를 보세요. 호지자는 애지자나 같아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이 단계 애(愛)지의 단계까지 온 거예요. 공자는 낙(樂)지의 단계까지 온 거예요. 낙지자. 공자는 주역을 통해 낙지자가 되는 것. 지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좋아한다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호지자好之者는 민(敏)과 관련되어 있다. 공자가 我非生而知之者(아비생이지지자),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 好古敏以求之者也(호고민이구지자야), ‘옛것을 좋아하여 민(敏)은 힘 쓰다는 뜻이에요. 힘써 옛것을 찾고 구하는 자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옛것을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걸 알아서 재미 느낀 사람은 열심히 그걸 하죠. 애지자도 그 단계고 낙지자는 그 단계를 넘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단계, 그 자체의 경지에 올라간 것이다.

낙지자의 경지를 공자의 경우 스스로 경험했고 위대한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언도받고 독약을 먹고 죽어야 하는 불행을 당했고 플라톤은 그 스승의 불행 앞에 너무 고통과 공포를 느껴서 정치에 손도 안됐어요. 오래 살 수 있었고,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은 죄로 처형될 위기에 도망가서 1년도 못되어 죽었다.

공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74세까지 죽었는데 쓸쓸한 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명을 달리

했는데 공자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복하게 죽었다. 언제 죽을지도 일주일전에 알고 태산이 무너지는 구나. 철인이 가는구나. 들보가 움직이는 구나.

공자는 애쓰고 힘쓰는 단계도 있었지만 공자의 죽음을 애공이 노나라 임금이 애도하는 글을 썼죠. 잘 쓴 건 아니지만 정치와 최종적으로 정치의 탄압에 내몰리거나 정치와 불화관계에 있지 않았다. 아무리 정치를 못하는 위정자들도 공자를 무시하지 않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모르고 손댔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도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로서 큰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왕의 가정교사였죠. 아테네로 두 번째 돌아올 때는 엄청난 권력의 배경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왕이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반란이 바로 아테네에서 일어나서 첫 번째 타겟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칭호와 관작을 박탈하죠. 아주 불행한 말년을 맞은 것에 비하면 공자는 행복했었다.

더 서양 철학에 대해 연구하면 더 비교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로서는 두 철학을 비교하는 작업이 반절은 끝난 것 같아요. 누구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대해서는 오랫동안 봐왔고 내가 확신하는바 공자가 제시하는 길이 가장 무당적이지 않은 길이다.

무당과 주역은 어떤 점이 다르냐. 계속 신을 붙들고 늘어지고 신들린 상태에서 점을 치는 오라클이나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는 점쟁이 길과 달리 주역은 지식인이 정신통일을 통해 괘를 뽑는 것이니까 신들린 것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점잖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신학이라 생각합니다. (끝)